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남카로라이나 대학
국제 문제 연구소 편찬

국 토 통 일 원

Democracy Confronts Communism In World Affairs

Suggested Syllabus, Bibliography
and Guides for Teacher Training:
Institutes, Workshops, and Seminars

SYLLABUS AND BIBLIOGRAPHY Prepared by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국 민 교 육 헌 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한다.

1968년 12월 5일

간 행 사

통일 민주한국의 원대한 이상과 자유를 위한 우리의 투쟁에 있어서, 지금이야 말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온 국민의 민족국가관을 확고히 하고 민주신념과 승공의식을 공고히 하여, 공산주의의 도전을 극복하고 민주통일을 위한 주체역량을 배양하여야 할 시기이다. 즉, 일면 국방, 일면 건설의 기치아래 북괴의 침략적 도전을 분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사상적 결속이 요청되고 있다. 손자 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한다"고 하였다. 민족의 반역자인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이 마당에서 그 흉계를 밝혀 내고 그 정체를 똑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보담도 긴요한 일이다. 공산주의자들의 남침 감행에 의해 민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하였던 6·25의 참상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차원에서 통일에 대비한 사상교육 내용을 체계화하고, 계열화하여 온 국민의 일상생활속에 민주신념과 승공통일 의식이 뿌리 깊이 스며들게 되고 통일노력이 생활화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이런 점에서 현재 통일에 대비한 사상교육의 종합적 체계적 교육자료가 절실히 요청된다. 그러나 공산주의를 분석, 비판한 책들은 그간 많이 간행되었지만 통일에 대비한 사상교육의 체계화의 입장에서 저술한 책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여기에 번역·간행하는 이 책은 미국 변호사협회의 후원으로 미국 남카로라이나대학 국제문제연구소의 리차드 엘·워카박사를 비롯한 연구진이 천 여명의 각계 인사의 의견과 3년간에 걸친 실험 교육을 통해 작성한 것으로 미국 고등학교 반공교사들의 훈련용 교수지침서이다. 이 교수지침서를 작성한 목적은 공산주의와의 대결에 있어서, 공산주의에 관한 교육을 체제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이론과 실제

의 오류와 허구성을 정확하게 이해케 하는 것만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유일의 길임을 밝혀 주려고 하는 데 있다. 이 책을 번역·간행한 우리의 의도도 바로 이러한 점에 귀착된다. 공산주의문제 연구를 위한 전문적인 안내서와 반공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일선 교사나 교수들을 위한 종합적인 교수지침서가 없는 우리의 실정에서 이 책자가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전문가 여러분의 기탄없는 비판을 바라는 바이며, 더우 이 번역서를 통한 아낌없는 의견과 충고를 얻어 앞으로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1970년 12월 일

국토통일원 장관

김 영 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차　　례—

간 행 사
머 리 말 ········ 1
서　　론 ········ 17

제 1 장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 31

1. 오늘날의 세계 정세 ········ 31
2. 미국 대외정책의 변천 ········ 39
3. 현대 민주주의의 유형과 목표 ········ 47
4. 전체주의로서의 공산주의 : 그 특성과 동태 ········ 58
5. 마르크스주의 사상의 유럽적 배경 ········ 66
6. 교과과정 토의 :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비교 ········ 74

제 2 장 공산주의의 이념적 기초 :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공산 정치체제 ········ 79

1. 마르크스주의 : 변증법과 유물론 ········ 79
2. 공산주의 세계관 : 계급투쟁, 제국주의 혁명 ········ 87
3. 공산주의 국가론 : 프롤레타리아의 독재 ········ 98
4. 마르크스의 유산 : 레닌주의와 민주 사회주의 ········ 106
5. 이데오로기와 권력 현실 : 스탈린주의와 그 이후 ········ 118

6. 교과과정 토의 :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교육…………129

제 3 장 소련의 권력체제 ……………………………………………133

1. 러시아의 배경 ……………………………………………………133
2. 소련 공산당의 권력과 통제 ……………………………………145
3. 소련 사회와 통치…………………………………………………152
4. 소련 경제 : 공업과 농업의 집단주의 …………………………161
5. 동구에서의 소련 제국주의………………………………………170
6. 교과과정 토의 : 공산주의 체제의 해설 …………………………179

제 4 장 오늘의 공산세력의 팽창과 분산화 ……………185

1. 공산주의 연방 : 그 환상과 현실 ………………………………185
2. 중국 공산주의 : 정치 통제의 새로운 국면……………………192
3. 중공의 제국주의적 야욕…………………………………………200
4. 획일성 강요의 침식 : 불화와 분렬 ……………………………208
5. 중·소의 군사적 위협……………………………………………217
6. 교과과정 토의 : 공산주의 팽창의 동태에 관한 해설 ………225

제 5 장 대결 : 현존 대결의 본질……………………………229

1. 냉전의 기원 ………………………………………………………229
2. 냉전의 발전 : 도전과 응전………………………………………240
3. 미국에서의 공산주의 전복 기도………………………………… 250
4. 공업화 국가에서의 공산주의의 처지 …………………………264

5. 발전 도상 국가에서의 도전 ……………………………………272
6. 교과과정 토의 : 대결의 전면적 본질에 관한 교육 …………280

제 6 장 분쟁과 경쟁 : 그 전략 전술 및 전망 ………283

1. 현대의 공산주의 정치전……………………………………283
2. 현대 게릴라전과 그 대응책 ……………………………………293
3. 교육, 과학 및 대외정책……………………………………301
4. 공산진영과 자유 세계간 대결의 전망…………………………310

참고문헌……………………………………………………………321
부록—1 밴더빌트대학의 강습회……………………………………347
부록—2 센트루이스대학의 강습회……………………………………393
부록—3 남카로라이나 대학의 강습회 ……………………………413
부록—4 공산주의에 관한 교육상의 주의사항………………………441

머 리 말

위원회는 공산주의의 전략전술 및 목표에 관한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보고와 권고를 하며, 계획하고 집행하며 나아가서 법아래에서의 자유와 공산주의와의 비교에 관한 적절한 교수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미국의 모든 학교와 대학을 격려하며 지원해 주어야한다.

(미국 변호사협회 정관 10조 7항 : (j) : (2))

1962년 8월 미국 변호사협회의 대의원총회는 이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위의 정관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위임조항에 따라, 이상임위원회는 세 가지 주요 사업계획을 착수하였다.

(1) 주, 군 그리고 지방 변호사 협회들로 하여금 우리 위원회의 전국적인 활동과 병행해서 지방 공동체들이 전개하는 활동을 후원하도록 격려하는 전국변호사협회의 사업계획.

(2) 공산주의와 법 아래의 자유와의 비교연구를 위한 중등교원 하기 훈련강습회를 실시하는 대학들을 격려하며 후원하는 교원 훈련 사업계획

(3) 이념, 선전, 전략 및 세계 정세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각종 대학원의 학자들과 상의하여 공산주의의 전략과 전술을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사업계획.

법률가들이 이상의 문제에 대하여 왜 이와 같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미국변호사협회의 첫째 목적은, 그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미국 헌법을 수호하고 대의정부를 유지하는 데"있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국가적 자유와 정부형태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다. 만일 공산주의 독재자들의 야욕이 실현되는 날에는, 미국의 헌법, 대의정부, 다수의견존중 및 법 아래에서의 자유등 전부가 파괴되

고 말것이다. "법치사회"의 유지에 헌신하는 직업인 침략, 선전, 정부 전복, 조약위반, 제오열을 위한 막대한 지출, 그리고 게릴라반란 등의 수단으로써 법적 통치를 전복시키려고 끊임 없이 노력하는 세계적인 운동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련이나 중공이 계속 추구하고 있는 냉전의 세번째 10년간에 있어서, 대학을 비롯한 각종 학교의 학생들까지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시민들이 공산주의가 (대체로) 미국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불안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실로 필요한 것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와 이념과 교리와 목적과 전략 및 전술을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아울러 이와 대조하여 인간의 존엄성, 법 아래에서의 평등권, 사기업, 개인의 빼앗을 수 없는 권리의 우선권 등에 관한 우리 미국의 원칙을 더 철저하게 이해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뉴욕대학 철학교수 시드니 후크박사는 1963년 10월 13일자 뉴욕 타임스지에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공산주의에 관한 특별교육이 왜 필요한가 하고 우리는 물을 것이 당연하다. 확실히 우리의 신문, 잡지, 기타 모든 전달수단들이 끊임없이 공산주의의 주장을 폭로하고 있다. 공산주의와 싸우는 기관도 수십 개를 헤아린다. ……베를린, 쿠바, 동구 및 아시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자들의 발언과 수작과 행동등이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자유문화 및 자유문화의 능력에 대하여 그들이 품는 결사적인 원한을 폭로하는 증거가 되지 않는가?

공산주의는 우리의 공포와 증오의 대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공포나 증오나 비난만 가지고는 이해를 대치시킬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예방적이고 치료적인 지적 행동을 함에 있어 절대로 필요한 이해를 방해하는 때가 있다. 공산주의는 변신자재한 존재이다. 공산주의는 가끔 민주적인 아름다운 말로 꾸며 댄다. 그들은 그저 무지한 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적인 말로 속이는 것이다. 그것은 아무런 가책도 없이 그 노선을 급각도로 돌리며 놀라울 정도의 융통성을 가지고 그의 유일한 목표 즉 자유세계의 파괴와 공산

주의의 승리를 향하여 광적으로 충성을 다한다. ………

현재로서는 미국 시민들은 고전적인 것이든 변형적인것이든 공산주의에 대하여 별로 아는 것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이따금씩 뉴스 보도나 배후의 이야기나 또는 교과서 몇 과에서 배우는 것만 가지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역사적 사건들에 관한 우리의 기억은 오래 안 가는 것이며, 게다가 미래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나 소원은 현재에 대해서만 눈을 뜨기 쉽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또 학생들이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보내는 8년 중에서 수개월을 바치는 그런 몇 개 과목들 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결국, 학생들이 상세히 배우고자 하는 과거의 몇몇 전쟁 보다도 냉전이 가져오는 결과가 우리의 제도와 전통과 가치관에 대해서 더 중대한 관계를 가지게 되기 쉬운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 자체가 공산주의에 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해야 하겠다는 이유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당화된 교육의 목적을 그르칠지도 모르는 세 가지의 주요한 위험성은 싫증과 지나친 단순화와 또 그릇된 문제들에 너무 치중하는 일에 있다. ……단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능력만으로는 그 과목에 대하여 깊고 계속적인 흥미를 가졌다고 할 수는 없다. 적절한 자극이 없이는, 공산주의자들의 죄악을 되풀이 않게 한다거나 또 공산주의자들이 그 자신의 국민이나 여타 국민에게 저지르는 죄악을 비난해 보았자, 결국은 이 과목 전체에 대한 무관심만 조장할 뿐이며, 따라서 정신적인 싫증을 초래할 것이다.

……그런 싫증의 대가는 국가적인 불행이며, 수치이며 나중에는 자유의 상실까지 초래할 것이다.

싫증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산주의를 한개의 지적, 정치적 및 윤리적인 도전으로서 소개해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가 단지 바보나 외국인들에게나 믿어지는 모순 투성이라고만 가르쳐서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만일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면, 학생들은 왜 우리는 공산주의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는가 자연히 묻게 될 것이다. 능란한 교사라면 오히려 학생들에게 놀라게 충격을 주어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온 전통적인 모든 이상은 택일성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할 것이다. ……일단 학생들이 자기만족감을 잃어 버리고 지적으로

자성하게 되면, 그들이 도달하는 해답은 그들에게 있어서 뜻 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 때에는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공산주의 자들의 선동에 맞설 것이며, 그 진위의 요소를 자신 있게 가려낼 것이다.

공산주의가 단지 '위험과 사악과 오류와 허위'의 투성인 것처럼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만 배운 학생들은, 그들이 싫증을 면할 수 있다 해도 "민주주의란 단어 자체를 포함해서 민주주의 어휘 중의 모든 중요한 술어들을 도용해서 그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에 쉬이 말려 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

공산주의에 관한 교과과정에서 가장 적절하고 가치있는 부분은 공산주의자들의 집권이론과 전략전술에 관한 부분이다. 이념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실지 현실적인 장면에서 공산주의의 전략에 말려 들기 쉽다.

이런 연구는 면밀히 할 것이며, 또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강점이라든가 지배로 말미암아 미국 노동조합총연합회로부터 축출 당한 노동조합에의 침투와 지배라든가 또는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설치한 공산주의 선전기관 등의 역사적 실례를 일일이 검토하면서 해야 한다. 몇 가지라도 집중적인 개개 사건 연구는 공산당의 비윤리성에 관한 긴 논문보다 학생들을 공산주의의 전략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공산당이 끼어 있는 조직체 속에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싸우며 부정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왜 나쁜가"고 항상 그 이유를 따지는 순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 공산주의의 전략과 전술을 연구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거기에는 피카소가 그린 비둘기의 기치를 든 평화조직체들이 하루 밤 사이에 변하여 북괴의 대한민국남침을 "정당한"전쟁 즉 '방위적인' 침범이라고 인정하는 예들이 많기 때문이다. 공산당 노선에 따라 가다가 공산주의의 침투와 원조로 인하여 실패한 선한 대의(大義)는 허다하다. 선한 대의를 위해 공산당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목적이 공산당의 당노선이 요구할 때는 언제나 무시되고 배반 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와 그리고 법 아래에서의 자유와의 비교연구에 대하여 역점을 둠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기타의 교육에 대해서 방

해서는 안 된다. 과거 20년 동안 세계는 심각하게 변형했는데, 특히 미국의 입장과 책임에 있어서 그렇다. 물리학, 수학 및 외국어 방면에서 교과과정의 뒤떨어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미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이런 과목들에 있어서의 새로운 요청에 호응하기 위하여 더욱 더 많은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우리 사회과학에 있어서도 적절한 교육을 위해서 그에 못지 않는 관심이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과 함께 우리 자유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젊은 세대에게 더욱 이해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공산주의의 근본 신념과 제도 그리고 민주주의와 공산독재주의 사이의 장기간에 걸친 분쟁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것이 미국 지도자들이 거듭 강조해 온 바이다. 전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디·아이젠하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인간의 경쟁심이 생기는 것은 학생시절 부터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정부형태와 소련의 그것과의 차이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미국 중앙정보국의 전 국장이며 또 법률가인 앨런 다블류·덜레스는 이 분야에 있어서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최초의 지도자 중의 한사람이었다.

> 우리는 공산주의 운동의 전 역사에 관한 교육을 우리 나라 방방곡곡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과목을 가르치는 일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 역사와 그들이 저지른 모든 업적 자체가 이 제도에 대한 고발성을 지니고 있다. 모든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있다.

1963년 초 국회에 보내는 교육 특별메시지에서 존. 에프. 케네디 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 바 있다.

> ……냉전의 비틀어진 행로는 우리의 원칙과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시민을, 또한 전체주의의 엄격한 훈련에 대응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과 정신력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과학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

리고 또 우리의 앞에 어떤 문제들이 가로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을 무사히 지도해 나아갈 수 있는 충분히 넓은 시야와 충분히 성숙한 판단력을 가진 선거민을 요구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관점에서 볼 때, 국가적 이익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교육이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이다.

연방 수사국장 제이 에드거·후버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유사회의 생명과 힘은 그 개개시민의 활력과 애국심에 달려 있다. 우리 시대의 도전으로 되어 있는 공산주의에 관한 지식과 우리 미국의 전통에 대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결정, 책임있는 판단, 헌신, 그리고 우리 국가의 생존과 자유 자체의 영속화를 보장케 하기 위하여는 다하지 않으면 안 될 희생 등을 할 수 있게 단련시켜 줄 것이다.

미국 변호사협회가 1950년에 공산주의의 전략·전술과 목적에 대한 연구 보고를 그 임무로 하는 한 위원회를 설치했지마는, 이 문제에 관한 교육의 긴급한 필요성을 다루는 결의를 그 대의원총회가 채택한 것은 1961년 2월에야 비로소 되었다. 이 결의 중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공산주의의 역사와 교리, 목적 및 전술에 관한 적절한 교육지침을 제시함에 있어서, 우리는 중·고등 학교 및 대학을 격려하고 후원하여 주며, 그리하여 민주주의와 법 아래에서의 자유 및 그 자유를 보존하려는 의지에 관한 더 깊은 평가를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자 한다.

미국 변호사협회 대의원총회의 이 결정은 광범위하게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가 하는 데 대한 충고와 도움을 원하는 많은 요청이 변호사 단체와 교육 당국과 대중으로부터 흘러 들어 왔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버지니어주 릿지먼드 출신의 러위스 에프·파우웰 2세를 회장으로 하는 미국 변호사협회 대위원총회는 "공산주의와 법 아래에서의 자유와의 비교"라는 조그만 책자를 발행했다. 1961년에 발간된 이 책자는 언론계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으며, 따라서 전국 각처에서 송부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었다. 각급학교의 공산주의에 관한 교수지침을 그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특히 강조된 것은 변호사 단체가 건설적인 참여를 할수도 있는 한 교육과정으로서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교육이다.

변호사협회가 처음 공산주의에 관한 사실을 가르칠 것을 요구했을 시절에 논란되고 있던 문제는 이 과목을 "교과과정에 넣을 것이냐"의 여부였다. 대중의 인식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는 오늘날의 문제가 이 과목을 "어떻게"가르쳐야 할 것이냐로 변했다는 사실을 보고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과목을 가르쳐야 할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시키는 데 지도적인 역할을 한 다른 단체들도 있다. 예를 들면, 미국재향군인회와 미국교육연합회의 공동 노력이 크게 공헌했는데 이들 단체의 합동 위원회는 1962년 "공산주의에 관한 교육 :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지침"이란 책자를 발간하였다.)

교육당국은 미국의 학교 교육과정 속에 이 과목을 도입하는데 대한 일반 여론의 일치에 힘 입어, 우리 위원회에 대하여 국방교육령의 혜택으로 꽃을 피운 수학, 외국어, 물리학 교사를 위한 하기강습회와 비슷한 사회과학 교사 재교육강습회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민간단체와 여러재단의 도움으로 1962년 여름에 교원 대강습회가 여러군데서 개최되었다. 예를 들어, "시민권의 기본 문제 강습회"는 타프트대학, 린컨 파일린 시민권 및 공공문제 연구원에서 동북 "9개주 교육위원회"의 후원으로 "9개주 청소년 후원계획"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그외 4개의 강습회는 밴더빌트대학, 사우스캘로라나 대학, 센트루이스대학 및 남부캘리포니어대학에서 실시되었다.

그 사업의 창안시부터, 동 위원회는 그 유능한 계획 고문인 뉴욕시 국가전략정보연구소 (NationalStrategy Information Center회)소장 프랭크 록웰 바네트씨의 충고와 계획에 의지하는 바 컸다. 로데스 연구위원이며 워배쉬대학의 전 교수인 바네트씨는 교육자, 법률가 및 국회의원들도 많이 참석한 고급 예비역 장교를 위한 국방전략세미나 (워싱턴시의 국립

국방대학원서 개최되어 공산주의와 국제문제를 다룸)에서 수년 동안 객원교수로서 일해 왔다. 주로 그의 노력의 덕택으로 우리는 1962년의 교원훈련 계획을 지도하고 협력한 몇사람의 고등교육 지도자들과 만난 것이다. 그들 가운데는 사우스 캘로리나대학 국제문제연구소장 리차드 엘·워커 박사, 사우스 캘리포니어 대학 공산주의전략 전술문제 연구소장 로저. 스웨어링겐박사, 센트루위스대학 대학원장, 알 제이·헨리 목사, 밴더빌트대학 하기강습연구회장 에윙 피·쉬아한 박사, 그리고 하바드대학 정치대학교수이며 현재 아메리칸대학교 국제협력대학의 윌리엄 얀들. 엘리오트박사 등이 있다.

동 위원회가 많은 교육자들의 자문을 얻은 결과, 중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교과서는 많은 반면에, 교원훈련에 참가한 사람들이 참고할 만한 책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충고에 호응하여, 동 위원회는 강습회와 세미나를 열어 이미 성공을 거둔 몇몇 대학들의 경험과 방법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교육자료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 책이 우리가 바라는 바 앞으로 적절한 교재가 될 책들 중의 처음인 것이다.

교원용의 교수지침을 작성하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첫째로 정치학과 국제사정 담당의 대부분 교수들(대부분의 법학교수들과 마찬 가지로)은 골자만 적어 놓은 개설 이외에 그들이 등사판으로 할지언정 출판해 보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노트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며, 또 둘째 이유로는 20세기의 혁명적인 세계의 약동 속에서의 세계공산주의의 동태는 결코 쉽게 어떤 범주 속에 넣을 수 있는 것이 못 되기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 원고가 쓰여지고 재검토되고 수정된 30개월 동안에, 정치지도자를 비롯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여러 모에 걸친 능력과 전술(그리고 자유세계의 방위체제의 변천은 물론)에 적어도 열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다음의 몇 가지 변화들이 교수지침을 더 새롭게 하도록 만들었다. (1)모스크바에서의 부분핵실험금지조약의 조인, (2) 후르시초프의 갑작스럽

고 놀라운 실각, (3) 중공의 핵실험 성공, (4) '평화공존' 전략을 둘러싼 중공파의 논쟁을 무마하는 데 있어서의 소련 지도자들의 실패, (5) 유럽의 일부 공산국가들이 모스크바의 지배로부터 독립하려 하는 경향, (6) 중공에 의한 노골적이며 세계적인 민족분쟁 유발, (7) 북대서양조약 기구내의 균열, (8) 동남아시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경화, (9) 무기와 게릴라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혁명운동의 지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및 기타 지역에서 모스크바와 중공이 벌이는 명백한 '경쟁', (10) 중공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점점 증대해 가는 반미 동맹 등을 들 수 있다.

광대하고 유동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는 데 있어서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였지만, 동 위원회는 다행히도 사우스캘로라이나대학 국제문제연구소장 리차드 엘·워커 박사를 편집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이책의 몇 장을 손수 써 주시게끔 할 수 있었다. 워커박사와 그의 연구소의 다른 유능한 동료들은, 다른 많은 대학들의 경험에서 얻은 많은 제안을 본래 사우스캘로라이나대학에서 사용한 자료에다 삽입시키는 등, 동 위원회를 위해 자진하여 교수지침을 작성하였다.

1963년 5월 22일 동 위원회는 "세계 문제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제목의 교수지침 임시 초안판을 발행할 것을 공표했다. 따라서 평가와 비판을 듣기 위하여 1천 부 가량을 교육자, 법률가들 그리고 정부 관리들에게 보내 보았다. 많은 건설적인 비평이 많은 방면으로 부터 저자들에게 보내져 왔다. 따라서, 워커박사와 그의 동료들이 수정이란 어려운 작업을 시작했다. 둘째번 초안본이 워커박사에 의하여 그가 엄선한 저명한 전문가들에게 배부되었다. 그들의 비평 중의 많은 부분이 이 현재의 개정판에 삽입되었으며, 따라서 더 많은 교육자들의 비판이 후에 나올 판본에서 사용될 것이 기대된다.

양심적이고 노고가 많은 수정이란 과정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시간을 소비케 할 것이다. 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반대할 자유가 있는 것을 자랑

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개방된 사회에 대한 세계 공산주의의 각종 도전을 어떻게 해석하며 강조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학자들까지도 이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가 공동으로 맡은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었다. 다수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사회에서, 여러가지 그리고 때로는 서로 상반되기도 하는 견해와 의견이 백출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며, 그러기 때문에 기본 교육에 필요한 요소만을 간추려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몇몇 비관주의자들은 관념의 시장에다 특정한 논문을 제시함으로써 '논쟁적이고 불가능한' 것의 도전을 받는다는 것은 학자들로서나 법률가들로서 현명한 일이 못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충고를 받아 들였었더라면, 우리 협회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추진한 바를 구체화하는 어려운 임무는 회피하면서, 반공 교육이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찬성할 것을 권고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마 이 분야에서 다른 어느 분야보다 권고하는 일이 많으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드물었을 것이다.

우리가 겪은 곤란중의 하나는 실로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에 관한 교육 방법들이 모두 타당했다는 사실이다. 현존하는 어떤 강좌에서는 공산주의 철학과 이념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데서는 공산주의를 다른 전체주의 형태와 관련시키고 있으며 또 어떤 데서는 러시아 역사의 전후관계를 소상히 개설하고 레닌의 교훈에 치중하고 있다. 또 중공식 공산주의도 포함하여 오늘날 세계의 공산주의 침략의 규모와 기술을 강조하는 강좌도 있고, 비교정부론이나 비교 경제제도론에 더 이론적으로 집중 교육하는 강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로 다른 방법들이 각기 하나의 전체적인 문제의 일부를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코끼리의 다리나 코나 눈이나 귀나 피부를 따로 떼어 연구하는 것이 옳다(또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서의 코끼리도 그의 환경과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이 공산주의도 철학, 이념, 경제, 운영절차, 선전방법, 군사론 그리고 기타의 많은 부면에 걸처 분석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공산주의를 하나의 제도 전체로서 연구하는 것이 또한 절대로 필요하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체계 분석을 소련, 중공, 동구라파, 아시아의 작은 공산국가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자유세계내의 공산당들에다 적용해서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부분적인 연구방법들을 공산 전체주의 제도의 분석――고등 학교 교원들의 교수지침이 될수 있는 그런 분석――에로 통합시키는 일은 지금까지 거의 배척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 교수지침이나 기타 교수지침이 모든 사람의 찬성을 얻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여러 가지면에 있어서 학식 있는 학자들의 대다수의 승인을 최후에 가서는 얻으리라고 확신한다). 확실히 우리는 이 책을 절대적으로 완성된 저작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최후 단계에 이르렀다고 믿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 임시 교수지침이 읽혀짐에 따라 동 위원회와 그 고문학자들이 계속 새로운 자료를 평가하며 여러 가지 해석을 비판하면서, 이 후에 나올 판본을 위하여 수정과 제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교육에 종사하는 교원들이 일단 이 교수지침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또 새로운 간행본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게 됨에 따라, 그 내용이 현실에 맞게 정기적으로 수정되어 역사의 새로운 사실을 반영할 뿐 아니라 공산주의 및 그것이 미국과 자유세계에 주는 영향에 관한 새로운 생각들의 설명을 추가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각 주와 지방의 특성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된 나라에 있어서, 모든 교육자들이 공산주의 과목을 동일한 방법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명백히 좋은 일이 못된다. 그러므로, 이 책은 부록으로 세 개의 다른 대학에서 실시한 여러 가지 교수방법의 요약을 싣고 있다. 사우스캘로라이나 대학에서 발전시키고 시험된 워커박사의 자료와 함께 이 여러

가지 교수방법들은 교육자들이 우수한 교수도구의 견본으로서 고려해 보도록 여기에 제시한 것이다.

동 위원회가 여러 교육자들에게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과 그리고 밴더빌트 및 노트르담 두 대학의 합작으로 제작한 80개의 30분짜리 (저명한 학자들과 정부당국자의 연설과 토론을 촬영한것) 영화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 교수지침에다가 이런 고급의 영화를 병용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하기 강습회 뿐만 아니라 학교의 정규과목의 배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바이다.

세계적 투쟁에 대해서 소련에서는 그 교육자들이 어떤것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아는것은 미국 교육자들에게는 크게 흥미 있는 일일 것이다. 소련내에 냉전의 종말을 예시하는 어떤 '진화'과정을 발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계급투쟁, 이념투쟁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 승리의 불가피성 등의 개념이 아직도 소련의 사상주입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비록 우리가 이 저작이 교원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고등학교 교사들에게도 유용하리라고 믿지만, 그러나 이 책이 고등학생들의 교과서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중등교육에 관해 상세히 아는 사람들에게는 자명하리라고 생각한다. 더우기 시간과 예산의 관계상 공산주의와 우리의 생활양식과를 모든 면에 걸쳐 비교할 수 있는 백과사전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동 위원회는 가능하면 "우리 자유의 근원"이란 제목의 법적문서의 주석서와 함께 이 교수지침을 활용하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이 요약서는 미국변호사협회의 미국시민권위원회의 제안으로 미국변호사 재단에서 작성한 것이다. 이것은 32개의 문헌을 완전히 수록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215년 대헌장(Magna Carta), 1606년 버지니아 제일 헌장, 1620년 메이프라워 맹약, 1629년 매사추세츠만 헌장, 1679년 인신 보호령, 1765년 인지조령 국회 결의, 1775년 무기를 들 목적과 필요성 선언, 1776년 독립선언, 1787년 미국 헌법, 1791년

미국 헌법 최초 10개 조항 수정 등이다. 이 책은 뉴욕의 매그로힐 출판사에서 페이퍼박 판으로 3.45달러로 구할 수 있다. 공산주의 대 법 아래의 자유에 대한 이해를 격려하는 우리의 사명을 더 증진하기 위해서 동 위원회는 위에서 말한 '우리 자유의 근원'연구에 입각해서 만든 연구종합지침서를 사서 교원들에게 배부했다.

우리 위원회는 토의를 위하여 제시한 문제들은 물론이고 참고문헌의 범위와 다양성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독자들에게 부탁하는 바이다. 모든 당파적인 노선을 피하고 건전한 의견의 토의를 격려하는 사회에 있어서 학생들이 장래에 유용한 시민이 될려면 스스로의 힘으로 평가하며 분석하는 것을 배워야 할 학생들에게 교육은 (선전이 아닌) 원숙한 판단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는 확신에서 모든 반대되는 견해에 대해서도 적당히 대접하고 있다.

이런 관계에서 위원회는 이 책에서 "공산주의에 관한 교육에 있어서의 노트와 경고"라는 제목으로 부록 5를 덧붙였다. 이와 같은 것을 기고한 데 대해서 우리는 스텐포드대학 전쟁, 혁명 및 평화에 관한 후버연구소의 국제정치문제 연구부장 스테판 티·포소니 박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레닌에 관한 그의 최근 저서와 공산주의 이념과 전략의 여러 면에 질친 그의 끊임없는 조언은 위원회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또한 여러 가지 충언을 준, 전에는 미국교육연합회 교육사업부 부장이었으며 현재는 켄터키대학 교육변천연구소장인 리차드 아이. 밀러 박사, 전에는 미국 교원대학협회 및 내쇼날 방송회사의 전국 조정관이었었다가 현재는 뉴욕 뉴로쉘 고등학교장인 존·켈리박사, 미국 교원대학협회 행정서기관 에드워드 씨·포머로이 박사, 미국 교육연합회 사회문제연구 전국 평의회 행정서기관 메릴·하트숀 박사, 콜럼비어대학교 교원대학 사회교육과장 어링 엔·한트 박사, 저작 활동과 강의와 교육상담을 하고 있는 해리·오버스트리트 박사 부처, 펜실바니어대학 대외정책연구소 부소장 윌리암 알·킨트너 박사, 스텐포드대학 전쟁, 혁명 및 평화

를 위한 후버연구소장 다블류·글렌 캠프벨 박사 등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이 학자들은 이 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의견을 금후의 출판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교수지침과 기타 본 위원회가 간행한 출판물("평화공존 : 승리를 위한 공산주의 청사진", 1964년 발행, "자유는 예외이다" 1965년 발행)은 미국 변호사 연합회의 대중교육기금으로 제공된 자금으로 간행된 것이다. 미국 변호사 연합회의 대중교육 기금은 국내 세법 501조(c)(3)의 규정에 의해 면세되어 있다. 따라서 동 연합회에 대한 기부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면제시킬 수 있다. 이 사업에 공헌이 있는 개인이나 재단의 후의에 대해서 또한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한 이 같이 때때로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사업이 교육과 법률의 양대 직업 사이에서 적지 않은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 학적 자유 분위기를 침해함이 없이 또 다른 한편에서 직업적 책임감을 저해하는 일이 없이 함께 협력하게 할 수 있었다는 진기한 경험을 새로이 얻게 되었다는 점을 지금 다시 한번 회고치 않을 수 없는 바이다. 어떤 점에서는 이 교수지침의 발행은, 말하자면 많은 법률가들의 충고를 들으며 또 리차드 엘·워커박사와 그의 동료 교육자들로 하여금 한개의 독립 집행부로서 봉사케 하는 등, 미국정부의 "충언 및 승락"의 과정을 말하여 주는 한개의 축도가 되었다. 이 책이 지금 모든 관계자들의 찬성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은 워커박사의 학자로서의 성실성과 나아가서는 다른 학자들과 문외한들의 여러가지 주장을 너그럽게 들어 준 그의 꾸준한 적극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견해에서 볼 때는 이번의 경험으로 얻은 확신은 선의와 상호존경의 분위기만 보장되면 진보주의자나 보수주의자나 학자나 법률가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할 것 없이 제 2 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이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어디에서고 자유인들의 자유로운 토의를 봉쇄해 버리고자 하는 공산주의 폭정의 목표와 전술을 분석하는 일에 있어서는 모두가 단결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미국 변호사 협회

반공 교육 상임위원회

Buster Cole	Raymond W. Miller
H. Lynn Edwards	William C. Mott
Egbert L. Haywood	Louis B. Nichols
Charles S. Maddock	Mario T. Noto
John. G. Mckay, Jr.	Jackson A. Wright

Morris I. Leibman, 회장

간부

Boudinot P. Atterbury	상담고문
Frank R. Barnett	상담 계획 관리관
Francis J. McGuire	행정 보좌관
Dorothy E. Nicolosi	연구 보좌관

1965년 5월

서 론

우리는 끝 없는 위기와 분쟁과 변화의 시대, 즉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세대를 이와 같이 유례 없이 위험한 시기로 만들고 있는 그 요인은, 우리 일반이 아직 이것이 우리의 이해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 민주주의 체제 속에 살고 있는 각 개인은 현재 이와 같이 급변하는 시대에 있어서 자유세력과 독재체제 사이에 야기되는 투쟁에 대하여 자신이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긴요하게 된다.

미국이 과거 20년 동안 밀접하게 얽혀 있는 걷잡을 수 없는 세계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19세기에는 우리에게 평화와 안전을 주는 듯 보이는 그런 놀라운 고립상태로 다시 후퇴해 들어가는 것을 허락치 않는다. 현재같은 핵무기시대에 있어서는 미국은 그 힘과 민주제도가 달성한 거대한 업적과 비등하게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의 무게는 우리가 우리의 사회와 인간자유를 세계 각처에서 파괴하려 드는 무자비한 적과 맞서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증대하여 가고 있다. 거의 20년 동안 우리는 냉전상태 속에서 살아 왔는데 이 냉전에서 공산주의 운동은 모든 무기를 동원하여 세계 모든 지역의 불안전과 변화를 틈타, 정치 및 사회제도의 장악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은 이 분쟁을 가리켜 "모든 인간활동이 확장의 무기로써 동원되도록 강요 당하는" 그리고 "안전과 평화가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개인적 및 국가적 생명을 송두리째 바칠 것을" 요구하는 "전면적 냉전"이라고 규정하였다.

인구폭발, 빈식민 반란, 기술혁명, 통신의 가속화, 우주탐색 등 현 시대

의 모든 대변화가 민주적 생활양식과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들의 전체주의 사이의 싸움 속에 말려 들고 있다. 오늘날 아무도 이 분쟁으로부터 피해 살 수는 없다. 누구나가 피할 수 없게끔 개인적으로 얽혀 있다. 신생 독립 국가들까지도 그들 자신의 정치제도 및 경제제도를 편성하여 발전시킬 시간적 여유도 없이 그 속에 말려 들어 있다.

미국은 그 힘과 이상, 자유경제하의 놀라운 생산성, 그리고 민주제도로 말미암아 전 세계 자유세력의 지도자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미국민들 가운데는 이렇게 새로이 얻은 세계적 역할이 가져 오는 모든 문제들과 책임과 희생을 피할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이 날이 갈수록 더 명확하게 되어 가고 있다.

최근 수년간에는 날로 증가하는 많은 사건들이 공산주의 위협을 더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1956년의 헝거리문제, 1957년의 스푸트니크, 1958년의 대만해협 위기, 1959년의 티베트강탈, 1960년의 모스크바에서의 81개 공산당대회 선언, 1961년의 베이 오브·피그즈사건 및 베를린 장벽문제, 1962년 인도 침입 및 쿠바의 소련 미사일위기, 그리고 현재의 월남전쟁 등은 미국민으로 하여금 냉전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게 하는 몇가지 특별한 사건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식이 덜 되어 있다. 개인으로서나 국가로서 우리가 공산국가들로 부터의 위협을 충분히 인식했느냐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많다.

자유에 대한 오늘날의 도전을 이해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다. 첫째로, 우리는 유쾌한 면만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습관이 있다. 또 우리의 전통적인 고립주의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광대한 제국을 가져 보지 못했다는 사실때문에 우리는 세계의 모든 사건들을 그 사건들 간의 상호관계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관계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세계를 하나의 전체로서 보지 못했으며, 또 우리 자신의 문명과 그 근원에만 우리의 지적인 관심의 대부분을 기울여 왔다. 게다가 아돌프·히틀러에 대한 평가가 그러했듯이 ("희망은 영원한 것이니까"), 우리는 모

스크바나 북경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발언대로 행하리라고는 믿으려 들지 않는다. 그리고 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들 중에는 불쾌한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의 경제적 추구와 쾌락에 지장을 초래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에게는 공산주의의 위협을 정서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정서는 또 오래가지 못한다. 정서주의는 결국 교육이나 계몽에 이바지할 수 없다.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신념자체가 아마도 공산주의의 무서운 위협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가끔 민주주의가 인류의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유제도와 형태에 대해서만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미국변호사협회의 반공교육상임위원회의 최근 간행물 "자유는 예외이다"를 보라. 이것은 하바드대학 경영대학원에서 연방수사국(FBI) 부국장 윌리암씨·살리번이 행한 일련의 강연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란 고도의 문명상태에서 인간이 달성할 수 있는 윤리적 업적이다. 그것은 독재주의가 횡행하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희귀한 것이다. 과거 식민지였던 곳으로서 후에 독립을 얻은 곳에서 민주주의가 만발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다. 이러한 신념은 대체로 우리들로 하여금 독재체제의 강제적이며 억압적인 면을 과소평가하게 만들었다. 이 신념은 우리들로 하여금 전통이나 경험으로 볼 때, 전혀 기대를 걸 수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각 개인이 자유에 대한 그 절대적 권리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내걸 것을 기대케 했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는 인류의 타고난 권리라는 우리의 신념으로 인하여 우리는 전체주의의 매력을 과소평가했으며, 자유체제의 근본을 분석하는 것을 게을리 했으며, 또 우리가 이어 받은 것을 대부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우리가 냉전의 전모를 이해하게 됨에 따라, 전체주의적인 공산주의가 단지 그릇된 이념 이상의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의 제도화된 신앙, 운영규범, 인간들을 조직하며 통제하는 체계, 한 마디로 해서 하나의 생

활 양식이라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졌다. 공산주의와 그것이 주는 위협은 이리하여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그것이 추구하는 세계 전역에 걸친 인간 생활의 혁명적 변화의 테두리 안에서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과거 몇 년 동안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국가적 견해가 크게 변화되었다. 우리는 지금, 교육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책임의 일부로서 민주주의의 모든 적들의 목표와 방법을 이해 시켜야 하며 또한 우리의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명백히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희망적 관측도 해보고 또 감정적인 비난도 해 보다가, 우리는 이제 공산주의의 도전을 하나의 교육 문제로서(문제의 분석과 이해와 해결에 우리의 지식을 적용한다는 의미에 있어서의 교육) 취급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세계 공산주의의 문제를 착실하게 다루어 보자는 태도가 미국에서 점차 발전되어 왔다. 이제 우리는 교육이 학생들에게 자유제도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게 하고 또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공산주의 위협을 이해하게 하는 제일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필요성

미국의 이러한 새로운 역할과 그리고 전 세계적인 냉전의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교원들은 특히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그들은 세계 정세에 대한 교과서들이 채택도 되기 전에 또 분배도 되기 전에 벌써 낡아 버리게 하는 그런 급속한 정세의 변화를 또한 다루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그들은 냉전에 있어서 계속되는 근본적인 사건들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교원들은, 특히 학생들이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중등교육에 있어서 오늘의 긴급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가르칠 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특히 2차 대전 이후 크게 변화한 국제 정세 분야에 있어서 그렇다.

국제 정세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중등교육 교재의 대부분이 아직도 미국이 냉전에 있어서 공산주의 도전에 대항하는 지도적 위치에 서기 전에 있었던 정치적 사항에 입각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은 급격히 변화했으며,

또 피상적인 '시사문제' 해결은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는 중등교육이 그러한 연구방식을 앞질러서 공산 전체주의와 법치하의 자유와의 사이의 세계적인 대결에 따르는 문제들을 더 깊히 파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공산주의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은 모든 분야에서 느껴지고 있다. 어떠한 주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일정한 시간 수를 이에 할당하고 있다.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이러한 교과과정을 발전시키는 데 앞장 서고 있다. 도서 출판사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교재와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적인 단체들이 이에 대한 교재를 발전 시켜 교원들과 학생들에게 참고서 목록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로 공산주의에 관한 책임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원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주립 또는 사립 고등교육 기관에서는 교원들의 훈련을 위한 교과목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이 분야에 있어서 이미 활동을 개시한 여러 단체들과 기관들의 경험과 방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모은 자료들을 다음에 소개 한다.

교원

고등학교 교원은 미국의 지식인사회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존재인 동시에 가끔 소홀히 취급되는 존재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고등학교 교원들은, 특히 사회과학 부분의 그들은 자유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젊은이들을 훈련함에 있어서 그들이 행할 중요한 역할을 위하여 어떠한 자극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한다. 그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고등학생들의 대부분이 세계 정세에 있어서의 미국의 역할과 또 그들이 짊어 질 책임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아무런 인식도 없이 졸업하여 나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미 하기 강습회나 훈련과정에 참가해 본 교원들의 대부분이 그들이 이러한 과정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학교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에 관해서 가르칠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다고 시인하기를 서슴치 않는다. 그 교원들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이유를 든다.

1. 많은 사람들이 세계문제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관한 적절한 교육지침을 받기도 전에 그들의 훈련을 마치고 말았다.
2. 교원훈련 과정들이 적절한 내용에 치중하지 않고 방법론과 행정 그리고교실내에서 가르치는 기술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3. 자격증을 위한 현재의 방법과 자격조건들이 여름 동안에 실시되는 이 분야의 실질적인 훈련과는 대립되는 경향이 있다.
4. 공산주의를 취급하는 과정이 결여되어 왔다.
5. 교원들 중에는 논쟁에 말려들까봐 두려워서 공산주의 과목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6. 교원들은 대부분이 자격증을 위한 자격조건을 끝마친 후에는 하기 훈련 과정에 참가하기 보다는 하기 직업을 찾아야 한다.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들의 여름방학 중간에 시작하게 되는 특별 강습회에 다닐 수업료를 지불할 여유를 가진다.
7. 많은 교원들이 기분적으로 맞지 않아서 공산주의 이념과 같은 문제에 얽히기를 두려워 하며, 또 그것을 가르치는 기관들을 지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등학교 사회과목 교원들의 많은 수가 공산주의를 취급하는 특별 연구회나 강습회에 기꺼이 참가하고 있다. 그들 자신의 경험으로 그들은 이 주요한 분야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들로 하여금 착실한 학적 훈련을 추구하게 하는 요인들을 그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 그들은 고등학생들로부터 그들이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을 질문 받았다.
2.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염려하였다. 대학생들의 대부분이 그들의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고 이 교원들은 느끼고 있다.

3. 어떠한 교원들은, 토대가 견고한 사실적 지식을 가지고서 질문을 하는 과격파나 희망적 관측을 일삼는 사람들이나 또는 동조자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것을 염려하였다.
4.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입수할 수 있는 자료들이 교육보다는 협소한 '교화'를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으며, 또 그들은 적절한 기초없이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다룰 수 없다고 느끼고 있다.
5. 많은 사람들이 최상의 교재나 기술을 채택하여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이 보다 풍부한 배경을 가져야 하겠다고 느꼈다.

그 이유나 동기는 여하튼 간에 특별 하기 훈련과정에 참가한 교원들은 그와 같은 과정이 그들의 교육 사명을 적절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확신을 피력하는데 사실상 모두 의견이 일치했다. 역사, 철학, 경제, 또는 정치학과 같은 분야의 대학수준의 훈련에 있어서는 그들은 공산주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룰 필요도 없었으며, 또 법치하의 자유에 대한 공산주의의 위협을 평가할 필요도 없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특별 하기 강습회에서 제공하는 교과 과정이 사회과목 분야의 교원 교육에 있어서 정규 교과과정의 주요한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방법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관한 특별하기 강습회나 또는 연구회를 개최해본 결과 결국 이것이 성공을 걷우려면 교원측이 진지하고 양심적인 반응을 보여야하며 또한 이런 회합이 활기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교원들에게 이 과목이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릴 필요는 없다. 이런 점은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떤 강습회에서는 공산주의의 철학적이고 이념적인 면을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성공한 일이 있다. 그러나, 세계문제의 테두리 안에서 공산주의와 법치하의 자유에 관한 토론회도 할 만한 일이다. 이념적인 면도 다룰 수 있으며, 또 세계적인 관점에서 다루게되면 공산주의 위협의 전모를 숨

길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국부적인 사건들에 치중하는 편협주의는 자연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 오래 끌어 온 분쟁의 국제적인 면만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도 또한 반식민주의나 경제적 발전 문제와 같은 그러한 문제로 제기되는 미묘한 면을 꾸며서 돋보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

능력 있는 교원들이나 회의적인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이런 교육 방법은, 확실히 모든 설명을 '악한 대 선인'이란 상투적인 어구로 하는 대신에 세계적인 모든 충돌과 그것이 가져 온 모든 결과까지 포함하여 따져 나갈 수 있게된다. 그 침략의 역사와 만행의 기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공산주의도 그 선전의 효과로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매력'은 의(擬)과학적이며 심리적이고 신비적 또는 이상적이어서, 가끔 정당한 불평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자 자체가 염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이런 '매력'의 위력은 부정할 수 없다. 공산주의의 교리와 선전이 사실상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있다는 사실을 한탄하거나 무시만 해 가지고는 미국의 안전을 도모할 수 없다. 공산주의의 도전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려면, 우리는 이런 '매력'이 사람의 마음과 정서와 잠재의식에 작용하는 모든 미묘한 요소를 이해하여야 한다.

설교적인 냄새를 풍기는 그런 방법을 피훈련 교원들은 몹시 꺼려한다. 보통 고등학생들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다는 것을 이들은 경험상 알고 있다.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따라서 손위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 듣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일이 모두 자기들을 불신하는 데서 오는 것으로 학생들은 느끼게 된다. 그래서 선생들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연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찾고 있다.

이것은 물론 교원 훈련과정이 미국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다룰 수 있느냐 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게 된다. 일상 수업하는 교실에서 또 이미 있는 과목 속에 이미 우리 민주주의 생활 양식

에 관한 적절한 재료들이 들어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갑자기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발견하여 그것을 검토도 하기 전에 개혁하려 드는 외부 인사들을 교원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편, 공산주의 도전의 심각하고도 복잡한 성질을 생각할 때, 미국 민주주의 제도의 여러면이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교원들도 있다.

이런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일반 고등학교 사회과 교원들은 적극적으로 또 기꺼이 하기 강습회나 연구회에 참가하리라 생각되며, 또 1962년부터 시작한 3년 동안의 하기 방학을 강습회에서 얻은 경험이 또한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요컨대 교원들이 아래와 같은 교과과정을 원하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1.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있고 충실할 것
2. 협소한 '교화식' 방법을 피할 것
3. 이 분야에 있어서의 중요한 참고 문헌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있어야 할 것.
4. 수업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들을 동료 교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하기 강습회에 참가한 교원들은 아무리 영감을 가진 연사들을 가지고도 공산주의의 기초지식을 얻는 데 1주일 이상 또는 6주일 까지도 걸린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상당한 시일을 거처 강연이나 수업중의 토론을 통하여 전문가들의 지도와 완전한 기초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그리 하여야 비로소 이 분야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문헌을 계속 연구할 수 있다.

교수지침

다음에 중등학교 사회과목 교원들을 위한 집중적 강습회 또는 연구회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교수 지침을 소개한다. 이 교수 지침은 자유세력과 독재세력 사이의 세계적 대결에서 생기는 광범위한 사건들과 지역들에 관해서 필요한 이해를 갖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물론, 취급할 것이 너

무나 많은 관계로 깊은 이해를 가지게 하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몇 가지 읽어야 할 것과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장래에 적절한 기관이 설립되었을 때에 교원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할 것이다.

이 교수 지침은 1962년과 1963년 그리고 1964년 여름에 사우스캘로라이나 대학에서 실시된 강습회에 모인 동남부주의 출신 교원들을 상대로 경험한 바를 토대로 한 것이다. 여기서는 매일 연구할 제목을 따로 정해 놓고 6주동안 실시할 표준 하기 강습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 제목들은 6주 동안 주 마다 전체적인 일반 제목이 있어서 그 일반 제목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그 편성 방법은 고등학교 사회과목 교원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강습회를 편성하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을 돕고 또 교원들 자신에게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는 이중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강습회나 교수지침은 교원들에게 대해서 사회과학 훈련을 받은 경험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또 지적 흥미와 동기 이상의 것을 바라고 있지 않다. 또 이 책은 각 교원들이 직접 학생교육에 사용해도 별로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포함된 주제를 취사선택하여 취급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매일 매일의 제목 중에는 임의로 범위를 한정시킨 것도 있고 또 어떤 전문가들에게는 여기서 취급된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제목중에서도 제외된 것이 약간 있다. 또 제시된 참고서 목록들 가운데도 중요한 서적으로서 지면관계 또는 부주의로 인해 여기서 제외된 것들이 있다. 가장 권위가 있는 책은 오래된 것이나 최근에 된 것이나 다 포함시켜 보려고 노력하였다. 참고서적 선택은 각기 그 날 그 날의 제목을 주로 고려해서 된 것이다. 대개의 경우 참고 문헌에서 제시된 책들은 잘 아는 저자들을 위주로 선택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 문제에 관한 문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련정부를 취급하는 제목에 있어서 많은 중요한 서적과 전공 논문들이 지면 관계로 제외되었다.

여기에 제시한 토의문제들에 관해서도 비록 대개의 경우 이 교수지침 속

에 포함된 자료나 그리고 여기에 제시한 선택독서에 관련을 가진 것들이지만 그 주요 목적은 더 연구하고 생각해야 할 분야를 알려 주고 또 소규모의 연구집회에서 뜻 있게 토의할 수 있도록 자극적인 문제점을 때에 따라 제공하자는 데 있다.

6주 동안 하루에 한 제목씩 설정한 5개의 연구제목 이외에 처음 5주에 대한 여섯번째 제목을 위하여 몇가지 지침이 첨가되어 있다. 이 여섯번째 제목은 교원들의 토의와 의견교환을 격려하여 각 주에 연구한 것을 각 교수시간에서 할 일과 관련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교원들로 하여금 이런 토론회를 조직케 하여 각 주에 연구한 것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생각케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경험상 증명되었다. 또 마지막 날에는 시험이 보통 실시되니까 토의문제는 주지 않았다는 것도 아울러 주의할 것이다.

공산주의에 관한 교육 분야에 있어서 이런 교수지침을 교원훈련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몇 마디 하여야 하겠다. 1962년 사우스 캘로라이나대학에서 처음으로 하기 강습을 실시해 본 후 미국 변호사협회 반공교육 상임위원회는 당 대학의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이후 몇년 동안 사회과목 교원들을 위해서 특별 하기 강습을 계획하게 될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도움이 될만한 교수지침을 준비하라고 요청해 왔다. 이 일을 맡을 때에 국제문제연구소의 연구원들은 그들이 개척되지 않은 어려운 과업을 맡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연구원들이 관대하게 교수지침을 기초해 주고 편성해 주었다. 처음부터 그들은 적절한 모든 충언과 도움을 얻으려 노력했다.

1963년 봄에야 비로소 교수지침의 임시판이 여러 교육자들과 기타 자격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듣기 위해 배부되었다. 사실상 수백면에 이르는 제안들이 쏟아져 들어와 적절치 않은 어휘를 다듬고 빠진 곳을 메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1963년 가을에 이르러, 저자들은 이 교수지침의 재집필 작업을 완전히 끝낼 수 있었다. 이번에는 수정판을 공산주의 연구

분야에서 저명한 몇몇 권위자들에게 보내어 그 평을 들었다. 이 학자들 가운데는 예수협회의 알 제이·헨리목사, 시드니·후크 교수, 윌리엄 알·킨트너 교수, 프랭크 에스·마이어씨, 게르 하르트·니마이어 교수, 스테판 티·포소니 교수, 로저 스웨어링겐 교수, 프랭크 트레이거 교수 및 버트럼 디·울프씨 등이 있다. 게다가 이 수정 교수지침 초안은 미국 변호사 협회 위원들의 엄밀한 검토를 받았다. 이 위원들 중에는 러위스 에프·파우웰 2세, 미 해군 예비역 윌리엄 씨·모트제독, 레이몬드 다블유·밀러 박사, 또 고문으로 프랭크 알·바네트씨 및 존 씨·네프 예비역 대령 등이 있다.

물론 제안 전부를 받아 드릴 수는 없었다. 때로 그 제안들이 서로 상반되며, 아니면 또 그 제안을 받아 들이면 교수지침 전체를 다시 편성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권위 있는 검토자들의 양심적인 노력으로써 이 교수지침의 수정된 초안에 많은 수정을 가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 결과로 꽤 만족스럽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저자들이 자기들의 견해와 부합되는 책을 만들기 위하여 적절한 재량을 하도록 허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위에 나열한 검토자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 두는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오랜 수정의 기간을 통하여 최후 결과에 대해서는 저자 자신들이 책임을 져 왔다.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의 해군분석 센타에서 일하는 폴 씨·데이비스교수는 그의 시간과 지혜를 아낌 없이 제공했다. 교수제목의 몇가지 완전히 재기초한 것을 포함해서 그의 작업은 이와 같은 임무에는 이상적으로 적합한 배경과 준비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한다. 예를 들어 그는 3년 동안 육군대학에서 이와 흡사한 과정을 공부하는 학과의 책임자였었다.

위에서 개설한 바와같은 절차 이외에도 사우스캘로라이나 대학 국제문제연구소연구원들은, 교원들을 위한 하기 강습회를 열어 성공을 거둔 바 있는 다른 연구소의 주요한 학자들과 상담할 기회를 가졌었다. 가능한 모

든 곳으로부터 제안과 방법과 그리고 특별과정에서 얻은 자료들을 모아서 이 교수지침에 포함시켰다. 이 중에서 특히 밴더빌트대학과 사우스캘로라이나 대학 그리고 센트루이스대학에서 실시한 교육과정들은 아주 질이 높은 하기강습회 '선구자'로서 언급될 만 하다. 다른 많은 연구소들의 교육과정들도 또한 가치 있는 제안과 보고를 제공해 주었다. 주립 또는 지방학교위원회들이 발전시킨 많은 교수지침들을 참고 했으며, 또 미국교육연합회, 미국사립학교연합회, 미국재향군인회, 브네브리스반중상연맹, (the AntiDefamation league of B'nai B'rith) 그리고 미국 전략연구소 등에서 발전시킨 자료와 지침들을 고려하였다.

이 교수지침을 작성함에 있어서, 우리는 미국 변호사협회 반공교육 상임위원회와 특히 그 회장 모리스 아이·라이브맨씨가 보인 끊임없는 관심에 대해서 만족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언제나 그와 그의 위원회는 이 일에 있어서 학적 수준을 유지할 것을 종용했으며, 또 저에게 이 교수지침 기초와 수정과 상담과정에 있어서 뒷바침을 해주었다. 또 미국 법조협회의 회장으로서의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러위스 에프·라우웰씨가 시간을 내어 저자들에게 고문 역할을 해준 것은 우리에게 더욱 힘이 되었다.

공산 강대국들과의 끊임없는 투쟁 속에 있는 이 위험한 시기에 보존되어야 할 개방된 우리 사회의 여러 면을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인식케 할 교육의 긴급성에 대하여 모든 관계자들이 완전히 합의를 보지 못했더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와 같은 협조는 이루어 질수 없었을 것이다.

사우스캘로로라이나대학
국제문제연구소장
리차드 엘. 워커

1965년 5월

제 1 장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1. 오늘날의 세계 정세

가. 주제 개설

전 세계를 통한 눈부신 변화는, 성숙하여 가는 미국 젊은 학생들에게 전례없이 심각한 도전을 던져 주고 있으며, 또 그들을 가르치는 교원들에게는 이것이 더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미사일과 열핵무기 시대에 있어서의 불안정과 평화에 대한 위협은, 이전에 있던 모든 문제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20세기 중엽에 있어서의 전 세계를 통한 전반적이며 더욱 가속화되어 가는 변화들은 미국 시민들로 하여금 전례없이 그들의 가치와 법아래에서의 자유의 정치적 제도와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생각하고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시민이 그 속에서 움직이는 세계정세의 변화와 그리고 그들이 직면한 도전들을 우리는 편의상 네 가지 일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예를 들면 급속도로 폭발하는 인구와 같은 환경의 변화가 있다. 1963년에 5천 5백만 내지 6천만명의 세계 인구가 더 늘어났는데 이들의 대부분이 빈곤과 영양부족으로 허덕이는 대륙에서 탄생하였다. 이런 인구의 증가는 많은 질병의 제거에 따르는 이와 같이 급속히 증가하는 인구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본과 지식인 들을 못가진 지역들에 있어서는, 지식과 교육의 보급으로써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서방으로부터의 과학, 사회구조 및 정치체제의 도입은, 그와 함께 그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를 점차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따라서 가끔 문화이식 과정에 따르는 긴장과 감정적 흥분을 유발하곤 하였다. 새로운 설

비와 새로운 인간관계의 유형은, 특히대부분의 인구증가의 중심이되어 왔던 불결한 대도시에 있어서, 사회관습에대한 의혹을 자아내게 하였다. 전세계를 통해 볼 때 상호 의존 관계의 증대, 원료의 필요, 세계무역의 확장과 그리고 공업화를 위한 끈질긴 노력등으로 말미암아 사회는 정지상태에 있기 보다 오히려 더욱 동태화되어 왔다. 환경변화의 징후는 2차 대전 이후 배 이상으로 늘어난 신생국가들의 출현에서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1960년과 1965년 초 사이에 29개의 신생 독립국가들이 아프리카에서 생겼다. 국제정치무대에서 새로이 독립한 많은 국가들은 외국의 경제적 및 정치적 유대로 부터의 완전 해방을, 특히 그와 같은 요구가 성취될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시기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신생국가들의 대다수는 교육적 및 기술적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국민적 일체감도 희박하며, 또 훈련된 공무원도 부족한 것이다. 도로, 공통된 언어, 적절한 농업, 그리고 자본과 같은 국가형성에 필요한 요건들이 결여되어 있거나, 빈약하게 개발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은 미국 식민지들이 독립을 쟁취할 때의 세계와는 훨씬 다른 세계가 되어 있다. 지금 세계는 10년 전과도 훨씬 달라졌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이 모든 국내 및 대외 정책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하나의 요소인 것이다.

둘째로, 미국시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사적 또는 국가적 생활에 있어서, 그 기술의 무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간의 빈번한 연락은 전에는 피동적이던 사람들을 능동적으로 만들고, 또 국가간의 상호의존 관계를 더 증대시켰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은 가끔 민주제도로 하여금 작용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따라서 대중운동을 일으키며 이념적 조작방법을 채택하는 권위주위적 정부나 독재정치로 흐르는 경향을 흔히 볼 수 있다. 새로운 전쟁무기가 생기고 군사적 대도발의 위험이 날로 증가하는 이 때에, 정부 전복과 정복의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가고 있는 것을 세계는 보아 왔다. 새로운 기술과 급속한 변화는 제트여객기의 속도와 그리고 복잡한 재료를 기적적인 속도로 취급한 전자 계산기

가 입증하고 있다. 정치, 산업, 통신, 사회조직, 그리고 전쟁 등에 있어서의 새로운 기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당황하며 목적과 방향감각마저 상실하고 말았다.

세째로, 환경과 기술에 있어서의 변화를 더욱 심각하고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즉 공산주의의 위협이다. 서로 경쟁하는 모스크바와 북경에 사령부를 두고 공산주의는 하나의 이념으로서, 훈련된 대중운동으로서, 위장된 조직을 가진 정치세력으로서, 여러 국가들의 조직체로서, 그리고 중앙집권 사령부로서 우리의 혁명적인 시대의 긴장과 불안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세계 다른 국가들에 대항하여 현재의 혁명적인 정세를 이용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비폭력으로부터 폭력에까지 이르는 모든 기술을 '냉전'이란 술어가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불안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소련과 중공이 인류사회의 다양한 위험시기를 이용하려고 여러 전선에서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냉전을 벌리고 있는데, 냉전은 쿠바로부터 인도와 월남에 이르기 까지, 과학에서 종교에 이르기 까지 그리고 이념에서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필립 이·모슬리가 말한 바와 같이, "같은 지구 상에서 외눈의 격분한 거물과 공존한다는 것은 기분을 돋구어 주기 보다는 오히려 위험한 일이다. 적(敵)은 우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그가 미국생활에서 찬양하는 주로 물질적인 여러 업적을 말하다가는 곧 왜 공산주의가 이 부러운 미국을 부득이 '매장'해 버리게 되는가를 '과학적' 정확성을 가지고 설명한다." 냉전의 긴급하고 우울한 요구에 비할 때, 국부적인 사건들이나 국내정치 같은 것은 제2차적인 문제가 되고 만다. 냉전의 긴급하고 우울한 요구는 10여년 동안 미국민이 그들의 전 국가예산의 반 이상을 주요 방위문제와 국가안보지출에 배당해 왔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산주의의 냉전도전과 입헌 민주주의 기반을 이해할 뿐 아니라 투쟁이 감행되고 있는 혁명적 세계환경을 이해하는 일이다.

네째로, 대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식층의 미국시민들이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분야는, 미국이 그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유세계인 것이다. 서방국가들과 그리고 미국과 여러가지 동맹을 맺은 기타 국가들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최근 수년 동안 공산주의의 전체주의적 방법이 갖는 매력은 소련과 중공이 그 국민들에게 적절한 식량을 공급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또 모스크바 대 중공 분쟁의 기간을 통하여 노정시킨 분렬 그리고 더우기 1964년 후로시초프를 실각시킬 때의 그 방법 등으로 많은 손상을 입은 것 등이다. 미국, 독일, 일본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의 인간의 생활조건의 향상과 발전은 공산주의자들의 그것과 뚜렷한 비교가 되어, 결국 냉전에 승리하고 나아가서 혁명적인 시대의 도전을 이겨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 변화와 공산주의 위협의 중대성은 자유세계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주고 또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짊어진 책임을 우리의 교육이 적절히 반영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간은 긴급하고 기회는 사라져 가며 변화는 요구되고 있다. 행동을 요청하는 중요한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교육이며, 또 이 교육이란 넓은 뜻에 있어서 진리탐구인 것이다.

나. 강의 방법

이 최초의 강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취급할 주제의 긴급성에 대하여 참가자들에게 명확한 인식을 줄 수 있도록 꾸며져야 한다. 변화가 일어나는 속도와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대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데 강사가 입증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많다. 예를 들어, 인류가 현재 여행하는 속도 즉 우주비행사가 한 시간에 1만 6천마일 이상 달리는 것은 인간의 수명이 미국에서 볼 때 미국 독립전쟁 때에는 29세이던 것이 지금은 70세에 접근하고 있는 사실, 또 평화 목적을 위해서 핵능력을 전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면 1968년 말에 미국이 가지게 될 26개의 핵발전소가 현재 여러 지역에서 재래식 발전소가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 또 인구 폭발이 20년이내에 현재의 전세계 총 인

구 35억의 인구에다 섹스피어시대의 세계 총인구를 더 첨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과학과 기술의 영향에 관한 최근의 문헌에서 인구 폭발이 가져오는 정치적 영향과 그리고 인종과 영향력에 대한 신생국가들의 날로 증대하는 요구를 추려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이 늘어나는 공산주의자들의 세력범위와 또 한편 미국의 지도하에 다시 피어나는 자유세계의 힘을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예를 들 수 있다.

이 교수과정의 성공 여부는 대체로 첫번 강의에 달려 있다. 이 강의는 새로운 지식도 주어야 하며 도전도 하고 자극도 주어야 할 것이다. 거의 달마다 강사는 냉전의 전모를 들어내는 자유 세계 또는 공산주의의 지도적인 대변자들의 새로운 발언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는 반드시 냉전에 있어서 미국의 자원과 힘을 동원할 것을 언약한다. 한편, 소련의 최고 대변인들도 가끔 변화하는 우리 세계에 있어서의 그들의 목표와 그 방법을 명백히 하고 있다. 미국무성이 발간한 즉 소련 최고 지도자들이 행한 권위 있는 발언을 모은 "소련의 세계 전망"은 세계의 관심거리가 되어 있는 모든 주요한 문제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1964년 미국 변호사협회가 발간한 "평화공존의 승리를 위한 공산주의 청사진"은 세계 공산주의의 융통성 없는 목표를 천명하는 최근의 공산주의 문서와 발언을 분석해서 싣고 있다. 중·소 분쟁의 양편에서 내놓은 최근의 문서들은 공산주의의 세계적인 승리를 위한 공동언약을 설명하고 있다.

처음 강의는 교수과정 전체를 통해서 반복될 주제 몇 가지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혁명적으로 시도하는 세계의 냉전과 관련시켜야 한다. 이 주제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할 것이다. 즉, (1) 책임, 미국 시민들이 행할 임무, 교원들이 특별히 가져야 할 책임, 이 교수과정에 임할 때 가질 태도와 그 필수조건, (2)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의 중요성, 학생들을 움직이는 데에 있어서의 교원들의 역할, 매일 매일의 주제를 학생들에게

의의있게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질 것, (3) 민주주의의 의미, 항상 민주사회의 신조와 그 실천을 전체주의적인 공산국가들의 그것과 비교시킬 것, 주로 전제주의와 비추어 보았을 때의 인류역사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독특한 입장을 이해시킬 것, (4) 공산주의 위협의 전모, (5) 자유와 서방문화가 그것을 말살하려는 공산독재주의의 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냉전의 중심문제, (6) 제시된 자료들의 복잡성과 제기되는 문제들의 어려움 때문에 요청되는 정열적이고 진지한 연구작업 등이다.

다. 필수 독서

Challenge to Americans: The Struggle We Face and How to Help Win It, with "Forewords" by former Presidents Kennedy and Eisenhower (New York: The Advertising Council, 1962), 27 pp.

D. W. Brogan and Douglas V. Verney, Political Patterns in Today's World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 1963), pp. 1—16

라. 선택 독서

David M. Abshire and Richard V. Allen(eds.), National Security: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Strategies in the Decade Ahead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3). 1039 pp.

(조지타운 대학 전략 연구소가 발기한 연구와 토론회의 결과를 모은 논문집으로서, 이 책은 우리의 혁명적 세계의 현존하는 문제들을 폭 넓게 취급하고 또 이런 문제들을 공산주의 위협이 어느 정도까지 격화시키느냐를 명백히 해 준다.)

Raymond Aron, The Opium of the Intellectuals (London: Secker & Warburg, 1957). 324 pp.

(불란서의 가장 저명한 정치학자 중 한 사람이 공산주의 이념의 도전에 대항함에 있어서 서방 지성인들의 혼수상태를 심각하게 또 재치있게 고발한 것.)

Elton Afwater et al, World Affairs: Problems and Prospects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Inc., 1958). pp. 621.

(주요한 세계 문제를 다룬 유용한 편집물, 특히 이 과와의 관련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I, II, VII, 및 VIII장이다. 각 장마다 취급된 제목에 대하여 세계 지도적인 정치가들이 말한 것을 인용한 것과 또 더 이상의 연구를 위한 질문들이 붙어 있다.)

Frank R. Barnett, William C. Mott, and John C. Neff (eds.), Peace and War in the Modern Age: Premises, Myths, and Realities (Garden City, N.Y.: Doubleday & Co, Inc., 1965). 421 pp.

(이 교수지침의 주요 주제와 공산주의자들의 냉전 위협에 대항함에 있어서 미국과 자유세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논한 논문들의 발췌, 그중의 몇 장은 자유세계를 위하여 실지 역할을 한 지도적인 정치가들이 쓴 것이다.)

William Ebenstein, Today's Isms: Communism, Fascism, Capitalism, and Socialism, 3rd ed. (New York: Prentice-Hall, 1961). 243 pp.

(우리 시대의 주요 이념적인 운동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비교개설.)

Walter F. Hahn and John C. Neff(eds.), American Strategy for the Nuclear Age (New York: Doubleday and Co, 1960). 455 pp.

(대체로 국방대학원의 방위전략세미나에서 지도적인 미국 학자들이 행한 강연을 편집한 것. 발췌가 질에 있어서 좀 고루지 못하지만 I부의 "The Mid-century Stage" (pp. 1—52)는 이 과와의 관련에서 유용하다.)

Frederick H. H. Hartmann(ed.), World in Crisis, 2nd ed. (New York: Macmillan Co., 1962). 398 pp.

(국제 관계의 논문을 모은 유용한 책. V부는 현대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틴윈서 또는 딘 애치선(pp. 291—390)과 같은 권위자들의 논문을 포함하고 있다.)

Marian D. Irish (ed), World Pressures on American Foreign Polic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64). 171 pp.

(미국이 다루어야 할 세계의 많은 지리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관계가 있는 지역에서의 큰 변동들을 다룬 8개의 흥미 있는 논문을 모은 것.)

Harry and Bonaro Overstreet, The Iron Curtain: Where Freedom's Offensive Begins (New York: W. W. Norton and Co.. Inc., 1963). 229 pp.

(공산주의에 관한 2명의 지도적인 저자들이 개방사회에 대한 공산주의 도전을 논함에 있어서 철의 장막을 하나의 상징으로 이용한다. 이것은 읽을 만한 책이며, 1960년대 세계를 위한 공산주의의 의미를 잘 소개한 것.)

Edmund O. Stillman and William Pfaff, The New Politics: America and the End of the Postwar World (New York: Coward-McCann, 1961). 191 pp.

(1945년 이후 미국의 대외 정책을 강조하는 현대의 국제정치에 대한 분석적인 개설.)

U. S. Department of State, Soviet World Outlook: A Handbook of Communist Statements(Washington, D. 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9). 247 pp.

(지도적인 소련 대변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말한 말을 편집한 권위있는 책.)

마. 토의 문제

1. 지난 10년 동안의 심각한 변화들이 왜 직접적으로 미국 시민들을 휘몰아 넣었는가? 당신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그것에 얽혀 있는가?

2. 조정과 문화이식의 문제를 강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미국 내의 어떤 환경적 또는 기술적 변화를 예로 들 수 있는가?

3. 급속한 세계변화로 인하여 야기된 것으로 미국 대외정책에 대한 네가지 대도전을 들라면 당신은 어떤 것을 들겠는가? 이중의 어느 것이 공산

주의 위협에 의하여 가장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가?

4. 학생들로 하여금 20세기의 제3반기에 들어 서서 가지게 된 새로운 중대한 책임들을 이해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5. (a) 미국이 세계 문제에 얽혀 있는 이유 (b) 세계 변화의 급속성 (c) 미국 시민의 책임 등을 오늘날 학생들에게 이해 시키는데 있어서 당신이 부닥칠 가장 극적인 예들과 방법들을 말해 보라.

6. 인구 폭발이 어떻게 불안정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가? 왜 어떤 전문가들은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당면할 최대의 문제로 생각하는가?

2. 미국 대외 정책의 변천

가. 주제 개설

1963년 1월 14일 국회에 보내는 연두교서에서 케네디 대통령은 "우리가 월남으로 부터 서부 베를린에 이르기 까지 자유세계의 전방을 지켜 왔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세계적인 언약에 대해서 그의 관심의 대부분을 기우렸던 것이다. "사실상 거의 백만을 헤아리는 미국인들이 해외기지에서 그들의 나라와 자유를 위하여 몸바치고 있으며, 이것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비등할 수 없는 기록"이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역사상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은 과거 미국의 양대 정당의 행정부들의 기록을 회고하였다. "과거 15년 동안 다른 어느 자유 국가도 국민들에게서 미국 처럼 요구를 많이 한 나라도 없다. 열전과 냉전을 통하여, 불경기와 번영을 통하여, 원자시대와 우주시대를 통하여, 미국민들은 요동한 일이 없으며 그 신념이 한시도 흔들린 일이 없다. 때로 우리들의 결정이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든 것처럼 보였다면 그것은 오직 세계 역사 자체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다." 국회에 보낸 케네디 대통령의 보고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민주주의 국가의 위치가 크게 변동했음을 상징하는 말이라 하겠다. 우리는 이제 옛날 같이 고립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나 거

리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2차 대전 직전으로부터 미국 대외 정책의 근본적 방향이 '혁명적'으로 달라졌다고 말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당시에 미국은 구라파 사정에 말려 들어서는 안되도록 미국의 전통 관념이 본의 아니게 버리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세계 정복을 주장하는 히틀러와 나치 독일에 대항하여 영국, 불란서 및 소련과 합력 아니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들은 한 개의 전체주의 국가 나치 독일을 패배시켰지만, 본래 동맹국이었던 스탈린의 러시아가 또 하나의 전체주의 국가로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더욱 미묘한 방법과 또 전술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나치 독일과의 길고 피 비린내 나는 투쟁 속에서 구축해 놓은 선의를 이용하면서 러시아는 세계 정복에 대한 그의 야망을 털어 놓은 것이다.

소련이 도전해 온 팽창주의의 결과 트루만·독트린이 생겼고, 마샬 플랜이 생겼으며 또 나중에는 서부 유럽을 정복하려는 소련에 대한 자유세계의 방패 무기로서의 나토가 생긴 것이다. 그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은 유럽에서 세력균형을 회복하며 또 독일의 무조건 패배와 굴복으로 인해 생긴 힘의 진공을 채우는 데 필요한 동맹 그것도 평화시의 군사동맹을 맺게 되었던 것이다. 1965년까지 미국은 40개 이상의 나라들과 그 안전을 함께 하는 2개국 또는 다수국으로 된 조약을 맺게 되었다.

이런 사건들은 그 자체가 혁명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에 대하여 미국민과 그 동맹국들이 보인 반응은 그것이 여러 가지로 효과적인 데다가 '전통적인' 미국 대외 및 국방 정책의 목표와 구조, 도구, 그리고 평화시의 그 범위를 크게 변동케 한 그런 성질의 것이었다. 이 사실을 설명하려면 미국 정부 내에 생긴 몇 가지 전혀 새로운 조직, 즉 중앙 정보부, 미국 보도국, 국방 정보국, 국제 발전국, 및 국가 안보회의 등 해외 사건에 대해서 근본 책임을 지는 기관들을 열거하면 충분할 것이다.

국무성 및 군부의 정책 수립자들 또는 계획자들이(대외관계 연구소 또는 국립 전시 대학에서 하는 강의에서나 아니면 국방 문제 연구소, 랜드

회사, 하드슨 연구소, 및 프랭클린 연구소의 해군 분석 센타와 같은 정부에서 자금을 대주는 회사들이 제시하는 연구들을 읽으면서) 국가적 목표와 작전에 관하여 생각하는데 이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낸 일은 전에는 '평화시'에도 없었다.

거기에 공산주의의 점점 더하여 가는 간첩 행위, 파업 및 쿠데타 활동은 본질적으로 이상주의적인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 활동을 넘어서 전혀 새로운 보안 체제를 구성케 하였고, 1947년 중앙정보부가 생겼다. 국회에서의 절대적으로 다수의 찬표를 받고 또 미국민의 지지를 얻어 FBI는 공산 간첩과 선동자와 제오열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큰 내부 보안 책임을 지게 되었다. 더 최근에는 국무성과 군부는 반란 진압과 특별 후생 훈련을 받았다.

이것은 미국이 대외정책 대결에서 윤리적 원칙 대신에 힘을 대치시켰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국제적인 조약과 법이 강행되기 까지는 이와 같은 불완전한 세계에 있어서 건전한 윤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만일 모스크바나 북경의 공산주의자들이 진정한 친화관계를 원하고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정책을 찬동하였더라면 2차 대전 후 4대에 걸친 대통령들(민주당과 공화당)은 기꺼이 전쟁을 종식시켰으리라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변화는 그렇게 명확한 것이 못된다. 우리의 팽창을 대체로 설명해 주는 미국의 대외정책에는 항상 강한 현실주의적 요소,나아가서는 침략성까지도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록 이상주의와 윤리주의를 몇몇 미 국무성 정책 수립자들에게서 전처럼 찾아 볼 수 없겠지만 이런 '국가적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들이 아직도 미국 사회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보면 미국의 현실주의는 현명한 윤리원칙에 깊이 입각하여 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원조하는데 1천억달러 이상을 제공하였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일이다.

이것은 미국 지도자들이 서부 유럽에서 마샬 플랜이 이루어 놓은 업

적에서 감명을 받아 왔는데, 한편 미국은 유럽에서 마샬 플랜을 성공케 한 그런 기술적 및 정치적 배경을 가지지 못한 나라들에 적합하도록 유사한 계획을 짤 수 있는 논리 정연한 이론을 아직 전개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계획을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문제들을 파악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경제적 혁명을 겪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을 도울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발전을 위한 동맹과 같은 계획을 미국이 발전시키려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나. 강의방법

미국과 세계에 있어서의 미국 대외 정책과 민주주의 제 제도의 장래와의 상호관계를, 강사는 처음부터 명백히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와의 미국의 연루와 또 미국의 대세계적인 언약은 교실 내의 교육중의 가장 긴급한 과제이다. 자유제도의 방위에 앞장서려는 민주국가로서의 용의와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민주제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지식을 알아야 할 책임은 학생으로서도 교사로서도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우리 나라의 대외정책은 그 지식 중의 중요한 분야에 속한다. 강의의 주제는 소련 및 중공의 공산주의의 도전과 아울러 세계 강국으로서의 책임으로 인하여 초래된 미국의 대외정책의 변화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다. (강사는 냉전에 대한 보다 충분한 검토가 제 5과에 제시되어 있다)

강사는 대외정책이란 한 나라가 그 자체의 관할구역 한계를 넘어서 그 국가적 이익이나 목적을 추구할 때에 사용하는 일련의 행동이라고 설명해도 무방하다. 미국의 무서운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대부분이 미국이 효과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지역 외에 있다는 것, 즉 세계 땅덩어리의 16분의 15와 세계인구의 17분의 16이 그 통제구역 밖에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도 있다. 우리의 대외정책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들은 우리 법률의 힘이 미치는 범위 밖에 있다. 거기서 따라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이지 처리할 수 있는 주권을 못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강의할 때

에 미국 대외정책의 영향이 세계의 각 지역에 따라 필연적으로 변화가 있고 또 그 법률이 국경을 넘어서는 강력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미국은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국가들을 포함해서 약소국들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며, 그 정치제도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광대한 정책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이러한 기구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정치적 윤리와 정치적 사실주의와의 관계를 합리화하려는 순전히 미국적인 문제 때문에 항상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다.

미국 대외정책의 일반적 한계——이것은 윤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소련이나 중공의 외교정책의 '한계'와 동일한 것은 아닌데——를 논한 후에 각 개개 국가의 기본적인 국가적 이익이 지적될 수 있다. 이것을 구분해 보면 (1) 안보관계(열핵 시대에 있어서의 생존, 정치적 또는 영토적 독립, 그리고 '국가적 목적'의 일부를 이루는 모든 가치의 보존), (2) 경제적 번영과 발전 그리고 (3) 국가 주권의 개념(이것은 많은 서방 동맹국들이 그들의 상호 의존관계를 더 두터히 하고 또 정치적 통합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통합하려는 그들의 의도와 그리고 개개 국가들의 주권과 독립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다 전통적이고 자유로운 동맹 관계로 돌아 가려는 어떤 서방 국가들과 그 지도자들의 경향을 고려해서 논할 수 있다) 등이다.

강사는 1960년대의 미국의 입장과 미국이 중립적 입장에 들어 가려고 한 대전 중간의 시기에 처해 있던 입장과를 대조시켜서 강의할 수 있다. 이 중립적 입장을 취하려던 노력은 중공의 침략에 직면하여 인도의 중립정책이 비현실적이었던 것 같이 미국 자체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것이 증명되었다. (제4장, 2, 3을 보라). 미국이 싫든 좋든 다른 나라들과 동일한 운명과 안보에 얽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대외정책 가운데는 취급해야 할 다른 변천들이 또 있다. 즉 미국은 대체로 안보와 관련된 전례 없이 많은 조약들에 의하여 얽매어 있다. 미국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선전과 정보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은 대 정

보망을 구축할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요구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는 포괄적인 동맹제도에 얽매어 있다. 미국은 전 세계의 모든 곳과 여행 또는 새로운 통신 시설을 통하여 밀접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미국의 대외정책에 큰 혁명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런 혁명으로 인하여 과거의 어떤 개념들은 낡아서 못 쓰게 되며 따라서 교사들과 학생들은 새로운 교재로 그와 같은 문제들에 관한 지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을 알게 된다.

다. 필수 독서

Robert A. Goldwin, Readings in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pp. 157—167.

J. W. Spanier, 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World War Ⅱ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pp. 1—33.

라. 선택 독서

Dean G. Acheson, Power and Diplomac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8), 137pp.

(전 국무장관이 전 세계를 통한 공산주의 제도로 인한 무자비한 도전과 또 미국 외교에 대한 그 도전을 집중적으로 다룬 흥미 있는 저서.)

W. G. Carleton, The Revolution in American Foreign Policy, rev. ed. (New York: Random House, 1957), 155 pp.

(미국 대외정책의 전통적인 근거와 전략 그리고 미국이 호응한 새로운 2차대전 이후의 환경에 대한 논의.)

Thomas J. Dodd, Freedom and Foreign Policy(Linden, N. J.: The Bookmailer, 1962), 321 pp.

(공산주의 위협에 직면한 미국의 안보의 근본 문제를 다룬 도드 상원위원의 연설을 발췌해 모은 책.)

Lionel Gelber, America in Britain's Place: The Leadership of the

West and Anglo-American Unit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1), 356 pp.

(2차 대전 이후의 미국의 지도적 입장에 대한 중요한 연구.)

Morton A. Kaplan, ed., The Revolution in world Politics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62) 477 pp.

(신생 국가들에 발생하는 정치적 혁명과 공산주의자들의 정부 전복행위를 한꺼번에 막는 데 있어서의 민주국가들의 문제를 다룬 해석적인 논설들.)

George F. Kennan, American Diplomacy, 1900—1950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52), 144 pp.

(좀 낡았기는 하지만 이 개관은 미국이 해외에 있어서의 그 정책과 언질을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할 필요성을 역설한 책.)

Henry A. Kissinger, The Necessity For Choice. : Prospects of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Doubleday and Co., Anchor Books, 1962) 387 pp.

(군부 및 대외 정책의 가장 유력한 비평가의 한 사람이 미국의 안보와 외교의 당면 문제들을 완전히 검토한 책.)

Walter Lippman, V.S. Foreign Policy: Shield of the Republic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43), 177pp.

(대외정책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대외 언약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한도 내에 제한시킬 필요성을 간략하게 고전적으로 해명한 책.)

Charles Burton Marshall, the Limits of Foreign Policy (New York: Henry Holt and Co., Inc., 1954), 128 pp.

(대외정책이 형성되는 과정, 의결에 도달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 및 책임성이 행동에 부과하는 실지적 한계 등에 대한 간략하고 고무적인 책)

Hans J. Morgenthau, In Defense of the National Interest: A critical Examination of American Foreign Policy(New York: Alfred A. knopf,

1951), 283 pp.

(미국 대외정책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 저자는 미국의 국가적 이익이 국제정치의 현실을 이해못하는 이상주의자들에 의하여 잘못 해석되어 왔다는 것을 암시한다.)

W. W. Rostow, The United States in the World Arena (New York: Harper & Brothers, 1960), 568 pp.

(과거 25년 동안 세계문제에 있어서의 미국의 역할을 예리하게 분석한 것인데 국제 문제를 취급하는 우리의 전통적 사고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요구하고 있다.)

Kenneth W. Thompson, American Diplomacy and Emergent Pattern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62), 273pp.

(미국 대외정책에 대한 옛날의 접근 방법과 새로운 접근 방법을 철저히 검토한 것.)

마. 토의 문제

1.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그 대외정책을 왜 변경했는가? 외부의 사정이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세계 사정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로 하여금 세계의 지도적 역할을 받아 들이게 하였는가?

2. 2차 대전 이전(또는 이후)에 미국 역사에 있어서의 이상적인 윤리주의와 현실주의 예를 들 수 있는가?

3. 미국 대외 정책에 있어서 윤리적 원칙과 힘의 사용과를 융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서 어떤 철학적, 이념적 또는 실용적 사고방식이 있을 수 있는가?

4. 미국의 주요한 안보의 조건들은 무엇인가?

5. 대외정책에 있어서 우리의 현재의 국가적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들을 누가 결정하는가? 또 어떻게?

6. 미국의 봉쇄전략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성공을 거두었는가? 그 외에 어떤 전략을 미국은 따를 수 있었겠는가(예컨대 '롤백')?

7. 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기타의 미개발 지역의 나라들이 동서의 투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가? 그들은 민주주의를 적대시하는가? 공산주의에 호의를 가지고 있는가? 미국은 계속 미개발 국가들에 대하여 군사적 및 경제적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가?

3. 현대 민주주의 유형과 목표

가. 주제 개설

이런 성질의 강의에 있어서는 처음에 간단하나마 우리가 신봉하는 헌법하의 민주 사회 및 그 정치제도의 기본적 몇가지를 상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므로써 공산 전체주의와 대조가 더 명확히 될 것이다. 물론 미국 입헌 민주국의 기본을 몇가지 상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부분의 미국 대학에서 보통 들을 수 있는 상세한 강의를 통하여야만 민주국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에게 줄 수는 없다. 민주주의 철학과 제도에 관한 문헌은 방대하다. 그러나 역시 기본적인 문헌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나은 방법은 없다. 이 관계에 있어서 미국 변호사협회 발행 '우리의 자유의 근원'(미국 헌법과 권리 장전에 있어서의 개인 자유의 기본 문헌)(Chicago, 1952)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좋다.

민주주의 신념의 고전적인 대문헌인 미국 독립 선언은 명백히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태어 났다.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그들로 부터 제거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정부를 조직하고 정부는 피통치자들의 승락하에 그들의 정당한 힘을 부여 받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 문헌은 또한 인간의 제거할 수 없는 권리가 유린 당할 때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력에 호소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미국 민주주의의 두번째 중요한 문헌인 헌법은 정치체제가 개인의 근본적인 권리가 보호되고 질서 있는 정부가 확립되고 또 법 밑의 정의가 유지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명한 조항을 쉬지 않고 행사함으로써 무력에 호

소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이룩되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즉 그것은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믿는 신념과 그 신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만든 실지 통치와의 결합이다.

'민주주의'라는 술어와 관련된 광범위한 개념들과 이상들을 체계적으로 논하자는 것이 이 교수지침서의 목적은 아니다. 여기서 사용된 바와 같이 이 술어는 개인에게 관련된 이상들과 제도들 그리고 법체계 하에 있어서의 그의 존엄성 옹호에 관련된 말로 서술되어 있다.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국가 명령과 이익을 목표로 삼는 공산주의 제도와 의식적으로 대조시켜져 있다.

'민주주의'는 서방 문명사 전체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의미로 나타나게 되었다. 민주주의라는 말이 생긴 고대 희랍인들에게는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통치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국민'이란 개념은 소수의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었다. 어떤 도시국가에 있어서는 재산 기타의 부의 형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었고 또 어떤 데에는 '자유시민'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다. 어디서나 노예들은 통치 과정에 참가하지를 못하였다. 그와 같이 로마 공화국 정부는 로마제국의 모든 국민들에게가 아니라 로마시시민에게만 책임을 지는 것이 그 특징이었다. 최상의 경우에만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민주주의가 모든 자유 시민들이 공적 일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개인의 권리나 소수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대해서는 별다른 개념을 못가지고 있었다.

영국에 있어서 17세기 18세기 의회정치의 발달이 결국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지에 그와 비슷한 정치 토대를 주게 된 것이다. 미국 혁명 이전에 식민지 통치를 해본 결과 민주주의 형태로 기우러지기 시작하였다. 법치와 개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원칙들이 견고하게 확립되어서 미국 식민지를 무시하는 영국의 태도가 새로운 국가를 혁명적으로 건설하려는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민주주의 발전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에 대한 강조를 들 수 있다. (물론 이와 비슷한 발전들이 대

륙 서부 유럽에도 일어났다.)

미국 정부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주요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다수가 원하는 바를 실현케 하는 책임이 있다는 원칙 위에서 조직되었다. 전반적인 '성년 투표권의 발전은 정치 지도자의 선출을 국민의 손에 넘어 주었다. 투표할 권리는 일찌기 민주 정부의 기본으로 인정되었다.

다수인이나 또는 훈련된 소수인이 폭정을 확립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헌법은 정치적 권위의 집중을 막기 위한 이중의 방위 수단이 되었다. 균형된 연방제도 속에서 정부의 권력은 각 주와 연방정부에 골고루 나누어 졌다. 연방정부에서는 또 이 권력이 세 가지 부로 나누어져 그중의 하나가 월등한 위치에 서지 못하게 하였다. 법률을 만드는 권력과 그 법률을 집행하는 권력은 따로 따로 장악되었다.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법률을 못쓰게 하는 권리는 독립된 사법부에 주어졌다. 이 관계에 있어서는 영국의 제도가 연방제도를 위하여 이 같이 신중히 고안된 조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과 또 유럽의 민주주의들은 중요한 면에 있어서 미국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진정한 민주제라면 근본적으로, 일반적 전체주의와는 대립되는 공통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색 가운데는 조직적인 반항, 질서 정연하게 계승되는 정부, 자유로운 공개 토론 그리고 인간의 인격에 대한 고도로 세련된 존경심 등이 있다. 이 모든 것이 만인이 꼭 같이 따라야 할 법률에 대한 존중심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서구에 있어서 법치의 근거의 하나가 재산권에 대한 존중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재산의 보유에 있어서 일련의 제한된 권리와 의무를 확립한 봉건적인 계약에까지 더듬어 올라가면, 이 재산의 역할은 법적 권리 및 원칙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가끔 '독립선언의 지적인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존 록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포함한다고 역설하였다.

민주적 정부제도는 때로는 귀찮고 또 때로는 독재정치 제도가 전략과 국

가 안전을 위해서 시간적으로 유리하다는 이유로, 독재정치의 가상된 능률과 비교하여 불리한 입장에 서는 때도 있다. 위기가 닥쳐 올 때에 국가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집중과 개인의 권리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제안한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와 같은 충고에 귀를 기우린다. 위기가 지나간 후에 다시 민주제도로 돌아가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론은 듣기에는 근사하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얻기는 어려우나 잃어 버리기는 지극히 쉬운 것이다. 현대 산업 사회에 있어서의 개인은 무정형의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끼어 있으면서 정치적으로는 굴복 밖에 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이론이 개인을 중요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 실제도 그 이익과 효과적인 참여가 입헌 정부의 적절한 기능을 보증할 수 있는 교양 있고 정치적으로 각성된 시민을 요구하고 있다.

나. 강의 방법

민주주의의 역사와 이론과 실제를 간단하게 요약한다는 것은 물론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여기 취급하는 것은 첫째 공산 전체주의의 이론 및 실제와 대립시킬 입헌 민주주의의 원칙에 관한 연구와 그 근본적인 이론 및 실제에 관한 검토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사는 피교육자들에게 상기시켜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강사는 교원들이나 학생들에게 그들이 그 밑에 살고 있는 입헌 민주주의의 의미를 끊임없이 검토하고 생각하도록 역설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민주주의 강의는 공산주의 강의와 병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미국 사회학과 교원들이 입헌 정부의 이론과 실제에 관하여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강사는 공산주의를 취급하는 강의를 함에 있어, 비교를 통하여 실용적인 민주주의의 많은 요소들을 (이 요소들은 보통의 경우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검토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강의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의 투쟁의 밑을 흐르고 있는 근본 원칙들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항상 생긴다. 왜

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적대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강의는 다음으로, 전통적인 민주주의 이론에 들어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정의', '평등' 및 '책임' 등의 용어가 서로 관련된 개념으로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바르게 통치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법앞의 개인의 평등권은 절대적인 원칙이다. 민주주의는 방종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자유는 책임과 균형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등 자체는 자유와 정의 사이의 한 개의 균형으로 보아야 한다.

역사적인 방법은 이런 개념들의 발전보급과 존속성을 증명하는 데 지극히 필요하다. 고대 희랍 도시국가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와, 그후 중세 유럽의 민주주의를 오늘날 존재하는 입헌정부 형태와 대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이론과 실제의 발전은 역사적 예를 몇가지 들어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민주적 정치제도는 나라마다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것과 임시적인 조처를 구별 짓기 위해 유사점과 상이점에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헌법은 권력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국가에 삼권을 독립하여 서로가 다른 부의 영역을 침범 못하게 한다. 그러나 영국의 헌법제도는 그의 전 권력을 입법부 즉 국회에 준다. 전자를 주창하는 자들이나 후자를 주창하는 자들이 서로 자기네들의 제도가 국민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가? 그 이익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민주주의의 보루로서의 '대의 정부'의 역할을 논함에 있어서 강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 즉 1689년에 존 록은 국민의 표현된 의사를 완전히 반영하는 입법부에 모든 권력을 부여하는 정부를 묘사했다. 1774년 브리스틀의 선거민들에게 연설하면서 에드먼드 버크는 자기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정을 잘 모르는 선거민들의 요구를 듣느니 보다 자신의 양심의 지도를 받겠다고 강조하였다. 국회의원이

단순히 자기의 선거구의 의견만 대표한다고 하는 관념에 사로잡힌 그런 지방적 한계를 훨신 넘어서 생각할 수 있는 정치적 엘리트만이 국가 이익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현대의 해설자들은 대의정부 문제에 관하여 말할 때, 실지 통치를 하는 것은 선거구민들이지 버크가 말하는 엘리트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선거구민들은 통치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존중하지 않으며 따라서 특정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책을 좌우할 권리를 요구한다. 그 결과로 정부기능은 일반 국민들의 일시적 기분 앞에 마비되고 만다. 이러한 경향이 계속될 때는 그 결과로 전체주의적 혁명이 오게 되고, 이것은 다시 서방에 있어서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해 버릴 것이라는 것을 해설자들은 두려워 하고 있다. 확실히 훌륭한 대의정부는 '견문이 넓은 대중'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견문이라 해야 결국 신문 기타 보도 기관의 질, 보도를 허락하는 정부의 정책,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능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매개체를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며, 또 대중의 실천이란 공적 일에 대한 그들의 이해 관계와 또 책임있는 시민으로서 이에 참가하겠다는 그들의 용의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이론은 개인의 자유가 참정권을 가진 대중들에 의하여 의의있게만 행사되면, 민주주의 철학과 민주주의 생활양식에 젖은 전통 속에서 통치되는 유력한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때때로 '대중의 야비성이 우리의 문화를 괴롭히고 대중의 흥분이 우리의 정치를 괴롭혔지'만 인간의 교육 가능성과 인간의 성질 및 지성의 잠재능력에 기초를 둔 민주주의 철학은 미국정치 경험 속에서 대체로 유지되었다.

물론 정부 일에 대중이 참여하는 일은 결정을 내려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그들이 단호하게 행동할 수 없게 만들 위험성은

항상있다. 현대 민주정부의 내재적인 약점이 항상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다. 또 한편 (연방정부의 입법부가 그 경제적 문제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일국에 있어서 정치권력이, 저항할 힘이 없는 인구를 기술적으로 통치하게 될 소수인의 수중에 집중될 수 있는 위험성도 그 보다 적지않은 것이다. 이 두 가지 위협에 미국이 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위협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다.

미국 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살펴보는 동안, 강사는 이것이 자유와 권위와의 정확한 균형이라는 옛부터 내려오는 문제에 대한 유력한 해답이 된다는 것을 지적해 주어야 한다. 실로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만이 개인의 권리와 기회를 적절히 보호하는 정치제도를 이룩할 수 있다. 이것은 그렇게 경솔히 취급할 주장은 아닌 것이다.

민주정부와 독재정부의 특히 다른 점은 이 두 제도에 있어서의 법률의 역할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자유 사회에서 이해하고 있는 바 '법치'는 개인의 빼앗을 수 없는 권리 및 국가권력의 한계에 대한 정의를 융합한 법률 본문과 그리고 각 시대의 가변적인 조건들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개개 법률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적용에 대해서는 독립된 사법부가 성문법 또는 확립된 법적 관례 및 판례에 입각하여 해석을 내리는 것이다. 권위주의자들에게는 법률이란 하나밖에 없다. 즉 지도자의 그때 그때의 의사(또는 한 정당의 의사)가 그것이다.

정의와 평등과 자유 사이의 균형을 제도화하는데 있어서의 미국 민주제도의 업적을 요약한 후에 강사는 다음에 시간이 허락하면 '책임'의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넘어갈 수 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책임의 필요성과 복잡한 문화의 광대한 다원성 사이에 일어나는 긴장상태에서 오는 것이다. 책임이란 하나의 태도이다. 다수의견 존중이란 정치적인 조건을 말한다. '책임'은 정부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고 개인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 국가는 개인에게 대하여 그 정치적, 사법적 및 재산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시민은 공중의 행복을 침

해하여 이러한 권리들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서 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런 두 가지 책임 사이의 균형은 미묘한 것이며, 독립된 사법부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다.

다수의견 존중의 개념은 정치권력이 사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개인 또는 군중 또는 당파 사이에 나누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 또는 주 정부 사이에 권력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정부 각층에서 권력을 나누는 등 어떤 제도적 형태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에 말한 권력의 분리가 효과를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견제의 제도는 행동을 마비시키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의견의 일치와 타협을 이루는 정치적 실제 기구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복수투표는 선출된 대의원을 뽑는 데 충분하며 또 (어떤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수가 결선전에 가서는 줄어 든다.

강사는 전체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동의가 강요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하는 시민이 '자유로운 동의'를 통하여 권리를 지도자들에게 위임한다는 단순한 이론을 가지고 복수투표를 설명하는 곤란을 피하려고 할 수 있다.

다. 필수 독서

John Lock,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selections); Thomas Jefferson,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Selected Letters;" John C. Calhoun, A Disquisition on Government (selections); and Zevedi Barbu, "Democracy as a Frame of Mind," Communism, Fascism, and Democracy: The Theoretical Foundations, ed., Carl Cohen (New York: Random House, 1962), pp. 436—471, 481—487, 506—528, and 631—643.

라. 선택 독서

Ernest Barker, Reflections on Governmen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42). 424 pp.

(현대 민주주의와 그것에 대하여 전체주의가 가지는 여러 가지 대결의 성질에 관한 날카로운 논의,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자유에 대한 의미의 논의가 특히 우수함.)

Carl L. Becker, Modern Democr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42). 100 pp.

(유명한 미국 역사가가 예일대학에서 행한 세 가지 강연, 저자는 민주제도의 생명은 국가가 공중의 행복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며 단순한 '논리적인 이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Alfred A. Knolf, 1956). 2 vol., cxiv+434 and Xiii+401 pp.

(이것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고전적인 저작인데 1830년대에 쓰여진 것이지만 오늘날도 그 때와 마찬가지로 통용되는 관찰로 가득차 있다. 때로는 외국인들이 우리의 제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되는 때가 많다. 그 소개문과 주석은 필립스브래드리(Phillips Bradley)가 썼다.)

F. A. Hayek, The Constitution of Liber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X+570 pp.

(유명한 시카고 대학 교수가 상세히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윤리와 그리고 자유와 법과의 관계를 검토했으며, 우리의 복잡한 경제에 있어서 어떻게 개인주의를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를 피력했다.)

Alexander Hamilton, James Madison, and John Jay, The Federalist: A Commentary on the Constitution (New York: The Modern Library, 1941). 618 pp.

(미국 헌법을 채택할 당시에 헌법을 옹호하기 위하여 쓴 일련의 논문들, 헌법의 강점과 또 헌법이 헌법 내의 정부의 요구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논리 정연하게 진술한 논문.)

Ross J. S. Hoffman and Paul Lovack(eds), Burke's Politics: Selected Writings and Speeches of Edmund Burke (New York: Alfred A.

Knopf, 1949). 536 pp.

(버크의 정치철학을 완전히 설명한 것인데 특히 그의 사실상의 대의 개념과 엘리트의 역할에 대한 개념을 강조한 것이다.)

Sidney Hook, Political Power and Personal Freedom (New York: Criterion Books, 1959). 462 pp.

(박월한 정치 철학자가 집필한 자극적인 글로서 특히 제1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가치가 있다.)

A. D. Lindsay, The Modern Democratic State, Vol. I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5). 286 pp.

(공업 국가들에 있어서 정치적 민주주의 이전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명한 것. 정부의 역할에 대한 해석은 퍽 적극적인 해석이다.)

Walter Lippmann, The Public Philosophy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55). 189 pp.

(대중 민주주의의 약점들에 대한 날카로운 공격이며 또 이러한 약점들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정부기구에 대한 신념의 재생을 전체적으로 진술한 것.)

Robert Morrison MacIver, The Web of Government (New York: The Macmillan Co., 1947). 498 pp.

(정치권력의 성질과 그 권력이 행사되는 그 양상에 대한 착실한 연구. 정부의 형태와 기구를 배경으로 하여 사회관계의 성질을 강조한 것.)

Henry B. Mayo, An Introduction to Democratic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0). 316 pp.

(민주 사상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철저히 그리고 학적으로 해명한 것.)

Raymond W. Miller, Can Capitalism Compete? A Campaign for American Free Enterprise (New York: Ronald Press Co., 1959). 264 pp.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힘으로서의 현대 미국 자본주의의 묘사. 저자는 자유기업의 자발적인 조직의 국제적인 관계를 논하고 있다.)

Saul K. Padover, The Genius of America: Men whose Ideas shaped Our Civilization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60). 369 pp.

(우리의 민주 사상 전통을 설명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서의 19명의 미국 정치가들과 지식인들의 사상을 논한 것. 저자는 뉴욕의 사회조사원 (New School of Social Research교수이다.)

Karl R. Poppe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3rd ed., 2 Vols. (London: Routledge and Kegon Paul, 1957), 322 및 391pp.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철학적인 근거를 비교한 근본적인 분석.)

The Rockefeller Panel, Prospect for America (New York: Doubleday and Co., 1961). 486 pp.

(1960년대에 미국 민주주의가 겪은 국내적 및 국제적 도전을 개괄한 그룹 연구.)

마. 토의 문제

1. 국가 대 개인의 역할에 관련한 민주주의의 기본적 개념은 무엇인가? 자유와 사유재산을 누릴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국가 및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무와 어떻게 균형이 될 수 있는가?

2. 민주주의가 농업사회에는 적당한 정부 형태가 되겠지만 날로 중앙집중화되어 가는 경제적(그러므로 또 정치적)권력에 직면하여 점점 무력해 가는 정부형태라는 이론을 당신은 어떻게 다루겠는가? 대규모의 조직체에 고용된 보통 인간이 어떻게 그의 생활을 형성시키는 정치세력을 움직일 수 있는가?

3. 민주사회에 있어서 법률은 어떤 목적에 이바지 하는가? 법률의 제정과 수정과 해석이 전혀 국민의 의사에 굴복해야 하는가? 또는 국민의 일시적인 기분으로 부터 법정이 법률의 어떤 면을 보호해야 하는가?

4.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에 반드시 따라야 할 수반물인가? 국가의 경제적 생활을 대중이 통어하는 일과 정치적 민주주의 사이에는 사실상 분규가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국가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

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가?

5. 어느 정도 까지 민주 정부는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가? 개인의 권리는 오로지 정치적인 것인가? 또는 그 권리는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것인가?

6. 많은 시민이 가지는 정치적 무관심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인민들은 실제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두려워 하는가?

4. 전체주의로서의 공산주의 : 그 특성과 동태

가. 주제 개설

사회경제 철학 및 국제 혁명운동으로서 독특한 점이 있지만 공산주의는 인류의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그 총괄적인 해결을 주려고 한 다른 교리와 유사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일단 그 근본 가설만 한개의 신조로서 긍정하게 되면 나머지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기 마련이다. 이와같은 교리는 그 추종자들을 이끌어 그 '목적'을 위하여 몸을 바치게 하기에 충분히 매력이 있는 것이다. 모든 예언자들의 약속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유토피아적인 생활을 약속한다. 공산주의도 그 추종자들에게 그런 약속을 한다. 거기에다 공산주의는 산업시대를 포함하여 역사적 발전 단계의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엄격히 '과학적인' 술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공언한다. 공산주의는 전체주의 교리와 제도들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존재인 것이 증명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적이나 기타의 차이에도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추종자들은 그들은 인간의 행동과 그 동기를 이해하며 또 그들만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발전의 배후의 힘을 이해한다고 믿게끔 설복되어 있다. 그들의 대부분은 교리적인 가설을 그대로 신봉하여, 결코 도리켜 그 언약의 근거나 배후를 검토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전체주의적 공산주의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이론적 근거를 이해하여 지적으로 그 오류를 폭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적 민족주의나 공산주의가 인간제도의 기초가 되게 되면 그 때에는 위정자들은 인간의 모든 국면을 통제하려 들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성질상 통제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회의 모든 부분은 교리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취급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로 하여금 이미 권력을 잡은 곳에서는 사회의 전체를 통제하게 하며, 또 기타 어디서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영원한 혁명을 일으키게 하는 내적인 논리가 있는 것이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독단설의 진리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위협이 되며 따라서 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신조의 예언자들이 신봉하던 높은 이상과 그들이 일단 권력을 잡은 후의 행동과는 현저한 차이가 생기게 된다.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목표와 그들이 세계의 각처에서 확립한 전체주의적 통치의 현실이 그와 같이 다른 것은 대체로 그 근본 가설이 엄격한 지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았고 또 실제 기록된 역사와는 어긋나는 단일교조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현실을 관찰하며, 모든 진리를 결정하려고 하는 데서 결과된 것이다. 크레인 브린튼이 그의 "혁명의 해부"에서 증명한 바와 같이, 크롬웰이나 불란서 혁명과 같은 절대주의적 원칙과 가설 위에 선 것은 모두 독재주의로 끝난 것이다. 오히려 공산주의자들의 절대주의는 그들의 전술적 조정 능력과 효과적인 강압 방법, 또 20세기 폭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찰제도 때문에 더 오래 계속해 왔다. 라인홀드 니버가 그의 저서 "국가들과 제국들의 구조"에서 말하기를 천재적인 레닌은 '소박한 이상주의와 권력에 대한 예리하고 냉소적인 관심과를 결합시키고 광신주의와 전략적 임기응변성을 결합시킬 수 있었다'고 하였다. 노동계급에 의한 통치를 의미했던 '무산계급 독재'를 레닌은 강력히 조직된 독단적인 혁명주의자들의 당으로 고쳐 놓았다. 공산주의와 공산독재에 있어서의 레닌의 업적은 마르크스의 방법을 권력구조로 편성하면서 유토피아의 꿈을 계속시키는데 있었다. (그중 몇 가지 면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더 상세히 취급하기로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각자에게'라는 찬란한 약속과 권력과 예종, 부유와 빈곤, 그리고 새로운 특권계급과 국가 노예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빚어낸 공산국가의 현실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 많은 노력과 지면을 소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항상 그 신조를 끄집어 내는 화려한 공산주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달성되지 않은 무산계급의 전위이며 신비로운 구현으로서의 당을 끄집어 냄으로써 그들은 이것을 설명해 버린다. 소련 공산당 제17차 대회에 보내는 보고에서 스탈린은 '당은 무산계급 조직의 최고 형태이며' '독재주의를 성취하기 위한 무산계급의 무기'라고 장담하면서 모든 모순을 합리화시켰다. 그러나 권력은 이 전위만이 독점하고 있으며, 이것은 소련에 있어서는 과두 폭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통제의 무기로서는 한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하여 사용하는 야만적인 힘을 사용하는 일이다. '국가는 하나의 몽둥이라'고 레닌은 말하였다. 몽둥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를 포함하여 유토피아 교리의 큰 착각은 인간을 인간으로서 보지 않고 인위적이고 지나치게 간소화한 방법에다 인간을 적응케 하려고하는 데 있다. 거기에다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 완전한 우애라는 이상적인 목표는 유토피아의 완전한 조화를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인간의 자기 중심주의, 감정적인 자기주장 그리고 인간의 개인주의 자체가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불란서 혁명이 그 난폭한 단계에 들어가기 훨씬 전에 에드먼드 버크는 광신자들이 정치제도의 기초로서 절대성을 내세우는, 모든 사회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 냉정한 심정과 흐린 이해력의 소산이며, 또 확고한 지혜나 취미나 우아성을 결한 이러한 야만적인 철학에 입각한 법률은 폭력을 가지고써만 유지될 수 있으며, 또 각 개인이 그 법률 속에서 발견하는 개인적 이해관계로써만 유지될 수 있다. 그들의 학원, 조망 속에서는 한 풍경이 끝나면 곧 교수대를 보게 되는 것이다. 국가 측에서 볼 때는 우리의 애정을 끄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이러한 기

계적인 철학 원칙 위에서는 우리의 제도는 인간 속에 구현될 수 없고,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따라서 우리 마음 속에 사랑과 존경과 찬란과 애정의 감정을 일으킬 수 없는 것이다.

불란서 혁명의 초기 양상에 대한 버크의 이와 같은 묘사는 소련이나 중공이나 카스트로의 쿠바에 해당되지 못할 것은 없다.

나. 강의 방법

이 강의는 공산 전체주의의 모든 의미를 초보적으로 이해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강사는 '전체주의'라는 용어를 어떤 뜻으로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야 한다. 소수인의 손에 모든 권력이 집중적으로 장악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통신과 사회의 전 통제력이 모두 장악되어 있는 현대의 전체주의는 히틀러의 독일에서의 실제와 강제노동 수용소가 있던 스탈린의 러시아의 공포와 그리고 '인민 공사'를 가진 모택동의 중국 등과 관련시켜서 말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 때문에 전체주의 통치하에서 살아 본 사람들의 직접 경험을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가끔 필요하다. 이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전체주의 국가에서 보다도 공산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행동이 훨씬 더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상의 통제, 개인의 깨어 있는 시간에 대한 지배 및 그의 반응을 조절하려는 체계적인 노력 등이 다른 어떤 전체주의 국가에 있어서 보다도 훨씬 더 심한 것이다.

강사는 또한 공포, 경찰력, 이념상의 선전, 및 곳곳에 침투 되어 있는 조직 등이 공산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도구가 되어 있는 가를 지적해야 한다. 강사는 모든 인간제도를 한개의 주의의 테두리 안에 집어 넣으려는 노력이 결국 국내적으로는 강압과 대외적으로는 적개심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한편 나치즘이나 공산주의와 같은 신조가 그 추종자를 얻을 수 있는 몇가지 근거, 즉 어떻게 능률을 주장하며 편견과 이상을 이용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의 강압적인 면만 묘사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결국 공산주의가

추종자들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가져오고 말 것이다. 명백히 공산주의는 많은 신념이 확고한 추종자들을 이끌어 왔기 때문이다.

강사는 공산주의가 매력을 가지게 되는 몇 가지 근거를 설명하여 그 무서운 도전을 청중이 처음부터 의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는 (1) 훈련된 엘리트 즉 '전위'가 됨으로써 그 무의미하던 생활에 의미를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2) 경제적 및 사회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여――이것은 수십년의 맹렬한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인데――마르크스주의속에서 자기들의 장래를 해방할 수 있는 '마력적인 방식'을 찾으려는 사람들, (3) 모스크바나 북경에서 불어 오는 바람을 검토해 보고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무자비한 무리들에 합세해야' 한다고 결론지어 버리는 사람들, (4) '위험하고' 또 모험적인 생활양식을 좋아 하는 사람들, (5) 모든 것을 통찰하는 당의 이름으로 자기들 보다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들에 의해 모든 결정이 내려지는 강력한 집단 속에 자기들의 불안정하고 불만스러운 생활을 파묻어 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6) 과거의 역사적 기록을 잘 검토함이 없이 자기들 주위에서 일어나는 비참과 부정을 진실로 혐오하여 공산주의가 마치 '개선에의 길'인 줄로 알고 신봉하려드는 사람들, (7) 심리적으로 자기들의 전통과 사회관습에 반항하며 공산주의를 자기들의 감정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도구로 알고 신봉하는 사람들, (8) 항상 유동하며 무질서한 세계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확실성을 공산주의 교조 속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로부터 방향을 돌이켜 강사는 전체주의적인 공산주의가 오늘날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을 요약해 보여줄 수 있다. 즉 조국을 무시하는 충성심, 투쟁과 분쟁에의 투신, 훈련된 조직, 소련 및 중공의 세력기지 등등을 설명해 줄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 목표에 대한 응모자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가지 수단을 설명할 때는 이하에 소개하는 레이몬드 아론 및 개브리엘 알몬드의 저서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상과 같은 점에 주의하면서 강사는 헌법적 민주주의의 방법과 공산 전

체주의의 방법과의 대조를 사회복리 추구의 방식에 의하여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교리를 조작하면서 명백히 모순된 것을 정당화하려고 사용하는 수법을 설명하는 일이다.

제17차 당대회에 보내는 스탈린 연설의 몇가지 발췌문을 읽어보면 이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강사는 그 세밀한 부분은 제2부에서 취급한다는 것을 미리 말해 두어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 이념의 몇가지 희미한 점을 말해 두어야 한다. '지상의 천국'이란 유토피아적인 개념은 인간의 경험이나 또는 인간의 정신으로서는 지지될 수 없는 것이다. '진보적인' 민주주의도 공산주의자들로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다. 그들의 제도는 공산주의의 최후의 목표가 달성될 때 까지 즉 국가가 쇠망할 때 까지 무산계급을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소수의 선봉을 권력의 자리에 앉쳐 놓는 전체주의적 구조에 불과한 것이다. 이 목표의 실현은 항상 먼 미래로 미루어만 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전체주의적 강압적인 통치는 남아 있다. 그래도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이 결코 오류를 저질를 수는 없다는 주장을 고집한다. 노동계급과 전 인류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 것을 다른 누구 보다도 특히 노동자들 보다도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다. 필수 독서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6), pp. 1—26, 293—298.

Merle Fainsod, How Russia is Ruled, rev. e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pp. 577—601.

라. 선택 독서

Gabriel A. Almond, The Appeals of Communism.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4). 415 pp.
(여러가지 풍부한 증거에 입각하여 공산주의의 매력을 철저히 소개한 것.)

Raymond Aron, The Opium of the Intellectuals (London Secker & Warburg, 1957), 324 pp.

(지적인 사회에 끼치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좀 이론적이긴 하지만 잘 분석한 책이다.)

Milovan Djilas, The New Clas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7), 214 pp.

(전체주의와 또 공산주의 내에 일어난 '새로운 계급'에 실망한 공산주의자가 쓴 공산주의에 관한 책이다. 유고슬라비아의 전 부통령으로서 각처의 공산주의를 신랄하게 고발한 것인데 그래도 그의 저서는 오랫 동안 당의 훈련을 받아 온 사람이 그가 받은 지적인 영향을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William Ebenstein, Totalitarianism: New Perspectives (New York: Holt, Rinebart, and Winston, 1962). 80 pp.

(전체주의 정책을 간단하게 분석한 것.)

Carl J. Friedrich (ed.), Totalitarianism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386 pp.

(1953년 3월 미국 과학예술원에서 열린 회의의 기록인데 우리 시대의 중요한 사건을 다루었으며 프리드리히 교수의 고무적인 소개문이 붙어 있다)

Eric Hoffer, The True Believer: Thoughts on the Nature of Mass Movements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7). 176 pp.

(전체주의적 대중운동에 가장 끌리기 쉬운 성격형에 대한 사회적, 심리학적 연구이다. 호파는 자신의 생활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그 성격을 '진정한 신봉자'의 엄격한 법이 정열적으로 매꺼 버린다고 가정하고 있다)

Victor A. Kravchenko, I Chose Freedom (New York: C. Scribners Sons, 1946). 496 pp.

(공산당의 무자비한 훈련과 전술을 겪고 나서 자유의 품으로 개종한 본래 공산주의자였던 한 사람에 의하여 쓰여진 전후 초기의 기록 중의 하나

이다.)

Wolfgang Leonhard, Child of the Revolution (Chicago: Henry Regnery Co., 1958) 447 pp.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 겪은 한 독일 작가의 경험을 여실하게 그린 것인데 퍽 계몽적이며 통찰력 있는 글이다.)

Frank S. Meyer, The Moulding of Communists: The Training of the Communist Cadre (New York: Harcourt Brace, 1961), 214 pp.

(미국 공산당의 훈련을 저바린, 본래 공산주의자였던 사람이 공산당 훈련의 중요한 면을 통찰력 있게 파해친 저작이다.)

마. 토의 문제

1. 어떤 면에서 공산주의자가 다른 유토피아론자들의 실천 목표와 다른가? 그 어떤 면이 공산주의로 하여금 다른 것 보다 인간 자유에 대하여 위험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가?

2. 왜 불란서 혁명이 독재주의로 발전했는가? 어떤 조건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는가?

3. 공산주의 혁명에 있어서 전체주의 통치가 성공을 거두는 것은 어떤 현명한 개념 때문인가? '전위'란 무엇인가?

4. 공산주의 이념에 있어서의 모순의 몇 가지를 말해 보라. 이 모순을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변명하는가?

5. 이념의 해석이 항상 달라지는 데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공산주의자는 왜 충성을 다하는가? 공산주의가 종교의 외모를 갖추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공산주의자의 '충성'의 근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공산주의가 우리의 마음을 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6. 우리가 왜 공산주의의 전체주의적인 면과 그 보편성에로의 노력을 두려워 할 필요가 있는가?

7. 공산주의자들의 약속에서 가장 사기적인 면을 몇가지 지적해 보라.

공산주의 이념을 근본적으로 물리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면을 말할 수 있는가?

5. 마르크스주의 사상의 유럽적 배경

가. 주제 개설

부유한 시대에 살 때는 우리가 때로 서방의 번영을 가능케 해 준 여러 세대를 거친 사회적 투쟁과 곤란을 잊어 버리기 쉽다. 공업화는 사유재산 제도의 모든 결점을 함께 가지고 왔다. 오늘 날 우리는 사유재산 제도가 다른 여하한 소유 제도 보다 사회 정의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많은 신생 국가들은 옛날에 미국이나 유럽이 그러했듯이 공업화 문제에 시달려 그 지도자들은 사회 변혁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희망에서 마르크스주의적 해결에 마음을 끌려 왔으며 또 그들은 큰 인적 희생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려는 것 같다. 서방의 마르크스주의 근원을 조사해 보면 왜 이런 것이 매력을 가지는가를 알 수 있다.

18세기 증기기관의 출현은 산업혁명의 시발을 고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처음 영국에서 대규모로 일어났다가 차차 유럽 대륙 그리고 미국으로 번진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제도의 성장과 함께 따라온 산업혁명은 기성 농업사회를 파괴하고 진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대공업 도시를 성장케 하고 또 대 인구의 이동을 가져오므로써 그에 따르는 사회 조정의 문제를 낳은 것이다. 대규모 제조업의 초기 발전에 따라 얼마마한 인적 손해가 있었는지는 알기가 어려우나 그 손해가 컸다는 것만은 의심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영국에 있어서의 양모업의 성장은 많은 농토를 양을 위한 목장으로 전환케 하였다. 18세기 후반의 공유지 사유화 법령은 소농들을 거의 파멸시켰으며, 따라서 무수한 사람들을 점점 커가는 공업 수도에로 집중케 하였다.

초기의 공장과 광산의 노동자 조건은 한심스러운 것이었다. 임금은 낮고 노동시간은 길었다. 청소년의 노동은 자연적으로 오는 현상이었으며 노

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 수준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저 밥이나 겨우 먹고 빈민굴에 사는 상태였다. 세필드, 버밍험, 맨체스터, 리버풀, 리즈 같은 영국 도시에 있어서는 인구는 1821년과 1831년 사이에 40퍼센트 이상 늘었다. (유럽 대륙에서는 변화가 더 더디게 왔다). 이와 같은 고통이 발견됨에 따라 입법적인 조처와 개혁의 방안이 취해졌다. 최초의 아동 노동법이 1802년에 영국에서 통과되었다. 그리고 두번째 공장법이 1819년에 통과되었는데 그 배후에는 개혁자 로버트 오웬(1771—1858)의 노력이 숨어 있다. 불란서에서는 1803년의 한 법률이 새벽 3시 이전에 공장에서 일을 못하게 하였었다. 공장에 있어서의 노동자들의 고통은 이 문제를 폭로하는 문학을 낳게하고 인도주의적 개혁자들을 자극하여 행동을 개시케 하였다. 많은 저명한 정치가들이 개혁을 수락하여 점점 증가하는 노동계급의 조건을 완화하는 비록 더디기는 했지만 책임 있는 행동을 취했다.

그러나 한편 사회 개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과격한 운동이 있었다. 사유재산 제도의 비판으로 시작된 이러한 시도는 완전한 공동체적인 생활 및 공산주의를 위한 유토피아적인 계획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관념들이 19세기 전반에는 서부 유럽의 지적 조류 속에 널리 유통됐다. 씨스몬디는 불란서에서는 1819년 모든 현대 사회가 자본주의자와 프롤레타리아의 두 가지 계급으로 나누어 있다고 주장했다. 몇 해 후에는 산시몬이 자유개방 경제의 모든 원칙을 공격하는 학설을 발전시키고 순전한 유토피아적인 공산주의 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인간은 사회 자체가 생산과 부의 분배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 했다. 산시몬 학파는 상속은 철폐되어야 하며 국가가 사유재산의 처리권을 가져야 하며 모든 것이 정부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중에 이런 학설의 일부는 사회 개혁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유토피아적인 사회주의 형태로 발전하여 영국 및 미국에 퍼지게 되었다. 유토피아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은 영국의 사회 개혁자 로버트 오웬이다. 오웬의 개념은 목가적이며, 전원적인 공동체 즉 협력과 자기 희

생의 이상을 실천할 수 있는 완전한 환경에 대한 개념이었다. 1825년에는 오웬은 인디아나주 뉴하모니에서 그의 개념을 실천하려고 시도했었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유럽의 사회구조 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대 변동들과 합세하여 위와 같은 사조들은 칼 마르크스의 사상과 활동이 유래한 그 원천의 몇 가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을 이루는 것이다. 공업화와 기업제도의 이로움은 후에 오게 되지만 그 초기에는 여러 가지 긴장과 분열 때문에 혁명과 계급투쟁과 정치적 행동을 일으키는 데 충분한 자극이 될 수 있었다.

유토피아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도 인간의 성질이 이상적인 환경에 들어감으로써 고쳐질 수 있다는 학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마르크스는 오웬이 한 것과 같은 실험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또한 현존하는 정부들의 테두리 안에서 계획되는 개혁의 여러가지 단계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반대로 전세기 중엽에는 한창이던 산업혁명이 정치적 혁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기의 불란서 공산주의자들 처럼 그는 착취적 사회관계의 근본을 이룬다고 그가 인정한 사유 재산제도를 없애려고 하였다. 후에 그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미국이나 영국에 있어서는 (이 때에 그는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함께 공산주의 선언을 발표했는데) 혁명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폭력적 사회혁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였다. 실로 발전적 사회주의자들과 혁명적 사회주의자들 간의 논쟁(이 모든 사상가들의 운동의 기원은 마르크스 이전의 유럽의 배경에로 더듬어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만)은 오늘날 허다한 마르크스당들 (각자는 자기가 최초 마르크스 운동의 정통적인 계승자라 주장하는데) 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인 것이다.

초기의 유토피아주의자들과 후기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치료를 요하는 사회조건의 개혁을 위한 그들의 계획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10년에 서부 구라파의 공업국가들은 사회

복리와 공·사립, 및 시립 크럽을 위한 민주적으로 발전된 계획들을 통하여 많은 부정을 제거하는 데 노력하였었다. 거기에다 새로운 산업제도는 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숙련된 기술자들의 계급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중류계급이 성장하여 번영하게 되었으며 또 이 중류계급의 출현과 함께 사회주의자들의 혁명의 가망성은 희미하게 된 것이다.

나. 강의 방법

이 강의는 후에 칼·마르크스로 하여금 사회와 정치에 대한 그의 해석을 내릴 수 있게 한 원천이 된 풍부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기를 기도해야 한다. 19세기 초기의 중요한 사상가들 중 몇 사람과 그들이 보급한 사상들을 언급함으로써 마르크스가 독창적인 정치적 사상가라기 보다는 하나의 종합자였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한다. 대체로 강의는 (물론 관념과 사건들과를 연관시킬 필요도 생기겠지만) 지적인 역사면에 중점을 두어 다루어 나가야 한다. 강의는 동일한 주제 즉 한개의 정치 철학으로서 '사회주의'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성장을 이룩한 여러 가지 근원을 가진다는 주제로 시종해야 한다.

나폴레온 전쟁에 뒤이어 계몽주의의 절대적 이상의 몇 가지와 불란서 혁명에 대하여 반동이 일기 시작하였다. 비록 많은 지성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보수주의와 정당성 원칙들에 대하여 기울어졌지만 다른 사람들은 사회 및 사회 세력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알게 하는 이상과 원칙을 추구하기를 계속였하다. 이러한 탐구는 샤토브리안과 같은 인물 주위에 모인 낭만주의 운동 속에서 볼 수도 있었다. 독일의 낭만주의는 특히 강했고, 따라서 어떤 주요 독일 철학자들은 세계질서를 정립하는 데 합리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하기도 하였다. 이런 인물로서 칸트, 핏히테, 쉘링 및 헤겔이 있었다. 물론 헤겔은 마르크스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방임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사회에 대한 인간의 관계의 문제를 더 현실적인면에서 다루려고 하였다.

이런 사상의 실지 제도적인 배경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려면

산업의 발전, 대도시의 성장, 농부들과 농촌 산업의 문제 그리고 신생 중류계급의 발전 등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본래의 계급 차이는 흐려지고 그리하여 1815년 비엔나 회의로부터 1848년 "공산당 선언"의 발표에 이르기 까지의 기간은 서부 구라파에 있어서 가장 큰 사회적 분렬과 요동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성인들과 사상가들은 큰 속도를 가지고 대중심에서 다른 대중심으로 옮겨간 것이다. 예를 들면 칼 마르크스 자신이 독일 도시의 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으나 파리로 옮겨 갔으며, 거기서 불란서 사회주의자들의 사상에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19세기 초기의 불란서에 있어서 사회주의 과격파들은 독립적으로 활동하였지만 큰 인물로는 씨스몬디와 산 시몬 두 사람을 들 수 있다. 강사는 마르크스의 사상에 영향을 주게 된 그들의 주요 사상의 몇 가지를 골라 설명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노동자 착취에 대한 씨스몬디의 해석을 들 수 있다. 그는 말 하기를 '기업가의 이윤은 때로 노동자를 약탈해서 얻은 것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때가 있다'고 하였다. 모든 사회는 두개의 계급으로 나누인다는 그의 이론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 덧붙여 강조할 것은 '옛날의 기독교적 봉건주의적 질서는 새로운 산업질서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산 시몬의 이론, 자유방임적인 사유재산에 대한 그의 공격, 그리고 부와 분배를 국가가 통솔해야 한다는 그의 이론 등이다. 강사는 또한 산 시몬을 추종한 사상가들이 1829년에 벌써 사람들이 서로 협조 속에서 일하며 국가가 그 보수를 "각자의 능력에 따라 그리고 각자의 일한 양에 따라' 분배해 주는 그런 사회를 주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어야 한다. 루이브랑의 1839년 책자 "작업의 편성"(여기서 그는 국가의 권력은 프롤레타리아 해방의 임무를 다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논했다)을 또한 드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강사는 거기에 많은 이론들이 있다는 것과 또 많은 이런 '사회주의자들'이 마르크스가 이른바 유토피안들이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강의는 또한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끼친 초기의 중요한 영국의 사상가들

에 대해서도 좀 언급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는 윌리암 톰슨 및 토마스 홋지스킨 그리고 특히 로버트 오웬이 있다. 앞의 두 사람은 다 같이 노동가치설을 발전시키고 지지하였으며 또 마르크스가 두둔한 개념 즉 불로 소득의 비윤리성을 강조하였다. 영어로서 처음으로 '사회주의'란 말을 사용한 로버트 오웬은 노동조합 조직 이론과 사회주의적 입법론과 그리고 이상사회 계획에 몰두한 활동가이며 작가였다.

1864년 마르크스가 주도적 역할을 하여 조직한 제1차 인터내셔날은 초기 사회주의 사상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직은 많은 사회주의자들의 집단으로 구성되었는데 그들의 이념에는 서로 차이가 많았다. 무정부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그들이 다 같이 현존하는 사회제도가 원래 사악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지만 자기들이 서로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곧 깨닫게 되었다. 최후에 무정부주의자들은 중부 유럽에서 너무나 폭력적인 운동을 벌여서 인테내셔날은 분렬되었다.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윤리적 입장에서 폭력의 사용을 배척하였는데 한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단순히 그것을 소박하고 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마르크스가 그 중의 한 사람으로 끼어 있는 가지 각색의 사회주의자들의 서로 다른 배경은 그 후에 일어난 사건들로 증명되었는데 이것을 또한 언급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강사는 죠지버나드 쇼가 창시자의 한 사람이 되어 있는 영국 페비언 사회의 현실적인 활동을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자들 (베른슈타인 이전)과 러시아의 포퓨리스트 및 사회혁명주의자들의 보다 교리적이고 혁명적인 방법과 대조해서 설명하는 것도 좋겠다.

다음으로 사회주의 사상의 철학적인 요소와 그것이 활동주의적 정치 지도자들이 이끌어 나가는 현실적인 활동에로의 발전과를 비교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이론적인 개혁자들의 마음 속에 있을 때의 사회개혁의 철학과 그것이 존속할 수 있는 정치적 운동으로 실현 될 때 까지는 그간에 현격한 발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주제는 후에 다른 강의 시간에 더 발전시킬 것이지만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자들과

권위주의적 사회주의자들 간의 그리고 발전적 사회주의자들과 혁명적 사회주의자들 간의 차이는 강의의 주제 즉 사회주의 운동 내의 여러 가지 근원과 성장이란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언급해 두어야 한다.

다. 필수 독서

Friedrich Engels, Socialism, Utopian and Scientific, Part I; Henri Comte de Saint-Simon, "Selected Writings;" 그리고 Robert Owen, "The Book of the New World" (발췌) in Communism, Fascism, and Democracy: The Theoretical Foundations, ed. Carl Cohen (New York: Random House, 1962). pp. 3—48.

R. N. Carew Hunt,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sm Baltimore: Penguin Books, 1963). pp. 123—140.

라. 선택 독서

M. Beer, The General History of Socialism and Social Struggle, 2 vols. (New York: Russell and Russell, 1957). 442 pp.

(고대로 부터 존재해 온 이상사회와 사회운동의 전반적인 역사이다.)

Martin Buber, Paths in Utopia (New York: The Macmillan Co., 1949). 152 pp.

(19세기 사회주의에 있어서의 주요 사조의 대표자로서 프루돈과 마르크스와의 논쟁을 검토한 것이다.)

G. D. H. Cole, A History of Socialist Thought, Vol. I: The Forerunners, 1789—1580 (New York: St. Martin's Press, 1953). 346 pp.

(사회주의 철학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분석적 연구. 이 총서에 있어서 첫권은 그 저서들이 후에 마르크스주의에 지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 유럽 사회주의자들을 강조한 것.)

Donald Drew Egbert and Stow Persons (eds), Socialism and American Life, 2 vol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2). 1351 pp.

(미국에 있어서의 식민지시대로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사

상의 전반적 역사.)

Sidney Hook, Marx and Marxists (Princeton, N. J. : Van Nostrand, an Anvil Paperback Original, 1955). 254 pp.

(발췌문도 첨부하여 마르크스와 그의 해석자들에 대한 분석)

Sidney Hook, From Hegel to Marx: Studies in the Intellectual Development of Karl Marx (New York: Humanities Press, 1958). 335 pp.

(미국의 지도적인 한 철학자가 칼 마르크스에 영향을 준 철학과 사상을 분석하고 있다.)

Leopold Labedz (ed.), Revisionism: Essays on the History of Marxist Ideas (New York: Frederick A. Preger, 1962). 404 pp.

(저명한 마르크스 주의자들의 마르크스주의 해석을 검토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Karl R. Poppe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3rd ed, 2 vol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57). 322 및 391 pp.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주요한 비판이 이 귀중한 논문의 제2권에 들어 있다.)

J. L. Talmon, The Rise of Totalitarian Democrac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0). 366 pp.

(전체주의의 출현을 18세기 사상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마. 토의 문제

1. 공산주의의 철학적인 근원을 어떻게 고대 세계에 까지 더듬어 올라갈 수 있는가?

2. 유럽 사회주의 운동의 어느 면이 역사적으로 정치 테로리스트들의 마음을 끄는가? 또 이상주의적 개혁자들의 마음을 끄는가?

3. 19세기 말엽에 자본주의의 어떤 변화가 사회주의 운동 내의 수정주의자들로 하여금 마르크스 교리를 받아 들이게끔 영향을 주었는가?

4. 현대의 어떤 사회조건들이 초기 사회주의자들이 고집하던 계급투쟁의 수락을 약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가?

5. 정치적 민주주의를 확장하려던 19세기 운동은 어떻게 산업혁명과 관련되었었는가? 개인의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에 대한 사회의 보호와 입헌정부의 안전성 간의 상호관계를 말해 보라.

6. 교과과정 토의 :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비교

가. 교수 지침

지금은 공·사립 학교에 있어서 '공산주의에 관한 교육'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침서들이 나와 있다. 이 과목을 일반사회과목들의 일부로서 한 개의 특수한 여러 가지 이념(서로 반대되는 이념) 연구 과목으로 가르칠 것인지 또는 역사과목에 편입시켜 버릴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많고 이것은 추상적인 발로써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좋으냐 또 기타의 방법에 대해서도 좋은 실례를 들 수 있다. 각 학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결정을 각기 내려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 연합회를 위해 데이비드 맬러리가 쓴 연구서 "공산주의에 관한 교수활동 문제의 정의와 실제의 기술"(A Definition of the Problem and A Description of Some Practices)은 여러 가지 많은 제안을 하고 있으며, 또 신시네티와 오하이오 공립학교 및 운트라, 캘리포니아 주립학교에서 발행한 비슷한 제목의 "공산주의에 관한 교수활동"(Teaching about Communism)도 가치있는 제안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헌은 미국 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한 책자 "공산주의에 관한 학습지도 및 법률아래서의 자유와의 약정"(Instruction on Communism and I'ts Contract with Liberty under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1962))이다. 공립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이 책자는 그 방향을 명백히 해주었다.

공산주의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창되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교육자들이 다 같이 찬성하는 것은 공산주의 교육이 민주주의 생활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신념을 강화해 줄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교화'를 장려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자유에 대한 공산주의의 억압과 법 밑에서의 자유의 가치를 대조시켜 강조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권위자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미국 교사들은 본질적으로 미국주의에 기우려져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미국의 방식이 공산주의 체제 보다 우수하다는 결론에 스스로 도달할 수 있게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져야 한다. 학생들에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전쟁 때에 수 많은 미국군인들에게 대한 세뇌공작이 성공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를 단순히 배격만 해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익숙치 않은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가지고 올 때에 그런 이론을 비판하고 평가할 능력이 군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다.' (1962년 11월 19일 일리노이의 시카고에서 모인 일이노이주 학교행정가 연합회 회의에서 행한 리차드 T.밀리의 연설에서의 발췌).

학교 학생들은 여러 가지 상업광고를 보고 듣고 해서 공산주의에 대한 이러한 싸구려 방식의 교육을 가지고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데이비드 밀리에 의하면 "많은 선생들이 학생들은 선전적이라고 느껴지는 모든 것, 그것이 좌경이건 중간 노선이건 우경이건, 선전적이라고 느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 어떤 선생들은 학생들이 오늘날 흔히 있는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선전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공산주의에 대한 피상적인 혐오감을 기르기 위한 전체주의적 강제 주입식 교육과 조금이라도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 교육 답지 못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주입식 교육은 잘 받아 들여지지 않을 뿐더러 우리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개인 자유의 개념에 위반되는 것이다. 전술한 바 미국 교육 협회의 문헌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이제 이 교과목을 교육으로서 인정해야 할 중요성을 역설해야 한다. 미국에

있어서는 교육과정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목표 즉, 개인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사실은 명백히 마음의 자유 그리고 사고하며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에 입각하여 공산주의 과목은 다른 모든 과목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교수되어야 한다. 이것은 실로 우리 국가적 이익인데 그 이유는 미국학생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그들은 이러한 전통적 기준에서 이탈한 모든 교육에 반항할 것이며 또 그런 교육에는 환멸을 느낄 것이다.'

이것은 물론 수업중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효과적으로 대조시키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이 양자의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어느 한쪽에 기울어짐이 없이 가르쳐 주어야 한다. 미 연방수사국 부국장 윌리암•씨 • 살리반은 1963년 3월 8일 뉴저지 교육 회의에서 행한 연설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는 정확성과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사들이 공산주의에 관한 사실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모든 가치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성이란 제 2 차 대전을 취급하는 역사과목에 있어서 나치즘의 성질과 그 비인도적인 유태인 학살에 대하여 전혀 가치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가? 또 객관성이란 우리가 자유와 폭정에 대해서 같은 가치를 부여하기를 요구하는가?'

현재의 단계에서 민주주의를 완전한 것으로 소개하려는 기도는 확실히 비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일반 정부에 대한 연구와 분리하여 공산주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허만 화이너의 말을 빌면 의학도들에게 그들이 기초적인 해부학과 생리학을 배우기도 전에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학생들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해서 확고한 기초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 그들이 살고 있으며 또 책임있는 선택

을 해야 하는 그 세계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최후로 결국 모든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며 또 그들이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제 2 장

공산주의의 이념적 기초 :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공산정치 체제

1. 마르크스주의 : 변증법과 유물론

가. 주제 개설

공산주의 운동의 시초부터 중요한 역할을 한 많은 학설과 주석들은, 대단히 복잡하고 심원하고, 따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많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와 그리고 그들이 공표한 목표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의 이념적 근거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인용하며 또 그들 자신이 연구하는 기본 문헌들을 읽어 보며 분석해보는 것 이상으로 효과적인 것이 없다는 것은 우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적으로 또 확실히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용어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 몇 가지 주요한 용어는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공산주의는 하나의 '실지 운용적인' 교리이다. 그 말이 아무리 희미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항상 '행동의 철학'인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행동주의자들이다. 그들은 형이상학이 실제정치의 전투장에서 하는 그들의 효과적인 행동을 가로막게 허락하지는 않는다. 가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철학적인 논쟁'은 마르크스주의 개념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한 파가 그 반대파를 이기기 위한 단순히 하나의 방편이 될 뿐이다. 간단히 말해서, 공산주의자들은 그들 자신의 학설을 후일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인용한다.

또 마르크스주의는 순전히 경제적인 개념인 것은 아니다. 또 그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어도 아니다. 그것은 어느 편이냐 하면, 공산당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앞으로 불가피하게 올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찬, 하나의 역사 이론이다. 이리하여, 그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 사회학이나 경제학이라기 보다 오히려 신비주의적 의(擬)과학인 것이다. 사실상, 이 19세기 교리는 만일 그 조작된 이야기와 신화가 그 광대한 선전기구를 통해 유지되지만 않는다면, 오늘날 어디서나 그렇게 믿어지지는 못할 것이다.

공산주의는 또한 그것을 하나의 신앙으로 받아 들이는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종교의 대용어가 되는 것이다. 즉, (1) 그것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에 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또 (2) 그것은 인류에 무한한 분쟁과 비참을 가져 온 악으로서의 사유 재산을 힐난한다. 이리하여, 그 철학적인 장식과 '과학적'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는 그들의 생활 경험이 오늘날 세계의 혁명적인 현실과는 거리가 먼 마르크스 및 레닌의 저작에서 유래한, 지적으로 소박하고 낡은 학설이며 굳어비린 교리문답서인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세계의 모든 대 종교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진리와 개인적 가치를 부정한다.

인류의 대부분이 국내적 국제적 협조,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결합, 민족적 조화와 자발적인 의견 일치 등을 추구하고 있는 이 때에, 공산주의는 낡은 편견으로써 마치 자동조작, 우주탐험 및 인공두뇌학의 시대의 복잡한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듯이 옛날의 계급투쟁 슬로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마르크스주의의 고물 연구적인 성질은, 또 20세기 공산주의란 서방에 있어서의 현대 종교나 정치신조와 달라서 하나의 절대주의적인 것이며, 또 인간활동의 모든 분야 즉, 예술, 과학, 문학, 스포츠, 및 가족 관계에 대해서까지 설명과 지침을 주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거의 중세기적이라는 사실을 들어 설명 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敎義)는 모든 대륙으로 침투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간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19세기에 나타난 많은 시도중에서, 칼·마르

크스와 후리드리히 엥겔스의 '과학적 사회주의'는 아마도 가장 포괄적이고 유력한 것이었을 것이다. 마르크스는 그의 가설을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시키고, 이것을 통하여 그는 인간 관계의 과거 및 미래의 발전 전부를 설명하려고 나섰다. 간단히 말하면, 마르크스주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전망을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실의 형이상학론 (변증법적 유물론이라 불림)과 역사이론(역사적 유물론이라 불림)과 사회이론(사회분쟁의 근거로서의 계급투쟁) 이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두 가지 철학적 개념 즉 변증법적 이론 방식과 세계와 그 현상에 대한 유물론적인 개념의 종화인 것이다. 엥겔스의 통찰력에 입각하여, 마르크스는 사회연구의 변증법적 방법을 헤겔의 변증법적 기본법칙으로부터 채택하였다. 헤겔은 변화가 서로 상반되는 관념의 결합과 종합으로부터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헤겔의 변증법적 과정은 정립, 반정립 및 종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립은 한 명제를 긍정하며, 반정립은 그것을 부정하며, 거기에서 결과하는 종합은 그 양자의 유력한 요소를 흡수하여, 따라서 진리에로 일보 더 가까이 나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종합이 다시 결점이 있다는 것이 발견됨에 따라, 변증법적 과정은 다시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종합은 새로운 정립이 되며, 그 내재적인 부정은 새로운 반정립이 되며, 그리하여 이 양자의 진리적인 요소로부터 새로운 종합이 형성되는 것이다. 헤겔은 주장하기를 모든 관념은 변증법적 과정을 통하여서만 발전할 수 있다고 하며, 또 동시에 외부적 물질세계는 오직 관념세계의 구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렇게 하여 변증법적 과정의 보편적인 적용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본질" 이란 책 (공산주의의 공식적인 안내서임)에 의하면 마르크스주의의 철학적 유물론은 물질을 모든 존재와 현실의 유일한 근거로서 보고 있다. 이 철학에 의하면 물질은 창조할 수 없고, 파괴할 수 없고, 영원히 변하며,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마음과는 독립되어 있으며, 감각속에 반영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철학은 또한 주장하기를 초자연적인 현상

이나 힘은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다고 한다.

이 헤겔식의 변증법을 자기의 것으로 채택함에 있어서, 마르크스는 그것을 대폭적으로 수정하였다. 즉, 그는 관념세계에 대하여 물질세계를 대치시켜놓고, 전자로 하여금 모든 현실의 근거로 삼아 버렸다. 유물론의 개념은 이리하여 헤겔이 주장한 관념론을 뒤엎고, 따라서 마르크스 자신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나의 변증법적 방법은 헤겔의 그것과 다를뿐만아니라 그 정반대의 것이다. 헤겔에 있어서는, 사고 과정은 현실세계의 창조자이며 따라서, 현실세계는 관념의 외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반대로, 나에게 있어서는, 관념이란 인간 정신에 의하여 반영되는 사상으로 변화된 물질세계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마르크스는 관념을 근본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관념을 물질세계를 반영하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은 사회의 변천을 설명하는 한 방편으로서 변증법을 인간의 역사에 적용시킨 것이지만, 경제 제도는, 다시 말하면 생산 양식은 변증법적 과정의 주체로서의 헤겔의 관념에 대신하였다. 역사적 유물론의 개념이, 정치제도와 사회를 그것들이 입각하여 있는 경제적 힘의 반영으로 본데 대하여, 마르크스는 거기에다 변증법적 과정은 시대적으로 계속하는 사회들의 경제적인 기초에 있어서의 모든 변형을 설명해준다는 관념을 덧붙였다. 한 주어진 경제 제도(정립)가 그 내재적인 모순(반정립)을 낳듯이 이 양자의 좋은 요소들은 한 새로운 개선된 양상(종합)을 산출한다. 이와 같이 하여, 유럽 역사를 검토하면서 마르크스는 많은 연속적인 경제 제도의 점차적인 발전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보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다섯 가지 즉 원시사회, 노예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 와 사회주의사회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몇 가지 제도를 따로 분리시켜주는 명백한 특색은 두 가지 구성요소 '생산력'(재료 동력 및 기술) 및 '생산관계'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 성립하는 '재생산양식' 이다. '생산관계'의 결정적인 요소는 각 역사적 기간에 있어서 인간 사회를 서로 다른 계급 즉 자본주의하의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조아 계급으로

라누는 생산수단의 소유권인 것이다. 이리하여, 마르크스는 물질적인 기초가 사회 구조 뿐만 아니라, 기타 인간 사회의 모든 면을 결정한다고 주장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철학, 예술, 법, 정부 및 종교는 가장 중요한 물질적 기초의 반영에 불과한 '상부구조'를 구성함에 불과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그의 변증법의 보편적인 타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그가 그것이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아시아의 대 제국(帝國)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를 설명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적 생산양식' 및 기타 사항에 대한 마르크스의 이론은 공산주의 정통 이론을 위해서 마르크스 저서의 공식적인 공산판에서는 그후 삭제되어 왔던 것이다.

사회 생활에 대해서 변증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기껏해야 지극히 의문스러운 주장인 것이다. 특히, 변증법적 과정은 모든 주어진 역사적 시기에 있어서, 단지 두 가지 사회 세력의 존재만 인정하며, 또 변증법적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 사상의 '과학적인' 성격은 소위 그 '변증법적 방법'이 과학적 방법과 동등한 것이라면 명백히 신화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변증법으로 하여금 이론의 유일한 방법으로 삼으려는 그들의 기도에 있어서, 광신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어디까지 극단적으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 극단의 예는 1960년 중공 교육상이 제출한 보고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 이 보고는 공산주의가 유크리트의 기하학을 폐지하고 수학의 새로운 체계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 위에 세웠을 때, 북경 사범대학에서 반대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나. 강의 방법

이 강의로부터 이 교과 과정은 그 가장 어려운 국면에 접어 든다. 학생들은 그들에게 아주 새로운 많은 용어와 개념에 부닥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 단어의 정의와 설명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과정에 있어서 강사는 일단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과 철학 체계가 받아 들여진 다음에는 그 말들은 그 체계 속에 있어서는 아주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이 의의학(意義學)을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을 혼돈시킬 수 있다는 근본 이유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강사는 그 여러 갈래로 뻗어져 나간 마르크스주의 철학을 조속히 또는 용이하게 이해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경고 해야 한다. 처음에는 마르크스의 사상과 공산주의 이론 및 실제에 있어서 변증법적 유물론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강조 해야 한다. 소련 이념에 관한 한 토론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변증법은 마르크스 주의의 골격이다. 유물론적 변증법의 연구는 과학자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발전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하여 사회생활에 의식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변증법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세 가지 기본법칙 즉 양은 질로 변할 수 있고 또 그 역도 마찬가지라는 법칙, 상반되는 것에의 결합법칙 및 부정의 부정 법칙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야 하며, 또 그 비과학적 성격을 설명해야 한다. 인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그의 분석에 있어서 경제적 요소에 대한 마르크스의 지나친 강조를, 역사철학에 대한 근본적으로 그릇된 기도로 설명해야 한다. 경제적 관계가 모든 인간사상과 행동의 결정적인 결정요소가 된다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을 인간 관계에 대해 위험한 정도로 소박한 견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모든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변증법적 유물론의 원칙을 사용하려는 마르크스의 기도를 헌트(R. N. Carew Hunt)가 그의 저서 "공산주의의 이론과 실제"에서 밝힌 분석에 따라, 구체적인 역사적 예를 제시함으로써, 폭로 할 수 있다.

다. 필수 독서

Friedrich Engels, "Socialism, Utopian and Scientific: Part Ⅱ," in Carl Cohen, (ed.), Communism, Fascism, and Democracy: The Theoretical

Foundations (New York: Random House, 1962), pp. 50—57.

R. N. Carew Hunt,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sm : An Introduc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 1957), pp. 39—93.

Henry B. Mayo, Introduction to Marxist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0), pp. 29—62.

라. 선택 독서

Joseph M. Bochenski and Gerhart Niemeyer (eds), Handbook on Communism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686 pp.

(마르크스 사상을 실지로 적용함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양상을 취급한 의의있는 소론들을 모아 놓은 것. 저자들은 모두 권위있는 학자들이다.)

R. N. Carew Hunt, A Guide to Communist Jargon(New York : Macmillan, 1957). 169 pp.

(소홀히 되던 제목을 공산주의 문제 연구 권위자가 취급한 중요한 논문.)

G. D. H. Cole, A History of Socialist Thought, Vol. Ⅱ Marxism and Anarchism, 1850—1890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54). 481 pp.

(19세기 말까지의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포괄적으로, 분석적으로 설명한 것.)

Lewis Feuer (ed.), Marx and Engels: Basic Writings on Politics and Philosophy (New York: Doubleday Anchor, 1959). 497 pp.

(보다 중요한 발췌를 가장 적절히 모은 것.)

Fundamentals of Marxism-Leninism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61). 890 pp.

(이것은 공산주의 학설에 대한 공식적 소련 교과서이다. 클레멘스 덧트가 편집한 이 책은 마르크스 교리의 여러 가지 면을 해설하고 있다.)

Sidney Hook, Reason, Social Myths and Dialectic (New York: Humanities Press, 1940). 302 pp.

(이 저서는 '변증법적' 및 '변증법적 사고'의 개념을 철저히 비판한 것이다.)

J. Edgar Hoover, A Study of Communism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212 pp.

(후버씨의 이 책의 제3장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기본적인 공산주의 개념을 설명, 소개하고 있다.)

Gordon Leff, The Tyranny of Concepts: A Critique of Marxism (London: Merlin Press, 1961). 203 pp.

(마르크스주의의 밑을 흐르고 있는 철학적 가설이 실제 세계와는 별로 관계없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Herbert Marcuse, Reason and Revolution: Hegel and the Rise of Social Theory (New York: Humanities Press, 1955). 439 pp.

(헤겔 철학체계에 대한 설명. 제2부는 마르크스 이론의 해설로 되어 있다.)

Alfred G. Meyer, Marxism: The Unity of Theory and Prac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181 pp.

(마르크스 체계에 대한 철저한 문헌적 해설서, 제2부는 제1차 대전까지의 마르크스주의를 취급하고 있다.)

John Plamentatz, German Marxism and Russian Communism (London and New York: Longmans, Green, 1954). 356 pp.

(마르크스 사상의 비판적 분석. 제2부는 소련 정치 이론의 마르크스주의적 근거를 평가하고 있다.)

Robert C. Tucker, Philosophy and Myth in Karl Marx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1). 263 pp.

(마르크스 철학에 대한 상세한 비판이며, 재해석이다.)

United States Congres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Un-American Activities, Facts on Communism Vol. I: The Communist Ideology, 86th Cong., 2nd Sess.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9). 139 pp.

(동 분과위원회를 위하여 이 문제에 대한 권위자인 게르하르트 니이마이어가 공산주의 이념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한 책이다.)

Gustav A. Wetter, Dialectical Materialism: A Historical and Systematical Survey of Philosophy in the Soviet Union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8). 609 pp.

(이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학자적 연구이며, 현재 있는 것 중 가장 우수한 책의 하나이다.)

마. 토의 문제

1.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 이론은 어떠한 역할을 하며, 마르크스주의 이념의 연구가 공산주의 학도에게 왜 중요하냐?

2. 마르크스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 개념은 역사적 발전의 '과학적' 법칙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가?

3. 마르크스는 헤겔의 철학체계에 어떤 변화를 도입하였는가? 또 왜?

4. 마르크스는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묘사하였으며, 또 그는 무엇을 역사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주장했는가?

5. 마르크스는 인간 관계를 결정하는 힘을 어떻게 간소화했는가? 인간 행동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경제적이 아닌 동기가 있는가?

6. 인간 역사의 방향을 강제하는 것은 없다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의 지성과 이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정과 마르크스의 변증법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

2. 공산주의의 세계관 : 계급투쟁, 제국주의 혁명

가. 주제 개설

마르크스 이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가피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선진 공업 사회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마르크스

의 예언이다. 마르크스는 사회적, 역사적 과정들은 물리학과 화학의 법칙과 흡사한 보편적인 법칙에 순응한다고 믿었다. 그는 주장하기를, 그와 같은 법칙의 체계에 강요되어, 인류는 불가피한 사건의 연속이 인류 발전의 정점 즉 '좋은 사회'(이 사회에 있어서는 생산과 분배의 방편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폐지하게 되며, 부정과 무지와 결핍이 없는 세계가 온다)로 나아감에 따라, 역사발전의 한 단계로부터 다른 단계로 전진한다고 하였다. 역사적 유물론의 법칙은 인류발전의 최후, 완전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 경제적 발전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공산주의의 유토피아 창조는 마르크스가 주장하듯이, 그 내재적 모순들이 그 자체에 '파멸의 씨'를 내포하고 있는 자본주의 제도의 혁명적인 파괴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결론짓기를, 자본주의 제도하의 무제한한 개인이득 추구는 생산의 모든 도구의 지배권을 착취 계급 즉 부르조아지 수중에 집중케 할 것이라 하였다. 도구에 대한 아무런 지배권을 가지지 못하고, 또 그 노동 이외에 팔 것이 없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브르조아 착취자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 하였다. 이윤의 추구가 강화 됨에 따라, 착취는 증대하며, 두계급 사이에 적대 관계는 더 강렬해 질 것이다. 경쟁은 더 맹렬해 질 것이며, 점점 증대하는 부르조아의 수효는 자본주의 제도의 점점 증대하는 강압의 밥이 되고, 또 그들의 계급적 위치를 상실함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수효를 더 넓게 할 것이라 하였다. 그 점점 더하여 가는 비참에 쫓겨 빈곤한 프롤레타리아 대중은 필연코 자기들의 생활 조건에 견디지 못하여 나중에는 무력 혁명만이 해결을 가져 올 수 있을것이라 하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는 이렇게 하여 그 자신의 무덤을 파게 되며, 그 자체의 내재적인 모순으로 인하여 멸망하리라 하였다. 마르크스 추종자들이 그의 이러한 분석 만을 고수하여 나갔다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아마도 일어 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발전이 마르크스의 예측을 뒤엎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중에 레

닌이 그의 개념을 다시 개조하였다. 마르크스의 예언이 실패했다는 것이 20세기에 들어와 곧 명백해 짐에 따라, 레닌은 마르크스 교리의 타당성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제국주의론과 혁명의 지론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르크스주의 정통 사상에 대한 이러한 레닌 주의적 변모는 그후 전세계를 통한 공산주의 혁명 활동의 지도 원칙이 되었다.

후진 러시아의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에다 마르크스 교리를 억지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레닌은 마르크스주의의 본래의 개념들을 몇 가지 근본적으로 왜곡하지 않을 수 없었다.

레닌은 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성취에 관심을 가졌었으며, 또 그의 가끔 모순적인 교리 수정은 근본적으로 그러한 전망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공업화의 초기 단계에 있었던 제정 러시아에서 자본주의를 거친후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레닌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점에 있어서 자신의 주장을 발전시켰다. 그 중요한 점이란 혁명의 출현과 자본주의의 최후 단계로서의 제국주의 시대, 혁명에 있어서의 '당의' 역할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세계혁명의 개념과 노동 계급으로 구성된 당의 전술상의 역할 등등이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마르크스가 예언한 모든 조건들이 구체화되지 않았을 때에, 레닌은 소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말하는 자본주의의 '최고단계' 즉 자본주의의 '최후 단계'를 구성한다고 하는 제국주의를 묘사함으로써 마르크스 교리와 현실 사이의 명백한 상이점을 설명하려 하였다. 제국주의는 그 제도를 후진 지역에 속여 팔므로써, 자본주의 제도의 붕괴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레닌은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내재적인 모순이 혁명의 최후 도래를 불가피하게 할 것이라고 레닌은 주장하였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고, 싼 원료를 얻기 위해서 '제국주의적' 식민지 개척에 애쓸 것이라고 하였다. 독점 기업이 발전 될 것이며, 금융 자본이 자본주의 세계를 지배할 것이며, 또 자유 경쟁은 기업 연합화될 것이라 하였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곧 그들에게 매달린

식민지들에 의해서 맹렬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며, 또 파괴적인 세계 전쟁이 나중에 폭발하여 자본주의 국가들은 약화될 것이라 하였다.

이 단계에 있어서, 세계는 착취하는 자본주의 국가들로 나누어 질 것이며, 또 이 식민지들에 있어서는 '노동 대중'이 곧 그들의 비참한 조건에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스탈린은 후에 자기가 주장한 바와 같이, 고도의 발전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말한 조건들이 이제는 봉기에 대한 타당한 선결 조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혁명은 세계의 어느 부분에서나 소위 '자본주의 계열에 가장 약한 연결점'에서 일어 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레닌의 제국주의 개념에 의존하게 되었다.) 한 사회에 있어서, 경제적 발전이 어떠한 단계에 있든지 간에, 일반 민중의 불만은 구제도의 옹호자들 사이에 내적 분렬이나 약점이 생길 때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제국주의 국가내에 있어서 국내의 계급 투쟁은 완화될 수 있는 한편, 혁명은 후진지역에서 발전될 것이라고 하였다. 착취는 국제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며, 또 계급 투쟁은 국제적 분쟁으로 변형될 것이라고 하였다. 1920년에는 레닌은 식민지들에 있어서의 반제국주의 투쟁이 두 가지 단계로 일어나리라고 상상하였다.

첫째로, 많은 그룹들이 제국주의 권력을 축출하기 위해서 결합하는 민족주의적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에는 '사회주의적' 단계가 오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부르조아와 기타 압박계급들이 제거될 것이라고 했다.

레닌의 수정주의적 열성은 혁명에 있어서의 프롤레타리아 조직과 그들의 역할에 관한 마르크스주의 교리를 완전히 변형시켰다. 비록 혁명의 조직적 및 실용주의적인 면에 대해서 많이 유의하기는 했지만 마르크스는 경제적 발전의 필요한 조건들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 혁명활동에 자발적인 성격을 강조했던 것이다. 오직 중앙 집중화되고 훈련된 프롤레타리아당만이 혁명을 가져 올 수 있다고 확고히 믿는 레닌은 오직 의식적인(자발이 아닌) 행동만이 명예로운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프롤레타리아적 의식은 '프롤레타리아 전위대', 즉 프롤레타리아당을 구성하게 될 직업적 혁명가들에 의해서 노동 계급 운동 속에 주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당 자체도 군대식으로 즉 권력에의 완전한 중앙집중화, 엄격한 훈련 및 민주주의적 중앙 집중주의 원칙에 따른 완전한 복종 등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조직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레닌은 이러한 식으로 볼셰비키 당을 조직하였고, 또 이것을 통하여 최후에 러시아 혁명을 완전히 지배 할 수가 있었다. 레닌은 당을 '프롤레타리아 계급 조직의 최고의 형식으로' 분류하였고, 또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볼셰비키당 독재가 되었다.

볼셰비키당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레닌은 러시아 혁명이 전 세계적인 혁명적 봉기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세계의 혁명을 선전하기 위해서 레닌은 볼셰비키 러시아 외부의 노동계급 정당의 전략과 전술에 관하여 그의 설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고도로 훈련되고 중앙화된 당들은 그들의 단 하나의 최후 목표 즉 권력의 장악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혁명을 준비할 것이라 하였다. '대중'과의 접촉은 여러가지 대중의 조직과 노동 조직, 그리고 노동 조합에 침투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고, 기타의 그룹들을 혁명 목표에 이끌기 위해서 '연합 전선'을 형성해야 할 것이며, 순진한 무리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선 조직, 을 형성해야 할 것이며, 또 노동 계급의 동정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여하한 경쟁적인 운동도 무자비하게 감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들이 따로 당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며" 또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형성하며, 조직케 할 그들 자신의 원칙을 당파적으로 따로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볼셰비키 혁명을 보호하며, 발전시키려는 레닌의 결심은 전에 없던 그러한 가장 당파적이고 독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당을 형성케 한 것이다.

레닌의 견해는 1919년에 모스크바에 공산당 인터네셔날(코민테른), 또는 제3 인터내셔날을 형성하므로써, 구체적인 형태를 취하였다. 러시아에 있어서의 볼셰비키주의의 성공과 동부 구라파에 있어서의 그 실패를 이용하면서

이 인터네셔널은 레닌의 마술적인 혁명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러시아 밖의 다른 공산당들에게 믿게 하였다.

1920년 제2차 코민테른 총회에서 소위 21개 조건이 확립되어, 세계 모든 가입 공산당들을 레닌의 모함적인 원칙에 얽매어 놓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민족적인 공산당들로 하여금 모스크바의 지령과 모함적인 혁명의 실천에 예속시킨 것이 되는것이다. 이 조건들의 대표적인 것은,식민주의에 대항하여 투쟁하며,노동조합 속에 공산당 세포를 창조하며,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주의를 고수하며 또 최후의 혁명적 접수를 위해서 의회주의가 존재하는 곳에서도 비밀적인 조직을 만들기로 한 것 등이다. 이와 같이 하여,레닌은 하나의 중심에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를 지휘 할 수 있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공산당들은 스탈린 후 해빙기에 이르기까지 코민테른 후에 생긴 코민포름 (코민테른은 연합국과의 협력을 위한 전시의 전술기관이라 하여 1943년에 폐지 되었다)하에서도 스탈린 러시아의 대외 정책의 여러 가지를 계속 추종하였다. 스탈린 후 해빙기에는 코민포름은 '개인 숭배'를 배척한다는 이유에서 해산되었고, 따라서 전 세계의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소련 공산당의 권위는 완화되었던 것이다.

나. 강의 방법

이 강의는 마르크스 교리에 있어서 '불가피성'의 역할을 입증하기 위해서 레닌이 제시한 개념들을 역설해야 한다. 선진 공업 국가들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혁명이 온다는 마르크스의 견해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레닌은 그 이론에 중요한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계급투쟁의 강렬화와 혁명에 관한 마르크스의 예언의 실패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하의 노동계급의 역사를 뚜렷이 보여주면서, 공업화된 서방 사회에 있어서의 실제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요약해 말해 주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세계는 확실히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또 마르크스가 기대한 그후의 사건들을 피해 나갈 수가 있었다. 프롤

레타리아의 증대해 가는 비참과 부르조아 계급의 점차적인 감소와 노동계급의 점점 더하여가는 혁명적 열성 등, 마르크스가 예언한 이 모든 사건들이 사실상 일어 나지 않았던 것이다.

강의는 계급투쟁 즉 마르크스가 그 힘을 통하여 자본주의가 그 자체를 파멸하기를 기대하였던 계급투쟁의 개념을 계속 좀더 취급해야 할것이다. 계급투쟁을 변증법적 발전의 테두리 속에 마추어 넣기 위해서 마르크스는 현대의 공업화된 사회의 복잡한 사회구조를 두가지 계급 즉, 부르조아 착취자들과 '짓밟힌' 프롤레타리아의 두 계급으로 나누지 않을 수 없었다. 마르크스는 서방사회에 있어서 그의 계획 밖에 있던 많은 구조적인 경제 및 사회 변천을 명백히 감지하지 못하였다. 확실히 계급적 차이와 분렬은 중요한 것이 었다. 그러나, 증대하여 가는 생산력과 소비, 사회적 이동, 줄어가기 보다 더 증대하여 가는 임금 등이 계급 간의 긴장을 덜어 주고, 사회적 안정에 이바지함에 따라, 계급투쟁은 그 중요성이 줄어진 것이다. 계급투쟁이 많은 나라들에 있어서 하나의 현실이 되어 있는 반면, 경제적인 계급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가끔 계급투쟁보다 역사적으로 더 큰 중요성을 띠게되는 즉 마르크스의 이론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타의 투쟁들(예를 들면 국가적, 민족적 및 종교적)이 있었던 것이다. 사실상 레닌도 제 1차 대전의 전야에서는 민족주의가 계급투쟁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강사는 그 후 수십년 동안 마르크스주의를 소생시키고, 마르크스주의로 하여금 구체적인 역사적 정세에 있어서 정치적 행동의 귀감으로 만든 레닌의 주요 사상을 전개시킬 수 있다. 물론, 레닌의 공헌은 러시아에 있어서의 혁명 운동과 연관지어져야 한다. 그의 제국주의 이론도 제 1차 대전에 선행하는 모든 조건들과의 관련 속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Hobson과 Hilferding의 학설들을 이용하면서, 그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추종자를 가져 온 제국주의 이념을 만들어 내고, 이것은 특히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성황하는 반식민주의

및 반제국주의 감정의 합리화로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강사는 마르크스의 예견이 그릇되었던 것처럼 제국주의 종말에 대한 레닌의 예언도 그릇되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식민지를 상실한 것이 영국이나 불란서나 벨지엄의 노동자들의 생활을 더 비참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그 전에 제국이던 나라들이 지금 전례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고 따라서 많은 지도자들은 식민지는 순전히 지출밖에 안된다고 결론내기에 이르렀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대한 레닌의 집착성을 특히 강조해야 한다. 헌신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군대식 볼셰비키당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하여 레닌의 지도자연한 설은 위와 같은 관계에서만 알 수 가 있다. '프롤레타리아의 선봉'으로서 또 필요한 혁명의식을 프롤레타리아 대중에게 불어 넣을 작용자로서의 당은, 혁명에로의 레닌의 수단이었다. 레닌의 당조직 원칙을 특히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민주적 중앙집권주의'의 의의와 중요성을 잘 설명하여 공산주의 운동의 주요한 원칙의 몇 가지를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실로, 이것이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레닌의 주요한 수정인 것이다. 인구의 대부분을 구성하게 될 프롤레타리아 독재(마르크스의)에 대하여 레닌은 인민에 대한 공산당의 독재(민주적인 중앙집권주의 기구를 통한)를 대치시켰으며, 그리하여 전폭적인 전체주의에로의 길을 마련한 것이다(이 문제는 다음 과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공산주의 운동의 실지 지휘를 위한 개념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공산세력에 대한 레닌의 전술상의 제언들은 레닌이 남긴 유산 중의 특히 중요한 일부가 되는 것이다. 공산주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조직을 모조리 이용해야 한다는 공산당들에 대한 레닌의 충고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해야 한다.

이강의의 목적에 유용한 자료는 공산주의 이론가들이 행한 공식 성명을 편집 간행한, 우리는 미국 국무성의 공산당 성명의 안내서 "소련의 세계관"에서 찾아볼수 있다.

다. 필수 독서

R. N. Carew Hunt,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sm (New York: The Macmillan Co., Baltimore: Penguin Books, 1963), pp. 61—93, 171—179 및 185—210.

V. I. Lenin,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Communism, Fascism, and Democracy: The Theoretical Foundations, ed., Carl Cohen(New York: Random House, 1962), pp. 148—164.

Karl Marx and Friedrich Engels, "Manifests of the Communist Party, "Communism, Fascism, and Democracy: The Theoretical Foundations, ed., Carl Cohen (New York : Random House, 1962), pp. 89—110.

라. 선택 독서

H. B. Acton, The Illusion the Epoch:Marxism-Leninism as a Philosophical Creed (Boston: Beacon Press, 1957). 278 pp.

(레닌의 사상을 취급한 우수한 저서인데 마르크스의 기본 개념을 레닌이 어떻게 타락시켰는가를 강조하고, 또 그 개념들을 엄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M. Bober, Karl Marx's Interpretation of History, rev.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48), 445 pp.

(사회경제 학설로서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표준적이며, 철저한 비판 및 해설서이며, 특히 마르크스의 역사관의 유토피아적인 면을 폭로한 곳이 우수함.)

Max Eastman, Reflections on the Failure of Socialism (New York: Devin-Adair, 1955). 127 pp.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왜곡한 레닌과 스탈린을 비판한 논문집인데, 마르크스 자신까지 비판하고 있다.)

Martin Ebon, World Communism Today (New York: McGraw Hill, 1948). 506 pp.

(발전하여 세계적으로 보급된 세계 공산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Louis Fischer, The Life of Lenin (New York: Harper & Row, 1964). 703 pp.

('노련한 러시아인'이 저술한 탁월한 전기인데, 그의 연구는 여러 해동안에 걸친 직접 경험과 러시아 최고 지도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얻은 재료가 풍부하다. 특히, 레닌 생애에 있어서 1917년 후기로부터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Harold H. Fisher, The Communist Revolution: An Outline of Strategy and Tactics (Stanford, Calif.: Standford University Press, 1955). 89 pp.

(소련에 대한 미국의 저명한 학자 중 한 사람이 공산주의 혁명 전략에 대한 간단한 통찰력을 보이고 있다.)

William Z. Foster, Toward Soviet America: The Book the Communists Tried to Destory ! (Balboa Island, Calif.: Elgin Publications, 1961). 343 pp.

(이 책은 명백히 교리에 있어서 미국 공산당이 레닌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295면의 혁명을 상세히 볼 만 하다.)

R. N. Carew Hunt, Marxism, Past and Present (New York: The Macmillan Co., 1954). 180 pp.

(마르크스주의가 러시아에 넘어감으로써 이루어진 이론적 변화를 학자적으로 취급한 것인데, 레닌, 스탈린의 교리와 본래의 마르크스사상과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다.)

Alfred G. Meyer, Leninism (New York: Frederick A Prager, 1962). 342 pp.

(광범위한 연구에 입각하여 레닌 사상을 철저하게 검토한 것인데, 세계 공산주의에 대한 레닌의 공헌과 기타 공산지도자들의 그것과를 구별하였으며, 여기에서 레닌의 역할을 확정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Gunther Nollau, International Communism and World Revolution:

History and Method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1). 357 pp.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인데, 그 이론적 및 방법론적 배경을 논하고 있다.)

Stefan Possony, Lenin: The Compulsive Revolutionary (Chicago: Henry Regnery, 1964). 418 pp.
(정치전과 혁명에 관한 유명한 권위자가 쓴 포괄적인 연구이며, 특히 1917년 전기에 대해서 역설했으며 또 레닌 저작의 모함적인 면을 잘 묘사하고 있다.)

Joseph 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3rd ed. (New York: Harper Torch Books, 1962). 431 pp.
(서방의 경제학자이며, 사회역사가가 쓴 이 고전의 처음 네 장은 사회이론 및 경제이론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자신 있는 비판을 싣고있다.)

마. 토의 문제

1.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조아가 절대적으로 대립한다는 명제를 마르크스는 어떻게 설명했는가?

2.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에 굴복한다는 것을 마르크스는 어떻게 또 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가?

3.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조아 사이의 계급투쟁이 평화적인 정치적 해결을 볼 수 없다고 마르크스는 왜 가정했는가?

4. 레닌은 마르크스의 교리를 왜곡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 마르크스의 견해에서 볼 때 러시아는 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가장 부적당했는가?

5. 레닌은 혁명운동에 있어서 당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6. 레닌주의의 정당이 민주주의적 정치조직과 비교될 수 있는가? 이 양자 간의 뚜렷한 차이는 무엇인가?

7. 레닌은 왜 비공산주의적인 조직을 공산주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기를 주창했는가? 이것은 또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

8. 당신은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이 후진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지성인들에게 왜 그렇게 납득이 가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소련의 전략과 어떻게 관련되며, 이것에 대립되는 강한 이론으로서 어떤 것이 있는가?

3. 공산주의 국가론 · 프롤레타리아의 독재

가. 주제개설

국가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마르크스·레닌의 이론은 공산주의의 이념과 오늘날의 공산 사회를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다. 그 이론은 세 가지 중요한 면에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 같다. 즉, 모든 비공산주의 사회를 저주할 때의 근거로서, 공산주의 통치 특유의 정부 형태를 정당화할 때에 사용할 이론으로서 그리고 또 '행동에의 지침'으로서 즉 혁명으로서 권력을 장악할 때에 사용할 전략으로서 이바지 하고 있는 것 같다.

마르크스는 국가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압박하는 데 필요한 도구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기"때문에, 국가를 본질적으로 악으로 보았다. 이 견해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계급이 사회의 정치적 면도 역시 지배하고 있으며 또 이런 지배를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가 국가인 것이다. 경제적인 요소가 모든 정치적인 발전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회의 정치적 면은 단지 경제적 지배기구를 피상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마르크스는 주장하기를 자본주의 하에서는 국가는 부르조아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며 따라서 국가는 그것이 어떠한 제도적 정치 형태를 취했든간에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이 지배적인 경제계급의 독재를 영구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자본주의 국가는 근본적으로 기성 경제질서를 지켜주는 후견자이며, 또 그 모든 강제적인 도구 (군대, 경찰, 법제도)는 근본적으로 이런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권력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압박하기 위하여 조직한 권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변증법에 의할 것 같으면 부르조아에 의한 프롤레타리아 압박은 자본주의가 일단 그 역사적인 목적에 이바지하고 나면 오래 갈 수 없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부르조아지를 제거하기 위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공산주의 유토피아에로의 최초의 일보라고 말하였다. 이 최후의 '좋은 사회'의 근본적인 특색은 계급이 없는(이리하여 폭력도 없는)사회라는 데 있을 것이다. 계급 간의 투쟁이 제거되게 되면, 국가에 대한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다. 엥겔스에 의하면, 이 계급 없는 사회가 확립되게 되면, 국가는 '자연히 소멸하여 버린다.' 왜냐 하면 계급적 지배를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강제적인 기구가 전혀 비강제적인 사회로서 출현함에 따라, '모든 공적인 작용은 그 정치적 성격을 상실하여, 오직 진정한 사회 복리를 위하는 순전히 행정적인 작용으로 변형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공산주의 국가는 생활의 물질적인 면을 더욱 더 지배하게 되며 또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기만 원하는, 점점 죽어 가는 제도가 아니라, 점점 성장해 가는 제도가 되고 말 것이다. 이리하여, '인간의 통치'에 대신하는 '사물의 행정'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근본적인 목표가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는 혁명 후의 프롤레타리아 사회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나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그들의 유토피아가 도래할 시기를 명백히 예언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혁명 직후의 시기 즉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말한 시기에 대해서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성공적으로 끝난 혁명과 유토피아적인 공산사회의 출현 사이의 과도기를 통하여 마르크스는 모든 강압적인 수단을 완전히 지배하는 강압적인 계급이 프롤레타리아가 되지 않는 한, 강압적인 수단으로서의 국가가 그대로 존속하게 되리라고 예상했다. 국가는, 한편으로 인간 발전의 최후의 단계인 공산주의에 대한 선결 조건으로서의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면서 프롤레타리아 이외의 모든 계급들을 압박할 뿐만 아니라 멸망시키는 데에 사용되게 되리라고 그는 말하였다.

독재주의 단계에 있어서의 프롤레타리아의 중요한 임무는 자본주의의 경제 제도와 계급적 원수인 부르조아를 복멸하는 일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사유 재산은 철폐될 것이며, 그리고 그 도중에 계급적 차별이나 착취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사회주의화와 중앙의 계획 수립은 인간의 성질을 사회주의화하고 또 국가에 대한 필요성을 없애기 위한 강압적인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경제 생활을 완전히 변형시키게 될 것이다.

레닌은 마르크스주의와 러시아의 조건 및 전통과를 융합시키지 않을 수 없어서 마르크스의 국가 개념을 여러 번 수정하였다. 자본주의 국가는 폭력적인 혁명에 의해서 분쇄되어야 하였으며, 부르조아 국가는 '부르조아를 진압하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의 특별한 압력에 의해서' 전복될 것이다. 레닌은 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법적 제한 없이 행동하며, 또 테러 행위를 통치의 제일 수단으로 이용하는 힘에 입각한 정체라고 정의했다.

모든 제도와 신념이 계급적 통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그들의 관념과 또 그들의 국가관을 생각할 때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민주주의적 정부의 기본 관념을 그와 같이 멸시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서방 세계에서 알고 있는 법에 입각한 통치는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법률은 다른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힘의 구조의 반영에 불과하며, 또 그것을 영구화하려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소비에트의 법률이라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그 이론적 근거는 '사회주의' 국가의 방위에 있고, 또 소위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선천적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은 아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하에서는 개인의 권리는 국가의 의지에 예속된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간을 통하여 지배하는 공산당의 견지에 따라서 해석되는 것이다.

강압과 폭력의 독재적 정권을 통해서 만이 사회는 자본주의에서 받은 악한 유산을 씻어 버리고, 따라서 각자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봉사하며,

또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받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유토피아의 출현을 위하여 준비할 수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레닌은 공산주의의 최후 목적에 대해서는 조금도 수정을 가하지 않았다.

이 모든 어리석은 견해에도 불구하고, '지상에서 분쟁 없는 천국'을 약속하는 이 마르크스적인 견해가 어느 정도까지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매력을 구성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 목표는 그의 진정한 신봉자에게 있어서는 여하한 수단도 정당화 시키기에 충분한 것 같이 보인다. 게다가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여하한 방법도 정당화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방식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수단과 그 최후의 목표와를 연결시켰던 것이다. 마르크스가 혁명적인 폭력이 공산주의 사회를 위한 투쟁의 필요한 일부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추종자들도 역시 기간이야 아무리 오래 걸리든 간에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전 기간을 통하여 모든 종류의 폭력의 계속적인 사용을 정당화 시켰다.

나. 강의 방법

이 강의는 자연히 마르크스 이념에 있어서의 국가와 그 역할의 개념을 묘사하고, 분석하고, 다음에는 평가하는 일로 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마르크스가 국가를 어떻게 취급했는가, 또 인간 발전의여러 가지 단계에 있어서 국가의 역사적인 역할에 대해서 그가 분석한 바를 면밀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계급적 압박의 도구'로서의 국가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이것은 특히 마르크스가 사회속에 비경제적이며 또 비강제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 못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가장 편리하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소멸하여버린다'는 마르크스의 예언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들에 있어서의 국가의 실지 역할과 대조해 보면 재미가 있다. 마르크스는 확실히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간(이 동안 최후의 국가 없는 공산사회의 기초가 놓아진다고 하는)을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그렸다. 소련에 있어서의 공산 통치의 45년간은 국가 없는 사회도 산출하지 못했으며, 또 그런

사회에로의 여하한 발전도 이루지 못하였다. 이것은 그렇게 놀랄 일은 못된다. 왜냐하면, 사실상 마르크스나 레닌은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에 그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한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급 차별과 노동자의 착취를 제거하기는 커녕, 새로운 종류의 소수 독재정치가 창설되었고, 따라서 노동자는 그의 사회에 대해서 아무런 지배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소련 국가는 노동자들의 독재로서 발전하기는 커녕, 개인을 국가의 필요에 대해서 예속시키는 무자비한 관료주의가 되었다는 것을 특히 지적할 수가 있다. 압박의 도구로서의 국가는 국민에게 대해서 여태까지 사용한 일이 없던 테로적인 경찰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발전시킨 공산주의자들 밑에서 상당히 세련되게 되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특색과 그 의의에 대한 마르크스와 레닌의 서로 다른 개념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혁명 후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간을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의 견해에 있어서는, 독재 기간중에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국가 인구의 대부분을 형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본질적으로 다수의 통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권력을 잡은 볼셰비키당은 그 인구의 소수에 불과하였고, 따라서 러시아에 있어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러시아의 농촌 대중에 대해서 소수인 볼셰비키당이 행한 철의 통치가 된 것이다. 정치적 권력의 박탈 및 모든 종류의 자유의 제한이 운영법칙이 되는 볼셰비키 전제주의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레닌이 만들었을 때에, 그의 프롤레타리아 국가 개념은 소수의 극히 훈련된 전위대에 대한 그의 편애로 형성되었다.

볼셰비키의 정부에 대한 레닌의 개념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아마 그의 저서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변절자 카우쯔키"일 것이다. 레닌 사상의 반민주적인 성격은, 그가 프롤레타리아 독재 권력은 '여하한 법률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같은 말 속에서 독재는 사실상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고 주장한 그의 이 소책자에서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레닌은 단일당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국가는 사회계급을 폐지시

킬 수 있고, 또 단결된 국민 대중이 조화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윤리적 수준이 높은, 사회적으로 평등한 그런 사회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믿었다.

이 강의는 '국가가 언젠가는 소멸한다'는 마르크스의 관념을 설명하고, 비판하는 것으로서 그쳐야 한다. 레닌이나 마르크스는 다 같이 아무런 강제 없이 국가가 최후에는 소멸하고, 또 국가 없는 사회가 도래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볼셰비키의 영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는 또한 국가의 강제적인 면이 그 극도까지 발전된 하나의 '과도'사회(이것은 확실히 여러 모로 모든 독재를 종식케 하는 한 개의 독재일 것이다)를 위하여 필요한 근거를 만들어 냈다. 국가 없는 사회에 대한 비판은 모든 역사적인 경험과 심리학적인 연구가 분쟁 없는 인간 사회의 개념을 부인하며, 또 분쟁은 오로지 계급적 상이의 형태로서만 일어 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암시를 인정치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다. 필수 독서

R. N. Carew Hunt,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sm (New York: The Macmillan Co.; Baltimore: Penguin Books, 1963), pp. 94—108, 180—184, 및 226—233.

V. I. Lenin, "State and Revolution, "Commumism, Fascism, and Democracy: The Theoretical Foundations, ed., Carl Cohen (New York: Random House, 1962), pp. 176—199.

Henry B. Mayo, Introduction to Marxist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0), pp. 131—178.

라. 선택 독서

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 1951). pp. 477.

(이 제 일급의 연구는 현대 전체주의의 근거를 검토하고 있다. 제3부는 볼셰비키당의 창설과 발전을 취급하고 있다.)

Zbigniew K. Brzezinski, The Permanent Purge: Politics in Soviet

Totalitarianism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256 pp.

(소련 제도에 있어서의 테러와 숙청의 필요한 역할을 자극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Robert Conquest, Common Sense about Russia (New York: The Macmillan Co., 1960). 175 pp.

(소련국가에 대한 간단하고 객관적인 소개. V, VII, X 및 XIII 장은 이과에 적절한 내용이다.)

Waldemar Gurian(ed.), The Soviet Union: Background, Ideology, Reality (South Bend, Inc.: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52). 189 pp.

(소련에 관한 미국의 저명한 학자인 고 규리언 교수가 소련 공산주의의 근본적인 특색을 의미 심장하게 분석한 것.)

Hans Kelsen, The Political Theory of Bolshevism: A Critical Analysi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48). 60 pp.

(스탈린 시대의 공산주의 이론과 그 적용과의 모순을 분석적으로 평가한 것.)

George Lichtheim, Marxism—An Historical and Critical Stud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1). 412 pp.

(마르크스 주의와 현재의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철저하고 통찰력있는 분석. 독창적이고 유능하게 썼다.)

Alfred G. Meyer, Communism, 2nd ed., revised and enlarged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218 pp.

(공산주의 교리에 대한 연구인데, 특히 국가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해서 적절히 썼다.)

Donald W. Treadgold, Lenin and His Rivals: The Struggle for Russia's Future, 1898—1906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5).

291 pp.

(볼셰비키 교리에 대한 레닌의 초기의 공헌에 대한 권위 있는 연구이며, 러시아 혁명 운동에 있어서의 초기 투쟁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 기록.)

Bertram D. Wolfe, Communist Totalitarianism: Keys to the Soviet System (Boston Beacon Press, 1961). 328 pp.

(공산주의에 관한 권위자가 소련 전체주의의 근본 특색을 논하며, 효과적인 미국 대외정책에 대한 그 무력함을 암시하고 있다.)

마. 토의 문제

1. 마르크스의 국가관이,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서방세계의 여러 가지 사실의 발전에 대해서 내린 해석에 대하여,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을 오늘날 발전 도상에 있는 나라들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2. 소련의 권력 구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마르크스의 국가관이 레닌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개념과 어떻게 결합시켜졌는가 논해 보라. 왜 레닌과 스탈린은 마르크스의 저서에서 '독점 관료주의'와 '관료주의적 전제주의'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기를 원했을가?

3. 불만을 가진 사람들과 실업자들이 왜 마르크스의 국가관에 마음이 쏠리는가? 그들은 '법의 통치'가 순전히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누를 수 있게 하기 위한 가면에 불과하다고 느끼게 되는가? 국가가 단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누르기 위하여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납득이 갈만큼 비판할 수 있는가?

4. 마르크스의 국가관이 혁명적 독재 기간 동안 계속되는 폭력과 압박을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민주주의 철학이 어떻게 이런 이론을 막을 수 있는가?

4. 마르크스의 유산 : 레닌주의와 민주 사회주의

가. 주제 개설

많은 제목 중에서도 민주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및 공산주의와의 관계 만큼 복잡하고 오해를 일으키기 쉬운 것은 없다. 여하히 개념화해도 오도하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세계 사정에 있어서의 그 중요성을 생각할 때 취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러 가지 사회주의 사상과 당들이 전 세계를 통하여 영향을 끼쳐 왔지만, 여기서는 서부 유럽에 있어서의 민주사회주의에 대하여 강조하고저 한다. 이것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들에 있어서 중요한 정치 세력이 되어 온 하나의 운동이며, 따라서 영국이나 서독 같은 나라들에 있어서의 사회당의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자유세계에는 비록 그들의 목표 중의 약간은 공산국가들이 내세우는 목표들과 일치하는 것 같이 보이나 실상 또는 잠재적으로 공산주의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싸우고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다.

이론가이며, 정치적 행동가인 칼·마르크스의 뒤를 따라 그에게 영향을 받은 많은 정치운동가와 정당들이 나왔다. 무정부주의자, 생디칼주의자, 사회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페비안주의자 등 모두가 마르크스로 부터 어느 정도의 고취를 받은 것이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누가 마르크스의 진정한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며 구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보아 전체주의적 공산주의의 성질을 이해하고자 원하는 학도들은 전 세계를 통하여 민주사회주의로 보통 알려져 있는 당들을 특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당들은 레닌이 그렇게 이용하던 마르크스의 전체주의적 면들을 배척했던 것이다. 그들의 발전과정은 노동운동과 병행해 왔다. 그들은 비록 그들의 기도가 환멸을 보게 되었지만, 소련 공산주의와 가끔 협력하려고 애썼던 것이다. 이들이 대표하는 정치세력은 비록 역사적으로 마르크스와 연결되어 있지만, 그래도 소련이나 중공의 공산주의와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들의 견해와 정책에 있어서 서로간의 거리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가타의 운동들과 정당들이——진보주의자, 보수주의자, 기독교 민주주의자, 기타 등등—— 현대 민주주의에 대하여 건설적인 공헌을 해 온 운동과 정당들의 앞장을 서 왔는데, 여기서는 민주사회주의자들에 대해서 특히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마르크스주의의 흐름 속에 오랫 동안 역사적으로 참가해 왔고, 또 미국에서는 그들이 일반적으로 많은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경제적 기회에서 제외되고, 또 사회적 차별대우 때문에 전문가적 직업에서 제외되는, 그런 계급적인 사회에서 성장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에 있어서의 계급적 배척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동류를 찾게 만들며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장 깊은 포부를 사회주의 운동에 맡기게 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하나의 계급 없는 사회이다. 사회적인 유동성과 '성공담'은 미국인의 생활에 흔히 있는 일이며, 따라서 그들의 성공은 어떠한 정당의 계획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아무런 계급적인 이념 투쟁 없이 개혁 혜택의 대부분을 향락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 사회주의의 성질에 관하여 왜곡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의 차이점과 또 여러 가지 사회주의 단체들 상호간의 차이점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유진영의 동맹국이며, 유력한 반공산주의자들이 가끔 동작이 한결 같지는 않으나, 보다 온건한 사회주의자들 대열 가운데 특히 서부 유럽의 공업국가들에 있어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철학은 유럽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운동에 크게 중요성을 띠는 것이었다. 그의 사상은 많은 지지자들을 내며 또 이 지지자들 주위에 당파가 형성되어, 그 각자가 서로 자기가 19세기 사회주의 전통의 참다운 계승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한 극단적인 예로, 독일에 있어서 베른슈타인 또 불란서에 있어서 조레와 같은 지도자들 주위에 모인 '개

혁적 사회주의자들'을 들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마르크스의 이론을 개정하여 그의 혁명적 사회주의를 발전적 사회 개혁론으로 변형시켜 버렸다. 그들은 노동계급의 필요와 요구가 대의제도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노동계급의 참정권은 나중에 혁명의 필요성을 제거할 것이며, 노동자들은 따라서 그들의 노력을 합법적인 정치적 및 경제적 목표에다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경제체제의 조절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커가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대부분의 유럽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완전한 정부통제의 개념을 벌써 오래 전에 전개하였던 것이다. 대체로, 오늘날 보다 온건한 사회주의자들 특히, 서부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산주의자들과는 다르다. (1) 무력혁명에 반대한다. (2) 엄격하게 헌법적 방식에 의하여 행동할 것을 주장한다. (3) 좌전 우전 전체주의를 반대한다. (4) 전 세계적인 목표나 조직을 가지지 않는다. (5) 비 독단적이다. (예를 들면 그들은 순전한 경제적 결정론을 배척한다.) (6) 종종 그들 철학의 근본적인 요소로서 종교와 윤리를 용납한다. 비록 그들이 아직도 많은 마르크스의 경제적 교조 특히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고집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7) 마르크스에 있어서의 극단적인 유물론적인 면에 반대하며, 또 사회에서 노동자들을 소외하는 것을 반대한다. 물론 유럽에 있어서도 기타의 '사회주의자들'은 불가지론적이며, 무신론적이며, 그리고 보수적인 사상과 싸우는 한편, 평화적인 사회주의 세계정부에 있어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희미하게나마 접근시킬 목적으로 인민전선에 있어서 공산주의자와 협력하며, 또 다른 나라들의 사회주의자들과 지적인 연락을 유지한다.

마르크스의 다른 극단적인 사상은 러시아의 볼셰비키교리로 나타났다. 이것은 원래 레닌이 한 일이며, 그는 마르크스의 교리를 후세의 러시아에 있어서의 모든 조건에 적응시키려고 했다. 역시 마르크스의 사상을 이용하여 레닌은 새로운 종류의 푸롤레타리아 군대와 혁명의 일반 간부들을 조직할 구실을 발견하였다. 레닌은 일련의 전설적 및 이론적 수정을

통하여 사회주의 교리를 변형케 하였으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특색있는 볼셰비키 체제를 확립하였다. 서방의 사회주의는 점점 더 온건해지고 그 성격이 발전적이 되어 나갔는데 레닌식의 사회주의 원칙들은 전체주의 국가를 지향하였다. 그는 테러주의적인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볼셰비키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형태로 규정하고 일당 전체주의사회를 창조하였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억압되었고, 정치적 야당은 분쇄되었으며, 또 윤리적 가치는 도괴되었다. 재산의 개인소유 철폐와 그리고 종교적 신앙 및 조직적인 종교활동의 금지는 체계적으로 또 무자비하게 추구되었다.

레닌이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의 개혁적 사회주의를 공격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What is to be done)를 저술한 1902년 이래, 공산주의자들은 여러가지 사회민주당들을 가르켜 '노동 계급에 대한 반역자'라고 하여 가끔 맹렬히 공격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서부 유럽 제국에 있어서는 그들이 노동조직을 장악하며, 투표에 있어서 노동계급의 표를 얻는 데에 그들의 경쟁자는 사회민주당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들을 대할 때에 노골적인 적의와 기만적인 일시적 합작을 가지고 했다. 바이마르 독일에서는 나치당의 반대당으로서 최대의 보루인 사회민주당을 파괴하기 위해서 나치당을 공공연히 도움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은 모스크바의 지령을 받으면서 히틀러의 집권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다음에는 히틀러가 전권을 장악한 후인 1935년으로 부터 1936년 사이에는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그들의 적의에도 불구하고 좀 뒤늦기는 했지만, 더 이상의 나치 팽창을 방치할 수 없어 사회당들과 함께 인민전선을 펴기로 요구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당들이 마샬플랜을 지지한 1947년에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을 '사회주의 반역자들' 또는 '사회주의 파시스트'라고 부르며 신랄하게 공격했다.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적의는 결국 같은 적의로 응수되었지만, 늘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니었다. 실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사회주의

자들의 행동에는 어떤 뚜렷한 형태가 없다. 그 행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극히 고르지 못하고 가변적이다. 그 중에서 근본적인 것을 들면 다음의 네 가지이다.

먼저 사회주의 정당들과 그 강령들은 각국의 정치적 조건과 사건들과 그리고 정부의 성질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진다. 사회주의자들은 국제적으로 간부회의를 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전략은 없고 따라서 정책과 교리에 있어서 번번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사회주의자들의 정책은 세계적인 대결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사건들 보다도 오히려 국내적인 정세를 반영하기 쉬운 것이다.

둘째로, 공산주의와 대결하려는 사회주의자들의 노력에 어떤 일관성이 없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모두 마르크스주의에서 나왔다는 사실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들 특히, 영국, 불란서, 독일 등과 같은 나라들에 있어서 그들은 결국 경제적 및 사회적 정의의 면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말에는 공감하면서도 공산주의자들의 전체주의와 폭력 앙양에는 혐오를 느끼는 정신적 분열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힘이 무엇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오용하는 경향임에 반하여, 사회주의자들은 대부분 힘의 역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평화주의와 윤리주의 때문에 그들은 외국 정세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 사실은 가끔 그들로 하여금 힘의 건전한 사용(서방의 방위 대책같은 것)을 배척하게 하며, 또 공산주의자들의 힘의 사용(조직적인 침투 전술 같은 것)에 말려 들어가게 하고 있다. 이상주의의 자극을 받은 어떤 사회주의자들은 레닌주의자들끼리 어떤 공통적인 이해의 광장이 마련된 이상주의가 보존되고 계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하에서의 협력을 위한 노력이 결국 비생산적인 것이 증명되고 또 환멸을 가져온 것 뿐인데도 어떤 사회주의 지도자들은 공산주의자들과의 연합전선을 다시금 펴왔던 것이다.

또 한편, 레닌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모두 연구했거나, 또는 슬픈 경험을 통하여 공산주의자들의 전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낸 많은 사회주의자들도 있다. 많은 학식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강력한 이념 투쟁을 벌려서 유럽 노동계급 중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불가닌과 후르시초프가 1956년에 영국을 방문하여 영국의 노동당 지도자들과 만났을 때에 받은 신랄한 비판을 보고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을 다룰 때에 사회주의자들이 석연치 못한 행동을 취하는 세째번 이유는 사회주의자들의 계획이 지극히 가변적인데다 사회주의자들 자신이 두 가지 결함, 다시 말하면 보다 개인주의적인 자유방임 기업과 여러가지 비마르크스적인 형태의 독재주의 두 가지를 반대하는 데에 그들의 정력의 대부분을 쏟아 왔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선입 관념이 가끔 사회주의자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의 위협을 간과하거나 과소평가케 했던 것이다.

네째로, 보다 공업화된 국가들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이론이 많은 변화를 일으켜 어떤 나라들에 있어서는 마르크스주의의 중요한 요소와 그 독단적인 방법을 버리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변화된 전망하에서 이런 나라들의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새로운 각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의 극단적인 교리를 재음미하기 시작하였으며, 따라서 그것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련 전체주의를 근시안적으로 취급하는 옛 사회주의적 이론은 공업화되지 않은 나라들에 있어서는 그 많은 지도자들 속에서 그대로 뿌리박은 채 남아 있었는데 이 지도자들의 대부분은 사회주의가 유행하고 또 레닌주의적 전체주의의 위험성이 명백히 이해되지 않은 제1차 대전 후에 유럽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그러면 공산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반대에 대한 기록이 여러 가지이고 또 그 기록에 관한 종합 개괄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아무런 놀랄 일이 못된다. 오늘날 서부 독일에 있어서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전투적으로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회당 출신 베를린 시장인 윌리 브란트는 공산주의의 침투로 부터 자유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강력한 보루가 되어 왔다. 영국의 노동당은 시종일관하여 공산당과의 합작을 물리쳐 왔으나, 노동당 내의 많은 수효가 무의식 중에 사회주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중립주의적 위치를 취하고 있다. 이탈리아에 있어서도 넨니가 이끄는 사회주의자들이 시종일관하게 이탈리아 공산당과 연합해 왔으나, 그후 1956년 헝거리 봉기 당시 러시아의 행동을 보고서 노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그들은 가끔 반 서방적인 노선을 따라 왔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소련의 대외정책 목표를 지지하는 일이 되었다. 스카르노, 벤 벨라 낫세르 그리고 앨쿠루마와 같은 많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동안에도 공산주의자들과 협력하였거나 또는 공산주의를 힘있게 반대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세력들을 압박하려고 노력하였다. 인도에 있어서도 철저한 사회주의자인 고 네루수상은 가끔 공산주의자들을 투옥했지마는, 헝거리 봉기와 같은 사건들에 있어서 소련의 행동에 대한 네루 정부의 정책들은 세계운동으로서의 공산주의의 성질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는 거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노정하였다.

비유럽적인 어떤 사회주의자들은 정권을 잡은 후에 공산주의자들과 합력하였고 또 그와 같은 경우들에 있어서 나중에 공산주의자들이 인수 할 위험이 있었지마는, 그러나 사회주의가 반드시 공산주의로 되어가는 지는 명백치 않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정부가 방대한 경제력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은 개인의 또는 법인 조직의 힘을 근절하고 따라서 공산주의가 번창할 수 있는 일종의 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게 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그 전에 존재하던 체제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망각하고 있다. 서부 유럽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게 된 곳에서는 그들은 의회의 제약을 존중하였고 또 공산주의자들에게 짧은 유예 기간을 주었다. 전후 불란서에서의 사회주의 정부들은 친공산주의 향의 투표를 빼앗음으로써 정권을 잡았고, 이런 친공산주의 향의 투표는 그후 결코 1947년과

같은 다수표는 얻지 못하였다. 영국의 노동당은 1945년으로 부터 1950년까지 공산주의자들에게 복종을 함이 없이 정권을 잡았다. 또 그들의 뒤를 이어 받은 보수주의자들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국유화라는 극단적인 방책을 채택치 않아도 되었다. 명백히 확고한 민주적인 근거를 갖지 못한 많은 미개발국가들에 있어서는 —예를들면 인도네시아—사정은 전혀 다르다. 간단히 말하면, 공산주의와 자유세계와의 싸움에 있어서 사회주의 운동이 맡은 역할은 중앙당의 강령, 중앙당의 정치적 노선과 제도 및 국가이익에 대한 지방의 인식이 상이한 것처럼 각양하다.

그러나, 근래에 있어서 서부 유럽 사회주의의 표면상의 발전을 간과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자들의 야욕을 좌절시키는 노력에 있어서 서로 협력할 공동의 입장을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의 차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왜냐 하면 이 두가지 '주의'를 같은 것으로 잘못 알게 되면 공산주의자들에게 이용당하게 되며, 따라서 반공 투쟁에 있어서 잠재적인 동맹자가 될 수 있는 많은 지성인들을 소외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 보다도 더우기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을 이해 할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는 사회주의자들의 능력을 일단 인식할 수만 있게 되면, 더욱 용이하게 사회주의자들의 협력을 얻을 수 있고 또 사회주의 운동에 있어서, 반공주의자들을 강화하고 인도하는 동시에 소박하고 무책임한 지도자들과 당들을 아주 조심성있게 다룰 수 있는 것이다.

나. 강의 방법

이 강의는 민주주의적인 면과 사회주의사상의 전체주의적인 면과의 명확한 구별을 짓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자유세계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과 민주사회주의 정당간에 발생한 이념적 논쟁과 대결 속에 반영된 민주사회주의 사상과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사상 사이의 구별을 짓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 강의는 반공투쟁에 대한 사회주의의 공헌과 자본주의의 공헌을 비교하는 데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본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적당치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회주의자'라는 이름 하에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운동과 자유제도를 위한 장기간에 걸친 싸움에 있어, 명백히 그들의 적인 공산주의자들 사이의 차이를 명백히 그리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민주사회주의의 이념적 신조와 볼셰비키의 교리는 '노동계급'의 충성을 얻기 위한 계속적인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러시아의 사회민주노동당의 역사는 많은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며, 또 독일에 있어서의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발전은 여기에 있어서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는 데에 큰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이 강의는 정치적 좌익의 역사는 공산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 사이의 빈번한 분쟁의 역사였으며, 또 단기간 또는 국부적인 사건에 있어서의 빈번한 협력의 역사였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물론 협력하는 데 있어서의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은 항상 사회주의자들을 '이용하고' 나중에는 그들을 파괴하려는 데에 있었다. 의회에 있어서, 노동 조합 조직에 있어서, 청년들과 학생들 간에 있어서 또 실로 국가 전체를 통하여, 유럽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가끔 공산주의의 가장 용납할 수 없는 반대자 중에 하나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들의 공언된 목표는 바로 레닌주의의 교리를 반대하며, 그 교리를 승인하는 자들을 물러나게 하며, '또 모든 독재주의와 또 모든 형태의 전체주의적 또는 권위주의적 지배'에 대항하여 인간의 자유의 유산을 보존하자는 것이다.

미국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지나치게 단순한 관념 즉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같은 것(전자가 불가피하게 후자를 지향하는)으로 보는 지나치게 단순한 관념을 고려할 때, 그 차이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교사들에게는 이 강의가 특히 중요하다. 미국에 있어서 우리의 자유 자본주의 제도는 최근까지 유럽 사회주의자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한 많은 사회 개선계획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구라파의 어느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더 능률있게 또 풍부하게 미국의 모든 층의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민주사회당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의 하나이다. 실로 미국에 있어서 지도적 사회주의자이며 또 사회당 공천으로 여러번 대통령 후보자가 되었던 노만 토마스는 가끔 사회주의적 많은 정강들이 역대 정당에 의해서 이용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다. 필수 독서

R.N. Carew Hunt,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sm (Baltimore: Penguin Books, 1963). pp. 123—158.

"Socialism: A New Statement of Principles," Communism, Fascism, and Democracy: The Theoretical Foundations, ed. Carl Cohen (New York: Random House, 1962). pp. 616—630.

라. 선택 독서

"Basic Program of the Social Democratic Party of Germany" in William G. Andrews, European Political Institutions (New York: Van Nostrand Political Science Series, 1962).

(1959년 11월에 채택된 당의 공식 강령.)

Eduard Bernstein, Evolutionary Socialism: A Criticism and Affirmation (New York: Schocken Books, 1961). 224 pp.

(아마 사회주의 이론에 대해 가장 중요한 공헌을 한 책이며, 또 현대의 민주사회주의에 가장 영향을 준 책일 것이다.)

G.D.H. Cole, A History of Socialist Thought, Volume Ⅲ, Parts 1 and 2, The Second International 1889—1914 (New York: St. Martin's Press, 1958). 454—485 pp.

(이 책들은 흔히 이 부의 제목에 가장 적절한 책들일 것이다.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콜(Cole)의 분석은 좋은 반응을 얻었다. 레닌에 대한 그의 이해는 의문시되었다.)

Max Eastman, Marxism : Is It Science? (New York: Norton, 1940). 394 pp.

(마르크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미국의 일류 비평가가 마르크스 이론의 비과학적인 성질을 강조한 것.)

Max Eastman, Reflections on the Failure of Socialism (New York: Devin-Adair, 1955). 127 pp.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외곡자료서의 레닌과 스탈린을 특히 비판한 논문들을 모은 것, 특히 마르크스 자신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다.)

William Ebenstein, Today's Ism: Communrsm, Fascism, Capitalism, socialism, 3rd ed., (New York: Prentice-Hall Inc., 1961). 243 pp.

(공산주의와 민주사회주의와의 비교를 하고 있다.)

Peter Gay, The Dilemma of Democratic Socialism: Eduard Bernstein's Challenge to Marx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2). 334 pp.

(베른스타인과 민주사회주의 문제에 관한 영어로 쓴 책들 중에 가장 우수한 책.)

Alexander Gray, The Socialist Tradition: Moses to Lenin (London and New York: Longmans, Green, 1946). 523 pp.

(고대로 부터 볼세비키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각 파를 논하고 철저하게 분석한 것인데 특히 19세기와 20세기에 있어서의 그 발전에 힘을 주고 있다.)

F. A. Hayek,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272 pp.

(위에 든 지·디·애이취·콜의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하이에크의 저서는 사회주의 경제를 비판하고 있다.)

Sidney Hook, Marx and the Marxists: The Ambiguous Legacy (New York: Van Nostrand, 1955). 254 pp.

(마르크스 철학에 대한 미국의 가장 권위있는 연구자이며 비평가의 한 사람이 쓴 명석한 분석이다.)

Joseph 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3rd ed. (New York: Harper Torch Books, 1962). 431 pp.

(서방의 경제학자이며 사회역사가가 쓴 이 고전에는 처음 네 장에 사회 및 경제 교리로서의 마르크스주의를 자신있게 비판하고 있다.)

David Shub, Lenin (New York: Doubleday & Co., 1948). 438 pp.

(레닌의 정치개념들의 발전과 또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권을 장악하려는 그의 투쟁에 관한 간명한 연구서.)

마. 토의 문제

1. 마르크스 후의 사회주의자들을 분렬케 한 주요 사건들을 몇 가지 들어 보라. 개혁적 사회주의란 무엇이냐?

2. 베른스타인 이후 왜 대다수의 유럽 사회주의자들이 혁명적 행동이 사회주의 목적 달성에 불필요하다고 확신했는가? 어떤 조건들이 이 견해에 영향을 주었는가?

3. 왜 그 전 식민지 나라들에 있어서의 몇몇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소련의 제국주의를 인식하기 않았으며, 또 세계 문제에 있어서의 모스크바의 입장에 대해서 더 호감을 가졌는가?

4. 왜 민주사회주의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가끔 공산주의자들과의 논쟁에 있어서 유력한 반대자가 되는가? 어떠한 요소가 사회주의자들로 하여금 때때로 공산당들과의 합작을 하게 하는가?

5. 공산주의자들과 민주사회주의자들 간의 근본적인 이념상 및 절차상의 차이를 말하라.

6. 사회주의 사상의 어떠한 요소들이 서방과 공산주의와의 대결에 있어서 비공산주의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가?

7. 민주주의를 방위하고 민주사회주의가 불가피하게 공산주의로 되어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주요한 동기들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특색의 어떤 것이 미개발국가에는 없을 가능성이 있는가?

8. 왜 사회주의 국가들과 당들은 공산주의 위협에 대처함에 있어서 이랬다 저랬다 했는가?

5. 이데올로기와 권력 현실 : 스탈린주의와 그 이후

가. 주제 개설

현대 공산주의 운동의 가장 의미 심장한 이념적 교리의 몇 가지는 마르크스·레닌 교리를 혁명 후의 러시아 현실에 적응시켜야 할 필요성(이러한 적응 활동이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한 필요성)에서 나왔던 것이다. 정권을 잡으면서 레닌은 러시아의 새로운 전제주의자들이 그들의 혁명 정부를 견고히 하기 시작하자, 공언한 이론과 실제 행동 사이의 명백한 간격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마르크스의 교리를 더욱 변형케 했다. 1924년 1월의 레닌의 죽음은 볼세비키로 부터 그들의 지도자를 빼앗고 또 소련내에 있어서의 권력 투쟁을 야기케 했다. 레닌의 지도권을 계승할 주요한 후보자들인 스탈린과 트로츠키는 몇 가지 이념적 및 전술적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결렬되었는데 그들의 가장 심각한 분열은 트로츠키의 '영구 혁명론'에서 발달된 것이다. 트로츠키는 경제적으로 미개발지역인 러시아사회가 주위의 자본주의 세력을 대항할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질 수 없으니까 오직 전 세계적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운동만이 러시아에 있어 볼세비키정권의 영원한 성공을 가져 올 수 있다고 가정했다. 스탈린은 이에 대하여 국제공산주의의 최후의 성공을 소련의 경제적 정치적 및 군사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 그의 주장에 입각하여, 그의 '일국 사회주의' 원칙을 가지고 맞섰다. 스탈린에 의하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러시아의 후진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만 발전될 수 있고 또 러시아의 힘의 기지는 나중에는 전 세계를 통한 공산주의 승리를 보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스탈린의 이 견해는 그가 레닌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또 소련의 경쟁할 수 없는 독재자로서 자신을 확고히 하자 공적인 교리가 되고 말았다. 스탈린에게 있어서는 '일국 사회주

의'가 그렇다고 해서 혁명을 수출하려는 노력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스탈린의 마르크스·레닌주의 교리의 현대화가 채택되면서 러시아 사회의 완전한 재조직이 시작되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공산당에 의한 완전한 독재로 굳어졌다. 국가는 이제 불가피한 악이 아니고 소련 전제주의의 영광스러운 상징이 되었고, 표면적으로는 사회전체를 자본주의자들의 침략으로 부터 보호하고, 또 '공산주의 최고단계'에로의 안내자가 된 것이다. 국가의 권력은 최고도로 발전되었고 또 그것은 소련 사회에 있어서 보편적인 지배력이 된 것이다.

전능적인 국가에 있어서의 정치 권력의 완전한 집중은 소련 사회의 경제 및 사회부문의 완전한 변형을 뒤따르게 했다. '일국 사회주의'는 농업에 있어서의 강제 집단주의를 정당화하고, 무자비하게 급속한 공업화를 정당화하고, 또 제1차 5개년 계획을 통하여 모든 경제를 국가의 보호와 통제하에 완전히 집중화하는 것을 정당화시켰다. 국가의 통제는 문화적, 종교적 및 지적 활동의 모든 분야에 미치게 되고 사회 전체가 적응을 강요당하였다.

국가의 권력은 공산당과 스탈린으로 하여금 생활의 모든 면을 완전히 통제케 하면서 소련을 발전시키려는 거대한 노력에 있어서 최고도로 이용되었다. 권력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결정권을 가지는 유일한 요소가 되었으며, 또 이념은 표면적으로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에 이바지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 때 그 때에 편리한 대로 수정되었다. 그 때 그 때의 변화와 더불어 교리에 대한 모든 반대는 무자비하게 탄압되고 또 강철같은 테러의 지배가 중요한 통치 도구가 되었다. 스탈린 시대는 진정한 전체주의 국가의 창설을 가져왔다.

스탈린의 통치기간에는 레닌이 러시아에서 시작한 전체주의의 많은 모형을 성숙시켰다. 스탈린은 테러, 비밀 경찰 및 노예 노동을 이용하여 그의 통치 기간의 본질적인 요소로 발전시켰다. 그는 또한 농토의 강제적 집단

주의를 단행했으며 또 자작농을 근절시켰다. 농업전선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정책의 결과로 소련의 수백만 농부들이 1930년대 초엽인 추운 겨울에 굶어 죽은 것이다. 지방에 있어서의 집단화된 농업과 자의적인 관료적 통치는 스탈린 통치의 특색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을 그 후의 지도자들은 맹목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왜냐 하면 이 특색들은 경제의 국가통치의 근본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탈린 밑에서 극단화된 전체주의의 자의적인 성질과 관련된 기타의 조치들 중에는 군사력 및 중공업에 대한 치중, 해외에 있어서의 경제전쟁과 파열을 위한 능력의 증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지배력 강화, 그리고 소련 지도자의 명령에 절대적인 호응과 복종의 확립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계획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스탈린은 일련의 5개년 계획들을 시작하여 이것을 엄격히 준수케 하고, 또 이것은 경제의 전적인 통제를 위한 레닌의 계획을 논리적으로 확장시킨 것이었다. 이 계획들과 또 이에 따른 경제적 중앙집권화는 또한 스탈린주의의 특색이었으며 이것을 후르시초프는 계속 실시했다. 스탈린 시대의 테러행위의 많은 부분을 폐지해야 했지만 스탈린의 전체주의 체제에 관한 이해는 오늘날 소련사회내의 압박감과 긴장감과 기타의 특색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을 이루는 것이다.

당 기구와 국가 조직을 통하여 행사된 29년간의 스탈린의 폭군적 개인통치는 1953년 그의 죽음과 함께 막을 내렸다. 그 이후 소련 사회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수정들이 거의 다 근본적인 이념적 변경에 입각한 것은 아니었다. '집단 지도 체제'의 실험은 잠시나마 레닌주의 원칙에로의 복귀라 볼 수 있는 한편, 스탈린 시대를 '개인 숭배'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규탄되었다. 그러나, 2년 여의 권력투쟁 후에 후르시초프의 등장은 집단 지도 체제 원칙의 계속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단일 지도자에 의한 통치에로의 복귀로 볼 수 있다. 후르시초프는 1956년에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행한 그의 유명한 연

설(이 연설문은 소련에서는 공식으로 배부되지 않았다)에서 그의 정책을 천명했으며, 1961년의 당의 새로운 계획에 관하여 말하였다. 이 정책들 중에는 몇 가지 이념적 혁신이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 그 혁신이 질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변화에 불과한 것이었다.

1961년 당 대회에서 행한 후르시초프의 연설은 공산국가들과 비공산국가들과의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의 부분적인 수정을 소개한 것이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그들이 말하는 '민족 해방 전쟁'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후르시초프는 그와 같은 무력적 분쟁은 공산체제 내의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과 비공산국가들내의 '평화세력'들과의 협조를 통하여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더 나아가서 결론 짓기를 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공산주의는 무력적 혁명이나 내란을 유발치 않고서도 공산주의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인 이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코얀이 그 후의 성명에서 이 문제를 밝힌 바와 같이, '평화적인 이행"은 '사회주의 에로의 이행'이 주로 붉은 군대의 군사력으로 강제적으로 과해진 발틱해의 국가들과 기타 동구라파 국가들의 공산화로 예증되었다.

이미 소련 세력권 내에 있는 국가들 내에서의 새로운 이념적 수정은 소련 표현과는 좀 다른 제도와 과정의 발전을 가능케 했다. '사회주의에로의 독자적인 길"이란 원칙하에서 소련 사정과는 다른 조건들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각 국가 특유의 정책이 허용되었다. 보다 자치적인 통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공산 위성 국가의 예로서 루마니아를 들 수 있다.

소련 공산당의 1961년 강령에 있어서 재미있는 이론적 변화는 '국가의 소멸'에 관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입장에로의 복귀이다. 이 강령은 국가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소련 사회의 점차적인 발전에 대한 스탈린 이전의 개념을 재천명하고 또 그런 사회의 도래에 관해서 놀랄 만큼 상세한 일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앞으로 20년 이내에 공산주의 궁극적

단계가 확립될 것이며, 또 유토피아 자체가 25년 이내에 이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 앞날에 대한 통찰력 있는 한 관찰자가 말했듯이 그와 같은 유토피아에 관한 명백한 언질은 그들이 말한 20년의 해가 다 끝나는 때에도 살아 남게 될 그 사상의 창시자들에게 오히려 불쾌한 곤란만 주는 일이 될 것이다.

후르시초프가 1964년 10월 14일에 권력의 좌에서 축출되었을 때, 외부세계는 소련 내의 모든 일의 절차가 아직도 이렇다 할 변화를 가져 오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련에 있어서의 권력 장악의 자성은 권력의 정상에 앉았던 자가 일조 일석에 '비인간,(오웰의 말을 빌면)이 되어 버리는 사실로써 알 수 있다. 그러나, 1964년 11월 7일 볼세비키혁명 47주년 기념식에 있어서의 그의 연설에서 소련 공산당 제1서기의 자리에 새로 취임한 레오니드 아이 브레즈네프는 세계 무대에 있어서 레닌주의 혁명원칙을 계속 추종할 것을 명백히 했다. 즉,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우리 당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 있어서 제국주의와 기타 모든 형태의 식민주의에 대립하여 싸우고 있는 민족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원을 해 왔다……공산주의 자들의 세계 군대는 모스크바에서의 1957년과 1960년 회의에서 공동으로 작성한 명확한 일반 노선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레닌주의의 기본 원칙들은 폐기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강의 방법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스탈린의 이념적 공헌의 발전과 의의를 평가하는 데에 이 강의의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 레닌의 자칭 후계자들 간의 이론상의 논쟁을 좀 소개하고,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개념의 발전을 1920년대의 소련의 국내적 및 국제적 위치의 관계에서 개설할 필요가 있다.

강의는 '일국 사회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세계 공산혁명의 명제로 부터 이탈한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목표를 향하여 다른 노선을 추구함을 의미한 것이다. 스탈린은 공산주의 승리의 혁명적 불가

피성을 비난도 하지 않았고 부정도 아니하였으며, 단지 강력한 소비에트 러시아가 혁명적 노력을 추진하고 또 지휘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의 도래를 약간 역설했을 뿐이다. 스탈린의 견해는 러시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의 혁명과 성공이 세계 혁명의 즉시 추구와 승리에 달려 있다는 트로츠키의 견해의 반대 입장에 있다.

스탈린은 러시아의 경제적 및 군사적 발전이 고속도로 진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압도적으로 강력하고 지배적인 국가기구가 이 임무를 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므로, 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국가 이론은 '국가의 소멸'이 소련 사회의 발전을 완결시킬 수 있기까지는 국가 권력을 먼저 철저히 발전시켜야 한다는 스탈린의 언명이 있은 후 완전히 변형해버린 것이다.

강의는 스탈린 시대가 전체주의적 국가 개념에 입각하여 어떻게 발전해 나갔다는 것을 지적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멀 페인소드의 저서 "러시아는 어떻게 통치되어지고 있는가"는 스탈린 지배시대의 전체주의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해주고 있다. 러시아의 공산당은 이 전능적인 국가 내에서 유일한 지배요소가 되었으며, 또 그 지배기관들은 곧 '프롤레타리아 독재에서 서기국 독재로 되었다'고 한 트로츠키의 말 대로 당 자체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장악했다. 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효과적으로 조종된 사회는 이제 스탈린이 소비에트 러시아를 급속한 공업화를 통하여 건설하려고 나섬에 따라 완전한 경제적 및 사회적 변형을 겪게 되었다. 여러 번의 5개년 계획들은 중앙정부에 통제수단을 제공하고 또 강력한 군사 기구를 위한 경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야욕적인 목표를 제공한 것이다.

스탈린주의가 나중에 일으킨 러시아 민족주의의 부활을 또한 강조해야 한다. 후에 공산주의자들의 견해로 부터 그 세계주의적 경향의 대부분을 제거해 버린 명백히 러시아적인 공산주의의 연원은 곧 '일국 사회주의'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러시아 공산당이 전적으

로 지배하게 되었다. '사회주의의 모국'이 이제 각 나라의 특유 조건들과 필요에 부합하게 하는것 보다 오히려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의 필요와 욕망에 따라 전 세계 여러 공산주의 조직의 정책과 전술과 지도권을 결정하게 되었다.

스탈린의 죽음 이후의 이념적 발전을 스탈린주의의 과격한 경향에 대한 반작용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개인 숭배'배격과 같은 혁신과 또 집단 지도 체제 원칙의 명목상의 재도입은 이 범주에 속할 것이다. '사회주의에로의 독자적 길'을 허용하는 이 새로운 이론은 근본적으로 소비에트 세력권 전체를 통하여 소련 모형과 꼭 같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양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조건들과 환경은 가끔 러시아식으로 부터 이탈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또 이것은 이제 이 새로운 이론으로 인하여 인정을 받게 되었다. 강사는 이 제목이 제4부에서 다시 더 취급될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강의는 공산주의 국가들과 비공산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에 관한 전 수상 후르시초프의 이론을 분석함으로써 끝낼 수 있다. 전쟁이 이제는 불가피하지 않다는 그의 선언은 특히 이 이론으로 촉발된 중·소 논쟁을 생각할 때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인 이행'에 대한 강조는 지금 프롤레타리아 지배에로의 이행이 위로부터 부과될 것이므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필연성과 불가피성에 관한 정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이론에 위배된다. 이 관계에 있어서 비록 후르시초프가 자유세계와 공산진영 간의 전쟁이 '불가피하지' 않다고 주장함으로써 레닌과 스탈린의 입장을 수정하기는 했지만, 그는 세계 공산주의의 승리가 불가피하다는 확신을 고집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또 후르시초프 실각 조금 후에 레오니드 브레즈네프가 말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20차, 21차 및 22차 대회에서 작성된 일반 노선은 하나의 레닌 노선이다. 그것은 공산당과 소비에트 국가의 대내적 및 대외적 정책에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유일

한 노선이었고 또 노선이 될 것이다. 인민에게 이바지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힘을 강화하고 그 영광과 위신을 높이며, 마르크스·레닌주의 대 사상을 꾸준히 요동없이 실천해 나가는 데 당은 그 최고의 책임이 있는 줄 안다.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우리 당 전체가 나라의 운명에 대한 그들의 높은 책임을 인식하고 당과 국가 생명을 지도할 레닌주의 원칙들을 그대로 살리려는 결심을 하고 있으며, 또 꾸준히 레닌주의 노선을 걸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련에 있어서의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의 창조를 해 공포된 후르시초프의 일정표를 중심으로 상호 모순되는 발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공산주의 단계에 들어 가는 기초가 다음 20년 동안에 놓여질 것이며, 또 그 다음에 올 같은 기간 동안에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 평등한 천국의 도래는 적의에 찬 정책과 행동으로써 이 최후의 노력을 방해하려는 '우리를 둘러싼 제국주의 국가들'로 부터의 위협만 없다면, 한 세대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들의 포위'에 관한 이러한 강조는 과거에 있어서 이 계획의 창안자들에게 편리한 도피점을 제공해 주었으며, 또 비록 모스크바는 지금 포위된 것은 자본주의 세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런 편리한 도피점을 제공할 것이다. 강사는 브레즈네프와 코시긴 하의 정책의 계속성을 설명하는 데 후르시초프 이후 기간에서 다른 인용문을 예증으로 들 수 있다. 강사는 또한 권위주의 정권에는 항상 있는, 말하자면 경찰기구 속에 있는 유력한 지위에 되돌아 갈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하면 자유로운 언론이나 반대 정당이 없으니까 보다 독단적인 책략으로의 복귀는 보다 책임 있는 정부형태에로의 발전 만큼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다.

다. 필수독서

Robert Conquest, "Liberalization : A Balance Sheet," Problems of Communism, Vol. XI, No. 6 (Washington, D. 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2), pp. 1—8.

R. N. Carew Hunt,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sm (Baltimore : Penguin Books, 1963), pp. 216—283.

George Lichtheim, "The Programme and the Marxist—Leninist Tradition."Erik Boettcher, "Soviet Social Policy in Theory and Practice, and Victor Frank, "Co-existence and Revolution," in The U. S. S. R. and the Future : An Analysis of the New Program of the CPSU, ed., Leonard Schapiro (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1963), pp. 23—68.

라. 선택독서

Abraham Brumberg(ed.), Russia Under Khrushchev(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1963). 660 pp.

("공산주의의 문제"로부터의 논문들을 모은것인데, 현대 러시아 내부의 여러 가지 특색들을 취급하고 있다.)

David J. Dallin and Boris I. Nicolaevsky, Forced Labor in Soviet Russia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47). 337 pp.

(스탈린 하의 소련의 노예 노동수용소에 대한 가장 초기의 것으로 지금도 권위있는 연구들 중의 하나.)

Isaac Deutscher, Stalin: A Political Biograph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9). 600 pp.

(스탈린의 완벽한 전기인데 그 취급이 트로츠키파적이다.)

Dieter Dux(ed.), Ideology in Conflict (New York: D. Van Nostrand Co., Inc., 1963). 200 pp.

(1957년으로 부터 1961년까지의 기초적인 문헌들을 모은 것인데 공산주의 운동 내의 주요한 이념적 논쟁을 취급하고 있다.)

Gerhard A. Fittkau, My Thirty-third Year (New York: Farrar, Straus and Cudahy, 1958; 5th printing, 1960). 263 pp.

(러시아 노예 노동수용소에서의 한 목사의 경험을 기록한 것인데, 공산주의자들의 고문에 대한 개인의 종교적 이상의 승리를 취급한 내용이다.)

N. S. Khrushchev, The Crimes of the Stalin Era (annotated by Boris I. Nicolaevsky)(New York: The New Leader, 1956). 67 pp.

(후르시초프의 '비밀 연설'에다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지도적인 권위자의 한 사람이 유용한 주석을 달았다.)

Walter Laqueur and Leopold Labedz(eds.), The Future of Communist Societ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202 pp.

(소련 공산당의 새로운 강령의 의의를 평가한 논문들을 모은 것.)

Elinor Lipper, My Eleven Years in a Slave Labor Camp (New York: Henry Regnery, 1951). 310pp.

(스탈린 시대의 테러와 노예노동의 전모를 효과적이고 분석적으로 그린 직접 기록인데 노예 노동수용소를 외부 관찰자들에게 어떻게 꾸며서 보였는가를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다.)

Barrington Moore, Jr., Soviet Politics—The Dilemma of Power: The Role of Ideas in Social Chan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503 pp.

(소비에트 제도에 있어서의 이념의 역할을 분석하고 또 이론과 현실을 대조하여 잘 설명하고 있다.)

Herbert Ritvo(ed.), The New Soviet Society: Final Text of the Program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The New Leader, 1962). 251 pp.

(소련 공산당의 신강령의 완전한 본문인데 우수한 소개문과 주석이 붙어 있다.)

Leon Trotsky, Stalin: An Appraisal of the Man and His Influence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46). 516 pp.

(스탈린의 최대 경쟁자가 쓴 비판적인 우수한 연구.)

Bertram D. Wolfe, Khrushchev and Stalin's Ghost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7). 322 pp.

(스탈린과 개인 숭배를 배격한 후르시쵸프의 유명한 '비밀 연구'에 내재한 의미와 모순을 세밀하게 폭로한 것.)

"Communist Ideology and Soviet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October 1962.

(그 제목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 토의 문제

1. 어떤 주요 문제가 스탈린과 트로츠키를 분렬시켰는가? 세계혁명에 대한 스탈린의 견해는 무엇인가? 권력 투쟁에 있어서 스탈린이 왜 트로츠키에 이길 수 있었는가?

2. '일국 사회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이론이 소련에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가? 왜 많은 서방인들이 이 개념에 오도되는가?

3. 스탈린은 마르크스주의 국가개념을 어떻게 고쳤는가? 이 국가에 있어서 당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4. 국가의 권력을 높이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하여 스탈린은 어떤 방법을 썼는가?

5. 스탈린이 죽은 후 공산 이론에는 어떤 이념적 변화가 생겼는가? 이런 개혁에 있어서 후르시쵸프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스탈린식 국가의 전체주의적 특색이 어떻게 존속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6. '사회주의에로의 독자적 길'의 이론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소련권내의 제국가들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표면적인 융통성에는 어떤 제한이 붙어 있는가?

7. 왜 소련 공산당의 신 강령은 외부 관찰자들에게 유토피아적이라고 생각되는가?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은 가능해 보이는가?

8. 후르시쵸프 후의 지도체제는 국내 정치 계획과 독단적인 지배를 크게 변경시켰는가? 거대한 소비에트 관료주의는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제한을 가하게 될 것인가?

6. 교과과정 토의 :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교육

가. 교수 지침

제1부 제6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교과과정 토의에서 제시한 권고는 공산주의의 이념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교육의 강의에는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에 관한 강의의 효과적인 순서는 우선 전체주의와 민주주의와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로서 정부 일반과, 특히 민주주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단계에 있어서는 최소 한도의 목표로서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및 정치적 생활과 공산주의 지배하의 국가들에 있어서의 생활과의 비교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일단 확고한 기초가 위에 제의한 바와 같이 놓여진 다음에는 공산주의에 관한 강의는 학생들에게 그 이론과 그 이념과 그리고 정치적 및 경제적 목표에 관한 지식을 가지게 해 주어야 한다. 고등학교 수업에 있어서는 교사는 공산주의가 그 강압과 야만적인 행동의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산주의의 공언된 목표들 및 선전과 정권을 잡은 곳에서의 실지 행동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소련 및 중공의 제도는, 마르크스 및 레닌의 기본 이론에서 연유한 것인데 특히 '권위 있는" 지도자들과 이론가들만이 제공하는 소위 '성스러운 저작들'에 대한 공식적인(그리고 때로는 모순되는)해설에 의해 발전된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다른 모든 철학들은 '부르조아적'이며 '퇴폐적" 이라고 하여 배척하며, 따라서 마르크스·레닌 이념만이 역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 제도의 근거 자체가 이와 같이 제한적이다. 즉, 봉쇄된 이념적 체계 안에서의 '제한에 의하여'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며 정책들은 결정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그 기본 교리를 배워야 하며, 또 그 교리들이 현재의 공산주의의 실제 속에서 어떻게 구현

되고 수정 되었으며, 또는 배반되었는가를 배워야 한다. 이론과 실제와의 대조는 교사가 이론과 사실에 대한 지식으로써 무장되어 있을 때만이 명료하게 설명될 수 있다. 비유의 형식으로 쓴 죠지 오웰의 "동물농장(Animal Farm)"은 이 목적을 위해서 우수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공산주의 이론을 소개할 때는 학생들을 변증법으로 너무 괴롭혀서는 안된다. 머리가 영리한 학생들은 때로 진정 이해는 못하면서 이념적 용어나 개념을 가지고 장난하기를 좋아한다. 이와 같은 용어들은 명확한 정의와 해설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는 케어루 헌트의 "공산주의의 이론과 실제"와 "공산주의의 횡설수설에 관한 해설"은 가치 있는 참고가 될 것이다.

또 공산주의 이론이 그 추종자들에게 제공하는 극단적인 이상주의에 대하여 각성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공산주의는 단지 모든 것을 망라할 수 있는 철학적 및 역사적 체계 뿐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강력한 유토피아적인 신앙이며, 또 역사가 토인비가 말했듯이 강력한 매력을 가진 신이 없는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종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정서에 호소하는데 있어서 유토피아적인 동시에 공산주의 목표의 실현을 지연시키려고 꾀하는 듯한 모든 제도나 지도자나 계급을 열성적으로 또 때로는 광신적으로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다. 마르크스와 러시아에 역사적이고 철학적이고 문화적인 깊은 뿌리를 박고 있는 공산주의의 파괴적이며 비사회적인 면은 오늘날 많은 개종자들에게 그들의 욕구불만에 대한 만족스러운 탈출구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종교는 소련이나 중공이 없어진 후에도 계속 개종자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한편 우리는 여하한 나라도 아직까지 자발적으로 공산주의를 자유선거에 있어서의 하나의 통치제도로 받아 들인 일이 없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은 이런 공산주의의 매력이 무엇이며, 또 이 문제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지식을 얻을려면 이런 매력이 많은 나라들에 있어서 그 수백만의 헌신적인 추종자들의 충성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고등학교나 대학 수준의 학교에까지 소개하게

되면 교사는 당장 그 과정에 있어서 '개종자를 낸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간 미국 군인들을 잘 연구해 보면 공산주의의 매력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또 그에 대한 반대 이론과 대답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그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미국 군대는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수중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여러 해 동안 '군대의 지식과 교육 계획'(Troop Information and Education Program)을 실시하여 왔던 것이다. 공산주의의 매력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강조할 점이 이것이다. 즉 인간 생활은 복잡하고 인간의 야망은 심각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정신적 또는 물질적 불안정성을 충족시키는 단순한 해결을 찾으려고 동경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공산주의적인 설명은 지극히 단순한 해답을 주며 또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 있어는 인생의 복잡성에 부닥치려는 필요를 성취해 준다.

학생들에게는 리처드 크로스맨의 "실패한 신"(The God That Failed)이나 쾌슬러의 "정오의 암흑"(Darkness at Noon) 등을 통하여 하나의 세속적인 신앙으로서 공산주의가 소개되어야 한다. 이 책들은 그 문학적인 가치로서 쇼크를 주는데다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들 자신의 자치와 그들 자신의 민주주의적 생활 양식에 대한 헌신감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 토의 문제

1. 하나의 통일된 사상체계로서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그 발전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업을 통해 공산주의 이념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방법에 우선 토의를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도해식으로 설명하는 방법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미 채택하고 있는 교육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가?

2. 두번째 일반 토의 분야는 사회주의와(스웨덴과 같은 나라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과 같은) 소련 공산주의와의 차이를 명백히 하는 일이다. 레닌의 특별한 역할과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그의 조직상의 공헌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3. 레닌주의자들의 제국주의론이 특히 중요하다. 그 매력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라프식 방법은 있는가? 그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미국의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에서 온 학생에 대하여 이 제국주의론에 대한 그의 지지로부터 어떻게 가장 효과 있게 각성시킬 수 있는가?

4. 또 하나 고려할 분야는 어느 정도까지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소련과 중공 제도의 기초가 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어느 정도까지 레닌과 그의 후계자들이 실지 발전된 사회를(그 밑에 흐르고 있는 이론의 관계에서 창조했는가?)

5. 공산주의 이론의 근본적인 오류는 무엇인가? 그 중의 어느 것이 미국 학생에게 가장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그 어느 것이 소련 학생에게 설명해서 깨닫게 할 수 있는가?

6.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들이 처해있는 그 근본적인 명제는 무엇인가? 교실에서 이것을 알아 듣게 전달할 수 있는가? 공산주의 이념을 가르침에 있어서 미국 학생이 자기가 지금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상교화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쉬운 기술은 무엇인가?

7. 이 과를 위한 시청각 교재는 그 희미한 성질 때문에 특별한 문제를 제시하게 된다. 그래서 그 필요한 종류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면 한다.

8. 각종 고등학교의 수준에서 공산주의 이념에 관한 어떤 지도나 기타 토의가 가장 효과적이겠는가? 토의를 지도하는 사람은 이 지침서의 끝의 참고문헌에 들어 있는 고등학교 수준의 교과서들을 보여 주고 검토해도 좋을 것이다.

제 3 장

소련의 권력 체제

1. 러시아의 배경

가. 주제 개설

제정 러시아의 집권 세력들이 불가피하게 볼셰비키 공산주의를 가져 올 것이라고 미리 예정된 것은 아니었다. 역사라는 것은 설명은 될 수 있지만 예언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엽에 러시아에는, 만일 잘 키워만 주면, 서방의 정체와 유사한 정체를 가져올 수 있는 추세를 여기저기서 찾아 볼 수 있었다. 마르크스 자신도 공산주의가 독일, 영국, 또는 미국과 같은 공업화된 나라들에서 보다 오히려 러시아에서 먼저 성공하리라고는 생각치 못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의 공산주의 제도는 소비에트 이전의 러시아에 뿌리를 박고 있으며, 또 오늘날 소비에트의 정치적 행동은 러시아에서 오랫 동안 널리 퍼졌었던 지적 및 문화적 특색을 반영하고 있다. 한 민족의 장래는 그 과거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과거를 피할 도리는 없다.

혁명 전의 「러시아」사회에 있어서 혁명의 성격을 가장 결정적으로 형성한 세력 중에는 독재적인 전제정치, 몽고인들의 유산, 러시아에 있어서의 부르조아 혁명의 낙후성과 그로 인한 불완전성, 또 그에 수반되는 자본주의와 대의정부의 특색, 아시아의 문화 형태와 서방의 문화 형태 사이의 갈등, 대 러시아의 특성과 성질,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로 보는 신비로운 신념에 어느 정도 입각한 러시아 팽창주의의 강열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힘들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옛 제도는 제1차 대

전 중 러시아의 군사적 재난이 가져 온 거대한 압력 아래에서 와해되는 단계에 들어 간 것이다. 오늘날의 러시아를 이해하는 데는 이 세력들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제 소개는 좀 길게 해도 무방할 것이다.

19세기의 러시아에 있어서, 황제는 자기가 절대적 권력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맹목적으로 고수하였다. 새로운 서방의 사상이 낭만적인 지성인들로 하여금 개성과 자유로운 발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케 됨에 따라, 황실은 그들의 언론을 검열하여 그들의 사상을 통제했으며, 또 그들에게 정부나 사회에 있어서 생산적인 활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급진사상과 불법과 테러행위로 향하게 하였다. 농민들 만이 오랫 동안 황제에게 충성했으나, 나중에는 이 농민들도 그들의 자유를 얻은 그 경제적 조건이 보잘 것 없는 데다 또 황제의 명령으로 땅을 요구하여 항의 하는 농민들에게 피흘리게 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해서 농민들까지도 황제에게 반기를 들게 되었다. 종국에는 변화하는 정세와 사상의 조류에 적응할 수 없어서 국가는 소수 밖에 안되는 귀족들과 양반 계급 이외에는 모든 계급들과 지도자들로 부터 소외되었다. 황제들은 국내의 개혁을 저지하는 한편, 계속적으로 모스크바의 권력을 확장하였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것이다. 오래 전에 구라파,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라고 알려져 있는 지역을 정복한 뒤에 19세기에는 그들은 남쪽으로 터어키를 계속 압박하고, 중앙아시아의 유목민 지역이며 또 한 때는 코카사스의 독립 국가였던 시베리아를 계속 침투하고 또 흡수하였다. 20세기의 공산주의 팽창은 그 문화적 선례를 몇 세기 전의 러시아제국 건설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느 면에서는 러시아는 마그나칼타나 문예부흥이나 의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느 면에서는 부르죠아의 출현과 산업 발전이 늦었기 때문에, 개혁 운동은 타협의 재능이나 중류계급의 재산 또는 힘에 의해서는 완화 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개혁은 폭력이나 또는 급진적인 혁명 이념에 입각한 테러 행위를 통해서만 정치적 변동을 가져 올 수 있는 무산계급이 도맡게 되었다. 이 급진주의는 러시아 본래의 이상주

의와 독일로 부터 1800년대 초기에 수입해 온 낭만주의와를 겸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장 환영을 받았다. 지성인들은 쓸데 없이 황제에게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한 동안의 압박이 있은 후, 알렉산더 2세의 치하에서 새로운 계몽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지성인들은 그들의 희망을 해방된 농민들에게 걸었다. 1872년으로부터 1874년 사이에는 '인민에게 간다'라고 불리우는 한 운동이 전국을 휩쓸고, 따라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농민을 각성시키려고 노력 하였다. 그들은 곧 환멸을 느꼈는데, 이것은 농민들이 아직도 황제와 교회의 선(善)함과 그 힘을 의심하게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설교로써는 변화가 더디게 온다는 것을 발견 함에 따라, 지성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합세하여 테러행위와 또 '행동의 선전'을 시작하였다.

테러 행위적인 직접 행동은 러시아 역사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다. 왜냐 하면, 러시아 사람들은 비록 성질이 선량하고 지적인 호기심이 있고, 또 깊은 종교심이 있기는 하지마는, 가끔 서방 세계의 민족들이 여러 세기를 거친 자주정부와 또 공평한 법률을 통하여 배운 그 균형과 자기 훈련을 못 가졌기 때문이다. 러시아 사람들은 유순하고 탈선적이기도 하며, 참을성 있고 폭발적이기도 하다. 마르크스 이전의 러시아 사람들의 정부개념은 지극히 개인성을 띤 것이었다. 단순히 적을 때려 눕히면, 정의 (또는 앙양)가 뒤따르는 것이다. 테러적인 행동은 또한 다른 여하한 사회에 있어서 보다도 더 계속적이며, 더 냉소적이며, 더 광범위한 국가 테러에 대한 영웅적인 보복을 상징하였다. 퀴스틴후작은, 1839년 쓴피터스버어그 요새에의 그의 방문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 테러 행위의 진의를 폭로하였다. 즉,

이 장례식과 같은 성지에서는 죽은 사람이 산사람보다 더 자유로운 것처럼 나에겐 느껴졌다. 내가 그 속에 머물러 있었던 동안은 나는 숨도 힘들게 쉬었다. 만일, 그들로 하여금 같은 무덤 속에 황제의 죄수나, 죽음의 죄수나, 모함자나, 모함을 받은 국왕을 묻어 버리게 한 것이 어떠한 철학적 사상에 기인한 것이었

다면, 나는 그것을 존중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발견한 것은 오직 냉소적인 절대 권력이요, 또 전체주의의 야수적인 자신 뿐이였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면 보통 정부에 필요한 조그만 인간적인 섬세성은 우리가 초월 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 황제 그 자신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의 정의는 신(神)의 정의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이다.

테러의 사용도 보통 러시아인의 정신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다. 그리고 그 사회의 광대한 감옥 속에서 항의의 조그만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모든 법률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 즉 황제에게 가해진 일격을 들을 수 있을때 뿐이다. 암살은 러시아의 대전통이었다. 급진주의도 또한 러시아인의 성격의 특색이다. 개인의 주권과 사적인 일의 중요성은 러시아인의 철학이나 정치적 요구속에 그렇게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하고 있다. 개성은 대개 극단속에서 표현 되었다. 즉 모든 국가 권력을 완전히 배척하거나 (무정부주의) 아니면 더 흔히는 러시아인의 정신이 자유를 얻는 광대한 혁명적 계획속에 개인을 완전히 흡수시켜 버리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평등과 종속을 병행했다.

동방과 서방의 서로 모순되는 힘이 역시 러시아 급진주의에 작용을 해왔다. 국가의 힘은 거의 언제나 동방에서 온 것이어서 서방의 사상을 압박하는데 국가 권력을 사용했고 또 아시아의 영향하에 무자비한 국가의 강제력이 유래하였다. 지성인의 정신속에서는 이 힘이 두 방향으로 느껴졌다. 서방의 합리주의와 과학과 실제성에 매력을 느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소위 슬라브를 사랑하는 사람들) 부르죠아적 자본주의를 퇴폐적이라 하여 배척하였고 또 공산주의 사회의 이상을 사유재산에 입각한 자유국가의 개념 위에 놓았다.

러시아의 급진주의의 최초는 (대략 1865년부터 1880년까지) 프로돈, 프리에 그리고 마르크스 선구자들로부터이다. 국가를 파괴하기 위한 무력혁명 사상과 국가 기관을 장악하기 위한 모험적인 쿠테타는 마르크스주의가 알렉산더, 프레가노프의 입을 통하여 러시아에 들어 오기(1879년경) 훨씬

전에 미카엘바쿠닌 그리고 피터 카체프 (Ppeter Tkachev)가 각기 추종하는 바가 되었다.

새로운 급진적인 지도자들은 집단주의를 들고 나와 농민들을 봉기시키려고 하였고, 연속적인 테러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또 1881년에는 알렉산더 2세의 암살을 단행 하였다. 일단 황제가 제거되면 국민은 다 같이 일어나서 혁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일반은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런 일은실지 일어나지 않았고 또 테러적인 방법은 실패한 것 같았다. 이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혁명가들은 집단 농장 사회에 사는 농민의 자연적 공산주의를 굳게 신봉 하였다. 그들은 자치적으로 살았다는 과거가 농민들로 하여금 자본주의의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로 직접 이행 할 수 있게 하리라고 생각 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그들은 잘못이었다. 왜냐하면 농노들을 해방 시킨 법령으로 허락된 사유재산 제도를 고집 하였기 때문이다. 황제에대한 농민의 봉기는 (1905년으로부터 1906년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처럼) 사회주의에 유리하지 못 하였다. 그들은 불만을 표시하였다. 왜냐 하면 농민들이 소유한 토지들은 너무나 작았고 너무나 귀찮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후의 모든 혁명가들도 이 농민의 호응에 대한 희망은 버리지 않았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그리고 특히 볼세비키당은 개인의 토지 소유에 대한농민의 불만을 이용하려 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실상 도시의 프롤레타리아계급을 중요시 하였다.

그동안 입헌정부에로의 발전을 통하여 자유로운 개혁을 하려 한 입헌민주당에 의하여 대표되는정치적 중심은 소수의 중류 계급에 주력을 두었고 그러나 큰 힘을 얻지 못하였다. 러시아가 20세기에 들어 오면서 투쟁은 짜아 황실과 혁명의 비타협적인 급진주의 사이에서 점점 더 분극화되었는데, 러시아의 대부분의 우수한 사람들은 후자에게 이끌려 갔다.

황제 니콜라스 2세는 양보를 통하여 급진주의의 압력을 덜 수 있는 빈번한 기회들을 놓치고 말았다. 1905년으로 부터 1906년까지의 혁명후에 그는 특히 대 의회를 소집하는데 있어서 양보하였으나 황실은 새로운 환경에

점차 적응해 갈 능력이 없었다. 짜아 황제와 그의 조언자들은 여러번 절대권력의 옛날 원칙을 완고하게 고집할 것을 주장하였다. 폭발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폭발이 왔을 때는 강력한 중류 계급의 제도도 없었고 또 일반의 자치정부 경험도 없었다.

제1차 대전 동안에 독일 제국 군대 손에서 참혹한 군사적 패배를 겪은 결과로, 러시아는 1917년 초에 거의 붕괴의 상태에 빠졌다. 경제는 사실상 마비 되었고 또 질서와 권위는 급속도로 와해하여 가고 있었다. 불안과 불만은 무장군대와 경찰에까지 미쳤고 1917년 3월에는 모스크바와 쌍트피터. 스버어그에 있어서의 시위는 옛 정체를 전도하고 말았고 또 그후 2, 3일 내에 짜아는 폐위되고 말았다. 케렌스키 밑에 확립된 임시 민주정부는 구질서 붕괴후에 6, 7개월 동안에 계속 악화하는 정세를 바로 잡는데에 성공치 못하였다. 임시 정부는 내부적으로 분열하고 또 법률로 처리하기 어려운 권력의 중심들 (즉 소비에트 노동자들과 군인들과 농민들(이들은 볼셰비키 통솔하에 들어갔다)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러한 복잡한 정세하에서 레닌 (독일 막료들에 의해 러시아에 파견되었던)과 그의 동료 모험자들은 전 러시아 국민의 평화에 대한 갈구와 농민들의 토지욕을 교묘하게 이용함으로써 1917년 11월 정권을 장악할 수가 있었다. 1917년 3월의 진짜 정치적 및 사회적 혁명에 뒤따른 소수의 그러나 능률적으로 조직된 볼셰비키 소수당에 의한 이 처음의 무혈 권력 장악은 소비에트의 선전 어투로 '영광스러운 10월 혁명'으로써 환영을 받았다.

사회주의자들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행하려고 하였지만 민주주의적인 실천에 경험이 없고, 너무나 낙관적이고 또 정치권력의 강력한 행사를 주저 하였기 때문에 최상의 조직을 가지고 모함과 혁명전술을 이해하고, 가장 심각한 의미에 있어서 정객들이고 또 그의 경쟁자들의 어느 누구보다도 훨씬 더 교묘하고 무자비한 레닌의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볼셰비키당들에 의해서 밀려 났다. 레닌의 성공은 또한 그의 정치적 및 운영적 기술의 습득에 힘입은 것이다. 그는 혁명에 천재였으며 또 이 사실은 볼셰비

키 당원들로 하여금 정권을 장악케한 유일 한 특색이었다.

최후의 피비린내 나는 내란과 계속적인 테러 행위 끝에 볼셰비키당은 비록 그들이 소련내에 다른 민족들은 고사하고 러시아인들에게도 용납될 수 없었지만 볼셰비키당은 형제애의 사상과 그리고 동방교회와 19세기 사회주의속의 양편에 뿌리를 박고 있는 전통 즉 세계를 개량하려는 러시아의 사명과 같은 그런 뿌리 깊은 전통들을 이용 할 수가 있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짜아 러시아가 가끔 빠지는 팽창주의적 경향이다. 팽창주의는 어느 정도 러시아인의 성질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 선천적인 방랑객으로서의 러시아인은 지금처럼 소비에트 재식민에 따르는 강제성 없이 시베리아를 식민하려고 애썼다. 러시아의 팽창주의는 성모 러시아의 신성한 사명에 대한 러시아인의 독특한 헌신의식에 구현되는 신비롭고, 외국인을 싫어하는 성질을 또한 가지고 있었다. 러시아의 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황제 니콜라스의 자칭 포교적 사명은 두차례(1905—06과 1917—18)의 혁명을 초래하였다. 이 두 혁명이 전쟁의 실패로 더욱 심해졌다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사실이다. 스라브 구라파와 터키와 이란에 대한 러시아의 압력은 주기적으로 서부 구라파 국가들의 이익을 위협해 왔다. 대양에로의 길을 트려는 러시아의 긴박한 요구는 대영제국으로 하여금 19세기 말기를 통하여 계속적인 불안 상태 속에 몰아 넣었다. 레닌이 정권을 장악하였을 때,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야심은 공식적으로 버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대전 직후에 이란과 에리트리아와 지중해에 발을 들여 놓으려는 러시아의 기도와 또 동구라파에 있어서의 소비에트의 제국주의와 같은 그후의 사건들은 이러한 역사적인 움직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나. 강의 방법

이 강의는 소비에트 정치에 있어서 혁명 전의 문화적 및 정치적 배경을 보여 주는 특색들을 강조해야 한다. 강사는 소비에트 러시아가 새

로운 옷을 갈아 입은 제정 러시아라든가, 또는 러시아는 여러 가지 국민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단일 민족적 사회라든가 또는 문화적 가치, 공업화 및 일반 교육이 볼셰비키정체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든가 하는 단순한 견해는 피하도록 해야 한다. (강사는 공산주의의 공적으로서 스프트니크에 감격한 학생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19세기 러시아 문학, 과학 및 의학의 비범한 점을 강조할 수 있다.)그러나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제3장의 다른 과에서 취급되어 있으므로 강사는 여기서 계속 러시아 정체에 영향을 주게 될 많은 특히 러시아적이고 비서방적인 요소들을 명백히 할 수가 있다.

다음의 사상들은 적절한 강의의 초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러시아에 있어서는 정치 기구와 법률이 사회에서 자연히 자라고 굳혀지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압력 앞에 정책 변경에 의하여 본의 아니게 일시적으로 용인되는 것이다. 사회적 긴장과 항의의 김이 조금이라도 샐 것 같으면 옛 제도와 관습이 되돌아 오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은 아렉산더 2세나 니콜라스 2세나 레닌 및 스탈린 또 그 후계자들 할 것 없이 마찬가지인 것이다. 민주 정치에 전혀 경험이 없는 국민은 강압을 조금이라도 늦추어 주면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따라서 대중 스스로의 가치를 향하여 매진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또한, 혁명 도중의 그리고 혁명 이후의 러시아 급진주의는 테러 행위, 음모적인 폭력, 강제 된 공동사회, 인류를 위한 환상적인 계획, 그리고 광신주의의 도구 즉 중앙집권화된 전제주의 국가 등, 본래의 전통으로 돌아간 것이다. 일단 권력의 좌에 오르게만 되면 이런 종류의 급진주의는 보수주의의 여러 가지 면을 취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배자의 절대적 무류성(無謬性)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는 사회에 있어서의 개인의 자유화와 힘을 통하여 변화를 가져 올려는 움직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짜르 황제 하에서는 통치자와 피통치자간의 영원한 분쟁이 짜르 자

신의 무류성(無謬性)에 대한 관념과 그리고 서양의 사상을 배척하는 경향 때문에 불가피하게 야기된다. 분쟁에 대한 이러한 경향은 반대파에 대한 끊임 없는 염려 때문에, 또 분쟁을 야기하곤 했다. 마르크스 주의는 계급 투쟁을 철학적인 개념에 까지 올려 놓고 또 이것이 소비에트로 하여금 국제정치에 접근케 한 주요 원천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소비에트.러시아에서 쉽게 퍼진 개념이었다. 왜냐 하면 러시아 지도자들은 문화적으로 투쟁을 정치적 접촉의 자연적인 태도로 받아 들이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인의 문화적 요소를 강조함에 있어서, 강사는 군사적 실패와 또 볼셰비키당에게 정권을 잡을 기회를 준 케렌스키의 잘못으로 결과된 많은 상황을 토의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이중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10월 혁명의 음모적인 성격인데, 이 10월 혁명은 정규 혁명객들을 놀라게 하였던 것이다. 강사는 권위에 대한 문화적으로 유래된 태도들 때문에 이것이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장악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었지만, 볼셰비키 승리에는 그러한 불가피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에트의 국제적인 행동은 어느정도 소비에트 이전의 팽창주의 갱신으로 보아야 한다. 그 기교는 공산주의 이론으로 고쳐졌지만은 옛 제국주의적 야심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 사명의 성질도 달라졌다. 지배의 형식도 좀 더 교묘해졌다. 그러나 세계를 계몽하자는 옛 러시아적인 충동은 그대로 남아 있다.

다. 필수독서

Merle Fainsod, How Russia is Rul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pp. 3—30.

Georg von Rauch, A History of Soviet Russia, Translated by Peter and Annette Jacobsohn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7). pp. 3—33.

라. 선택독서

Paul W. Blackstock and Bert F. Hoselitz (eds.), The Russian Menace to Europe (Glencoe, Ⅲ. Free Press., 1952). 288 pp.

(칼 마르크스가 초기에 쓴 논문들인데 러시아에 대한 그의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Joel Carmichael, An Illustrated History of Russia, Georges and Rosamond Bernier (eds.)(New York: Reyal & Co., Inc., 1960). 306 pp.

(아름답게 삽화를 넣은 책인데 논쟁적인 본문은 지난 세기의 사건을 취급한 것으로는 최고.)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1). 346 pp.

(현대의 전체주의 정부들을 비교 연구한 것인데 소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Sidney Harcave, Russia: A History, 4th ed. (New York: J.B. Lippincott Co., 1959). 701 pp.

(대학의 교재인데 유용한 주석을 붙인 도서 목록이 있다.)

Phyllis Penn Kohler, (ed. and translator), Journey For Our Time: The Russian Journals of the Marquis de Custine (Chicago: Henry Regnery Co., 1951). 373 pp.

(1839년의 방문에 입각하여 러시아 정부와 국민에 대하여 쓴 현대적인 비판.)

Anatole G. Mazour, Russia, Tzarist and Communist (New York and London: D. Van Nostrand, 1962). 995 pp.

(러시아의 포괄적인 역사인데 소비에트와 짜르 두 시대의 연속성을 강조하였다.)

Franco Venturi, Roots of Revolution: A History of the Populist and Socialist Movements in Nineteenth Century Russia, Translated by

Francis Haskell from the Italian "Il Populismo Russo"(New York Alfred A. Knopf, Inc. 1960). 850 pp.

(19세기 러시아에서 지하운동을 이끌어 나간 사상의 생생한 역사.)

Warren B. Walsh, (ed.) Readings in Russian History, 3rd ed. (Syracuse: Syracuse University Press, 1959). 702 pp.

(1956년 까지의 러시아 역사의 주석을 단 단편들의 선집.)

Warren B. Walsh, Russia and the Soviet Union: A Modern Histor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8), 640 pp.

(일류 미국 러시아 역사가가 초기 부터 1957년 까지의 역사를 쓴것.)

Karl A. Witfogel, Oriental Despotism: A Comparative Study of Total Power, 3rd 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9). 556 pp.

(보통 독서자에게는 어렵겠으나 이 고전은 어느 저작 보다 제도적인 독재주의의 참 뜻을 설명해 준다. 특히 흥미 있는것은 9장인데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이론에 맞게 역사를 새로 쓰는 방법을 예로 든것이다.)

Bertram D. Wolfe, Three Who Made A Revolution (Boston: Beacon Press, 1948). 661 pp.

(제 I 장 전통은 볼셰비키 주의가 일어날 때의 역사적 배경을 그렸는데 퍽 유용하다.)

W.S. Woytinsky, Stormy Passage (New York: Vanguard Press, 1961) xxii+550 pp.

(1917년 러시아 혁명 때에 저자가 당한 경험, 그의 도망 및 나치 전체주의의 경험,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서 법률 하의 자유를 발견한 것 등을 기록한 저자 자신의 이야기를 실은 것.)

마. 토의 문제

1. 어떤 제도적 및 문화적 요인들이 러시아의 발전에 대하여, 서방의 사

상들의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 19세기 러시아 지성인들 간에 분렬을 일으켰는가? 이와 비슷한 분쟁들이 러시아에 있어서의 지성인의 작용에 관한 현대의 토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2. 어느 정도까지 러시아에 있어서의 볼셰비키즘의 승리가 다음의 것에 기인하였는가? (a) 러시아 역사의 독특한 세력들 (b) 음모적인 쿠데타 (c) 불행한 전쟁의 비정상적인 조건들 (d) 레닌과 트로츠키와 같은 비범한 혁명 지도자들의 영향.

3. 짜르주의 정치철학이 어떠한 면에서 짜르 독재주의의 붕괴를 도왔는가? 러시아 정치에 있어서 사건들의 발전을 짜르황제들이 인식만 했다면 그 발전들을 변경 시켰을만한 효과적인 영향들이 있었는가? 19세기 및 20세기의 러시아의 힘을 저하시킨 것은 반동 세력의 굳은 결의였는가 또는 짜르 황제들의 태도의 변화였는가?

4. 짜르 치하의 러시아에 있어서 급진주의가 성장하는 데에 러시아 국민성과 정치제도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였다고 당신은 생각하는가? 러시아, 불란서, 미국 등의 급진주의 간에는 그들의 각 혁명적인 시대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는가?

5. 공산주의의 목표들은 러시아 팽창주의의 형태와 성질을 어떻게 수정하는가?

6. 어느 정도까지 러시아인의 성격이 여러 세기를 통하여 러시아 및 중앙 러시아 민족들을 세계의 다른 나라 민족들로부터 고립시킨 지리와 기후(광대한 거리, 길고 잔인한 겨울, 공해에의 접근 불가능)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고 당신은 생각하는가? 몽고인의 오랫동안의 점령에 의하여 러시아의 문화는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받았는가?

2. 소련 공산당의 권력과 통제

가. 주제 개설

소련 공산당은 소련에 있어서 권력을 절대적으로 독점하고 있다. 이 '프롤레타리아의 전위대'는 혁명적 음모가들의 조그만 단체로부터 발전하여 고도로 조직되고 훈련된 지배 엘리트로서 (9백만이상의 당원) 소련의 2억 이상의 시민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 소련 공산당은 소련에 있어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허가된 정당이며, 또 그러한 정당으로서 그것은 소련 사회에 있어서의 모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제도와 과정을 통제하고 있다. 소련 공산당은 자유적인 민주제도의 의미에 있어서는 정당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거대한 인구를 통제하는 효과적인 통제 조직을 소련 지도자들에게 주는 하나의 전체주의적 기관이다. 당은 당원 선택에 있어서 까다롭고, 당원의 자격은 복잡한 선발 과정을 통과한 후에야 얻을 수 있고 또 그 시험 기간은 임시적인 당원이 되는 것이다. 당원의 자격은 자연적으로 제한된 인수에 대한 지배 엘리트의 자격이 된다. 나머지 9백만 당원들은 일종의 근위대이며 따라서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엘리트와 비당원들 사이에서 전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공산당의 조직은 소련 정부의 구조와 아주 흡사하며, 당은 시종일관 정부 기관의 모든 계층에 대해서 강력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실로 당 조직은 '제1위의 조직'으로부터 지방의 지역적 위원회와 국에 이르기까지 소련 사회의 전 구조속에 퍼져 있으며, 또 소련 사회에 있어서의 직업적인 당 일꾼들, 특히 조직상의 비서들은 국가내의 모든 공적 활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독하며 통솔한다.

소련 공산당은 그 정책과 행동에 대해서 사회로부터의 아무런 반대도 용납치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당 자체 내에서 지도자들이 내린 결정에 반대하는 것은 용납 않는다. 광대하고 복잡한 당의 상하조직은 소수의 당 지도자들에 의하여 엄격히 통제되며 당 지도자들은 당 구조의 모든 계층에 있

는 조직상의 비서들을 통하여 당 조직을 운영한다. 당 기구는 거의 50만의 봉급 받는 관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관리들은 당 사무의 처리를 책임 맡고 위로부터 내려 오는 정책 지령의 수행을 책임 진다. 당내의 모든 권력은 중앙위원회와 간부회 및 비서진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은 또한 정부 기구내의 지배 위치에 앉아 있다. 실지 소련국가를 통솔하는 소수의 지도자들이 소련내에 행정 피라밑의 정점을 형성하는 세개의 간부회의 의원을 겸하고 있다. 세개의 간부회는 즉 각료 회의, 최고 소비에트 및 소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이다.

당 규칙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당은 '민주적 중앙집권주의' 원칙에 따라서 조직된다. 이론상 이것은 당의 역원들이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모든 결정이 민주적 방식에 의하여 '토의되다'는 것을의미한다(그러나 일단결정에 도달되면 당 전체는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엄격한 훈련이 따르는데 이것은 마치 군대가 상관으로 부터의 명령을 아무런 질문 없이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에 있어서 중앙집권주의는 완전히 당 내부의 민주주의를 흐리게 하고 있다. 엘리트가 정한 임명을 단순히 비준하기 위해서 때때로 형식상의 선거가 거행되기는 하지만 역원들은 사실 선거되는 것은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당 관리들의 임기는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지도계급은 사실상 자연적으로 영속화되어 왔다. 게다가 낮은 층에 있는 역원들의 복무는 당 간부들의 마음대로 처리된다. 명령 실천의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의 토의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정책 결정은 당 간부들에 의하여 마음대로 내려지며 때로는 공산당이 굴복하는 최고 지도자 한사람에 의해서 내려 지기도 한다. 여러 가지 당 직위의 계승은 법률이나 관습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당 내의 권력 투쟁에서 오는 것이며, 이 권력 투쟁의 결과는 많은 당원들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엄격한 훈련에도 불구하고 소련 공산당은 거의 언제나 내부적 권력 및 이념의 투쟁을 일삼아 왔다. 1921년 이래 당파 형성을 금지하는 당 규칙

이 있었고, 따라서 지도층에 대한 반대파를 조직하려는 당원들 측의 모든 시도는 보통 엄격하게 제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파주의와 내부 투쟁은 계속되었다.

소련 공산당 내의 의견의 차이를 우리가 간과해서도 안되고 과도 평가해서도 안된다. 대체로 그러한 의견차이들은 성질상 정략적인 것이며, 또 가끔 서로 다른 지방적인 조건을 반영하거나 상대파를 숙청하기 위해서 한 당파가 조작한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당내의 중요한 분열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소련 지도자들은 언제나 외부세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통일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권력과 특권에 관해서 말한다면, 당원들은 짜르황제하에서 옛 귀족들이 차지했던 것과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당원들은 그들의 당의 실패는 그들 자신의 장래의 파멸을 의미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들은 소련국가의 보존과 팽창을 충분히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극히 소수는 또한 강력한 이념적 동기도 가지고 있다. 한편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 생명유지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혁과 정책 변경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대개 당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다. 게다가 그들은 소련내에 모든 조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념적 열성은 감소되었다. 당 내에는 물론, 상당수의 냉소주의자 들이 있고 또 많은 야심적인 기회 주의자들이 있을 것이다. 공산주의를 건설한 이상주의자들의 세대는 1930년대의 스탈린 숙청으로 대부분 죽었다. 오늘날의 혁명적인 당 지도자들은 레닌시대의 혁명가라기보다 관료주의자들이요 지배인들이다.

오늘날 소련 공산당은 당의 엘리트 아닌 분자들에 관한 한, 레닌의 혁명적 '프로레타리아 전위대'와는 공통점이 없다. (그러나 당의 엘리트는 아직도 레닌과 스탈린이 고안한 바와 거이 같은 권력을 위주로 하는 전위대인 것이다). 당은 그 유리한 입장과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정체를 영속화하는 것이 명백히 유리하도록 특권계급으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었다.

70퍼센트 이상의 당원들이 지성인에 속하고 이 지성인들은 본질적으로 소련 사회에서 감독계급을 구성하고 있다. 소련의 과거 행적에 대하여 첫째로 책임을 질 이 계급은 소련에 있어서 유력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특권과 권위의 좌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소비에트의 힘을 계속 길러 나갈 책임을 가지며, 소련 공산당내에 강력하게 조직되어 있는 새로운 소비에트 소수의 독재자들은 그 전체주의 국가의 최상위에서 지배하고 있다.

나. 강의 방법

강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소련 공산당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은 당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련 공산당은 민주주의적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영속시키고 있다. 그것은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법률을 제정한다. 그것은 혁명과 세계 지배에 헌신하고 있다. 그것의 활동은 헌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엘리트 핵심체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지, 국민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소련 공산당을 우리 자신의 정당들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때는 우리가 당의 의미를 외곡하는 것이 된다. 생산 수단의 소유권이 오직 국가에게 있으니까 그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그 소유자요 다시 말하면 최상층에 있는 소수의 지도계급 즉 프롤레타리아 전위대가 그 소유자인 것이다. 민주적 중앙 집권주의에 대한 레닌의 개념은 그의 당이 권력을 잡은 이래 변하지 않고 있다. 모든 권위와 지배권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당원들의 중요성이다. 소련에 있어서 특히 과학기술 및 기타의 정치 분야 아닌 분야에서 당원이 아니고도 개인적 출세를 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들은 본질적으로 지배 엘리트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출세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당에 가입하려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다. 당의 구조 밖에 있다는 것은 비교적 낮거나 중요성 없는 정치적 위치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원이 된다는 것

은 유리한 입장에 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1년에는 약 2억 천만명의 인구 중에서 당원수는 4.5퍼센트에 불과하였다. 이 특수 그룹은 국민 대중에 비하여 비교적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위하여 공산주의 국가 내에 새로운 계급이 출현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의 질라스의 말은 옳바른 말이다.

강사는 소련 헌법에 있어서의 법률은 유일한 공산당 권력에 위신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볼 때, 소련 헌법은 공민권에 관해서 다섯 가지 조항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국민의 자유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같은 소비에트 헌법에 의하면, 소련 공산당에게 법률이 무엇임을 결정하며 인민의 권리는 어떻게 해석되야 한다는 것을 결정하는 권리를 주고 있다.

역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소련에 있어서 단일 당의 지배로 기인되는 개인 자유에 대한 억제가 너무 심하다는 점이다. 생활의 모든 면 즉 문화, 교육, 종교, 경제 및 보도가 전부 당과 그 교조에 독점되어 있다. 철의 장막이 소련을 둘러 싸고 있다. 철의 장막의 목적은 외부 세계와 그 사상 및 소식을 국민으로 부터 막자는데 있다. 소련 공산당은 감히 사상적으로 경쟁의 시장을 찾게 허락해 두지를 못한다. 당의 임무는 전체주의 제도를 지키는 일이다. 이것은 과거 히틀러 밑의 나치 독일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소련 내에서도 그런 것이다.

강조해야 할 또 하나의 요인은 소련 공산당 특히 그 지도자들의 핵심은 모든 러시아 시민들의 생활을 지배하고 그들의 정력을 지휘 감독하는데 이바지할 뿐 아니라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방향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 공산당의 최고 지배자들은 소비에트 외교 전략 및 정책을 결정하며 해외의 모든 공산당의 노력을 완전히 지배하고 집중하며 또 국적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보다 높은 훈련과 사상 주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당의 내부적인 권력 독점과 그 국제적인 음모 활동과를 분리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강사는 학생들에게 노동자 대중에 의하여 지배되는 정부에 관한 마르크스의 예언을, 역사상 소수의 엘리트에 의하여 지배되는 가장 철저한 독재주의, 다시 말하면 개인의 모든 정치적 및 사회적 행동을 통제하는 독재주의로 만들어 버린 것은, 당이 레닌의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주의 원칙하에 운영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케 해야 한다. 권력은 그 행사에 있어서 아무런 외부적 제한을 받지 않고 (당 지도자 자신들이 원하는 이외에는) 임의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다. 필수독서

John S. Reshetor, Jr., A Concise History of the Communist Party fo the Soviet Union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0), pp. 253—281.

Kenneth R. Whiting, The Soviet Union Toda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pp. 121—169.

라. 선택독서

John A. Armstrong, The Politics of Totalitarianism: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From 1934 to the Present (New York: Random House, 1961). 458 pp.

(소련 공산당의 기념비적인 3권의 역사중 마지막 권이다.)

Robert Conquest, Power and Policy in the USSR: The Study of Soviet Dynastic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61). 485 pp.

(소련에 관한 유명한 저자가 소비에트 정치를 연구한 독창성있는 책)

Merle Fainsod, How Russia is Ruled, rev.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684 pp.

(진지한 학자가 쓴 소비에트 정치와 사회를 분석한 것.)

Ralph J. Fisher, Pattern for Soviet Youth: A Study of the Congresses of the Komsomol, 1918—1954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452 pp.

(공산 청년동맹 대회 기록의 면밀한 조사에 입각하여 소비에트 시민중 새 세대에게 균일성을 주려는 소비에트의 노력을 분석한 것.)

History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60). 765 pp.

(소련 공산당이 작성하여 출판한 현재의 공식 판본, 동일 제목에 관한 스탈린 시대 역사에 대한 해독제로 가장되어 전자와 마찬가지로 외곡되어 있다.)

Nathan C. Leites, A Study of Bolshevism (Glencoe, Ill.: Free Press, 1953). 639 PP.

(볼셰비즘과 볼셰비키의 성격에 대한 상세하고 퍽 심리학적인 연구로 저자의 결론은 비판적으로 받아 들여져 있다.)

Barrington Moore, Jr., Soviet Politics-The Dilemma of Power: The Role of Ideas in Social Chan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503 pp.

(소비에트 제도에 있어서의 이념의 역할을 분석하고 이론과 현실을 가끔 대조하여 명확하게 설명한 것.)

Allred J. Rieber and Robert C. Nelson, A Study of the USSR and Communism: An Historical Approach (Chicago: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62). 272 pp.

(역사적 관계에서 소비에트 사회의 주요한 면을 명확하게 근본적으로 설명한 것.)

Leonard Schapiro,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Random House, 1960). 631 pp.

(널리 알려진 학자가 소련 공산당의 역사를 최초로, 포괄적으로 한권에 기록한 것으로서 우수한 조사이며 분석이다.)

마. 토의 문제

1. 당 구조의 어떤 조직을 통하여, 최고 지도자들은 소련을 지배하고 있는가? '민주적 중앙집권주의'는 지배의 목적에 어떻게 이바지하고 있는가?

2. 노동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의 역할에 대한 레닌의 개념은 무엇인가? 우리는 레닌이 민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당 또는 이념 정책의 토의에 대한 광대한 하부 구조를 레닌은 어떻게 반대하였는가? 당의 통일과 훈련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3. 스탈린의 '대숙청'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당의 높은 층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4. 스탈린의 사후 독재자로서 위대한 인물이 왜 곧 나타나지 못했는가? 스탈린의 독재주의 기간이 이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스탈린은 그의 위치를 굳히는 데 얼마나 걸렸는가?

5. 소련에 있어서 국민과 경제를 통솔하는 그 조직을 논하라. 정책 결정은 누가 하는가?

3. 소련 사회와 통치

가. 주제 개설

민주주의적 정부 형식에 있어서 주요한 결정은 정부 기관의 적절히 선출되고 책임을 가진 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소련에 있어서는 주권은 공산당에 있고 주요한 결정은 당 최고회의 간부회의 또는 그 간부회의 지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소비에트 구조는 당 정책 결정자들의 주요 집행 기관이며, 그것은 당의 감독 하에 행정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지에 있어서는 주요 당 정책 결정자들이 각료회의와 최고 소비에트 간부회의 중요한 자리를 점령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비에트 유니온 또는 소비에트 정부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소비에트(회의)가 어느 계층에 있어서나 민주적인 기관이 아니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 게다가 소련 정부는 각료들의 수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각료회의도 실지에 있어서는 최고회의에서 연유된 것도 아니다. 국가 행정 구조와 그에 관련된 관료들은 모든 주요한 결정을 할 뿐 아니라,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공산당 지도자들의 정치도구로서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다.

소비에트 사회는 침투된 정부의 통제와 감독하에 조직되고 운영되는 것이다. 볼셰비키 이전 러시아의 다원적인 모든 면은 제거되고 전체주의적인 사회가 출현했는데, 이 사회에 있어서는 모든 자립적인 사회 단체 및 운동는 파괴되었던가 아니면 정부의 도구가 되고 만 것이다.

소비에트 사회는 소련 공산당에 의하여 선출되고 감독을 받는 최고층의 행정관들, 과학자들, 기술자들, 군대 및 보안청의 장교들, 언론인들 등으로 구성되는 권력 엘리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이것은 민주적인 선거민들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서방세계의 엘리트와는 다른 것이다. 그들은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엘리트 내의 엘리트를 구성하는 최고 당원들에게 대해서만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사회단체들은 민주사회에 있어서 처럼 세력 균형의 요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에 있어서의 의견 차이는 엘리트들 간의 당파적 투쟁을 통하여 비밀리에 해결되는 것이다. 지배 계급의 엘리트들 만이 모든 분야의 공적 일에 대하여 표준을 세워 주며 또 그와 같은 활동에 대한 규칙을 규정할 수 있다. 공적인 반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이 당내의 주권 싸움을 반영하고 있을 때만 지지를 받는다. 이 권력 독점에 대한 도전은 무자비하게 탄압 당하며 반대 사상은 진압되고 또 사회 자체가 외부 세력의 영향으로 부터 효과적으로 고립화 되어 있다.

당과 정부에 의한 감독은 종교 활동으로 부터 체육에 이르기 까지 모든 활동 분야에 이르고 있다. 문학, 미술 및 음악과 같은 지적 또는 예술적 연구는 당 지도 계급의 취미와 목표에 따르게 되어 있다. 모든 매스콤은

당과 정부 기관에 의하여 강력하게 통제되고 있는데, 이 당과 정부 기관의 권위(사실은 소유권인데)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뿐만이 아니라 출판사 및 서점에 까지 뻗고 있다.

교육은 전체주의 국가의 이념상 또는 기술상의 목표에 알맞도록 구며져 있고 또 청년들에 대한 감독은 '공산주의 청년동맹'(Komsomol)과 같은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청년 동맹에서는 청년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정부의 정책과 목표를 지지케 하기 위하여 특별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학령을 초과한 소련 시민들을 조직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직업을 할당하며 정부가 감독하고 지배하는 노동조합에 (그 활동이 정부의 목표와 일치해야 하는) 가입케 하는 것이며, 그들의 활동은 공산주의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산주의 지배 계급은 이렇게 그들의 시민들을 '요람으로 부터 무덤에 이르기 까지' 지배할 수 있다.

소련 사회의 발전은 흔히 세 가지 주요 시기로 나뉘어지는데, 그 각 시기마다 다른 공산주의 지도자가 있었다. 소위 레닌 시대, 스탈린 시대 후루시초프 시대가 모두 서로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그 정책과 조건에 있어서 권력을 가진 자의 특색을 반영하고 있다. 스탈린 시대와 후루시초프 시대를 비교해 보면, 소비에트 사회에 있어서 이 두 단계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탈린 시대의 과도하게 강압적인 특색은 약간 완화되었다. 순전히 강제적인 방법은 상당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유인(Incentive)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둠으로써 수정되었다. 즉 농촌의 노동 조건이 개선되었고 보다 질이 좋은 소모품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적 부문에 있어서의 통제도 완화되었다.

소비에트 사회가 지난 10년 동안에 많이 변화한 것만은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을 정부의 자유화, 원숙 및 이완에 다만 기인시켜서는 않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소비에트 지도층의 공언된 목표와 원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지배 엘리트는 아직도 정책과 전술 전략에 있어서 유일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당의 역할은 사실상 지난 6,7년 동안에 더욱 강화되었고 시민은 아직도 그의 공민권에 대하여 지명상의 보증 이상의 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는 옛날과 다름없이 권위주의적인 감독에 굴복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의 변화를 이룩하고 승인하는데 있어서 소비에트 지도층은 실지 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정부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조정을 하였다. 만일 부분적으로 교리상의 주입이 정부와 사회와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특색으로서 테러행위를 어느 정도 대치시켰다면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지도자들이 테러행위가 통치 방법으로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적당치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노골적인 위협이나 폭력으로 하는 것 보다 무언의 강제성을 띤 설복으로 더 강력하게 또 합리적으로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은 최근 수년 동안 사소한 경제범에 대해서도 사형을 언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 너무나 엄격하고 무의미한 경제적 및 사회적 면이 이완됨으로서 스탈린 이후의 소비에트 사회는 해빙기를 겪게되었다. 그러나 당은 동시에 모든 가능한 도전의 원천(즉 관료, 군대 등)에 대하여 그들의 위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지배권을 굳혔다. 정부는 보다 유연성을 띠었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정부는 점점 더 성장하게 되었다. 소비에트 지도자들은 압력을 감소시키면서도 엄격히 통제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절대적인 독재주의의 권위주의적인 면을 대폭적으로 변경하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약하다는 증거로 해석되기 쉽고, 따라서 이 때까지 그 욕구를 억누르고 있던 민중으로 부터 정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강제는 아직도 소련 사회에 있어서의 생활의 근본적인 사실이며, 또 그 오늘날의 해빙은 내일에도 곧 결빙될 수 있는 것이다.

공산 전체주의 독재가 그 본질적인 면에서는 조금도 변화하지 않았지만, 사회는 계속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지배 계급의 심리적 특색

의 변화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 지배 계급은 어느 정도 세습적이 되었다는 것도 부언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당 관리들의 아들, 딸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아 제 일급의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도시와 농촌 사이의 간격은 좁아지는 것 보다 오히려 넓어졌다. 그리고 소비에트 사회 전체와 그들의 많은 도구들이 현대화 된 반면, 거기에는 아직도 변화되었다는 흔적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농촌 부문이 있다.

아마 가장 의의 있는 변화는, 한편으로 라디오, 텔레비존을 소유하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과 점령 그리고 공산주의의 끈질긴 국제적인 노력과 교환 계획 등으로 인하여, 소비에트 지배 계급의 많은 사람들이 외부 세계를 보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모스코바는 독재 정치의 뚜렷한 특색인 중앙 집권화가 현대의 공업화된 사회를 상대하는데는 매우 적당치 못하다는 것을 점점 더 의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기술적 및 경제적 발전은 전체주의 및 독재정치의 기술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나. 강의 방법

이 강의는 소비에트 사회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이다. 소비에트 사회는 공산주의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 물질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은 강제이지만, 그 제도는 동시에 그 국민과 제도 그리고 그 지도자들과를 서로 제휴시키기 위해 그 모든 자원을 이용해서 그 정책과 목표에 헌신하도록 사람들을 고취하는데 힘 쓰고 있다. 이리하여 소비에트 정부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항상 대중들을 설복하고 조정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정부는 목적을 결정하며, 사회 전체는 그 목적을 향하여 매진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으로 부터 동물학에 이르기 까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당 노선을 규정하는 공식 소비에트 법령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부록참조)

소련 사회에 있어서의 다수결 원리의 결여는 중요한 대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것의 형성과 선언을 막고 있다. 모든 조직들과 집단들은 장기 클럽으로부터 '준 군사적 운동협회'에 이르기까지 정부나 당에 의해서 조직되며 지배되고 있다. 그 목적과 활동은 모두 정부가 시행하는 일반정책에 부합해야 한다. 소비에트 시민은 학교에 갈 연령에 도달 할 때부터 지도자들의 목표에 이바지하게 되어 있고, 또 정부의 선전과 교리 주입 활동은 그와 같은 제휴의 영속을 촉진하며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집중적인 선전 노력에 얽매여 있고 또 외부 세계와 그 사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에트 국민들은 그들의 지배자들이 선언한 정책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다. 국민들은 당과 그 지도자들에 대한 그들의 불만과 적의를 어떤 활동적이고 조직된 반항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반항에는 제도적인 기초가 있을 수 없다.

소비에트 시민은 공식적인 교리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부터 아무런 위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철학과 문학과 그리고 음악까지 정부의 권능 교리에 포함되어 있고, 또 사회 전체가 지배 엘리트의 정통교리로서 침투되어 있다. 이 엘리트는 국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고 따라서 극심한 행정적 및 경제적 관료주의는 계급적 차별이 없는 사회를 건설한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을 외곡하고 있다. 오히려 계급적 구별은 엄격히 되어 있고, 여러 계급들 사이의 차이는 아마 러시아의 과거에 있어서의 어느 때보다 못지 않게 현저한 것이다. 새로운 지배 계급의 대두(이것은 밀로반 질라스가 소련과 공산 유고슬라비아의 관계에 있어서 강력하게 묘사 한 바 있는)는 현저하게 구별된 사회 계층이 발전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사회가 유동할 수 있는 기회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하고 있다. 지배 계급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대체로 행정, 기술 및 과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국한되어 왔

고 또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후손을 지배 계급에 들어 가게 함으로써 그 지위를 영속시키려는 경향이 가끔 엿보인다.

공산주의 국가들의 시민들에게나 자유세계의 시민들에게나 공히 가장 관심을 끄는 문제는, 공산 전체주의적 독재주의의 근본 결합이 어떠한 방향으로 또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또 얼마나 빨리 진정 변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세계 평화의 장래는 소비에트가 변화 할 의사가 있는가 또는 그 능력이 있는가에 달려 있는 동시에, 세계 평화는, 전체주의가 강력하게 남아 있는 한,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는 대체로 소비에트 국가가 그 변화를 질서 있게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에 달려 있다. 공산주의 선전에 속거나 공산주의자들의 폭력의 위협에 공갈 당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미국인들은 소련 국민들이 잠재적인 친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러시아 사람이나 또는 기타 어떠한 나라 사람들과도 싸울 생각이 없다. 러시아 사람들과 (그리고 소련의 다른 민족들) 그들이 신봉하는 공산제도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리켜 생각할 때, 나치 독일에 있어서도 힛틀러에 대한 독일 국민의 반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연합국으로서 독일 국민의 어떤 부분과 나치 수령들과를 구별 할 수 없었다면 그것은 외교적, 정치적 심리적 오류가 되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전례들은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을 이해하고 대결하려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 필수독서

Robert A. Feldmesser, "Equality and Inequality Under Khruschev;" Seweryn Bialer, "…But Some Are More Equal Than Others;" and Raymond Aron, "Soviet Society in Transition;" Russia Under Khrushchev: An Anthology, from Probleme of Communism, ed., Abraham Brumberg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pp.

223-262 and 539-553.

Klaus Mehnert, Soviet Man and His World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pp. 1-25.

라. 선택독서

John A. Armstrong, Ideology, Politics and Government in the Soviet Union: An Introduction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160 pp.

(소비에트 정치 및 사회에 대한 간단하나 예리한 연구.)

Frederick Barghoorn, Soviet Russian Nation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330 pp.

(소비에트 사회에 있어서의 민족주의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와의 관계에 역점을 두고 있다.)

Paul W. Blackstock, Translator, "We Never Makes Mistakes" (Columbia, South Carolin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63). 100 pp.

('이반 데니소비치(Ivan Denisovic)의 하루'의 저자, 두개의 단편을 싣고 있으며 공산주의하의 생활의 흥미있는 면들을 폭로하였으며 또 번역자의 계발적인 논문이 실려 있다.)

Abrabam Brumberg, ed., Russia Under Khrushchev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3). 660 pp.

(공산주의의 문제에서 발췌한 논문들을 모은 것인데 현재의 러시아의 여러가지 면을 망라하고 있다.)

Robert U. Daniels, The Nature of Communism (New York: Random House, 1962). 398 pp.

(현대 세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의 여러 가지 면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다.

Merle Fainsod, Smolensk Under Soviet Rul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484 pp.

(노획된 서류에 입각하여 Fainsod 교수가 제한된 분야에 있어서 소비에트 통치의 현실을 분석한 최량서의 하나.)

Merle Fainsod, How Russia is Ruled, rev.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684 pp.

(소비에트 정부를 취급한 고전으로서 개정판.)

Kazimierz Grzybowski, Soviet Legal Institutions: Doctrines and Social Function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2). 285pp.

(소비에트 법제도와 소련 공산당의 독재와의 관계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국가관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의 그 역할에 대하여 학적으로 연구한 것.)

John N. Hazard, The Soviet System of Government, rev.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262 pp.

(소비에트 정부에 대한 간단하고 포괄적인 입문서.)

Alex Inkeles, Public Opinion in Soviet Russia (Cambridge: Harvard Universitty Press, 1950). 379 pp.

(러시아 인민의 의견을 통제하고 재형성하기 위한 소비에트의 조직적 및 이념적 방편에 대하여 철저하게 취급하였다.)

W. W. Kulski, The Soviet Regime: Communism in Practice (Syracuse, N. Y.: Syracuse University Press, 1963, 4th edition). 444 pp.

(그 개정판에서 소비에트 정치의 스탈린이 시대와 스탈린 후 시대와의 차이를 강조한 수준 높은 교재이며 참고서.)

Alex Inkeles and Raymond A. Bauer, The Soviet Citizen: Daily Life in a Totalitarian Socie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9). 533 pp.

(소비에트 시민들이 본 소비에트 정부에 대한 깊은 분석.)

Wolfgang Leonhard, The Kremlin Since Stalin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403 pp.

(소비에트 정치 및 정책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시한 권위 있는 연구.)

Adam B. Ulam, The New Face of Soviet Totalitarian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233 pp.

(소비에트 정치의 최근의 발전에 관한 중요한 논문들을 모은 것.)

Kenneth R. Whiting, The Soviet Union Today: A Concise Handbook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405 pp.

(소비에트 사회의 여러 가지 면에 대한 상세하고 새로운 묘사.)

마. 토의 문제

1. 소비에트 사회의 주요한 특색은 무엇인가? 민주 사회와 어떻게 다른가?
2. 소비에트 엘리트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아파라칙(Apparatchik)의 위치는 왜 중요한가?
3. 소비에트 정부는 건축 및 음악 같은 활동을 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4. 공산주의 청년동맹(Komsomol)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청년들의 교리주입이 전체주의 정부에 왜 그렇게 중요한가?
5. 스탈린 사후 소비에트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는가?
6. 전체주의 정부는 사회에 대한 그 감독을 완화고도 잔존할 수 있는가?

4. 소련 경제 : 공업과 농업의 집단주의

가. 주제 개설

독재적인 정부를 가지고 개인을 조정하는 그 기술은 국민 경제의 각 단

계를 국가가 감독함으로써 가장 광범위하게 발휘 할 수 있다. 상품의 생산과 분배의 수단을 완전히 관리하고 지시하려면 경제 활동의 어떠한 분야든지 독립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실로, 이와 같은 생산 수단의 조직은 사회 구조가 경제 조직에 의존한다는 마르크스의 이론으로 부터 나온 것이다. 이리하여 경제의 전적인 국가 관리는 공산주의 정부의 철학과 실천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다. 비록 집단 농장이 자유로운 시장을 경영하고 또 약간의 농민들이 사유 채소밭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마는, 소비에트 제도와 서방의 특색인 다수 지배적인 국민 경제와를 동등시 하는 것은 오해를 초래 할 뿐이다. 왜냐 하면 소비에트 집단 주의는 공산당 이념의 산물일 뿐 아니라, 권위주의 통치의 역사적인 산물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및 국가적 관계에서 볼 때에는 경제적 통제는 전체주의적 제도의 보루로써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집단주의는 공산 전체주의 사회의 본질이다. 소련은 이러한 종류의 사회 및 경제 조직의 원형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러시아에 있어서 집단주의에로의 길은 험난하였고 또 무자비 하였다. 볼세비키당으로 하여금 러시아를 확고하게 지배하게 한 1918-1921년 내란에 있어서의 승리 직후, 레닌은 신 경제정책을 공포하였는데, 이 정책은 1921년으로부터 1928년까지 계속되었다. 여러 해 동안의 전쟁과 전시 공산주의의 오류는 사실상 러시아의 경제를 파괴하였으므로 이것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레닌은 특히 무역과 농업에 있어서 개인기업을 장려하는 한 계획을 창시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중요한 산업과 통신과 그리고 경제의 심장인 운수의 통제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 신경제정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스탈린이 1927년에 그의 개인적 권력을 굳히려 할 무렵에는, 경제는 번영하기 시작하였다.

스탈린의 최초의 행동의 하나는 공업과 농업에 있어서 집중적인 집단주의 계획을 시작하는 일이었다. 생각컨대 이 계획의 동기는 (비프롤레타리아적인 생산제도를 제거하려는 마르크스 주의적 원칙과는 별개) 두가지었던 것 같다. 즉 소련 공산사회의 각 단계에 대한 공산당 지배를 견고히

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국가에 공업화를 강요하기 위함이었다. 어느 동기가 더 중요하였는가를 정확히 말 할 수는 없다. 물론 두가지가 다 최후의 결정을 형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무기와 기타 세계적인 세력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공업 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장을 설립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省)이 창설되었고 각 성은 각 공업을 하나씩 맡았다. 이런 것들 위에 국가 계획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일련의 장기간의 경제 계획을 확립시키는 일을 하였고, 이 경제계획이란 사실에 있어서 일정한 기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생산 목표의 스케줄인 것이다. 경제에 관한 방향은 법률로써 입안 하였고 계획을 달성치 못할 때의 처벌은 냉혹하였다. 실패는 태업과 동일시 되고 또 반역과 같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최근 몇 년동안 이러한 공업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올렸는데, 이것은 결국 전시 경제에 이바지한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경제적 능률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고 하기보다, 오히려 인간의 정력과 휴식을 희생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업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사회 계급, 즉 새로운 경제를 능률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관리인들과 기술자들의 계급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공산당원들이었으나, 그들의 대부분은 이념주의자나 혁명가들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대신 그들은 직업적인 견해를 가지고 진보적인 발전을 강조하며, 그들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게 되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관료적인 공산 엘리트들에 대하여 관리직 엘리트의 고유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 갔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조직적인 권력기반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당의 세력에 대립되는 중요한 권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

막대한 인간적 및 사회적 희생을 통하여 농업집단주의는 농업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근대화를 달성하였다. 스탈린은 트랙타 제조공장을 시작하여

이것이 집단 농업의 조직이 되었고 따라서 농업 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정치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그후 후르시초프가 이 트렉타 제조공장를 폐지한 것은 국영 농장에 있어서나 또 많은 집단 농장에 대한 노력의 확대가 개인의 생활과 직업을 사회주의화하기 위하여 정책을 변경시킨 것은 아니다. 소규모의 농민 지주는 1928년에 시작하여 수백만의 죽음을 가져온 스탈린의 무자비한 집단화에 의해서 제거되었다. 그 결과로 개인 농업은 대규모의 농업으로 완전히 대치되었고, 또 이 대규모의 농업은 정치적 통제력의 중요한 도구가 되는 동시에, 농업생산의 규범이 되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일관작업 조직과 또 더욱 최근에는 오토메이숀의 광범위한 실시로 모든 기업에 대하여 정부의 엄격한 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손쉬운 수단이 되었다.

농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로 결국 비능률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였다. 소련에 있어서의 식량 생산은 아직도 그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생산자에 가해진 조직 때문이다. 계속적인 식량 부족, 후르시초프 전수상이 자주 자인한 실패, 소비에트가 외국으로부터 식량을 수입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정부가 오래전부터 농민에게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어느 정도의 사유토지 등에도 불구하고 집단주의는 정부가 폐지하기를 거절한 소비에트 제도의 일면으로 되어 있다. 그와 같이 집단주의는 공산당에 의한 힘의 독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공업에 있어서의 소비에트의 발전은 미국 다음가는 자본, 공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중공업과 무기 생산과 같은 높은 우선권을 가진 분야에 있어서는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 반면 그것은 결코 완전히 다양화된 공업은 못된다. 삼차산업은 미국과 비교할 때 원시적이며 소비재 생산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동시에 때때로 세워지는 계획들도 1963년 말기의 화학공업에서 노정된 바와 같이 주요 부분에서 심각한 지연을 초래하였다. 끝으로, 낭비와 관료적인 지연성은 소비에트 공업의 고질이며 따라서 러시아의 공업의 성장의 대부분은 하부구조의 생산부분

에 있어서의 근무 시간외의 중노동으로써 성취된 것이다.

나. 강의 방법

집단 경제기업의 운영방법을 연구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미국 학생들은 가끔 소련 사회의 그것과 미국 사회의 그것과를 너무 동일시 하려는 근본적인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 모든 공업화 된 사회는 공통된 어떤 사회 경제적 특색들이 있는 바, 이 특색들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오히려 보다 중요한 차이를 방치하는 폐단이 있다. 거기서 오는 불행한 결과는 소비에트 제도와 미국 제도를 잘 못 인식하여 자본주의 공업관리와 공산주의의 그것과의 유사점을 과장하거나, 소비에트 집단 농장에 사유 채소밭이 있는 것을 자유 기업의 소생으로 생각하는 폐단이 생긴다. 이 강의는 이러한 문제들과 또 이와 비슷한 일반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토의하고 비판하게 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된 강의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관리와 개인농업에 관한 두 가지 가정을 생각해 보자. 확실히 전 세계를 통하여 공업 조직체들의 관리자들은 일종의 관료주의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관료들은 많은 공통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다. '조직인'은 미국 사회에만 국한된 사회적 현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공업이나 소련 공업에 있어서 정책 결정을 하는 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은 근본적으로 같다고 말 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는 견해이다. 데이비드 그레닉과 기타 사람들은 소유권과 통제권과의 차이를 강조하였으며 또 그들은 전문적 관리인은 소유주가 아니라, 자본주의 제도에서나 공산주의 제도에서나 공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여기서 동일성은 끝나는 것이며 다음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 한다. 러시아에 있어서는 자유 노동조합의 보상권, 자유 여론의 영향, 독립적인 법률적 구속은 전혀 없다. 소련의 관리인들은 소련 공산당의 비책임 정치위원회에 대해서만 예속되어 있다.

정책 결정은 대체로 동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생산자들의 동기는

소모품 수요가 자본을 배당케 하는 경제와 또 국가 계획 위원회가 최상위에서 지배하고 있는 경제와는 동일하지 않다. 사회제도의 가치와 목표들은 국가의 부의 사용을 결정하는 그러한 '경제적' 결정들을 좌우하게 된다. 이것이 소련의 관리인과 미국의 관리인에 있어서 서로 다른 동기의 차이이다. 그들이 유사한 관료적 임무를 다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그들을 더 가깝게 하는 것은 아니다.

소련 집단 농장에 개인 채소밭이 있다는 것이, 즉 그 정부가 개인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며, 또 나아가서 국민 경제의 이 분야를 확창시키게 된다는 것을 의미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가끔 보인다. 사실에 있어서 이러한 가정에는 근거가 별로 없다. 미국이나 서부 구라파에서 알고 있는 의미에 있어서의 개인 농업은 소련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산당의 농업 계획은 혁명 전의 미르(mir)의 사회관계 형태를 생각나게 하는 상호 의존과 의무의 제도에 입각하여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러시아 농민들은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국영 농장에서 일하거나 또는 집단 농장에서 일하거나 간에 이들 농민들은 그 공동의 주주로 가정되어 있다. 이 양 경우에 있어서 공산당의 지도자들은 농업 정책을 그 세부에 이르기까지 수립해 주며, 또 그 정책의 실시에 대해서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서방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개인 소유권과 관련시키는 특권은 러시아에 있어서는 공산당이 그것을 행사하고 있다.

집단 농장의 각 구성원들은 일련의 일정한 기일 동안 집단 농장에 공헌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는 농장의 이익을 분배 받을 수 있게 되며, 또 개인 소유의 채소밭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데, 이 채소밭은 그가 소유하는것이 아니라 집단농장 경영체로부터 허락을 받고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가축들을 소유할 수 있다. 국영 농장의 농민에 관해 말하면, 그는 정부의 전속 월급을 받는 피고용인이며 개인 농업은 별로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제도는 자본주의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점이다. 가족 채소밭

이란 자유 기업을 의미할 수 없다. 토지의 개인적 사용 또한 개인 소유와 같을 수 없다. 특히 집단 농장 또는 국가 농장에 있어서의 개인의 사회적 및 정치적 역할은 서방에 있어서의 그것과는 다르다. 이러한 차이들을 분별치 못하면 경제적 집단주의의 뜻을 파악 할 수가 없다.

강사는 경제에 있어서 농업부문의 결점들이 공업부문에 있어서의 실패와 병행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다. 소비에트 경제가 단기 속성 계획으로 군사적 장비와 같은 특수한 산물을 생산 할수 있기는 하지만, 그 제도는 아직까지 자원의 배당, 가격 결정, 변해가는 수요 기술의 그리고 조절등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발전시킬 수 없었다. 소비재 공업들 특히 주택에 관련된 공업들은 그들의 교리때문에 소홀히 되어 왔다. 소련의 경제에 있어서는 정치 및 사회에 있어서와 같이 그 실천이 선전보다는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강사는 노동자가 받는 진정한 임금에 관한 공표된 통계를 자본주의 국가들의 그것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교는 가끔 소련이 노동자들의 천국이라는 낱말의 허위성을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다. 필수독서

Herbert Ritvo (ed.), The New Soviet Society: Final Text of the Program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The New Leader, 1962), pp. 116—152.

Kenneth R. Whiting, The Soviet Union Today: A Concise Handbook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pp. 170-·209.

라. 선택독서

Edward Crankshaw, Khrushchev's Russia (Baltimore: Penguin Books, 1959). 174 pp.

(유명한 영국의 저널리스트가 스탈린 사후 6년 후의 소련의 인상을 기록하고 있다. 제3장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방법은 소련 경제에 끼친 후르시

초프의 새로운 정책의 영향을 논하고 있다. 특히 흥미 있는것은 계획자들의 요구를 피하기 위해서 사용된 방법들에 대한 초크랭크 죠의 묘사이다.)

Herbert S. Dinerstein, "Communism and the Russian Peasant," Two Studies in Soviet Controls: Communism and the Russian Peasant and Moscow in Crisis (Glencoe, Ill.: The Free Press, 1955). 254 pp.

(전체주의 하의 농업에 대한 심각하고 비판적인 연구, 저자는 란드회사 (RAND Corporation)의 한 멤버로서 이 연구보고서를 저술했다.)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1). 346 pp.

(전체주의의 성질을 이론적으로 논하였다. 제5장 경제의 방향은 농업과 공업 통제 분야에 있어서의 파시스트, 나치 및 공산주의자들의 경험을 기술하고 있음)

David Granick, The Red Executive: A Study of the Organization Man in Russian Industry (New York: Doubleday and Co., 1960). 334 pp.

(소비에트 사회의 관리들에 대한 사회학적 및 정치학적 연구, 미국과 소련 공업에 있어서의 정책 결정 수립의 과정을 비교함에 있어서 저자는 몇가지 흥미 있는 대조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Alex Inkeles and Raymond Bauer, The Soviet Citizen: Daily Life in a Totalitarian Socie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9). 533 pp.

(정치적 및 경제적 권력을 행사하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강조하면서 전체주의 사회학을 연구한 것. 미국과 소련에 있어서의 공업 사회를 서로 비교한 것이 그 특징이다.)

Naum Jasny, Soviet Industrialization, 1928—1952 (Chicago: Univeisty of Chicago Press, 1961). 467 pp.

(소비에트의 공업 발전의 복잡성을 이 방면의 유명한 권위자가 역사적으로, 분석적으로 고찰한 것. 이 제도로서 할 수 있는 국가 통제의 범위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우리고 있다.)

N. S. Khrushchev, Report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PSU to the 22nd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Vol. 1 of Documents of the 22nd Congress of the CPSU (New York: Cross- Currents Press, 1961). 244 pp.

(농업과 공업에 있어서의 집단주의 및 경제 계획에 대한 소비에트 수상의 견해를 직접 피력한 것. 러시아 사회의 목표에 대한 후루시초프의 해석은 이 저작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Raymond W. Miller, A Conservative Looks at Cooperatives, (Athens, Ohio: Ohio University Press, 1964). 245 pp.

(공산주의 하의 강제 협동사회와 대조시켜, 자유사회의 성공적인 협동운동을 논한 것.)

Alec Nove, The Soviet Economy: An Introduction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328 pp.

(소비에트의 경제 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취급한 기본적인 대학 교재. 저자는 런던대학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유명한 경제학자이다.)

G. Warren Nutter, The Growth of Industrial Production in the Soviet Union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706 pp.

(소비에트 공업 발전에 대한 상세한 고찰인데 그 발전에 대하여 소비에트 경제제도를 연구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과장되었다고 논하고 있다.)

Harry Schwartz, Russia's Soviet Economy, 2nd ed.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54). 682 pp.

(소비에트 경제의 표준적인 고찰 특히 그 풍부한 표와 통계 때문에 가치가 있다.)

마. 토의 문제

1. 미국 공업과 소비에트 공업의 관리면에 있어서 그 동일성과 상이성을 말하라. 이 두 사회에 있어서 조직인의 역할이 어느 정도 흡사한가?

2. 소비에트 농업 집단주의의 여러가지 형식을 말하라. 집단농장의 자유시장의 목적은 무엇인가?

3. 소비에트의 집단농장과 스칸디나비아의 농협과를 어떻게 구별할수 있는가?

4. 소비에트 경제 계획의 성질을 말하라. 국가계획위원회는 그 운영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인가? 소비에트는 그 자원을 여러 가지 공업들에 어떻게 할당하는가?

5. 자유기업 경제의 요소를 소련에 어느 정도 도입시킬 수 있는가?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 소비재 수요로 하여금 자원의 사용을 결정케 할 수 있는가?

6. 권력을 잡은 공산당을 유지하는데 경제적 집단주의는 얼마나 중요한가? 국가계획위원회 또는 집단농장과 같은 제도의 정치적 역할은 무엇인가?

5. 동구에서의 소련 제국주의

가. 주제 개설

세계 정세나 공산주의를 연구하는 학도는 소비에트의 팽창을 시도하는 그 기술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구라파에 있어서 최대의 팽창이 있을 무렵에, 미국은 직접 스탈린의 러시아와 교섭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제2차 대전의 동맹국과 전후의 협조를 위해 큰 희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다.

제 2차 세계 대전 후 그리이스, 터어키, 이란에 대한 소비에트의 압력은 트루만주의 형식으로 맹렬한 미국의 반응을 일으켰으나, 소련은 동

구라파를 접수하고 위성국가들의 불럭을 형성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미국과 유럽 사람들은 침략적인 소비에트의 의도를 알아 차리고, 마샬 프랜과 그리고 구라파에 있어서의 더 이상의 소비에트의 팽창을 막는 자유세계의 군사적 방패인 나토를 형성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과 세력들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현재의 냉전은 그 기원이 당시의 복잡한 시대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이다. (5장의 1 참조) 또 동부 유럽에 있어서의 위성 국가들의 발생을 연구하면 그 통제권을 세계의 타지역에 확창하는 소비에트의 기술과 전략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동유럽에 대한 소비에트의 침범은 제 2차 대전 바로 직전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및 리슈아니아의 강점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 불행한 나라들로 부터 스탈린의 주구들은 수천명의 애국자들을 추방시켰는데, 그 많은 수효가 후에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죽고 말았다. 이러한 행동들에 뒤따라 나치 소비에트 조약 조인후 1939년 폴란드의 군사적 정복과 분단이 있었다. 동부 유럽과 중부 유럽에 제 2차 세계 대전 때 러시아가 군사력을 투입함으로써 소비에트의 팽창은 계속되어 나간 것이다. 소련과 함께 동맹국으로서 참전한 나라들은 전쟁중 소비에트의 팽창과 그리고 특히 핀란드와의 전쟁 및 핀란드 영토의 강점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식은 서방 국가들 사이에 목표를 혼돈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비에트의 군대들이 동부 유럽과 중부 유럽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군대의 급속한 동원해제를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과 목적들이 결합되어 소련이 그 점령한 국가들에 있어서 권력을 굳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 배경을 형성해 주었다. 러시아는 제 2차 세계 대전 때에 구축한 선의를 이용함으로써, 또 힛틀러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동부 유럽 국가들을 재수립하기 위한 민주적인 원칙에 동의한 것을 가장함으로써, 동부 유럽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팽창주의를 막으려는 서방의 노력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나라들에 대한 통제권을 얻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제국주의적 기

술이 사용되었다. 루마니아에 있어서는 그것은 노골적인 최후 통첩을 이용하여 공산당에게 권력을 이양시켰다. 불가리아의 공산주의자들은 급속히 루마니아의 위협적인 교훈을 이용하였다. 폴란드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모스크바에서 창설하고 훈련한 꼭두각시 루불린정부를 수립하고 그후에 모든 민주세력들은 숙청하였거나 또는 폴란드 제일지도자 니콜라크초시크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추방하고 말았다. (5장의 1 '폴란드 지하운동자들에 대한 소비에트의 반역'을 보라). 헝거리에 공산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패배 당한 국가의 점령국으로서의 러시아는 검열과 통제에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체코슬로바키아는 그중 가장 어려운 케이스였는데, 이것은 체코슬로바키아가 국부적으로는 서방에 의해서 해방되었었고 또 안정되고 현대적인 국가의 지극히 강력한 민주세력이 급속히 재현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있어서는 보다 광범위한 공산주의 방법들이 사용되었으며, 또 공산 주권은 1948년까지 굳혀지지 않았다. 소비에트 제국주의의 무자비성은 아마도 러시아가 사실상 총끝으로 별개의 꼭두각시 정부를 수립한 동부 독일에 있어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다.

새로 수립된 위성국가들에 있어서 정치적 방향 설정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스탈린은 간과하지 않았다. 1948년 초엽에 스탈린과 소련공산당은 '허위의 마르크스 주의' 교리를 가진 당 조직체들에 대해서 충고를 하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소비에트 코민포름 일간지에서 명백히 선언하기를 '레닌과 스탈린은 모든 형제 공산당들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 교리의 발전을 추구하는 데에 모범이 된다'고 하였다. 스탈린의 주장에 의해서 코민포름으로 부터 유고슬라비아를 추방한 것은 스탈린주의 교리에 맞선 이념적 입장을 티토가 주장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제 4장 4에서 더 충분히 취급된다)

폴란드에 있어서, 울라디슬라우·고물카는 엄격히 스탈린주의 모델에 입각한 농업의 집단주의화, 특히 부유한 농민들의 숙청을 반대하였다.

이것은 스탈린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였으며, 따라서 고물카는 폴란드에서 당의 지위와 권력을 모두 상실하였다. 이것은 다른 나라 공산당들에 대해서 교훈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고물카의 경우를 명백히 하면 그것은 정통파와 이단 사이의 경계선을 명백히 해 주는 잇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추종의 필요성이 명백히 된 셈이었다.

스탈린 자신이 동부유럽 위성국가들에 대해서 독재적인 권력을 행사하였으며, 각국에다 소련식의 사회와 정치제도를 형성하였다. 각국에 있어서의 당의 주권은 확고히 천명되고 지도권의 근거가 되게 되었다. 동부 유럽 위성국가들 내에 있어서도 소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과오 없는' 스탈린을 표어로하는 개인 숭배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이론적 부합성은 동부유럽 헌법들의 유사성에서 표현되었다. 불가리아는 1947년 말에 그 헌법을 스탈린 헌법에 따라 개정시킴으로써 앞장을 섰다. 루마니아와 체코슬로바키아는 1948년에 뒤따르고, 헝거리는 1949년에, 마지막으로, 폴란드는 1952년에 이를 뒤따랐다. 이들이 모두 자기들이 '인민의 민주주의'라고 선언하고 또 그들의 법적, 행정적 그리고 지방 정부 조항에 있어서 소련의 형식을 뒤따랐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동부 독일은 별개의 경우였다. 소련은 이 영토에 대해서 1949년 10월에 헌법을 제정할 것을 허락하여 동부 독일을 인민의 민주주의라기 보다 민주공화국이라고 선포하였는데, 이것은 독일연방공화국이 조직된 후였다.

소련은 국가 공산주의자들(앞으로 있을 접수에 대비하여 소련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까지)이나 또는 지방 당 조직체들이 완전히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지해 주리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변천하는 지방 및 국가의 자체 이해 관계 때문이었다. 제 2차 대전 동안에 소련은 앞으로 있을 접수에 대비하여 동부 유럽 국가들로 부터 온 공산주의자들을 훈련하였다. 또 그들은 소비에트의 이념과 사회제도에 충성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동부유럽 위성국가들 내에 복잡한 통제 조직을 형성하였다. 첫째의 유대방안은 불력의 당지도자들과 소련의 지도자들사이의 직접 상담이었다. 둘

째는, 이러한 국가들에 있어서 소비에트 대사관을 통한 정부 전복이었다. 셋째번은, 소비에트의 군사 및 경제 고문관들을 임명하는 일이었다. 또 하나는 권력과 통제의 제도로서, 특히 중요한 정부기관(경찰, 군대, 내무부, 또는 법무부)이 소련의 통제를 받는 역군들에 의해 직접 침투되어졌다. 예를 들어 소비에트 비밀 경찰은 그러한 제도와 대리 기관에 침투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계의 여러 공산주의 국가들을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분리시키고 또 각자가 서로 서로 분리되게 하는 일이었다. 이 모든 통제권들은 그들 뒤에 소비에트 군대의 힘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었다. 공산주의 국가들의 군대에 있어서는 소비에트 장교들이 가끔 명령 기관이나 고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 강의 방법

이 강의에 있어서 역설할 가치가 있는 주요점은 소련이 동부유럽의 공산화를 강제한 그 제국주의적 수단인 것이다. 스탈린은 레닌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를 향하는 정확한 길'에 관한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르려 들지 않고 군사력과 위협을 무자비하게 사용하고 또 루마니아와 폴란드 영토의 대부분을 소련에 이양함으로써, 그의 팽창주의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각시켰다. 이 관계에 있어서 스탈린주의적 공산주의의 진정한 야욕을 그 시대의 서방 사람들이 의식치 못함으로써, 스탈린의 목적 달성을 도왔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공산주의 연구가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고려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지방 공산주의자들이 (언제나 소수파인) 지방 민주주의파들이 실패한 곳에서 정부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같은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의 역할과 또 필요한 때는 언제나 힘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또한 소비에트 군대가 진주하여 점령 지역의 통제권을 장악할 때에 그것은 지방 공산당원들을 권력의 좌에 강제로 앉히기 위한 수단이

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전형적인 정부 전복과 침투 전술은 소비에트의 위협적인 군사력에 대한 반항이 존재한 곳에서 사용되었다. 이러한 방법들이 성공적으로 사용된 고전적인 예는 물론 체코슬로바키아이었다.

동부유럽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접수의 형식을 설명한 뒤에 강사는 어느 정도까지 스탈린은 소비에트 정통파에 대한 엄격한 추종을 필요로 했으며 또 받을수 있었는가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위성국가들이 위성국가 제도내에서 보다 위대한 국가적인 독립을 그리워 하고 있을 동안 스탈린은 곧 이러한 민족주의가 뜻하는 바를 의식하고, 그것을 배제하는 절차를 취하였던 것이다. '독자적 국가적 이념' 또는 '사회주의에의길'은 이념과 동유럽 권에 대해서 스탈린 및 소련의 단독으로 통솔하려는 원칙과 대립되었을 것이다.

다음에, 강사는 소련이 위성국가로부터 추종을 받고 또 이러한 공산국가들에 대해서 그 자신의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책들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곧 공산주의에의 길을 따르기 위하여는 소비에트의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가정이다. 본질적으로, 소련은 그 자신의 통제 제도를 위성국가에 확대시켰다. 게다가 소련은 가끔 그들의 국민을 지방당 또는 군대내의 권좌에 두었던 것이다.

국적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권이 지방 정부에 의해서 소비에트인에게 주어졌다. 이러한 방법까지도 대중을 제압하기에 충분치 않은 그러한 나라들에 있어서는 소련은 1953년 동베르린 봉기와 1956년 항가리봉기에 있어서 처럼 노골적인 군사적 제압을 감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사는 강제적인 추종은 글자 그대로 소련에 대한, 소련공산당에 대한, 그리고 특히 스탈린에 대한 극단적인 충성의 고백을 강요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스탈린의 인격은 이와 같이 고양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최상급 단어를 만들기는 거의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스탈린의 업적은 모든 과학, 즉 인간 지식의 전 영역을 포함하리 만큼 과장되었다.

이 모든 것이 동부유럽 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승인되었고 따라서 소련 공산당의 지령에 대한 완전한 추종은 후르시쵸프하의 단일 소비에트 통제권의 붕괴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다. 필수독서

Zbigniew K. Brzezinski, The Soviet Bloc(Cambridge: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pp. 3-18, 67-97, 111-124.

라. 선택독서

Alexandre Cretzianu(ed). Captive Rumania: A Decade of Soviet Rule, 1945—1955 (New York:Frederick A. Praeger, 1956). 424 pp.

(그 자체의 전통과 견해를 가진 국가에 있어서 소비에트화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각개의 연구를 피력하는 심포지움 내용소개.)

Hawthorne Daniel, Ordeal of the Captive Nations(New York:Doubleday and Co., 1958.). 316 pp.

(1950년대 중엽 동부 유럽에 있어서의 공산치하 여러 나라들의 환경에 대한 보고이며 국가적 독립과 주장을 위한 계속적인 투쟁에 대한 추측을 포함하고 있다.)

Oscar Halecki(ed.), Poland(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7). 601 pp.

(공산치하 폴란드에 대한 재료를 모은 우수한 저서.)

Ernst C. Halmreich (ed.), Hungary(New York:Frederick A. Praeger, 1957). 466 pp.

(제 2차 세계 대전 후의 헝가리에 대한 철저한 연구이며 1956년 혁명에 대한 고찰을 포함하고 있다.)

Joseph Korbel, Communist Subversion in Chzechoslovakia, 1938—1948 : The Failure of Coexistence(Princeton: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9). 258 pp.

(공산주의 전복 기술을 통한 체코 민주주의 침식에 관하여 전 체코 외교관이 쓴 저서.)

Joseph Korbel, Poland Between East and West:Soviet and German Diplomacy Toward Poland, 1919—1933(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321 pp.

(폴란드의 외교사에 대한 학자적인 연구이며, 공산주의 접수 이후 소비에트 대 폴란드 관계에 관한 중요한 역사적 요인들을 밝혀 주었다.)

J. M. Mackintosh, Strategy and Tactics of Soviet Foreign Policy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1962.). 332 pp.

(소비에트 제국주의의 전 관계에 있어서 동구라파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행적을 취급한 책으로 많은 환영을 받았다.)

Stefan T. Possony, A Century of Conflict: Communist Techniques of World Revolution (Chicago:Regnery, 1953)439 pp.

(권력을 잡고 공산주의 권력 기지를 확창하기 위한 공산주의 전술을 역사적으로 분석한 것.)

Herbert Ripka, Eastern Europe in the Postwar World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1.). 256 pp.

(공산주의가 접수하기 전 여러 동부 유럽 나라들에 있어서의 정세에 대한 훌륭한 배경적 분석이며 또 그 과정이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를 논하고 있다.)

Henry L. Roberts, Rumania: Polictical Problems of an Agrarian State (New Haven:Yale University Press, 1951). 441 pp.

(루마니아 정치와 소비에트 접수에 관한 중요한 묘사.)

Hugh Seton-Watson, The East European Revolution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6). 422 pp.

(동부 유럽 위성국가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또 그 접수와 소비에트화에 관한 유일한 가장 권위있는 연구서이다.)

People (Baton Ruo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62). 300 pp.

(공산주의자들의 의지와 소비에트 정책에 대해서 폴란드 국민들을 예속케 하는데 사용된 전체주의적 방법에 관한 상세한 표사이다.)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Special Committee on the Problem of Hungary,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1957.

(모든 입수할 수 있는 기록들에 대한 상세한 회견과 검토에 입각한 결정적인 문헌이며, 1956년 항가리 반란을 진압하는데 있어서의 소비에트의 불성실과 무자비성에 관한 기록을 제시하고 있다.)

R. Wolff, The Balkans in Our Tim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618 pp.

(참고문헌과 출처에 대한 재료를 제공한 대단히 유용한 일반적 고찰.)

J. K. Zaivodny, Death in the Forest(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62). 235 pp.

(폴란드를 공산화하는데 사용된 제국주의적 수단의 폭로로서 폴란드 장교 엘리트들을 전멸시킨데 대한 소련의 책임을 폭로한 철저한 연구서.)

Paul E. Zinners, Communist Strategy and Tactics in Czechoslovakia, 1918—1948(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3). 264 pp.

(원래의 문헌에 입각한 체코 공산당의 결정적인 역사서.)

마. 토의 문제

1.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련 공산당은 동부 유럽 나라들의 대내, 대외정책에 영향력을 줄 수 있었는가? 소련 공산당이 최근에 와서 그 노선과 정책에 따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줄게 된 것을 당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2.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처음에 모스크바의 원하는대로 움직이기를 거

하였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였으며 어떤 결과를 그들에게 초래하였는가? 유고슬라비아의 경우가 모스크바에 순종할 것을 강요하려는 스탈린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3. 동부유럽 나라들의 헌법들이 내용에 있어서 서로 유사한 이유를 당신은 설명할 수 있는가? 동부 독일 구조의 특별한 상황에 관한 스탈린의 이론과 그의 장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4. 제2차 세계 대전 후 동부유럽에 관하여 스탈린이 품은 목적을 파악하는 데 서방 지도자들이 왜 더디었는가?

6. 교과과정 토의 : 공산주의 체제의 해설

가. 교수 지침

이 제목을 중등학교 교과 과정에 어떻게 편입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산제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명심해야 할 몇 가지 결정적인 원칙들이 있다. 소비에트의 경제 및 사회 제도에 관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소비에트의 경제 제도는 국가계획과 경제생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 생산 분배 및 교환에 할당된 모든 자본과 시설을 국가가 소유한다. 생산의 우선권, 가격 및 노동의 최후의 대가는 전적으로 정부의 명령에 따르게 되어 있고, 자유 기업 제도에 있어서와 같이 소비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둘째로, "각자는 능력에 따라 봉사하고 또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는 유토피아적인 마르크스 슬로간은 오로지 완전한 공산주의의 최후의 단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소비에트 국가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교리는 "각자의 노동에 따라 주는것이다". 단순한 말로하면 이것은 광범위하게 볼때, 다른 공업화된 국가들의 그것과 비교할 때 품삯 임금제도에 입각한 보수, 강한 개인적 경쟁에 따른 유인 제도인 것이다. 이런 점에

서 보면 소비에트제도는 비록 소비에트 교리가 국가 자본주의가 이제는 제거되었다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가장 착취적인 종류의 국가자본주의인 것이다. 그러나 소비에트 사회가 기동적이고 자유 없는 유인 체제하에서 재능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개인에게는 많은 보수를 준다는 사실은 솔직히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기의 노동 표준 또는 계획을 넘게 일하는 사람은 승진이 빠른 것은 확실하다. 그 제도는 또한 최소한도의 후생, 보건, 또는 사회적 보장을 보통 노동자에게 제공하지만, 반면에 개인에게 사유재산을 가질 특권과 가족에 대한 보호 그리고 자유 사회에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허락하지 않는다.

세째로, 그 제도와 그 지도층은 '미국 수준까지 도달하고 그 것을 넘자'는 슬로간으로 강요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방면으로 확장하고 발전하려는 운동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방은 듣기에는 기분좋은 것이지만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국 편에 있어서 자족하는 태도를 영구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또 과거에 스프트니크, 유인 우주비행 등 소비에트의 기술적 성공을 가져온 소비에트의 잠재력을 과소 평가케 하는 경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에트 정치제도에 관해서는 다음에 들 몇 가지 개요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소비에트 정치제도는 전체주의적이요, 비책임적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인간 존재의 모든면이 정부가 관할할 일이요 또 보수와 강제의 제도로써 통제되어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 지배자들은 그들이 인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정치적 결정 과정에는 자유롭게 참가하기를 허락치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이 제도는 비책임적이다. 무엇보다 지배자들은 국민에 의해서 대치될 수도 없고 배척될 수도 없다. 이와 반대로 다른 나라 사회들에 있어서는 이것이 입법자나 행정가나 재판관이 잘못을 범했을 때에 그들을 바로 처단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소비에트 정부에 활력을 주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국가의 전능을 통하여 행사되는 권위, 더 상세히 말하면 일종의 스스로 확인하는 가정으로써 소수에 의한 다수의 지배를 영구화하며 또 사회에 있어서의 법률이나 균형세력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 공산당의 권위인 것이다. 소비에트 정치제도는 진리와 선은 진정한 마르크스 교리의 이상에 따라 강력한 당의 사상 주입으로써 훈련을 받고 또 그럼으로 그 사상 주입을 나머지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 선봉대'로서의 자격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의 영감에서만 올 수 있다는 이론에 입각하여 운영된다. 그와 같은 제도에 있어서는 목적이 (공개적으로 자유로운 논의가 허락되지 않는다) 수단을 지배하며 또 모든 수단은 아무리 비윤리적이라 할지라도 최후의 유토피아적 이상에 의하여 신성한 것으로 합리화 된다. 농업의 집단화 또는 강제적 공업화에 있어서 초래된 막대한 인간적 및 사회적 손실은, 다시 말하면 개방된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손실들이 이와 같이 괴상한 소비에트 가치 체계에 있어서는 합리화 되어왔다. 윈스턴·처어칠은 그의 2차 세계 대전 회상기(The Hinge of Fate,) 제4권에서 스탈린과의 대화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이 대화에서 소비에트 독재자는 집단주의의 막대한 인명 손실을 인정하였다. 처어칠은 평하기를 '나는 기억나는 대로 기록하는데 내가 받은 강한 인상은 수백만명의 남녀가 영원히 학살되었거나 제거되었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에트의 정부 및 사회제도는 그 이념에 있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이며 또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전 세계를 어떠한 노선을 통하여 소비에트식으로 변형하려는 혁명적인 사명을 띠고 있다는 원칙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비록 소비에트는 현재 평화공존을 부르짖고 있지만 (1956년 이래 주기적인 전술 변경에 있어서 처럼) 장기간에 걸쳐 목표에 어떠한 변화가 있으리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핵 전쟁에까지는 이르지 않겠지만 모든 수단을 다하여 공산주의를 세계에 강요하려는 혁명적 사명은 소비에트 공산주의자들과 중공 공산주의자들을 포함한 모든 공산당들의 최고의 목표

인 것이다. 비록 소비에트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자유 세계와의 평화 공존에 대하여 크게 떠들고 있기는 하지마는 그들이 전에도 이와 같은 식으로 말하였고 또 한 국가나 한 운동은 한 인간에 있어서와 같이 말보다 행동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소비에트 제도가 궁극에 가서는 우리의 제도를 매장시킬 것이라는 전 후르시초프 수상의 빈번한 호언의 진지성을 할인 할 아무런 똑똑한 이유도 없다. 이것이 냉전의 근본 요소들이 명백히 해소될 시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한 것이라는 이유인 것이다.

나. 토의 문제

1. 전체주의가 20세기에 있어서 이와같이 중요성을 띤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 세계에 있어서의 학교 교육에서 다룰 중요한 문제는 학생들에게 소련 사회와 같이 권력이 단 한 방향으로만 흐르고 또 개인의 욕망이나 가치가 없고 또 국가의 훈련이 완전한 그러한 사회에 산다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전달하는 일일 것이다. 교사는 어떻게 학생들로 하여금 이 전체 주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인도할 수 있는가?

2. 이와 관계되는 문제는 소비에트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국민으로 부터 복종을 강요할 수 있으며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열성까지 강요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방식이라 하겠다. 그러면 볼셰비키 지도자들이 민족주의를 일으키고 또 그들 국민들의 창조성에 대한 자랑을 느끼게 한 수 있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의 몇 가지를 말하라.

3. 소비에트 사회의 몇가지 특색과 미국 학생들에게 가장 혐오를 느끼게 하는 정치적 통제는 어떤 것인가? 소비에트 국가에 있어서 어떠한 인간 가치가 가장 희생을 입는가?

4. 전 소비에트 제도에 대한 가장 파괴적인 비판 중의 하나는 1956년 2월에 스탈린 시대의 범죄에 대해서 후르시초프가 행한 비밀 연설이었다. 이 문헌에서 폭로된 소비에트 경찰 테러의 어떤 면이 미국 학생들과의 토론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 스탈린의 범죄 중에 어느 것이 전체제도의 근본적인 부분이었는가?

5. 소비에트의 경제를 논하는데 어떤 지침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군대 부문에서 그렇게 급속하게 발전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주요한 약점은 무엇인가? 왜 적절한 가격 결정 제도가 없는가?

6. 소비에트 독재주의 자체가 소련으로 하여금 팽창주의를 취하게 만들며 또 침략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전체주의의 역학'이라고 불리는 것의 일 예이다. 우리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체주의적 이념이 자연적으로 그 이웃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가장 적절히 설명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왜 앞으로도 소비에트 제국주의가 계속할 것을 예상하게 되는가? 제2부에서 논한 공산주의 신조가 어떻게 이 소련 제국주의를 점점 증대하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만들게 되는가? 이것은 어느정도 동부 유럽에로의 소비에트의 팽창을 설명해 주는가? 어느 정도까지 민족적 제국주의가 이 지역에 있어서의 소비에트의 행동을 이념적으로 자극할 가능성을 완화하였는가?

7. 공산 국가들에 있어서, 억압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 가치가 보존되어 왔는가?

8. 공산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추종을 강요하는 의의는 무엇인가? 파스테르나크와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었는가? 그들의 최후는 어떠 하였는가? 인간 표현의 어떤 형식이 전체주의의 억압에 저항하는데 가장 효과가 있었는가? 어느 지역에서 소비에트 제도가 완화될 수 있는 전망이 있는가? 소비에트 문학 및 지성 사회에서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에 대한 박해에 대하여 깊은 불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레므린 정책을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 4 장

팽창과 분산: 오늘날의 공산세력

1. 공산주의 '연방' : 환상과 현실

가. 주제 개설

1945년 이래, 미국의 국가 보안에 유일하게 심각한 위협이 되어 온 것은 공산 국가들 중의 지배국으로서의 소련이었다. 어떻게 보면, 제2차 대전의 종전 이후, 미국의 모든 안정보장 노력은 소련의 세력이 그 이상 팽창 못하게 봉쇄하려는데 집중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문제 보다도 이 문제를 꼭 이해해야 하고, 또 우리는 세계 공산 제도에 있어서 모스크바(그리고 중공)의 위치를 정확히 평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소련과 그 위성국가들 및 동맹국들이 '미래의 파도'로서 그들 자신을 부각시킨 그 모습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단합된' 중·소 블럭이 팽창하고, 다음에는 스탈린 시대 이후에 폭발한 역사 세력에 부닥쳐, 분권화함에 따라 그 모습의 배후에서 변천하는 현실을 또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919년 3월에 레닌은 선언하기를 "전 세계적인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결말을 보게 될 세계 공산주의 혁명의 노선을 막을 세력은 이 땅 위에 어떠한 곳도 없다"고 하였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유물의 일부인 이와 같은 성명은 소련의 기대와 의도가 세계국가를 위한 명확한 설계도가 될 수 있다는 인상을 낳게 하고, 또 이 인상은 소련뿐만 아니라 서방세계에 있어서도 뚜렷이 인식되어 있다. 예를 들어 1959년 3월 7일 동독의 라이프치히에서의 연설에서 후르시초프는 다음과 같이 호언하였다. 즉"마르크스·레닌주의가 가르치듯이 전세계 규모로 공산주의가 승리를 거둘 때, 국가간의 경계선은 소멸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 민족으로 형성된 소련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의 최후의 승리'와 같은 유트피아적인 공산주의의 용어로 하거나 또는 '세계지배를 위한 소련의 청사진'과 같은 서방세계의 용어로 하거나, 그것을 들을 때에 마음에 그려지는 과정의 최후의 결과는 바로 그 속에서 모든 국가가 평등하지만 "동물농장"에서 적절한 말을 빌면 소비에트 러시아가 '보다 평등하게'될 세계국가가 될 것이다.

이 공산주의 '연방'의 인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실제 역사적 발전관계에서 현실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전쟁으로 결과된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 와해의 여파로서 해외에서 영원한 혁명의 불길을 올리려는 소련의 야욕은 그 시기에 서부 유럽에서 우세하던 객관적인 역사적 조건들 속에 어떤 토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동부 유럽의 접수와 그리고 1950년 2월 14일 모스크바에서 조인된 중·소 동맹과 함께 단결된 '중·소 블럭'의 인상은 후에 한국 전쟁 동안 전쟁터에서 시험된 현실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의 죽음과 더불어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티토의 유고슬라비아와 '블럭'사이에 균열이 생긴 1948년에 그 하나로 단결되었던 특색은 급속도로 변화해 왔다.(단결된 당의 인상은 한 당파가 세력을 잡았을 때는 항상 존재하며 따라서 민주적 중앙집권주의의 원칙을 통하여 그 계획을 수행한다. 가끔 당파주의가 한 당파의 지배보다도 분열을 가져오면 또 단결된 당의 모습으로 돌아 가기도 한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의 중·소 분쟁의 경우가 그런 경우의 하나가 될 수 있을것이다.) 동유럽 위성국가들을 하나의 단일 제도로 조직하려는 소련의 기도는 계속적으로 좌절되었다. 1953년 동부 독일에서 그리고, 1956년에는 폴란드와 헝거리에서 일어난 반란, 스탈린 격하운동, 소생하는 민족주의, 1961년에 시작한 소련 최고 지도자들에 대한 알바니아의 비난, 그리고 중·소간의 치열한 분쟁 등은 공산 진영의 '흔들릴 수 없는 결속'의 신화를 흔들어 놓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비록 동부 유럽 국가들에 있어서 훈련된

공산주의자들이 단결된 모습을 유지하려고 기도했으나, 사실은 그와는 반대로 나타났다. 공산주의 지배에 대한 수동적인 반항이 계속되었으며, 옵서버들은 가끔 서방 민주주의의 가장 반 공산주의적 동맹자들이 유럽의 철의 장막 배후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의해 왔다. 유럽 공동시장의 공산주의판을 창설하려던 소련의 기도까지도, 또 모스크바가 지도하는 상호 경제 원조 회의, 바르샤바 조약 및 나토를 본 딴 합법적인 동맹까지도 각 나라의 의견 차이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중·소 분쟁 만큼 공산 '연방'을 성공케 하는데 어려움을 폭로한 것은 없다. 공격과 반격의 서류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분쟁에 참가한 쌍방은 서로의 진영 내의 당파주의를 폭로했으며, 또 공산 진영외의 공산당들 내의 지도권이 크게 분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쟁 쌍방이 각기 자기의 방법이 공산주의의 세계적 승리를 가져 오고, 단결된 세계 공산 '연방'을 확립하는 최상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공 공산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1964년 2월 14일 연설에서(이 연설은 소련이 4월 3일까지 발표하지 않았다.) 소비에트 중앙 위원회 서기 스스로프는 '공산주의를 위하여' 세계적인 투쟁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고, "공산주의의 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끈질긴 운동은 우리 당이나 모든 소련 국민이 국제 노동자 및 공산주의 운동을 위한 그들의 최고의 국제적 의무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결론을 지었다.

중·소 조약 15주년 기념일인 1965년 2월 14일의 북경에서의 환영석상에서 소련 대사 체르보넨코는 그의 청중들에게 전반적인 통일 목표를 상기시키면서 말하기를, "소비에트 공산당과 정부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푸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흔들릴 수 없는 토대 위에 입각하여, 의견 일치와 통일을 이룩하고, 중·소 우호를 또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우호를 공고히 하는 것을 그들의 최고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였다.

나. 강의 방법

강의는 공산주의자들이 '세계 혁명' 또는 '세계 지배'를 추구하는 그 기

원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원에 대해서는 굿드맨이 그의 저서 "하나의 세계국가를 위한 소련의 구상"에서 취급하였다. 궁극적인 이념상의 목표와 국가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업무간의 구별을 명백히 지어야 하며, 또 이 문제는 바링턴무어의 저서"소련의 정치권제의 함정"에서 폭로되었다. 이념과 대외 정책 간의 관계에 관한 영원한 분쟁을 재검토하야하며, 그리고 어떤 주어진 시기에 '일반 노선'에서 정해진 독단적인 입장과 러시아 국가 이익 간의 모순에 대하여 강조해야 할 것이다. 알렉산더 달린이 모은 논문집 "세계 문제에 있어서 소련의 역할"에 나오는 '이념과 힘의 정치'에 관한 논문들은 이 문제에 대한 유용한 문헌이다.

이런 선에서 이념적 및 정치적 테두리를 마련한 다음에 강사는 위성 지역들 내에서 왜 반소비에트 그리고 반 로시아적 사상이 움텄느냐에 대해서 이해시키기 위하여, '동부 유럽에 있어서의 소련 제국주의'(제3부 제5과)에 관한 강의에서 상세히 검토된 바 있는 동부 유럽에 있어서의 소비에트 팽창 과정을 검토할 수 있다.

강사는 다음에 소련이 단결을 유지하고, 또 그들이 수중에 넣은 지역에서 결속을 촉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다시 말하면 군대의 지배, 군사 동맹, 사회적 및 문화적 교환, 경제적 합의와 조직, 공산당 지도자들의 회합 및 경찰 활동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특히, 스탈린 격하시기에 크렘린 지도자들이 직면한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묘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 특히, 철의 장막 뒤의 경제적 및 문화적 결점들과 그리고 그들의 국민들로 하여금 공산당 지배나 또는 공산 연방에 대하여 열성을 가지게 하는 데 있어서의 공산 지도자들의 실패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경제 정책에 관한 루마니아와 소련 간의 이견과 같은 예들을 들어, 소비에트 제국에 악영향을 준, 점점 증대해 가는 불쾌감을 지적해 주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강사는 현재의 중·소 분쟁 배후의 주요한 이념

및 실제 요인들을 암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념적 문제들이란 '평화공존'에 대한 서로 다른 작전, 저개발 국가들에 있어서의 혁명적 엘리트들의 역할, 공산주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전쟁의 이점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몇 가지 실제 분쟁 문제들은 중공의 핵능력에 대한 야심, 두 당이 서로 조직에 간섭하려는 기도,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경쟁, 중·소 국경에 관한 영토 분쟁, 인도와 중공의 국경 분쟁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의 의견의 불일치 및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의 문제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소 분쟁은 동부 유럽 공산 국가들의 정책에 있어서 다양성과 분쟁을 북돋아 주었다. 몇몇 국가들 (예를 들면, 루마이니아) 이 세력을 더 얻기 위해서 중·소 분쟁을 이용했다는 것과 또 위성 공산당들 속에 당파가 생겼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관계에 있어서 공산주의 운동사를 통하여 당파주의가 끊치지 않았지만, 동시에 민주적 중앙집권주의가 우세해야 한다는 레닌의 견해와 부합하는 단일 견해가 계속 승리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당파적 분쟁 끝에는 단결된 견해로 돌아 왔다는 사실은 다중심주의의 성장이 공산주의 세력의 쇄퇴를 의미한다는 미숙한 낙관주의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강사는 최근 몇 해 동안 중소 간에 교환되어 온 많은 논쟁들이 설명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963년 7월 14일에 소련 공산당원들에 보낸 소비에트의 '공개장'은 일년이 지난 후에는 중공 공산주의자들로 부터 아홉번의 공식적인 반응을 받았는데 여기서 중공 공산주의자들은 소련 지도자들을 규탄하며, 후르시초프를 지독한 말로 비난하였다. 이들 해답 속에서 중공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국가들 내에서 집권하고 있는 공산당 또는 '형제' 당들 간의 관계를 다스릴 수 있게 할 통일, 조화 및 비밀의 원칙들에 거듭 거듭 언급하였다. 그런 논쟁들의 대부분이 강의에 활기를 주고, 또 공산주의자들의 강렬한 감정을 설명하는데 이상적인 재료가 되는 것이다.

다. 필수 독서

R.N. Carew Hunt, Samuel L. Sharp and Richard Lowenthal, "Ideo-ogy and Power Politics", Soviet Conduct in World Affairs, ed., Al-exander Dallin(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0), pp. 37—74.

라. 선택 독서

Zbigniew K. Brzezinski, The Soviet Bloc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467 pp.

(공산국가들 사이의 관계들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인데, 이념과 권력에 대해서 특히 강조하고 있고, 또 공산국가들 사이의 단결이 점차로 저하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

Alexander Dallin (ed.), Soviet Conduct in World Affair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0) 318 pp.

(소련의 대외 정책의 야심과 행위의 여러 면을 취급한 자극적인 분석적 논문들을 모은 것이며, 소련의 이념, 대외 정책, 국가 이익 및 권력 정책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Harry Hamm, Albania—China's Beachhead in Europe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3), 176 pp.

(1961년 알바니아를 방문한 독일 저널리스트가 스탈린 시대의 알바니아의 조건들을 조사한 것인데, 후르시초프와 알바니아 지도자들 간의· 차이와 곤란한 문제들도 분석하고 있다.)

Elliott R. Goodman, The Soviet Design for a World Stat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0), 488 pp.

(공산주의 이론과 성명들 및 행동들을 단결된 공산당 지휘하의 세계 국가 창설에 중점을 두고, 역사적으로 또 분석적으로 취급한 것. 저자는 이 목표를 소련 지도자들이 한번도 포기해 본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George F. Kennan, Russia and the West Under Lenin and Stalin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61), 411 pp.

(소련과 서방 관계에 관한 미국의 전문가가 역사적 전망에서 객관적으로 권위있게 재검토한 것. 재치 있게 그린 묘사이다.)

Jan Librach, The Rise of the Soviet Empire: A Study of Soviet Foreign Polic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4), 382 pp.

(후르시쵸프의 '평화공존' 정책에 이르기 까지의 소련의 외교사.)

Gunther Nollau, International Communism and World Revolution: History and Methods (London: Hollis and Carter, 1961), 357 pp.

(국제 공산주의의 조직과 방법을 취급한 독일 원본을 번역하여, 수정한 것인데, 대체로 학술적이고, 분석적이다. 마지막장 '오늘날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특히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현 추세를 평가한데가 중요하다.)

Stefan T. Possony, A Century of Conflict: Communist Techniques of World Revolution (Chicago: Henry Regnery, 1953), 439 pp.

(세계 공산주의 국가 창설을 위한 소련의 정복 기술과 분쟁 조절에 대한 분석인데, 특히 스탈린 시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Hugh Seton-Watson, From Lenin to Khrushchev: The History of World Communism, 2nd ed.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0), 532 pp.

(모스크바의 지도를 받은 세계 공산주의의 대두와 팽창에 대한 훌륭한 일반적 고찰이며, 역사적 분석이다.)

마. 토의 문제

1. 소련의 세계 지배 야망은 마르크스주의 역사관 및 혁명관과 어떻게 관련되어 왔는가? 제1차 세계 대전 후 '영원한' 또는 '일사 천리의' 혁명에 대한 희망은 실현되었는가? 제2차 세계 대전 중의 군사 작전이 어떻게 전후의 공산주의 접수에 이바지했는가?

2. 일반적으로 이념과 대외 정책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관계

는 민주적 제도 또는 전체주의적 이념 및 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가?

3. 실제에 있어서 일반 당 노선에서 나타난 이념과 러시아 국가 이익간의 갈등은 어떻게 타협되어 왔는가? 일반 당 노선의 변경은 러시아 국가 이익의 재평가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가?

4. 스탈린 격하로 폭발한 세력과 소생한 민족주의는 동부 유럽 위성 국가들을 지배하는 소련의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중•소 분쟁은 '단결된 중•소 블럭' 배후의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2. 중공 : 정치적 지배의 새로운 차원

가. 주제 개설

모택동 밑에서의 중국 공산군대의 승리와 1949년 10월 1일 그 신 수도 북경에서의 중국 인민공화국의 선포는 공산 블럭의 또 하나의 조그만 위성 국가를 첨가하는 이상의 일이었다. 가장 긴 계속적인 역사와 또 철학 및 창조력에 있어서 풍부한 문화를 가진, 세계의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은 공산진영에 있어서는 무서운 노획물이 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에 소련의 지시와 지지하에 창설되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길고 쓰라린 단호한 투쟁을 벌여 왔던 것이다. 1928년 모택동과 주덕의 지도하에 붉은 군대는 동남 지나에 기지를 구축하고 또 3년 후에는 최초의 중국 소비에트 공화국을 그곳에서 선포하였다. 모와 그의 일당은 장개석하의 국민정부군에 의하여 제거될 때까지 때리고 도망치는 작전, 난폭한 토지 개혁 그리고 테러 정책을 벌여 왔다. 공산주의자들은 서북중국에 있는 쉔씨에 후퇴하여 예난에 새로운 수도를 수립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유명한 승리적인 '대장정'이라고 부르는 후퇴과정에 있어서 모택동 1935년 1월 13일에 중국 공산당의 주석으로 명명되었는데, 이 지위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1937년의 일본에 의한 침략은 공산주의자들의 무장반역을 제거하기 위한 장개석의 기도를 방해하고, 모택동에게 공산당 지

배하의 지역을 확장하고, 최후에는 중국 전토를 장악하려는 투쟁을 벌릴 기회를 주었다. 이 기간 중에 모는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자로서의 스탈린과 소비에트에 충성을 다하였나.

일본 침략자들에게 대항하여 국민 정부 군대들이 전적으로 싸움을 맡은 이 전쟁 동안에 모의 군대는 일본 전선 배후에서 게릴라 전술에 전력을 집중하고, 또 그들의 조직과 힘을 기르고, 심지어는 국민정부 군대와도 싸웠다. 학생들과 지성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은 대부분의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온건한 정책을 취하고, 또 중국의 합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거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 정부는 통화 팽창, 혼란 그리고 일본인들에게 중국의 산업과 힘의 중요 중심을 상실하는 등의 문제로 곤란을 당하고 있었다. 많은 미국인들을 포함한 외국인들과 중국인들은 공산주의 노선의 전술적인 변경에 오도되어,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온화한 농업혁명가가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들은 모 및 그의 동료들의 광신주의적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가장 난폭한 원칙들에 대한 그들의 헌신 또는 중국의 최후의 해방을 위하여 훈련된 간부들을 훈련하려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집중된 노력등을 알아 차리지 못하였다.

히틀러의 '마인캄프'가 독일을 위한 나치 독재자의 계획을 명백히 한 것과 마찬가지로 명백하게 폭력 정책과 계급 투쟁을 선언한 "지구전에 관하여"와 같은 모택동의 저서를 읽으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일본 전선 배후에서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집중된 노력은 공산 주의자들이 적과 싸우는 유일한 군대라는 인상을 조성하고, 또 농촌 지역에서의 지지를 그들이 획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주는 데 기여하였다.

일본과의 전쟁이 종식함에 따라 국민정부 군대들과 공산주의 군대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이 때에는 모택동은 무수한 젊은 열성분자들을 훈련하여 중국 도시들과 농촌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을 돕게 하였다. 장개석 정부와 스탈린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소련군대들은 일본의 무기와 만주에 있는 무기를 적군에 물려주고, 또 그곳에 미국 배들이 운반해

간 국민정부군대들의 상륙을 저지하였다. 미국은 평소 돌아 가기를 갈망하며, 중국에 있어서의 대규모의 내란이 폭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을 포함한 연립 정부를 수립할 것을 추진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오히려 모택동당의 위신과 그 합법성의 주장을 높여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았다. 중국에 있어서의 정전과 정치적 타협을 위한 워싱턴의 압력은 오직 국민 정부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었을 뿐, 공산 주의자들은 오히려 전술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일시적인 휴전을 마련하는 데에 이러한 압력을 이용했던 것이다. 국민 정부 군대들은 1948년에 만주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고, 다음 해에는 공산주의 군대들이 전 중국 본토를 통하여 승리하게 되었다.

일단 권력을 잡은 후에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일련의 운동과 숙청을 개시하여 전국을 통하여 그들의 지배력을 통일하고 또 반항의 모든 중심을 제거하였다. 중국 농촌에 공포를 주었던 그들의 '토지 개혁'은 무수한 농민들에게 죽음을 가져 왔다. 사형은 공산주의 간부들에 의하여 공공연히 집행되어, 계급 투쟁의 개념은 농촌에까지 퍼지게 되었다. 종교적 질서, 기업가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제거하기 위한 운동과 또 공업 및 가정 생활을 지배하려는 운동은 서로 융합하여 계속되어 나갔다.

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동원에 있어서의 중국 공산당의 기술은 스탈린 전성시대의 소련을 본 받아 왔다. 자아 비판, 숙청, 복구, 강제노동 그리고 상호 책임등과 같은 공산당의 기술들은 강화되고, 여태까지는 없던 그러한 대규모에 까지 확대 되었다. 공포로써 가득찬 경찰 국가적 분위기 속에서, 중국의 거의 전체 인구가 지배의 목적과 사상주입을 위하여 동원되어 '연구 집단"을 형성하였다.

중국 국민들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의 모택동의 성공은 아마도 1958년에 시작한 인민 공사와 함께 '대약진 운동"의 비극적이고 실패한 실험으로써 가장 잘 상징되었다. 발광적인 3년 동안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빈곤한 나라를 대공업 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대중의 노동력을 과학이나

기계와 대치시키려고 기도하였다. 이 거대한 실험은 중국 국민들에 대해서 실패와 굶주림과 고통으로 끝나고 또 국민 정부하의 대만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은 인간적 희생이 없는 진정한 토지 개혁의 성공과 공업 발전을 중국 경제 문제에 대한 중요하고도 지구력 있는 해답으로서 더욱 뚜렷하게 보이도록 부각시켜 주었다.

점점 증대해 가는 불만, 경제적 실패 그리고 소련과의 불화에도 불구하고, 모택동 밑의 1천8백만 중국 공산당원들은 동남아시아의 어디에서나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또 모든 미개발 국가들에게 혁명적 폭력의 근원이 되는 무서운 전체주의 국가를 수립할 수 있었다. 스탈린의 러시아에서와 같이 생활의 다른 모든 면들은 순전히 군사력 건설에 예속되어 왔다.

나. 강의 방법

강의는 중국이 극동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도전의 핵심임을 인정케 하는 지리적 및 역사적 사실들을 고찰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강사는 주위의 지역에 대한 중국인들의 전통적인 태도와 또 이러한 태도가 공산주의의 세계적 승리를 다짐하는 모택동의 약속으로 더욱 강화되리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짧은 교과 시간에, 공산당의 작전, 소련의 지원 및 중국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이 승리하도록 도와 준 미국의 잘못 등등의 얽히고 복잡한 역사를 모두 설명한다는 것은 확실히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강의는 모택동의 정부가 그들이 정권을 장악한 그 방식을 미개발 식민지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취한 고전적인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있다. 모택동의 중국은 그 발전에 있어서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의 '순수성'을 충실하게 모방하려고 애썼으며, 또 모택동은 전 소련 수상 후르시초프를 유일하고도 진정한 노선에 대한 반역자라고 보았다. 후르시초프의 후계자들도 역시 모택동의 분노의 표적이 되어 왔다.

강의의 대부분을 중국 공산국가의 전체주의적인 성질의 분석에 할당하

는 것이 좋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들에 의해 임의로 통치되는 중앙 집권적으로 조직된 단일 국가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인 국가 구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최고 공산주의자들 중의 하나인 리후천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당은 정부를 다스리는 당이다." 이 새로운 중국 전체주의의 둘째 중요한 특색은 당이 그 이념을 전 사회에 퍼지게 하려고 기도한 그 방식이다. 모택동 사상은 중국에 있어서 생활의 모든 면에 적용될 수 있는 틀림 없는 진리로서 설명되고 있다. 사상 주입은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라안의 모든 집단에까지 과해 진다. 예술, 문학, 교육 기타 인간 활동의 모든 표현들이 무미건조한 일정한 양식의 테두리 속에 들어 갔으며, 따라서 이 사실로 해서 소련과 동부 유럽 공산주의자들까지도 그들의 중국 동무들을 염려하게끔 되었다.

중국 공산정부는 또한 모택동이 현재의 지도자이며, 탁월한 인물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진리의 독점자이며, 그들은 외부 세계에서 배울 것이 별로 없으며, 또 그들의 길이야 말로 다른 사람들이 따라야 할 길이라는 중국 최고 공산주의자들의 확신이 바로 중공 정부로 하여금 광신주의를 가지게 하였다. 전체주의 구조내에서는 지도자들은 점점 더 교조주의자들이 되었으며, 또 세계의 현실과 변천으로 부터 소외되어 왔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군사력 건설과 중공 인민들의 동원에 치중했다는 사실이다. 대중 행진, 의용군 운동, 인민 집단의 실험, 시위등으로 상징되는 중공 대중의 동원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군중을 그들의 명령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지도자들에게 주는 황홀한 기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전체주의적 지배는 공산당이 통신수단을 독점장악하고 있기때문에 더 강화된다. 강의는 이것 때문에 중국에는 비공식적 견해가 없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여야 한다. 또 공업 분야에 있어서 정부가 이룬 많은 업적들이, 현대 과학과 공업의 놀라운 발전에 대

해 경악을 느끼고 있는 민중에게는 마력적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제 중공도 핵국가가 되었으므로 이 인상은 이중으로 강화될 것이다.

다른 전체주의 정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공은 외부로부터의 적과 내부의 희생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투쟁 개념을 촉진하고 있다. 오늘날 중공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리적 설복과 강제의 기술을 분석하려면, 투쟁 개념이 모든 큰 사건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강의는 공산주의자들이 중국에서 구축한 일석주적인 통치구조에도 취약점과 결점이 있음을 분석함으로써 끝낼 수 있다. 지성인들의 계속되는 불만과 중국 농민들의 소극적인 저항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재료는 얼마든지 있다. '대약진 운동'의 실패에 뒤따른 경제적 파탄과 식량 부족을 볼 때, 공산주의자들이 중국을 대공업 국가로 급속히 발전시키려는 노력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인구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문제들을 강조하게 되면, 자연히 중공이 그렇지만 아직도 세계 무대에 있어서 무서운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전체주의 국가내에 내재되어 있고, 또 공산주의 신념에 의하여 추진되는 팽창의 욕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필수 독서

A. Doak Barnett, Communist China and Asia (New York: Harper & Brothers, 1960), pp. 1-37, 65-86.

Peter S.H. Tang, Communist China Today, 2nd ed., Vol. 1 Washington: Research Institute on the Sino-Soviet Bloc, 1961), pp. 71-123.

라. 선택 독서

Eric Chou, A Man Must Choose: The Dilemma of a Chinese Patriot

(New York: Alfred A. Knopf, 1963), 302 pp.

(중국 저널리스트가 중국 본토의 전체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경험한 쓰라린 경험과 또 한편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를 스파이라고 하여 홍콩에 돌려 보내려 하던 일들을 기록한 자서전적인 저술.)

Valentin Chu, Ta Ta, Tan Tan ("Fight, fight, Talk, talk") : The Inside Story of Communist China (New York: W. W. Norton Co., 1963). 320 pp.

(중공 정권에 대한 비판인데, 대약진 운동의 경제적 실패와 농민 및 지성인들의 점점 증대해 가는 소극적 저항을 강조하고 있다.)

Chang-to Hu, China: Its People, Its Society, Its Culture (New Haven: HRAF Press, 1960). 611 pp.

(공산주의 정부 하의 중국 사회의 전면에 대한 광대한 포괄적인 연구인데, 이 문제의 여러가지 면에 대하여 가치있는 참고가 되는 저술이다.)

Chalmers A. Johnson, Peasant Nationalism and Communist Pow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2). 255 pp.

(이 책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게 된 과정에 대한 해설이다. 이 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1장과 2장를 보라.)

John Wilson Lewis, Leadership in Communist Chin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3). 305 pp.

(중공에 있어서의 지도자 형태와 지도자 훈련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기능적으로 분석한 것.)

Robert Loh, Escape From Red China (New York: Coward McCann, 1962). 378 pp.

(중공 내의 통치의 방법과 모택동 독재주의의 부패한 성질에 대한 체험담을 그 곳을 탈출해 나온 한 중국인이 기록한 것이다.)

Mao Tse-tung, Selected Works, 5 vols. (London: Lawrence & Wishart, Ltd., 1955 and 1961).

(모택동 정권의 정책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택동 자신의 저작을 읽는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Mu Fu-sheng(pseud.), The Wilting of the Hundred Flowers: The Chinese Intelligentsia Under Mao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3), 324 pp.

(모택동의 독재주의를 중국 문화의 테두리 속에 넣고 의미 심장하게 해설한 것. 1957년 및 1958년의 건설을 돕기 위하여 중국에 돌아 왔다가 정부의 강압과 불순에 놀라 외부 세계로 도망친 한 엔지니아가 쓴 것이다.)

Peter S.H. Tang, Communist China Today, 2nd ed. Vol.I(Washington: Research Institute on the Sino-Soviet Bloc, 1961). 745 pp.

(중공의 힘과 그 국내 및 대외적 구체화를 포괄적으로 고찰한 것. 처음 9개장은 모택동으로 하여금 그의 국토를 지배케 하는 여러가지 조직망을 토대로 하는 국제적 지배력에 관하여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Tang Tsou, America's Failure in China, 1941-195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614 pp.

(모택동이 정권을 잡으려고 애썼던 중요한 시기의 중국에 대한 미국정책의 많은 실패와 무정견을 철저히 고찰한 것.)

Richard L. Walker, China Under Communism: The First Five Year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5). 403 pp.

(모택동 정권의 처음 몇 해를 논한 것인데, 공산주의자들이 발전시킨 여러 가지 통솔의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중공을 통제케 하는 여러 가지 조직망을 이용한 심리적 통솔에 관해서는 특히 제3장을 보라.)

마. 토의 문제

1.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게된 과정은, 모택동과 그의 동지들이 구축한 정치 기구의 형태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2.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통제 조직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었던 중국의 전통적인 전제주의의 여러 가지 특색을 판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현대 기술로써 어떻게 뒷받침 되었는가?

3. 중공의 내부적 정치 및 경제 구조의 어떤 면들이 자유 세계에 대하여 의의가 있을상 싶은가?

4.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군사력에 그렇게 치중하는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하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가? 폭력의 효과에 대한 그들의 신념과 조직적으로 동원된 대중의 힘에 대한 그들의 신념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5.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이 고전적인 레닌•스탈린주의 혁명이념을 배반했다고 비난한다. 이런 비난을 옳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3. 중공의 제국주의적 야욕

가. 주제 개설

강대국을 지향하고 있는 중공의 노력은 서방이 무시할 수 없고, 또 그런 의미에서 소련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힘을 배양하려는 중공의 제국주의적인 야욕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은, 1950년의 티베트 침략과, 1959년의 티베트 접수, 1950년 한국동란에의 참전, 1954년 월맹에서의 혁명 성공, 1962년 라오스의 중립화와 그후 63년과 64년에 걸친 라오스에서의 중립주의자 제거운동, 월남에서의 활동과 그 침략, 그리고 1962년 북부인도에 대한 영토권 주장 등등에서 볼 수가 있다. 화교가 많은 버마, 태국 및 캄보디아는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그 많은 화교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다. 각 동남아 국가에는 현재 공산주의의 전위(前衛)가 활약 중에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공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대만에 있는 국민당 정부가 중국본토에 대한 권리를 계속 주장하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이다. 미국의 원조로 안전을 유지하며, 동남아에서 두번째로 가장 높은 생활수준을 달성한 국민당 정부는 모택동의 무류성(無謬性)과 필연성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되고 있다. 대만 문제를 자기 나름으로 해결할려는 중공의 결의는 1955년과 1958년의 위기로 나타났으며, 이때 중공은 국민당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금문 및 마조의 연안도서를 포격하고, '종이 호랑이 미국을 타도'하고, '대만을 해방'하기 위한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시작하였다. 대만을 제거하려는 모택동을 지원할 때 발생할 중대한 분쟁의 위험을 꺼리는 쏘련의 태도는, 수년에 걸친 두 공산 거대국간의 불화의 원인이 되어왔다. 중공은 1964년초 이점에 대해 공개사설에서 후르시초프를 신랄하게 공격하였다.

한국전쟁(1950~1953) 이후, 중공은 비록 큰 전쟁에의 개입을 피하고 있으나, 아세아 인접국에의 직접개입을 위한 능력배양에는 계속 역점을 두어왔다. 1962년 10월과 11월 모택동의 군대는 중·인국경선에서 인도군에게 치욕적인 참패를 안겨다 주었다. 이와 같은 군사력의 시위는,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중공의 외교정책이 군사적인 저돌행위로 변하기 이전에 일어난 것이다.

잠재적인 전쟁을 계속 발전시키고, 때로는 대거개입을 위협함으로써 중공은 중국의 인접지역에 대한 서방측의 개입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군사력 건설에의 강한 집념에 따라, 중공은 원자탄 및 유도탄 분야의 초기단계 개발에 착수하였다. 중국인민의 핵무장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핵전쟁이 치루어야할 대가(代價) 같은 문제에는 모택동이 아랑곳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되자, 쏘련은 1957년 10월의 비밀조약에서 중공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핵원조를 1959년에 중단하여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공은 1964년 10월 16일 제1차 핵장치의 폭발에 성공하였다. 이 핵폭발은 모든 중공 인접 국가에 놀라움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고, 각국은 잇따라 그 정책을 재고하게 되었다. 인도까지도 핵무기의 확보가 인도군

에게 필요하지 않을지 검토하게 되었다.

중공의 제1차 핵폭발은, 우라늄 235를 생산하는 값비싼 개스식 확산공장을 포함하여 치밀한 핵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서방측 전문가들은 중공의 유도탄 기술의 개발도 곧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중공의 핵개발 능력과 그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자, 역사적인 전례를 잘 알고 있는 동남아 각국은 국방력의 강화와 협력의 증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1949년 중국대륙에서의 공산정권의 출현으로, 전통적인 중국제국의 팽창정책이 실질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동남아 각국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티베트가 그 좋은 예가 된다.

오늘날 중공의 팽창정책은, 중공 정권의 국가이익의 반영으로도, 또 어떤 점에서는 세계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의무의 일부로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순전한 국가이익의 문제나, 안보문제 및 영토문제에 있어서는 중공은 항상 완고하고, 비타협적이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동 아시아에서 중공의 경쟁상태가 될 수 없도록 서방세력을 제거하는 것이 중공의 목적이다, 이 외에도 중국공산당 이론의 세계화 기도(企圖)도 그 목적이 되고 있다. 모택동의 영향력은 아직도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세력들에 의해 좌우되고있다. 미국의 영향력이 제거되지 않는한 중공의 팽창은 어느 한도에서 제한될 것이다. 중공의 단기 정책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중공정권은 이를 그 지상 목표로 삼고 있다.

중공이 직접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군사력의 개입이 불가능한 아프리카 및 남미와 같은 지역에서는 고문단과 기술자를 파견한다. 예를 들어 쿠바에서는 소련보다도 먼저 중공 기술자들이 활약하고 있었다. 폭력혁명의 지지와 공산주의의 정통이론에 대한 모택동의 새로운 견해는, 저개발국가들 특히 중공의 기술자들이 파견되어 있는 국가들에게는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중공 적색분자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및 남미지역에서

의 공산주의 운동에다 과격한 급진주의를 주입함으로써, 중공의 위치를 향상 시키고 있으며, 이는 소련의 경악과 분노를 사고 있다.

중공정권은 서구식 체제를 반대하고 공산주의 승리를 위한 투쟁을 맹서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마르크스의 가르침에 의하면 파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자본주의의 붕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경 지도자들은, 전쟁준비는 불가결하며,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저지해야 하며, 공산주의 운동의 호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모택동의 지구전(持久戰)전략 때문에, 중공이 그의 침략 기도를 간접적으로 조심성스럽게 진행시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침략의 속도가 빠르면 이는 서방측의 개입을 가져 오게 되며, 결국 증오하는 '제국주의자들'을 기정 사실화하게 되는 때문이다. 중공의 결의는 '민족해방전쟁'을 선동하고, 저개발지역에서의 승리로부터 시작하여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데 있다. 중공이 일으키는 문제들은 전세계적인 미국의 개입과 그 성격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다. 즉, 중공과 같은 새로운 강력한 힘의 중심지는 그 자체의 무게와 중요성 만으로도 냉정하고 깊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중공은 힘의 균형을 뒤집어놓고, 모든 인접지역을 위협하고 또 개입하고 있으며, 미국과 그 우방에 대해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나. 강의 방법

제일 먼저 검토할 문제는 세계사에서 특히 동 아시아사에서 중공이 차지하고 있는 그 중요한 위치이다. 역대의 중국왕조들 역시 제국주의적인 야심을 품고 있었으며, 그 세력을 전통적인 국경선밖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세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공산주의 이론은 이와같은 전통적인 중국의 제국주의적인 야욕에다 하나의 새로운 차원을 안겨 주었다.

모택동 정권의 이념적인 기초 즉, 불사론과 세계적인 계급투쟁의 불가

피성으로 보아 중공이 제기하는 위협의 시급성을 이번 강의에서 강조해야 할 것이다.

다음, 중공 정권의 세계관과 중공정책의 기초가 되고 있는 특정 원리들을 검토한다. 비록,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전면전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소련과 의견을 달리 하지만, 이 특정 원리들에 대해서는 소련과 거의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이 특정 원리들이란, 양대진영으로 나누는 세계관이라든지, 중립국과 신생국을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떼어 놓아 자본주의 국가를 약화시키는 방법이라든지, 긴장조성과 이의 완화를 활용하는 방법, 연합전선술 및 선전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다. 이와 같은 원리를 검토할 때는, 모택동 정권과 같은 전체주의적 정권에서는, 모든 관계는 중앙에서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원리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중공이 자유세계에 대해 대외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특정지역을 검토할 수가 있다. 중공의 대외무역 및 원조정책의 본질과, 아프리카와 남미지역에 까지 뻗치고 있는 중공의 게릴라 훈련과 그 지원성격등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중공의 인접지역의 각국에 산재해 있는 화교들의 그 결정적인 역활과 모택동이 이 지역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역사적인 요구 사항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만문제는 별도 강의로 다룰 성질의 것이다. 대만은 중공에 대한 항대항 정부로서, 본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이 대항정부가 존재하는 한, 중공의 본토지배는 항상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의 대외 정책의 주요 목표는 대만에 있는 이 다른 하나의 정부를 제거하는데 있다. 이 목표는 중공의 대미 적대의식과 관계가 있으며, 이 점이 중공 정치 활동의 두드러진 특성이 되고 있는 반미 운동의 본질을 철저하게 설명해 주는 요점이 될 것이다. 보이드 가 쓴 "중공의 대외정책' 과 같이 모택동의 신념에 관해 해설한 문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문헌들에 의하면,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세력이 철수하지 않는 한, 아시아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모택동의 신념이라고 한다.

또한 일본에 대한 중공의 신경과민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공은 소련이 독일에 대해 갖고 있는 것과 같은 병적인 편견을 일본에 대해 갖고 있다. 중공의 대일본 정책을 검토하게 되면, 전체주의적인 정권이 대외정책에서 자의로 행사하는 여러가지 복합된 형태의 압력수단을 연구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수단은, 갑작스런 무역의 중단, 위협, 방문자에 대한 안내여행 조치, 연합전선과 전선조직 및 선전 등으로 되어 있다.

중국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이기때문에, 이번 강의로 미국이 아시아에 개입하게 된 중요한 이유와 또한 모택동 정권의 국수주의, 폭력, 야욕등으로 말미암아 증대되고 있는 위협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할것이다.

소련의 회답이 있기전 중공이 보낸 지루한 서한에 대한 회답으로, 1963년 7월 14일 소련이 중국 공산당에게 보낸 공개서에 언급함으로써 이 강의는 종결된다. 소련은 핵전쟁에 대한 모택동의 이론뿐 아니라 해외에 주재하는 중공 외교관들이 취하는 인종적인 태도에 대해 개탄하고 있었다. 위의 1963년 7월의 소련이 공개서한과 1964년 2월 14일의 수슬로프의 연설에 대한 중공의 회담 성명은, 중·소간의 의견 차이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세계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양국의 공헌문제에 대한 많은 이면적인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다. 필수 독서

R. G. Boyd, Communist China's Foreign Polic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pp. 20~34, 53~64, 84~105.

라. 선택 독서

A. Doak Barnett, Communist China and Asia (New York: Harper & Brothers, 1960). 575 pp.

(아시아에서 증가하고 있는 중공의 영향력과 이 영향력이 서방에 던져주는 문제들을 냉정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pp. 172~210, 291~336을 보라.)

S. Chandrasekhar, Communist China Today (London: Asia Publishing House, 1961). 199 pp.

(인도의 저명한 사회과학자가 쓴 흥미있는 책으로, 중공인민뿐 아니라 인민공사, 중공의 티베트 침공 및 중·인관계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Chow Ching-Wen, Ten Years of Storm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0). 323 pp.

(중공정권에서 고위직책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직접적인 지식을 토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과에 대해 가장 흥미있는 부분은 중공의 대외정책에 대해 서술한 제13장이다.)

Alice Langley Hsieh, Communist China's Stategy in the Nuclear Era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62). 204 pp.

(모택동정권의 대외정책과 군사전략과의 관계를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다.)

Werner Levi, Modern China's Foreign Policy(Minneapoli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53). 399 pp.

(비록 오래된 책이지만, 중공의 대외정책을 그 국내정책과의 관계에서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화교정책의 근원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음.)

Herbert Passin, Chinas Cultural Diplomacy (New York: Frederick A · Praeger, 1963). 133 pp.

(문화교류와 선전을 통해 특정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중공정권이 집중적으로 경주하는 관심을 조사 분석한 것이다.)

Harry Schwartz, Tsars, Mandarins and Commissars : A History of Chinese-Russian Relalions (Philadelphia and New York: J. B. Lippinc-

ott Co., 1964). 252 pp.

(1963년 10월까지 이르는 중·소분쟁 이면의 국가 이익과 적대의식에 대한 개관. 중공의 제국주의적인 의도와 야욕을 설명.)

Richard L. Walker The Continuing Struggle Communist China and the Free World (New York: The, Bookmailer, 1962). 155 pp.

(중공의 공식 간행물에서 발췌한 내용을 토대로 한 중공 대외정책의 간명한 분석서. 저자는 중공 정권이 대외정책 분야에서 이용하고 있는 중공의 조직력을 분석하고 있다.)

Guy Wint, Communist China's: Mao's Road to Power and the New Campaign for World Revolution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5). 136 pp.

(저개발 국가에서의 혁명을 위한 중공의 전략을 극동에서의 소련의 훈련과 음모의 배경과 함께 저명한 영국의 아시아 문제 전문가가 간략하고 읽기 쉽게 다룬 것이다.)

마. 토의 문제

1. 무엇이 중공으로 하여금 팽창을 지향하게 하는가? 이와 같은 경향은 주로 '국가이익' 때문인가, 아니면 제국주의적인 야욕 때문인가? 그리고 공산주의 이념은 이와 같은 경향을 어떤 식으로 더 강화시키고 있는가?

2. 아시아에서의 중공의 단기 목표는 무엇인가? 왜 아시아 지역에서 제1차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고자 하는가?

3. 중공은 무슨 이유로 티베트를 침공했는가? 그후 인도의 침공이유는 무엇이었으며, 인도는 중공에 대해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가?

4. 단기 대외목표 및 장기 대외목표에 대한 공산당의 태도는? 그 태도가 다른 이유는?

5. "정치권력은 무력에서 나온다"는 모택동의 말이 뜻하는 대외정책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이 미국에 대해 갖는 의미는?

6. 아프리카와 남미를 통해 공산주의를 수출할려는 중공의 노력으로 보

아, 이 지역에서 실제로 중공이 '위성국'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가?

4. 획일성 강요의 침식 : 불화와 분열

가. 주제 개설

소위 공산당의 무류성(無謬性)은 세계운동으로서의 공산주의의 한 특성이 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당 이론의 진실성은 모스크바의 권력중심부에서 나오며, 스탈린 지도하의 위성국들과 동맹국들에 정치적·사회적 발전형태의 획일성이 강요된 것이었다. 2차대전 이후 동유럽에 대한 소련의 지배가 확대되고 중·소동맹이 성립하게 되자, 이와 같은 획일성의 강요 문제는 좀더 복잡하게 되었다. 새로운 공산주의 국가의 등장으로 인한 중앙집권화된 권위체제에 대한 도전은, 공산국가들 간의 정치적·경제적 관계뿐 아니라, 전에는 신성불가침으로 생각되었던 공산주의 이론과 교의의 분야에까지도 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사태발전은 소련의 지위와 권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세공산주의 운동에서 소련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던 그 절대적인 권위와 무류성에까지도 심각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사태발전의 배경과 그 현재의 의미는 앞으로 계속될 투쟁에서 자유세계와 공산세계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세계공산주의 운동의 범세계적의 전위로서의, 모스크바의 이미지는 중공과의 공개적인 이념 투쟁에서 도전을 받아왔다. 소련이 이념면에서 그 무류성을 상실하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일부는 정치적인 면에서 또 일부는 경제적인 면에서, 자국의 특수한 문제와 상황에 따라 공산주의 이념을 자국화 시킨 것이며, 둘째는, 즈비그뉴 브르제진스키가 말한 바와 같이, "소련지도자들은 하나의 공산주의 국가를 다스리기 보다는 여러 공산주의 국가를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공산국가들이 소련의 지배로부터 일탈하고 있는 예는 1과에서 언급하

였다. 고물카는 소련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1947년에 가서는 폴란드의 민족전통을 옹호하게 되었나. 1948년의 유고와 스탈린과의 결별은, 주로 티토가 소련의 방식이 아닌, 독자적이고 민족적인 '사회주의에로의 길'을 계속 주장하였기 때문에 더 심화되었다. 각 국의 국가이익의 다양화는 소련에게 문제가 되었다. 즉, 티토주의는 앞으로의 추세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징후에 불과했다.

티토와의 논쟁에서 당황한 소련은, 공산진영내에서 국가이익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일탈주의자로 선언하고, 독창적인 견해나 그들 자신의 국가적인 견해를 가진, 위성국의 몇몇 지도자를 숙청 제거하였다. 그리하여 스탈린의 이념적인 권위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것으로 되었고, 각 지역 공산지도자들은 다투어 모스크바에 충성을 다짐하게 되었다.

스탈린 체제와 소련이 그때까지 견지하고 있던 상징적인 의미가 즉각 변한 것은 아니다. 새 소련 지도자들은 국내, 국외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었다. 스탈린이 갖고 있던 것과 같은 강력한 개인적인 권한은 아무도 유지할 사람이 없었다. 즉, 여건이 변했으며, 새로운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각 위성국들 간에는 좀 더 넓은 이념적인 다양화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후르시초프는, 그의 권력을 강화하고 난 후, 유고를 실제적인 공산진영의 일원으로 복권시키려고 기도했다. 즉, 독자적인 노선이 이제는 일탈주의가 아님을 인정하게 되었다. 다른 공산국가에서의 반응으로 보아, 비록 느리기는 하지만, 소련의 지배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53년에 벌써 동독에서는 봉기가 일어 났다. 그 후 1956년에는 소련의 호전성에 대한 반항으로 폴란드와 헝거리에서 대중봉기가 발생하였다. 후르시초프는 고물카를 복권시킴으로써 폴란드에서는 양보를 했으나 헝거리에서는 소련군을 진주시켜 무자비하게 봉기를 진압하였다. 헝거리에서의 소련의 행동은, 무엇보다도 공산주의가 집권하고 있는 곳에서 일탈성향이 발

생하였을 때는 이를 분쇄해 버린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 주었다. 소련이 직접 지휘하고 중공이 뒤에서 종용, 묵인한 폭력행위에서 학생, 노동자와 심지어 공산당원까지도 처형되었다.

획일화의 침식현상과 소련의 스타린 격화 운동으로 인한 분열과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후르시초프가 제안한 신노선의 암시 등등에 대해 중공은 심한 반발을 보였다. 먼저 중공은 비공개로 개최된 당회의에서, 소련의 신노선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배치된다고 항의하였다. 1960년에 가서는 전략과 이념 문제에 대한 견해차이의 폭이 더 커졌으며, 중공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소련을 논박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공산 국가와 공산당들은 중공과 소련중 어느 한 편에 따르기 시작하였다. 예를들어, 1962년 말 알바니아는, 소련의 입장에서 보아, '이단자'로서 공산진영에서 파문되었다.

1963년 여름, 두 가지 중요한 문서에서, 중공과 소련간에 존재하던 의견의 차이점이 전면적으로 세계에 알려졌다.

6월 14일, 중공은 25개 항목에 달하는 상이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서한을 소련 공산당에 발송하였다. 1개월후 소련 공산당은 그 당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형식으로, 중공의 지도력과 지도자를 통렬히 공박하고 중공의 '사실무근하며 모략적인 공격'을 비난하였다. 이제 양대 공산당은 전 세계 공산당들로부터 지지를 구하게 되었다. 중공은 특히 1963년 7월 25일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및 소련이 조인하고, 그 이후 각각 인준된 핵실험 금지조약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하였다.

중·소와 그들 지지자들 간에 논란이 되는 차이점은 주로 이념적인 것이나, 이 외에도 실질적인 문제점들이 있음이 분명하다. 즉, 공산진영 내부의 경제문제들을 포함해서, 당시 모택동의 후르시초프 실각 기도 및 공산주의자들의 세력 평가와 핵무기에 대한 견해차이 등이다. 1964년에 가서, 소련은 모택동의 개인숭배를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1964년 2월 14일 수슬로프는 그의 연설에서 "모택동의 개인숭배가 중국

공산당의 활동에 점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침묵을 지킬 수 만은 없다. 개인숭배 이론과 그 실천은 중공지도자들 사이에 광범위한 권력지향 풍조를 출현시켰다."고 하였다.

비록 공산주의자들의 분열이 확실시 되지만, 여전히 마르크스·레닌주의에의 신념을 되풀이 하고 있으며, 세계공산주의 승리의 쟁취를 맹서하고 있다. 1963년 7월 14일 소련 공산당 지도층은 당원에 대한 서한에서 "소련 공산당은 사회주의 국가들 및 전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지지하며, 또 지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티토와 스탈린간의 결별시와 같이 중·소 양 공산당은 아직도 '제국주의' 진영을 가장 큰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소련과의 분쟁이 극도에 달하고, 또 미국이 유고를 원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고는 유엔에서 소련을 지지하는 투표를 하였다. 이 사실은 비록 유고가 중소 분쟁에서 초연한 위치를 지킨다 하더라도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1963년 12월 북경과 모스크바가 서로 극도로 치열한 논란을 벌리고 있을 때, 중공 수상 주은래는 카이로에서의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면, 중공과 소련은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원리에 대해 중공과 소련사이에는 서로 심각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러한 원리의 해결로 끝나리라 믿는다. 이와 같은 분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국가는 확실히 패배하게 될 것이다. 중공과 소련은 사회주의 진영에 속하고 있음을 기억해 두라."

나. 강의 방법

이 강의는 먼저 유고와 소련을 결별시킨 이유와 사건들을 토의함으로써 시작한다.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폴란드와 유고에서 일어난 민족주의적인 경향으로 소련은 당황하였다. 스탈린의 전체주의적인 지배가 타격을

받은 것은 물론이며 당의 사기도 많은 타격을 받았다. 전쟁으로 인한 혼란과 분열이 정치적인 통제를 상대적으로 완화시킨 원인이 되었다. 소련 자신도, 전쟁의 손실을 보전하고, 개혁이 시급했던 공산당의 재건을 위해 시간이 필요 하였었다. 그러나, 1948년 유고의 도전은 소련 지도력의 확립을 절실히 필요하게 하였다.

1948년부터 1953년 스탈린의 사망시까지, 소련의 보호하에 있던 공산주의 세계는, 소련을 그 중심에 두고 비공산주의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의 현관만을 열어 놓고 있었다. 중공까지도 소련의 '일반적인 노선'을 추종했을뿐 아니라, 스탈린을 격찬·존경 하였다. 당노선에 대해 비록 온건하나마 비판을 하였던 위성국의 지도자는 즉시 국살되고 또 숙청되었다.

이번 강의에서 강조할 점은 주로 스탈린 후기에 대해서이다.

먼저, 새로운 집단지도제는 당파적인 권력투쟁으로 말미암아 약화되었으며, 후르시초프가 그의 개인적인 권력강화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공산주의 운동에서 어떤 확정된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도 않았다. 이 과도기간 동안의 '집단지도제'의 약화로 말미암아 모스크바 중심의 권력체제에는 어떤 침식현상이 일어나 되었다. 특히 동구의 청년층에서 발생했던 동독, 폴란드, 헝거리의 봉기를 포함해서, 소련의 지배에 대한 공공연한 항거운동의 실례와 공산주의 및 그 방법에 대한 거부의 증거들을 들어 주면 더욱 좋다.

소련 공산당 20차 대회에서의 사건과 이 사건이 공산진영에 미친 영향을 부각시킨다.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의 과오를 비난한 것은 이 20차 당대회의 비밀연설에서이다. 후르시초프의 '평화공존', '사회주의에로의 여러 갈래의 길' '전쟁은 이제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는 등의 새로운 공식을 채택한 것도 역시 이 20차 당대회에서였다. (후르시초프의 이 같은 구호에도 불구하고 서방에 대한 적대의식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5장 1과 참조). 중·소분쟁은 이 때부터 여러가지 면에서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모택동과 그를 추종하는 북경의 공산주의자들

은 후르시초프와 그의 후계자들이 내세운 공식과 전략을 거부하고, 세계 공산주의 정책수립에 좀 더 강한 발언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이 강의는 극단적인 표현으로까지 확대되어 공산주의 진영의 단결을 계속 파괴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하여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민족적이고 문화적인 차이점으로 인해서 공산주의에서 의도하는 통일성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다. 1964년 권력에서 축출된 후르시초프의 경우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개인적인 투쟁과 불화는, 권력투쟁이 공산당 생활의 특징이 되어 있는 공산국가에서는 특히 더 심하다. 경제적인 문제와 대외무역관계는 공산진영 내부에서 불화가 계속되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소련과 중공간의 문제 및 상호경제협력회의 내부의 문제, 즉 예를 들어 루마니아와의 관계등은 이와 같은 경제적인 갈등이 계속될 것임을 보여 준다. 군사적인 전략, 핵무기의 균점 및 중립국에 대한 정책 등의 불화는, 바로 중공과의 불화가 보여 주듯이, 가까운 장래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이와 같은 갈등 요인들을, '우애로운 유대', '공고한 단결'과 같은 공산 중심부에서 흘러 나오는 빛나는 어휘들과 비교해, 보여 준다.

그러나, 공산진영 내부의 갈등에 대하여 가질수 있는 과도한 안심(安心)은 금물임을 상기시키고 강의를 끝내는게 좋다. 1963년 7월 14일의 서한에서 소련 지도자들은 중공을 비난하고 있으나, 그의 당원에게는 아래와 같이 상기 시키고 있다. 즉 "우리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파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파괴를 확신할 뿐 아니라, 계급투쟁 및 모든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자본주의의 파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 필수 독서

Zbigniew Brzezinski, "Threat and Opportunity in Communist Schism", Foreign affairs (April 1963), pp. 513~25.

G.F. Hudson et al., The Sino-Soviet Dispute (New York:Frederick A. Praeger, 1961), pp. 1—134.

Robert A. Scalapino, "Moscow, Peking and Communist Parties of Asia", Foreign affairs (January 1963), pp. 323~343.

라. 선택 독서

Zbigniew Brzezinski, The Soviet Bloc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1960). 467 pp.

(이미 1과(一課)선택독서에서 언급하였음. 공산진영 내부의 단결과 다양화에 대해 많은 자료와 깊은 분석을 하고 있다.)

Edward Crankshaw, The New cold War : Moscow vs Peking (Baltimore: Penguin Books, 1963). 167 pp.

(1963년 중엽, 중•소가 서로 구체적인 비난을 하기 이전까지의 중•소분쟁을 검토한 것. 그러나, 1960년 6월 후르시초프와 중공 지도자들이 각국 공산당 지도자들의 앞에서 비난을 퍼부었었던 부카레스트회의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Alexander Dallin (ed.), Diversity in International Communism : A Documentary Record, 1961~1963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3). 867 pp.

(중•소분쟁이 세계 공산당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데 좋은 기본서가 될 수 있다.)

William E. Griffith, Albania and the Sino Soviet Rift (Cambridge: M.I.T. Press 1963). 423 pp.

(알바니아와 소련의 분쟁을 사실적 기록에 토대를 두어 분석하고 알바니아 지도층에 대한 중공의 지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공산진영내에서의 단결의 침식현상을 연구하는 데 좋은 실례를 제공한다.)

William E. Griffith, (ed.), Communism in Europe:Continuity Chan-

ge and the Sino-Soviet Dispute, V.1.I (Cambridge, Mass.: M.I.T. Press, 1964). 406 pp.

(유럽 공산정권과 공산당에 중·소분쟁이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G.F. Hudson, et al., The Sino Soviet Dispute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1). 227 pp.

(3인의 유럽의 지도적인 공산주의 연구가들의 분석과 해석을 증빙문서들과 같이 수록한 책.)

Walter Laqueur and leopold Labedz, Polycentrism (New York: Frederic A. Praeger Paperback, 1962). 259 pp.

(전세계 각 공산당들의 일탈의 유형과 그 한계를 각 국가별 전문가들이 최근에 연구 발표한 내용을 모은 책.)

Kurt L. London, (ed.), Unity and Contradiction,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464 pp.

(동경에서 열린 전세계 학자회에서 논의된 중·소 관계의 여러 면을 수록하고 있다.)

Richard Lowenthal, World Communism: The Disintegration of a Secular Fai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296 pp.

(1955년 이후의 공산주의 단결의 파괴를 분석한 저명한 독일 권위자의 저서를 번역한 것임.)

Klaus Mehnert, Peking and Moscow (New York: G.P. Putnam's Sons, 1963). 522 pp.

(중·소 양대국간의 차이를 정치 및 문화면에서 관찰한 구체적인 분석서. 러시아는 문화적으로 서구의 기독교 전통에 더욱 가깝다는 이 저자의 전제는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이 책이 갖고 있는 그 역사적인 깊이로 보아 읽어 둘 만 하다.)

Harry Schwartz, Tsars, Mandarins and Commissar, (Philadelphia:

Lippincott, 1964). 252 pp.

(뉴욕타임즈의 소련 전문가가 본 중·소분쟁. 중·소간의 초기의 관계에 역점을 두고 지역차이 뿐 아니라 이념차이도 취급하고 있다.)

Kenneth H. Whiting, The Soviet Union Toda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405 pp.

(이 소책자는 공산진영 내부에서의 소련의 정책과 문제를 요약 설명하고 있다. 특히 pp. 312~316과 350~366.)

Donald S. Zagoria, Sino-Soviet Conflict, 1956~1961(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484 pp.

(세계전략, 국내정책, 진영간의 관계 그리고 세계공산주의 운동에 조의 영향력과 실권 쟁탈문제 등에 있어서, 중·소간에 점차 벌어져 가는 간격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권위있는 책이다.)

마. 토의 문제

1. 소련의 지도력을 부활시키고 공산진영의 '일석주적인 단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 수상 후르시초프가 사용한 방법을 설명하라.)

2. '민족주의'의 세력은 어떤 식으로 공산주의 단결에 대한 극복 불가능한 장애로 되었는가? 이와 같은 민족주의가 미래에 미칠 영향을 과거 경험을 기초로 점칠 수 있는가?

3. 스탈린의 죄과에 대한 후르시초프의 비밀연설은 왜 공산진영의 단결에 파괴적인 효과를 안겨 주었는가? 스탈린에 대한 중공과 동구 국가들의 불평은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또 후르시쵸프에 의한 스탈린의 비난에 대해 중공과 동구 국가들이 하고 있던 불평은?

4. 동구 공산사회에서 파괴적인 요인으로서의 유고의 영향은? 왜 알바니아는 중공에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는가?

5.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는 중·소 불일치점은 무엇이며, 이 중 자유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6. 공산운동 내부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진영'에 대한 공산주의의 적대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요인은 무엇인가?

7. 후르시초프의 후계자들은 세계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는가? 1964년 2월 14일, 중공정책을 비난하면서 행한 수슬로프의 비밀연설에서 언급된 소련의 위치를 포기해 버렸는가? (수슬로프의 연설요지를 보기 위해서는 1964년 4월 4일자 New York Times를 보라).

5. 중·소의 군사적 위협

가. 주제 개설

세계적 종교로서의 마르크스주의는, 비록 소련의 공식적인 이념이 되지 않았였다 하더라도, 그 포교활동은 분명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 종교는 혁명적인 이념과 소련의 세력(발전하고 있는 중공의 세력도)과의 결합으로 오늘날에는 세계혁명의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과 소련과 중공간에는 힘의 실험이 계속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공산세력의 군사력과 그 취약성을 평가하고, 그들의 의도를 합리적으로 추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그들의 능력평가는 직접 우리의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제는 적의 군사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과대평가도 과소평가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독일 군사전략가 클라우즈빗츠는 "전쟁이란 다른 방법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의 군사력의 합리적인 이용은 루이 14세가 불란서의 대포(大砲)에다 새겨 넣은 Ultima Ratio Regum, 즉 '국왕의 최후의 수단'이라는 말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모든 다른 정치적인 수단들이 —외교적인 설득 및 흥정— 모두 실패로 끝난후 최후로 군사력을 합리적으로 사용함을 뜻한다. 마지막으로는 기본적인 군사장비와 이를 뒷받침하는 산업잠재력이 전투의 승패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힘의 요소들은 역시 외교적인 설득과 흥정에 따르게 된다. 소련이 핵균형을 이

루고 대륙간 운반수단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미국이 '우위의 위치'에서 흥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으나, 일단 이러한 군사적인 능력을 달성하고 나자, 이제는 우위에서 주도하는 것은 우리측이 아니라 소련이라고 호언하게 된 사실로도 이를 알 수가 있다.

전후 기술발전의 영향은 아주 중요하다. 스탈린의 사후 소련 지도자들은 열핵무기의 운반체 개발과 우주탐험에 주로 정열을 쏟았으며, 57년 10월 스푸트니크의 성공적인 발사로 그 절정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발전은 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에 대한 소련의 태도와 또 소련의 국가이익 계산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전통적으로, 소련 지도자들은, 비소련사회간의 무력충돌을 기대하고 또 자극해 왔으며, 반대로 자신은 결정적인 순간까지 개입을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가장 적은 위험으로 승리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 때 비로소 개입을 해왔다.

열핵무기와 유도탄 운반체의 출현으로, 레닌의 "최종적인 문제의 해결시까지 무서운 전쟁상태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말이 상징하는 전통적인 레닌식 방법은 그 의의를 크게 상실하였다. 소련의 지도자들이 열핵무기의 교환으로 인한 상호 말살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을 당성명을 통해서나 소련의 전략이론에서나 볼 수가 있다. 일부 권위자들은 20차 소련 당대회에서의 성명을 근거로 하여 소련은 아직도 전면전을 그 정책의 한 수단으로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군사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군적사인 열핵 기습공격을 그의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어떤 확실성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제 3차 대전으로 인한 자본주의의 폐허위에서 새롭고 고차적인 공산주의 문명이 건설될 것이라는 중공의 견해에 대해 소련은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핵전쟁의 위험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소련은 핵위협을 멈추지 않고 이를 계속 이용하고 있다. 군사력의 균형을 파괴하려는 의도에서 1962년 쿠바에 소련의 공격용 유도탄을 배치하려고 했던 사실은 그들의 목표인 세계공산주의의 승리와 군사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서로 연관되어 있나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1962년 10월과 11월, 쿠바에서의 유도탄 위기는, 미국의 군사력이 자유우방에 미치는 그 결정적인 중요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소련과 중공은 다 같이 거대한 재래식 군사력(각각 2백 5십만을 초과한다)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인접지역에 대한 계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1950년 한국 침략을 시작한 스탈린의 군사적인 모험행위는 자유세계의 힘과 결의가 약한 지역에는 언제고 군사력을 행사한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진의를 보여 주고 있다.

서베르린에 대한 소련의 위협과 같이, 국경지방에서의 중공의 군사활동은 군사적인 경계심과 확고한 침략 저지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군사력이, 재래식이든 핵무기이든, 미국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30년 이상이나 되는 냉전기간 동안 미국이 부담해 오고 있는 수십억달러의 국방예산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중공과 소련에 의한 군사적인 위협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근의 중공과 소련의 군사적인 형세와 그 능력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정치권력은 군사력으로 부터 나온다"는 모택동의 말이 뜻하는 바와 같이 중공은 군사력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공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장기 투쟁에서 지탱할 강인성도 없으며, 개입할 의사도 없을 것이라고 믿고, 세계공산주의 운동에서 강경노선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공의 주장은 소련의 정책과 일치할 수 없었으며, 그 결과로 소련은 북경에 대한 군사원조를 삭감하였고, 중공은 63년과 1964년에 심한 곤란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은 아시아 자유세계에 대한 무서운 적으로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

세계 공산주의자들에게 행한 소련의 비겁성에 대한 중공의 비난은 정당하지 못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소련이 군사적인 모험을 감행할(예를 들어

동남아 및 아프리카에서)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의 군사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대 공산세력의 이론과 그들 정책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후르시초프의 수정주의'라 이름붙인 1964년 3월 31자의 성명을 읽어 본 비공산세계의 사람이면 누구나 다 불안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성명은 다음과 같은 모택동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된다.

> 즉, 제국주의 시대의 계급투쟁 경험은 우리에게 무력에 의해서만 노동자 계급 및 노동대중이 무장한 부르조아와 지주 계급을 패배시킬 수 있다고 가르쳐 준다. 이로 보아 우리는 무력만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 중공의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 하였다.

> 요컨대, 폭력혁명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보편적인 법칙이다. 후르시초프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배반한 점은 바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이다.

이와 같은 성명은 북경의 핵능력에다 위협효과를 더 부가시킨 것이다. 후진국가의 급진적인 지도자들은 북경의 이와 같은 새로운 군사력에 박수를 보냈으나, 모택동이 핵전쟁으로 인한 대가를 두려워 하지 않음을 보자,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불안해 하였으며, 특히 대부분의 책임있는 세계 지도자들은 핵유도탄을 포함한 중공의 군사력의 확립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게 되었다.

나. 강의 방법

주제개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치적 준거틀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중공과 소련을 각각 취급하고, 또 각 부분은 다시 전략적인 강점과 취약점을 다루는 부분과, 현재의 군사력이나 또는 '전투대형' 평가를 다루는 부분으로 나눈다.

중공에 대해서는 인구, 농업, 공업(특히 군수산업), 군사적인 인력자원 군사이론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실을 중시하고, 특히 중공이 체험한 게릴라전의 특수역할을 강조한다.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최근의 논문과 연구

자료가 많이 있으며, 특히 정기간행물과 미군에서 발표한 연구내용에 많은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강사는 포오린 어페어스나 커런트 히스토리(Foreign Affairs, Current History) 등과 같은 간행물에 게재된 권위있는 논문을 인용할 수도 있으며, 또는 공산국가들의 군사력의 크기, 장비 및 능력에 대한 최근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군사전문가들의 분석내용을 활용할 수도 있다. 1960년 중엽, 소련 군사원조의 중지가 중공의 군사력에 미친 부정적인 효과를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소련을 다룰 때는, 소련의 지리적이고 경제적인 강점과 약점이 갖는 그 전략적인 의미를 특히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소련 경제에서는 중공업이 최우선이며, 모든 산업화의 목표는 군사적인 계획에 종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2차 대전 중 소련군이 달성한 그 놀랄만한 성과와(스탈린에 의한 숙청과 광범위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핵무기와 유도탄을 포함한 새로운 군사기술에의 신속한 적응성 등을 설명해 주는 데 아주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소련의 전략적인 군사력에 대한 평가는 주요한 신문과 랜드재단(Santa Monica, California) 및 전략연구센터(Georgetown Unioirsity, Wahington, D.C)와 같은 조사기관의 간행물에 실려있는 풍부한 자료로부터 계산해 낼 수가 있다. 과거 러시아가 모든 것에 대해 우월을 과시했기 때문에, 서방측은 러시아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위험은 2차대전 중 독일이 소련의 능력을 잘못 계산한 사실뿐 아니라 미국이 유도탄과 핵분야에서의 소련의 전략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여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50년대에 까지도, 소련의 유도탄 및 핵무기의 개발속도를 그리 대수롭지 않게 평가하고 있었다.

적대집단의 능력은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다. 필수 독서

Raymond L. Garthoff, Soviet Strategy in the Nuclear Era, rev. ed.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pp. 130~172.

Alice Langley Hsieh, Communist China's Strategy in the Nuclear Era,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62), pp. 130~172.

Marshal V. D. Sokolovsky, (ed) Military Strategy : Soviet Doctrine and Concepts, (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1963), pp. 7—50, 166~204

라. 선택 독서

Hanson W. Baldwin, The Great Arms Race A Comparison of the U. S. and Soviet Power Toda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8). 116 pp.

(뉴욕타임즈의 군사분석가에 의한 권위있는 '전투대형'의 비교 평가이다.)

James Daniel and John G. Hubbel, Strike in the West: The Complеet Story of the Cuban Crisi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3). 180 pp.

(제목과 같이 전모라고는 할 수 없으나, 1962년 10월—11월 간의 쿠바의 유도탄 위기를 잘 설명하고 있으며, 외교 및 군사적인 대결을 완벽하게 서술하고 있다.)

Hebert S. Dinerstein, War and the Soviet Union : Nuclear Weapons and the Revolution in Soviet Military and Political Thinking, (New-York: Frederick A. Praeger, 1958). 268 pp.

(소련의 군사이론을 Raymond Garthoff와는 다른 관점에서(특히 선제공격 이론에서) 다룬 특수연구 논문이다.)

Raymond L. Garthoff, Soviet Strategy in the Nuclear Age, rev. ed.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301 pp.

(소련의 군사력과 핵전략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소련 군사력의 주요한 구성 요소와 이를 설명 및 지도하는 이론을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한다.)

Alice Langley Hsieh, Communist China's Strategy in the Nuclear Era,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62). 204 pp.

(중공의 군사적인 사고방식과 이론을 분석하고, 중공의 핵무기가 소련과 서방측에 주는 의미를 다룬 랜드재단의 특수 연구논문이다.)

Henry A. Kissinger, Nuclear Weapon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7). 455 pp.

(핵조건하에서의 제한전을 대상으로 한 문제점과 모순점을 분석하고, 전략 이론과 외교정책의 영향을 검토한 책이다.)

Edgar O'Ballance, The Red Army : A Short Histor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4). 237 pp.

(소련 군사력의 발전을 소련 국내에서의 역활과 함께 연대순으로 서술하고 있다.)

Marshal V. D. Sokolovsky (ed.), Military Strategy: Soviet Doctrine and Concept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3), 396 pp. 또는 Soviet Military Strategy,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 Hall, 1963). 544 pp.

(15名의 소련 군사전문가들이 최근의 소련 군사이론과 개념을 토의한 소론을 번역한 것이다. 위에 제시한 두번째의 번역은 랜드재단의 전문가가 분석한 소론도 포함하고 있다.)

Robert Strauz-Hupe, William R. Kintner, and Stedan Possony, A Forward Strategy for America, (New York: Harper & Brothers, 1961). 451 pp.

(제 5장은 미국의 군사이론 및 군사력을 공산주의 국가의 군사이론 및 군사력과 비교 평가한 유용한 책이다.)

미 국방성, Handbook on the Soviet Army, Pamphlet No. 30—50—1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9). 126 pp.
(공개된 전투 대형에 관한 소책자이다.)

Thomas W. Wolfe, Soviet Strategy at the Crossroad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4). 342 pp.
(랜드재단에 관계하는 학자가 소련 군사 전략과 쿠바 유도탄 위기 이후의 그 변화를 다루고 있다.)

마. 토의 문제

1.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다"라는 클라우즈빗츠의 주장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군사력과 외교적인 협상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우위의 위치'(Position of Strength)가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2.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전복활동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군사력의 위협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체코의 합법정부를 공산오열이 전복할 때 소련군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3. 군사교본에는 다음과 같은 전쟁 즉 전면전, 제한전, 대리전, 게릴라전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한국동란은 어느 범주에 속하며, 이차 대전과, 불란서가 인도지나와 알제리아를 상실한 전쟁은 어느 전쟁에 속하며, 중공의 인도 침공과, 쿠바난민에 의한 피그스만의 침공, 월남전 및 스페인 내란전쟁은 어느 범주에 속하는 전쟁인가?

4. 소련은 앞으로 어떤 형태의 전쟁을 조장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중공은? 그 이유는?

5. 알고 있는 공산주의 이론에서 보아, 만약 도덕적인 전쟁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종류의 전쟁이 '도덕적'인 전쟁인가? '민족해방전쟁'의 의미는 무엇인가? 두개 내지 세 개의 예를 들어라.

6. 중공의 방대한 인구가(7억이 넘는다) 북경의 핵전쟁에 대한 견해에 미치는 영향은? 왜 소련은 전면전의 위험에 대해 좀 더 조심스러운 태도

를 취하는 것 같아 보이는가?

7. 서방측과 공산측이 다 같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지금, 아직도 재래식 무기가 필요한가? 게릴라전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8. 현대과학과 그 기술로 보아, 군비경쟁의 항구적인 종착역이 있을 수 있겠는가? 미국은 연구 및 개발에 충분한 자금을 할당하고 있는가? 과학교육 및 공산주의의 방법과 의도를 연구하는 데도 충분한 자금할당을 하고 있는가?

6. 교과과정 토의 : 공산주의 팽창의 동태

가. 교수 지침

제 4부는 주로 이념의 힘이 제국주의적인 팽창세력으로 조직화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충직한 신봉자'중의 한 훈련된 간부가 공산주의를 소련의 중심지역으로 부터 동구와 중국대륙으로 확대시켜 왔던 것이다. 심리적인 조건에 의해 완전한 확신속에 빠져 있는 젊은 행동가 또는 간부요원들은 공산주의 교의와 조직을 전세계로 확대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힘이 되어 왔음은 사실이 입증해 주고 있다. 공산주의 노선을 따르는 젊은 추종자들이 보여주는 그 폭발하기 쉬운 정열을 설명하는 데는, 공산당간부 요원과 그들의 훈련 및 그들의 역할을 먼저 알아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간부 요원훈련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강의자는 미국 학생들에게 이 혁명운동의 동태를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주제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방법은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를 택하면 된다.

먼저, 2차대전 이후의 세계공산주의 운동의 확대, 특히 여기서 중공이 차지하는 위치를 일반적인 테두리 내에서 설명하여 공산주의와 입헌민주주의를 서로 대조해 볼 수 있게 한다. 이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먼저 제 1부는 중국 공산주의를 다룬다. 중공의 발전과 현재의 능력을 포함한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모택동의 이념에 특히 역점을 두면서, 제도화된 공산주의가 중공에서 갖는 특성이다. 공산주의 이론은, 고도로 전통적인 사회형에 때로는 적응해야 하는 행동지침으로 설명해야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신축성이 없는 완고한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음 둘째 부분은 세계공산주의 운동에서의 단결과 다양화에 대한 것이다. 중·소진영 내에의 단결의 결핍과 아울러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의 다양화된 지도력을 단결된 하나의 중심체로 융화시키기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룬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공산주의 종추자 간의 내부분열로 말미암아 공산주의가 하나의 역사적인 힘으로서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5과에서 다룬 '중·소의 군사적인 위협'은 학생들에게 자유세계의 사회와 제도에 대한 공산주의 도전의 시급성을 일깨워 줄 것이다.

전체 주제를 나루는 또 다른 방법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중등학교 교과과정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여기서는 지역지리와 세계사가 특히 중요하다. 동아시아에 대한 지리의 연구는, 소련과는 전혀 다른 문화에 공산주의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환경적인 기초를 제공해 준다.

중공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은 어떤 공산국가도 아직까지 부닥쳐 보지 못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는 데에 필요한 이념의 굴신은 환경이 전체주의적인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봄으로써 알 수가 있다.

세계사의 과목은 호전적인 이념에 토대를 둔 과거의 대중운동들이 경험한, 즉 최고절정에 달했던 그 혁명적인 열의가 현상유지를 받아들이는 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연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런 점에서 이스람교의 발전사 및 불란서 혁명사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이상 두 가지 역사적인 실례에서 다 같이 보여주듯이, 관계세력은 처음에는 특정 세력기지에서 출발하여 마침내는 그 힘이 미칠 수 없는 경계에까지 확대된다. 그

러나, 과거의 세계적인 운동과 비슷하다고 해서 함부로 인용할 수가 없다. 다른 운동은 그와 같은 무서운 훈련기술과 초국가적인 충성을 유지할 수 있는 통제를 발전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힘을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향상시킨 것이 기술적인 발전에만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세계적인 분쟁은 역사적으로 특이한 경우며,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 토의 문제

1. 국력과 이념 간의 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으며, 또 이 관계를 부각시키는 데는 어떤 사회적 및 심리적인 원리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가?

2. 세계공산주의 운동의 확대와 국가로서의 중공 및 소련의 팽창활동 간에는 어떤 구별이 있는가?

만약 구별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분명히 설명될 수 있는가? 공산주의 이념 그 자체의 힘과 소련과 그 동맹국의 국력과를 구별할 때는 어떤 방법을 이용할 것인가?

3. 환경이 정치 및 사회조직에 대해 갖는 그 상호관계를, 지리학적인 결정론과 같은 것에 의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특정한 국가의 요구사항에 직면하게 될 때 공산주의 이념이 신축성 있게 조절되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모택동의 이론적인 저술들을 이 문제와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가?

4. 과거 역사상의 상이한 이념집단 간의 투쟁과 오늘날의 세계적인 투쟁간에는 어떤 유사성이 있는가? 이와 같은 유사성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냉전의 위험이 사라질 것이라고 학생들이 잘못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인가?

5. 일석주적인 중·소진영의 신화를 제거하는 데 공산정권들은 이념적인 공동목표가 없다는 식의 설명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 소련의 영

향권에서 벗어 나도록 미국이 조장하고 있는 공산국가인 유고를 연구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나?

6.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학생들에게 이념분쟁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가? 이념문제를 토의할 때, 학생들이 제시된 자료는 모두 일방적으로 편파적인 것이라고 생각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7. 학생들이 자기와 정치적인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특히 강조할 것인가? 공산주의의 이념적인 팽창을 저지할 필요성과 개인의 자유를 부인하는 독단론에 대한 거부의 필요성은 어떻게 해야 분명한 구별을 할수 있는가?

제 5 장

대결 : 현존 대결의 본질

1. 냉전의 기원

가. 주제 개설

냉전의 발단을 1945년 중반기에서 1947년 중반기 사이에 있었던 터키와 동부 유럽과 독일에서의 평화기구 조직문제에 관한 소련과 미국의 견해 차이에서 야기되었던 일련의 외교적 위기에서부터 냉전이 발단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이 견해 차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소련 지도층의 진정한 속셈에 빈틈없는 경계를 하게 하고, 또 우리들에게 소련의 의사에 적대적 입장에 있는 세계지도자들의 현 입장을 인식하게 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냉전의 발단은 소련의 세계적 혁명 가능성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행동에서 일어났다. 사실 혹자는 냉전이란 실질적으로 레닌과 그의 군대가 처음 러시아에서 권력을 잡고 세계적 혁명을 지도할 수 있는 전략기지를 설치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의 피할 수 없는 논제에까지 피력하여 왔다. 러시아 볼셰비키당이 '냉전'이란 단어를 만들어 내지는 않았으나, 이 단어는 그들이 냉전이란 의미를 부여하는 개념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무색케 하고 있다. 만약 우리들이 냉전을 일개 국가나 혹은 집단체제를 갖춘 국가들의 항구적인 적대 감정의 결과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타세계가 구성되어져야 할 방법에 관해서 두가지 가능한 견해 밖에 없거나, 모든 국가나 모든 민족들이 그중의 하나를 택해야 될 뿐 아니라 '타당하지 않은' 견해가 분쇄될 때까지 공산주의가 패권을 잡을려는 투쟁이 결말을 볼 때까지 무기를 잡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견해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또 냉전을 두 가지 형태의 국가들 사이의 견해 차이를 악화 시키는 사고 방식

으로써 고의적으로 조작되는 처절하고 끝 없는 투쟁으로 생각한다면 냉전의 규정도 물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론에 나타나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상은 제1차 대전의 말기에 레닌에 의해서 발표되었고, 종종 그의 추종자들에 의하여 인용되었다.

'우리 인민들은 단순한 일개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연합체제속에서도 살 수 없다. 그리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과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공존은 장기간에 생각할 수 없다. 이쪽이나 저쪽 중 어느 하나는 종말에 승리를 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과 부르조아 국가 간에는 가공할만한 충돌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1919년 제8차 소련 공산당 대회 중앙 위원회의 보고)'

또 1920년의 레닌의 성명은 다음과 같이 재언하였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하는 한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가 없고, 종말에는 어느 하나가 승리할 것이다. 즉 장송곡이 소련이 아니면 세계 자본주의에게 울려 퍼질 것이다".

이러한 성명은 소련 지도자들이 모든 자본주의 국가, 즉 이는 모든 비소련 위성국가에 대한 항구적인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는 투쟁을 요구하고, 그 투쟁의 목적은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한 소련 지배하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성명은 이미 현실성을 상실한 단순한 낡은 가정은 아니다. 소련으로 하여금, 그 이후 실천에 옮기게끔 했던 것이다. 소련 지도자들은 부단한 혁명의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소련연방의 맹방이 아닌 모든 국가는 그들의 적이라는 사실이 공식화되었고, '전선' 집단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그리고 모든 전쟁이란 비공산주의 세계의 최후 파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개념을 만들었다.

만약에 미국이 1920년대와 1930년대의 기간에 냉전이 계속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면, 우리들은 국제 사회에 적극 참여하지 않

았고, 분쟁의 해결에 단지 소극적 역할 밖에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문화의 자유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등과 같은 그러한 경고의 소리가 일찍부터 비등해 왔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미국의 지도자들은 2차 세계대전 때 처음으로 소련의 비타협적인 태도를 충분히 알게 되었다.

2차 대전중 서방측에 대한 소련의 근본적 불신임과 의심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 주재했던 미국의 여러 지도자들에게 명백히 드러났다. 예를 들면 소련 연방내 미국의 군사 담당 총 책임자인 존 알. 디네소장이 1944년 12월 2일 마아샬 장군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실은 그들이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과 될 수 있는 한 관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의심없이 보이는 소련인들의 어떤 요청이나 제안을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단순히 얻는 것 없이 준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고, 그 결과 우리들이 주는 것도 의심을 갖고 생각한다. 감사란 소련 연방에서는 있을 수 없다. 개개의 사건은 과거의 호의와는 관계없이 그것 자체로서 종결된다. 두번째 거래의 거래자는 찬양할만한 재치있는 거래자이거나 멸시받는 바보인 것이다.

전시중에 소련 연방은 그들 서부 접경지역의 연맹국 정부를 정복하거나 접수해서 연방국의 이해관계와 상반되는 정치적 활동을 해왔다. 애버렐 해리만 (Harriman) 대사가 1945년 1월 모스코바로부터 보고한 바에 의하면, 소련의 병기창 전복, 태업 그리고 동부 유럽 국가를 지배할 때 사용했던 정치적 압력등에 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술했다.

'동부 전선에 대한 군사적 행동의 소강 상태는 결과적으로 소련연방으로 하여금 소련 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지역에서의 정치적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왔다. 즉 동부 유럽과 발칸 반도에서의 소련의 전형적 전략 형태는 굳혀졌고, 소련의 본질적 목적은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1년 6월 21일 당시의 국경선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접 민족들을 소련연방에 직접 가입시키는 기도는 회피하는 한편, 소련은 외형적으로는 명백한 독립과 다수민의 지지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존립을 위해서 크레믈린으로부터의 모든 지시에 복종하는 집단에 의존하는 공산체제의 확립을 위해 점령군, 선동적 좌익단체, 문화적

후원 단체 그리고 경제적 압력등의 광범하고 변화 무쌍한 수단을 그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

그런 전략은 여러 가지 형태로 끝 없이 구사되었고, 각국의 특유한 사정에 부합되게 선택되어 왔다. 그리고 소련의 침투에 저항하는 심도에 의해 크게 좌우 되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영토가 소련군에 의하여 해방된 유엔 회원국가와 한 때 점령되었던 그의 적대 국가간에 실질적 구별을 할 수 없는 것 처럼 보인다는 것은 특별히 주의할 만 하다".

이러한 전략들에 있어서의 소련의 무자비성은 바르샤바 지하당의 자체 비밀 누설에 의해 나타났다. 소련군대가 1944년 여름 바르샤바를 진격하였을 때 그 지휘관들은 바르샤바 지하당에게 소련군의 지원을 허위 약속하여 나치 점령군에 저항하도록 기만했던 것이다. 소련군은 바르샤바시를 점령 후, 나치점령군으로 하여금 보화(Bohr)장군이 이끄는 반나치 지하당원을 분쇄케 하였다. 이러한 소련의 행위는, 카틴(Katyn) 숲에서 폴란드 장교단의 골수분자를 학살함과 더불어, 종전후 모스크바에서 훈련된 폴란드 지도자와 대치시키기 위해서 비공산주의 지도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던 것이다. (제3장 5를 보라) 이러한 행위에 불구하고 유럽의 심장부로 영토 확장을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일반적으로 연합군은 깨닫지 못했다. 스탈린과 몰로토프의 기만적인 감언이설과 유엔 창설에 있어서의 소련측의 성공적인 협조로 말미암아 소련과 서방측간의 순수한 협조에 입각한 평화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많은 서방측 지도자들은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 소련은 1945년 2월 얄타에서 모든 민주적 요소를 포함한 광범위한 대표에 의해 정부를 설립한다는 협정에 조인한 이후 한 달만에, 소련의 비신스키 외상은 부카레스트에 도착후 마이클왕으로 하여금 라더스큐 정부를 제거하고 대신 공산주의자 페트루 그로자(Petru Groza)에 의한 정부를 세울 것을 최후 통첩했다. 이러한 얄타협정의 위반이 있은지 15개월후에 미국무장관 버네스(Byrnes)는 스터트가트(Stuttgart)에서 행한 연설에

서 유럽의 방위를 위한 미국의 책임을 재확인했다. 얄타회담의 폐막 겨우 3주일후에 소련정부는 폴란드의 임시 정부 수립에 관한 협정을 또한 부인했다.

1945년초부터 1946년 7월까지 미국과 영국은 더 극악한 소련의 전시협정 위반을 견제하기 위해 외교적인 수단을 사용했다. 동시에 미국은 대소 전시정책을 재조정하지 않고 있던 때였었다. 1945년 후반에야 비로서 소련이 냉전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몇몇 인사들에 의해 인정되었다. 이와 같이 해서 상원에서 그 당시 상원의원 존 F. 덜레스는 냉전의 기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의회회의록 1949년 7월 8일자. p.9275)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이어, 1945년 9월 런던에서 첫 외상 회의가 열렸다. 나는 버네스 국무장관과 같이 그 회의에 참석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할만한 결정을 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은 태해란과 얄타 협정에서와 같이 평시에도 소련 지도자들과 타협이나 협정을 하기 위해서 양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결심했다. 이러한 결심은 꼭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이런 결심은 상원이 보통으로 성원하지만 숙명적인 중요성을 내포한 결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의 하나는 집단 자위가 점점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련 지도자들은 이미 강탈에 의한 전략으로 많은 이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우애를 구실로 삼고 아주 맹렬히 냉전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냉전의 역할이란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자주 강조하지만 소련군이 대서양까지 진격해야 한다는 위협인 것이다.

1946년 런던에서 그러한 결심을 했던 이후, 소련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은 충분히 나타났다 .그것은 그들이 공공연하게 적이라고 말하는 미국을 중국에 가서 고립시키고 포위하기 위한 것이다. 전쟁에 의해 시달림을 받는 많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정치적 권력을 잡음으로써 달성되는 세계지배 바로 그것이다.

미국 군대는 소련에 의해 주동되는 냉전의 실재를 오랫 동안 인정해 왔다. 미국 해군은 1945년말 포트 아더에서 이륙한 젯트기가 미해군정찰 폭격기를 공격한데 대해서 엄중한 항의를 했고, 그 당시 유엔의 군사참모회의

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켈 터너(Kell Turner)전 제독의 권고로 지중해에서의 소련함대 진출에 반격을 가했다. 터너 제독은 1946년 초 군사 참모회의의 창립회의에 참석후 귀로에 워싱턴에 있는 터어키 대사 에르테간(Ertegun)의 미망인이 전대사의 유해를 미국배로 그의 조국에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해군성은 국무성과 대통령에게 에르테건 대사의 유해를 세계역사이래 가장 큰 장의행렬 가운데 환국시키는 것을 건의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들은 전투함 미조리호, 순양함 프로빈스호, 그리고 구축함대가 전대사의 성대한 행렬과 의식속에 그의 조국 터키에 돌아가는 것을 경호한 것을 안다. 해군은 지중해로부터 결코 돌아오지 않았고 그후 제6함대가 계속 지중해에 기항하고 있다.

냉전의 도전을 정식으로 미국이 받아들인 것은 1946년 7월 스터트카트에서 행한 제임스 F. 버네스 국무장관의 연설에서 시작된다. 이 연설에서 국무장관은 미국은 25년~40년간 평화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에서 미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을 공약했다. 이러한 연설은 초당파적 지지를 얻었다. 냉전에서의 미국이 할 수 있는 전담 역할은 그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장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미국의 군사적 동원이 있은 이후에 바로 일어났다.

1945~46년의 미국의 외교적 대항 수단도 힘의 사용이나 힘의 창조설을 수반하지는 않았다. 1946년 3월 이란으로 부터 소련 군대를 철수하도록 권고했던 미·영의 은근한 위협을 제외하고는, 미국은 1947년 봄까지 냉전에 있어서의 아무런 군사적 책임을 감수하지 않았다. 그 해에 트루만 대통령은 그리이스와 터어키에 대해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심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그리이스 국경 지방의 공산 게릴라 공격을 억제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터어키의 동부 지방과 해협 지역의 기지에서의 영토 확장을 시도하는 소련에 대한 터어키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때까지 소련은 어떤 특별한 문제에 관해서만 어렵게 생각해 왔었다. 이제는 미국 지도자들도 소련이 서방측과의 관계를 생태적이고

계속적인 적대심의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소련의 팽창주의 좌절이 최후적으로 그의 내부 구조와 그의 야욕이 변형된 결과에서 나타난다는 명백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들은 모든 점에서 소련의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에서 근본적으로 새롭고, 적극적인 지도 정책으로 움직였다. 미국은 결국 우리 뒤에 따라 다니는 영구적 냉전 투쟁의 현실에 직면해 왔다.

나. 강의 방법

이 강의는 처음에 세 가지의 중점을 강조해야 한다. 즉 냉전에 대한 소련의 근본적 책임과, 소련의 혁명 목적과 전략에서 오는 광범위한 전선에서의 이와 같은 경쟁을 낳았던 필연성과, 미국의 서방측에서의 근본적 지도역할을 하나의 결과로 받아들였던 인내와 결심 등 세 가지인 것이다. 이 강의는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들 사이의 근본적 성질을 상기케 하는 기회를 주었고, 그 차이점이 과거에 면면히 이어 온'해결'에 대한 교정 수단으로서 얼마나 깊게 뿌리 박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케 하는 기회를 주었다. 소련이 모든 다른 사회와 같이 결코 변할 수 없다라는 단순한 생각을 피하면서 교사는 학생에게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적대 감정과 냉전의 기원을 설명함으로써 최후 승리의 목표를 그들의 이념과 전략에 부합시키려고 소련 지도자들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킬 수 있다.

이 강의는 소위 "동등한 복합 범죄"를 불식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사람들은 종종 소련의 적대적 태도에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그의 군대와 기지로서 소련을 포위하고 있다고 들 해왔다. 이와 같은 견해가 있는 것은 해소시키는 데는, 소재는 스탈린이 미국 및 영국과 같이 동의했던 협정에 대해 어떻게 위반했느냐 하는데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하겠고, 그리고 서방 세력이 평화 유지를 위해 거듭했던 양보 그리고 유엔에서 소련에 의해 거절되었던 미국이 제출한

핵무기의 국제적 분산에 대한 제안 또 철의 장막에 부수되는 의심과 불심을 제거할 방법을 찾으려는 시도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련이 반복해서 건설적인 행동을 봉쇄하고 유엔의 원칙을 고수하려 했던 미국의 최대 공약 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교사는 국제 관계를 유도하는 공산주의 형태에 있어서 호전적 성질과 절대적 투쟁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레닌과 스탈린의 자세와 성명에 관해서 언급할 수 있다. 전체주의 체제가 그들의 통제의 지역에 대해서 생래적 적대 감정과 얽힌 이러한 공산주의의 양상은 더 큰 적 힛틀러가 2차 대전때 제거되자 마자, 소련의 냉전 주도권을 기정의 결론으로 만들었다. 사실 제 2차 대전중, 소련은 그의 연합국에 대해 이미 기본적 적대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기록은 존 R. 딘 장군의저서 "이상한 동맹"(The Strange Alliance)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미·소 군사원조 지원의 협조에 있어서 소련측의 전시 경험에 대해 집대성한 것이다. 선택독서 편에 실려있는 의회 청취보고서에 인용한 많은 자료에는, 서방측은 소련이 적대적 접근에 열중했다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모르고 있었을 때, 평화 유지를 시도하고 있는 미국과 타 서방국의 쓰라린 경험은 잘 설명되어 있다. 루마니아, 폴란드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동등한 복합범죄 감정(Equal guilt Complex)에 대한 하등의 이유가 없고 냉전은 서방 세계에 대한 소련의 접근에서 발단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사가 전적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소련의 행위와 그들의 비타협적인 이중 행동이 기록되어 있다.

다. 필수독서

John W. Spanier, 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World War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0), pp. 14-33.

Edmund Stillman and William Pfaff, The New Politics: America and the End of the Post-War World (New York : Coward McCann,

Inc., 1961), pp. 19-42.

라. 선택독서

American Bar Association, Peaceful Coexistence: A Communist Blueprint for Victory, A Study by Richard V. Allen for the Standing Committee on Education Against Communism American Bar Association, July 1964). 123 pp.

(알렌교수는 평화공존이라는 말과 그것이 서방에 퍼진 결과에 보통 귀일시켜지는 친선에의 적응의 한 형태로서 보다도 하나의 전략으로서 공산주의자들이 평화공존으로 접근한 것을 문서로 증명하기 위해서 원래의 공산주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하나의 훌륭한 분석이다.)

James Burnham, Containment or Liberation:The Struggle for the World (New York:John Day Company, 1953). 256 pp.

(자유에로의 투쟁을 극히 논쟁적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묘사한 것인데 그 당시의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 의 봉쇄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James F. Byrnes, Speaking Frankly (New York: Harper & Brothers, 1947). 324 pp.

(소비에트 제국주의의 도전과 대결에 관한 미국의 결정을 초래한 전후의 사건들을 솔직하게 균형이 잡히게 직접 경험에서 기술한 것, 전 국무장관 비네스는 그의 저술을 그 같이 빠르게 발표함으로써, 전례 없이 효과적인 공헌을 했다. 미조리 풀톤에서 처칠 수상이 행한 연설 처럼 이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그 새로운 세계적인 역할을 맡게하는 데 공헌하였다.)

Winston S. Churchill, Triumph and Tragedy (New York: Bantam Books, 1953). 800 pp.

(처칠경의 고전적인 역사 서로서 이 마지막 권은 얄타회담으로부터 포스담까지의 기간을 취급했다.)

David J. Dallin, Soviet Russia and the Far Eas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48). 398 pp.

(극동에서의 냉전의 초기를 묘사한것) Herbert Tleis, Churclill-Roosevelt-Stalin The War They Waged and the Peace They Sought (Princeton N. 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367 pp.

(저명한 외교사가가 소비에트 동맹국들과의 합작 노력에 있어서의 실패를 논했으며, 또 냉전을 가져온 초기의 사건들을 명확하게 묘사했다.)

Herbert Feis, Between War and Peace (Princeton :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367 pp.

(유명한 미국 학자가 포츠담 회담을 철저히 연구한 것.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 마지막 회담에서 소련측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방 지도자들이 가진 희망과 회의를 그린데 있어서는 특히 우수한 저서이다.)

Walter Lippman, The Cold War (New York: Harper & Brothers, 1947). 62. pp.

케난의 "포린 어페어스"지에 실린 논문에 대한 비판 능력으로서 유명한 미국의 국제문제 저널리스트에 의하여 발간된 책이다. 미국이 대서양 지역 넘어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Robert Murphy, Diplomat Among Warriors (Garden City, N. Y.: Doubleday & Co., Inc., 1964). 470 pp.

(냉전이 발전한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미국 외교관의 직접 체험을 기록한 것이다.)

Harry S. Truman, Memoirs: Year of Decisions (New York: Doubleday & Co., Inc., 1955). 596 pp. Vol. I

Memoirs: Years of Trial and Hope, Vol. II (New York: Doubleday & Co., Inc., 1956). 594 pp.

(비록 이 책들이 냉전의 범위 밖의 사건들을 광범위하게 취급하고 있지

만 루즈벨트 대통령 사후의 중요한 2년 동안의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분쟁점들에 대하여 중요한 통찰력을 보여 주고 있다.)

Bertram D. Wolfe, "Communist Ideology and Soviet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October, 1962.

(소비에트 팽창주의와 그 이념과의 관련을 취급한 것인데, 매우 중요하다.)

Mr. X,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Foreign Affairs, July, 1947.

(기본적인 미국 국가 안보정책의 기틀로서 당시에 채택된 봉쇄정책의 타당성을 최초로 공개적으로 설명한 것. 그 이론의 타당성이 그후 몇몇 학자들에 의하여 의문시되어 왔으나 아직도 냉전적 도전에 대한 가장 초기의 중요한 해설의 하나인 것이다.)

마. 토의 문제

1. 러시아가 얄타협정을 준수하리라는 미국의 기대와 또 러시아의 위반에 따른 환멸의 정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 스탈린과 모로토프는 전후에 있어서 그들의 의도에 관하여 서방 지도자들을 계획적으로 속였는가? 역사는 그들이 속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었는가?

3. 소련과 공산주의에 대한 전쟁 전의 미국의 무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4. 당신의 견해로는 전쟁 직후의 (1945-47) 어떤 미국의 행동이 미국으로 하여금 서방에서 지도적 위치에 서게 하는 데 가장 역할이 컸는가?

5. 전전의 어떤 사건들이 전후에 소련의 진짜 목표에 관해서 서방인들을 혼란케 했는가?

6. 도리켜 생각할 때 1945년으로부터 1947까지 동유럽에 있어서의 소비에트의 행동들은 소비에트가 안정에 대한 관심과 팽창에 대한 욕구중 어느 쪽을 중요시했는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가? 예를들

라.

7. 서방 지도자들과의 회합에 있어서 스탈린은 그의 요구와 입장을 서방 외교관들이 잘 익숙해 있는 말로 설명하고 결코 표준적인 마르크스주의적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신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2. 냉전의 발전 : 도전과 응전

가. 주제 개설

냉전에 대응하는 미국의 역전략 수정과 소련의 전략면에서의 변천에 관한 점에서 본, 냉전발전의 대략적인 경향은 명백하다. 1947—1950년간 소련은 동부와 중부 유럽의 장악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고 그리고 서부 유럽의 장악을 위협했다. 이러한 계획의 범위는 194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공산당의 성공에서 명백해졌다. 서부 유럽은 소련 군사력에 의한 전복의 이념적, 조직적 계략과 침략의 가능성에 방치되어 있었다. 유럽은 경제적으로 혼란하고 소련의 공격 가능성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을 양성할 만한 수단이 결핍되어 있었다. 창의적이고 이상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미국의 마샬플랜은 1948—1951년 간 서부 유럽 복구를 도울 수 있었고, 급진적 경제성장의 길을 터 놓았다. 이런 역전략은 불란서와 이태리에서의 공산당의 힘을 많이 약화시켰고, 1947년 거의 최고 수준에 달했다. (제5장 4를 보라). 유럽 전역에 암운을 폈던 소련 군사력의 위협은 특별히 한국에서의 공산주의 공격과 더불어 불길한 징조였다. 1948년 서부 유럽 연합의 비준과 1949년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창설은 새로운 의미의 단결을 가져 왔고, 유럽에서의 소련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것이었다. 1950년대에 이런 일은 유럽에 의지력을 줄 필요가 있는 군사력의 재건을 가능케 했다. 유럽에서의 주도권 유지를 위한 소련의 시도인 베를린 봉쇄는 미국의 공수 작전에 의해 실패하였다. 그리하여 소련은 유럽 전략면에서의 봉쇄를 당하고 있음을 알게되자 바르샤바 조약군을 창설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49년 중국 본토의 공산당 장악에 힘 입은 소련 전략은 아시아에 급작

스런 변천을 가져왔으나, 1950년 6월 대한민국 남침은 미국의 즉각적인 반격에 의해 좌절되었다.

스탈린의 사후 소련은 그들의 냉전 자세를 바꾸었었다. 후르시초프하에서 성안된 새로운 전략은 '평화공존'이었다. '평화공존'은 부르조아 단체를 침투하고 비밀리에 비공산주의 국가를 전복하는 수단으로서 그들과 일시적 협력을 하기 위해 레닌에 의해 일찌기 정의되어 왔다. 아시아에서 새로운 평화공존은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형태는 약체 중립국으로 하여금 공산주의 블럭은 중립주의 국가의 독립과 국내 사정을 존중한다는 것을 믿게하기 위한 기만적 노력이고, 둘째 형태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 간에 반제국주의를 불러 일으키는 전략이고, 셋째는 미국이 자유 세계의 지도자가 되었고, 공산주의의 제일의 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행동을 과거 유럽 식민주의와 결부시켜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공격하는 형태인 것이며, 마지막에는 공업국가를 갈망하고 유럽의 상품 시장으로부터의 탈퇴를 갈구하는 신생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원을 약속하므로써 소련의 성장하는 산업과 군사력을 이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1954년부터 지금까지 점점 발전해 왔으며, 융통성있게 교묘히 발전해서 아직도 서방측에 대해서는 냉전의 가장 복잡한 도전이 되고 있다. 미국의 역전략은 소련 전략의 규모와 본질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에 단편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미국은 한국전 형태의 제한 전쟁의 재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중공과 소련 연변의 남부 아시아와 중동국가를 도우는 일련의 군사 원조 의무를 처음부터 부담하였다. 동시에 미국은 경제발전 지원계획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중간 입장에 있는 국가들을 위한 경제적, 정치적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점점 그리고 처음부터 몰이해한 인식을 반영하였다.

한편으로, 공산주의 블럭은 전후 기간중 처음부터 일찌기 중국 공산주의 완성의 표본에 맞추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점점 위협적인 일련의 게릴라전 행위를 기도하였다. 1954년 여러 해의 대 불란서전 이후 호지명은

이러한 수단으로 북부 월맹을 장악하는데 성공하였다. 영령 말레지아와 필립핀에서의 똑 같은 전략은 실패하였고,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이 마련 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또한 공산주의 정전에 동조적이면서 근본적으로는 민족주의자들인 게릴라전의 지도자를 장악하고자 하였다.

게릴라전과 평화공존에 대한 소련의 후원은 적절한 냉전의 전략에 관한 소련과 중공간의 분쟁이후 다소간 모호하여졌다. 그 근본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즉, 중공은 군사력의 사용 특히 게릴라전 혹은 '민족해방전쟁'(자본주의 정권의 전복을 위한 어떠한 형태의 전쟁)과 같이 극단적 호전성을 강조하면서 , 외국에서의 공산주의 행동의 독단적 순수성을 주장하는 반면에, 소련은 이러한 전복 수단을 강조하지 않는 대신 평화공전의 가면하에 더욱 교묘한 전략을 통한 승리를 추구하는 기본적 전략을 주장하였다. 소련이 얼마나 확고하게 이런 표면적 전략에 집착할 것이냐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왜냐 하면 소련의 무기가 여전히 동남아와 아프리카의 게릴라들에게 자유로이 유출된다는 사실 때문이다. 고도로 성장한 소련의 군사력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기본적 군사전략이 중·소 공동협조전략시대와 그이후 분리 전략 기간에 병행되고 있다. 특히 소련은 수소폭탄과 대륙간 탄도탄의 개발 이후, 다시 한번 유럽에 대의 선전 전략을 변경하였다. 미사일 우위성(1950년대)과 방사능 낙진의 위험성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악랄한 위협으로써 NATO의 단결과 서부 유럽 국가의 의지의 약화를 모색해 왔다.

결국 미국이 수소폭탄의 우위를 회복하고, 그의 군사적 우위를 행사할 의지가 아직 있음이 1961년 이후 널리 알려지게 되자, 소련 전략은 또 다른 수정을 가하는 것 같이 보였다. 1962년 10월 이후 소련은, 더 많은 승리를 위해 교묘히 사용되었던 서방측의 유연한 자세를 유도하기 원하면서, 중요한 시기에 더욱 유화적 접근을 유지하기로 결심한 것이 분명하다.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서방측과 중립국의 미래 전쟁에 대한 공포는 서방측 지도자들이 공산주의 불력에 대응함에

있어서 감행할는지도 모르는 모험에 제한을 가하는 역활을 하였다. 모스크바의 현재 전략이 소련의 태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 왔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일은 과거에 거의 없다. 장기간 동안의 소련의 비협조적 태도, 기만 그리고 적대 감정을 볼 때 냉전에서의 일련의 전략 변경에서 현재의 소련 행동의 형태는 항시 장래를 내다 보는 것 같은 것 이상의 것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생각하며 판단할 필요가 있다.

냉전에서의 공산주의 전략들은 두 가지 일반적인 면에서 일관되어 있다. 첫째는, 새로운 형태의 행동에 대응함에 있어서 서방측 제안을 역이용 하기 위해서 압력 수단을 변경,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팽창주의를 세계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각 경우에 소련의 냉전 전략전술은 서방측의 이념 즉, 서구적, 조직적 투쟁 수단에 있어서나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서방측 영향력에 있어서의 차질을 역이용하는 데 목적을 두어 온 것 같다. 많은 지역에서 공산주의 실제 현실은 그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모두 이해할 수 없고, 공산주의자들은 정치적 불안정의 조건 신생국가들의 새로운 태도 더 나은 생활을 위한 간실한 요구와 욕망에 관련해서 일부 서방국가에 대해 강력히 뿌리박힌 증오를 역이용하여 왔다.

소련 전략이 많은 사례에서 철회되었지만, 냉전의 발단이래, 냉전을 지휘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적, 군사적 훈련에서의 대단한 발전과 더불어 공산주의 지배지역은 굉장히 확장 되었다. 모든형태의 공산주의 위협에 대하여 미국은 전통적 군사력을 사용할 것을 서슴치 않고 보여 왔다. 왜냐하면 우리의 군사 역량은 우리의 문화와 산업 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냉전의 가장 어려운 도전은 세계의 미개발지역의 인민과 정치적 구조의 전복에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제 조건이 공산주의의 성공에 가장 좋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의 조직과 사회적, 정치적 발전을 위한 지원에 미국이 거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타 지역에 대한 문화적 이

해의 부족과 조바심 그리고 이러한 지역의 구조적, 이념적 그리고 정치적 필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무능은 장래의 냉전을 지휘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준다.

나. 강의 방법

이 주제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두 가지 강의로 나누는 것이 좋다. 하나는, 저녁 초청강의를 할 수 있다. 첫째 소련과 미국의 주요 전략 발전을 강조 하면서, 1947년 이후 공산주의 블럭과 자유우방 동맹의 목표와 전략변천에 대해서 비교 토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두 가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미국 정책의 기본적 대응 근거(그 이유와 그런 형태의 발생 시도들 같이)와 미국이 힘을 전부 분산하게 된 진행방법이다

둘째 강의는, 장차의 전략 실행을 위한 미국에 유용한 수단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능력에 집중된 유일한 강의일 것이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대단히 넓은 차원을 알게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는 그들 자신의 국가를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공산주의 연구에 지나치게 집중함으로써 단순히 습득하게 될지도 모르는 공산주의 블럭의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를 막을 수 있다. 동시에 학생들로 하여금 성공을 위한 개개의 청사진의 제공을 시도함이 없이 60년대의 미국의 잠재적 대책을 상상하게 할 수 있다.

미국은 지금 광범위하게 준비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책 사용의 이론은 발전의 명료성과 정도에 따라 상당히 차이를 가지고 있고 보다 구체적인 완성이란 60년대에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되는 것이다. 미국이 참가하고 있는 집단안보 조약과 쌍무협정은 광범위하게 뻗쳐 있고, 44개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

우리의 집단안보 협약을 보완하여 미국은 강력한 공군, 해군 그리고 육군을 바탕으로 한 거대하고, 강력하고, 고도로 통합된 군사 조직을 구축했으며, 이는 두가지 임무를 띠고 있다. 즉 두 가지 임무란 소련으로 하

여금 미국과 서부 유럽에 대한 주공격을 단념케 하고 또 공산주의 블럭 국가들로 하여금 세계의 변두리지역에서의 국지 전쟁에서 승리를 할려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은 또한 여러해 동안 연간 25~35억에 달하는 상당한 대외지원 계획을 수행해 왔다. 이 계획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즉, 첫째 공산주의자들의 점령을 용이하게 하는 긴장상태와 사회적 부적응을 완화하기 위한 미개발국가 경제의 현대화 촉진이고, 둘째는 단기 지원형태를 통한 약체 국가들의 즉각적 정치적 붕괴의 사전 예방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은 정보국 산하에 상당한 규모의 정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의 목적으로서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자유 사회의 기본 원칙을 미국식으로 적용하는 일이며, 둘째로는 소련 공산주의의 가면적인 주장을 폭로하는 일이다. 우리 정부의 정보활동은 어떤 사설 선전기구에 의해 도움을 받고 있고, 그 기구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 유럽의 소리(Radio Free Europe)이다. 자유 유럽의 소리는 동부 유럽의 5개 위성국에 방송하고, 자유의 소리 (Radio Liberty)는 소련에 대해 소련어와 여러 소수 민족어로 방송한다. 그리고 자유아시아 위원회는 극동에서 특히 중공에 대해 이와 같은 활동을 행하고 있다.

1947년에 설립된 중앙정보부는은 상당한 크기와 중요성을 띠고 미국의 정보활동의 주된 기구가 되어 왔다. 주로 정보수집과 해설을 수행하면서, 해외의 정치적 정보활동에 있어서의 역할과 능력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하나의 적대적인 지도자가 자유주의적이면서도 강압적인 반대자에 의해 도전받고 있는 국가에서 특별히 유용하다. 더욱 근래에는 미국은, 상당한 활동이 이런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 학설이 아직 개발단계에 있는 새로운 정책수단을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것의 하나는 역반란이다. 이것은 미국군대와 공산주의 게릴라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의 군대에 의한 훈련으로써 이루어진다. 역반란은 군사적 기술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개혁조치와 게릴라전의 운동이 성공하기 어려운 환경을 이

록하는 데 필요한 국내 보안규정을 망라하고 있다.

미국 대외정책의 또 다른 방법은 군사적 민간 활동이다. 이는 그들 국가의 현대화와 정치적 안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민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타국의 군인 훈련으로써 구성된다. 그러나, 또 다른 새로운 미국의 방법은 평화봉사단이다. 이는 국제지원봉사협회로부터 대단한 격려를 받고 있다. 그의 기본정책은 평화봉사단 활동이 미국 외교정책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심지어 미국의 외교적 승인이 철회된 나라에서도 계속되기를 요청하고 있다. 평화봉사단 활동과 미국 외교정책과의 관계는, 그의 봉사가 정책적 문제와 비교적 관계없는 개별적 바탕에 입각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또한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은 미국의 더욱 영구적인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공산주의의 도전은 여전히 다른 형태의 정책활동의 강조를 요구해 왔다.

공산주의의 조직 전략은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좌익 개혁주의당의 전복을 통한 정치권력 장악의 위협이 되었다. 미국은 발전을 위한 동맹과 같은 경제적 활동을 능가하므로써, 이러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능력개발을 모색하여 왔다. 이의 대부분도 민간단체에 의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분야에서의 미국의 업적은 대단히 한정적이었다. 그 대표적인 것은 ORIT(지역적 국제적 노동기구)로 알려진 미국노동조합총연합회의 라틴 아메리카의 지부의 활동이 바로 그것이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어떤 학교에 의해서도 물론이고, 이런 지부를 통해 활동함으로써 미국 노동조합총연합회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라틴 아메리카 노동 지도자의 훈련을 모색하였다. 그 민주주의 원칙이란 노동 운동에 침투, 전복을 기도하는 공산당 활동의 분쇄를 위한 조직과 수단의 원칙인 것이다. 국제 기본경제협력체와 같은 다른 기관들도 또한 번창하고 민주적인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 활동하여 왔다. 이런 방법들은 효과적 외교정책의 순수한 방법인 것이다. 소련의 냉전에 대한 서방의 종횡적 대응책은, 이런 개개의 수단이 공산주의 도전을 분쇄하기 위한 서방측

의 기본적 정책에 얼마나 공헌할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수단들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데에 있다.

다. 필수독서

Dean G. Acheson, "The Premises of American Policy," and Arnold Wolfers, "Military or Economic Aid: Questions of Priority, "American Strategy for the Nuclear Age, eds. Walter F. Hahn and John C. Neff (New York: Doubleday and Co., 1960), pp. 409-421 및 375-387.

Hans J. Morgenthau, "The Art of Diplomatic Negotiation," and Saul K. Padover, "Psychological Warfare and Foreign Policy," in David J. McLellan et al,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Relations(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60), pp. 217-219, 238-241.

John W. Spanier, 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World War II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pp. 204-257.

라. 선택독서

David M. Abshire and Richard V. Allen, (eds.), National Security: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Strategies in the Decade Ahead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3, published for the Hoover Institute on War, Revolution and Peace). 1039 pp.

(조지타운대학의 전략연구소의 후원하에 열린 회의록으로서 저명한 학자들이 쓴 중공, 소련 및 미국의 전략의 주요한 면에 대한 논문을 싣고있다.)

David J. Dallin, From Purge to Coexistence: Essays on Stalin's and Khrushchev's Russia (Chicago: Henry Regnery and Co., 1964). 289 pp.

(소련에 관한 저명한 러시아 태생 전문가가 쓴 논문집으로서 저자 사후에 출판된 것.)

John J. Johnson, (ed.), The Role of the Military in Underdeveloped Countries (Princeton, N. J.: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427 pp.

(국가 형성 과정에 있어서 군대가 할 수 있는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보여 주며, 또 정치 및 경제에 군대가 참여하는 데 대해서 전통적으로 불신하는 미국인들로 하여금 재고하도록 하는 견해를 피력한 도전적인 논문집이다.)

Amos A. Jordan, Foreign Aid and the Defense of Southeast Asia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272 pp.

(밑에 열거한 몽고메리 책 보다 범위는 넓지 않으나 원조의 군사적 면에 관해서 쓴 것 중에는 가장 완전한 책.)

John D. Montgomery, the Politics of Foreign Aid: Amerieean Experience in Southeast Asia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336 PP.

(가장 비판을 받은 미국 원조계획의 효력을 자세히 검토한 것. 저자는 특히 경제원조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군사 원조면도 등한히 하지 않았다. 이 책에는 2차적 및 1차적 출처에 대한 우수한 참고문헌이 붙어 있다.)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3rd ed., revised (New York: Alfred A. Knopf, 1962). 630 pp.

(힘의 정치에 대한 철저한 창도자가 쓴 국제 관계의 교과서이다. 24장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는 저자는 집단 안보 조약을 실시하기 위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윤리적 혁명이 아니면 이러한 제도를 효과있게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DeVere E. Pentony, (ed.), The Underdeveloped Lands: A Dilemma of the International Economy (San Francisco: Howard Chandler, 1960). 196 pp.

(미국과 소련의 원조, 무역 장벽의 감소 및 경제 개발에 있어서 개인 대

정부의 역할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는 글들을 모은 것이다. 또 짧은 주석을 단 참고문헌이 붙어 있다.)

DeVere E. Pentony, (ed.), United States Foreign Aid: Readings in the Problem Area of Wealth (San Francisco: Howard Chandler, 1960). 148 pp.

(비록 몇 가지 비판적인 해설이 들어 있지만 외국 원조를 찬성하는 이론을 피력한 일련의 논문들을 수록하고 있다. 경제 원조 대 군사 원조 그리고 사적 원조 대 공적 원조등의 장점들을 비교하고 있다. 짧은 주석이 달린 참고문헌이 실려 있다.)

W. W. Rostow, The United States in the World Arena (New York: Harper & Row, 1960). 568 pp.

(국무성 정책기획위원회의 책임자가 쓴 미국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개관이다. 3권은 트루만 행정부 및 아이젠하워 행정부 하의 냉전의 주요한 노선들을 간단하게 그러나 효과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John Spanier, 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World War II, rev. ed.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275 pp.

(미국 원조의 발전 및 냉전을 배경으로 한 집단 안보 정책을 역사적으로 개관한 것이다.)

Robert Strausz-Hupe, et al, Pratracted Conflict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9). 203 pp.

(공산주의자들의 세계 전략의 범위와 위험성 분석에 대한 철저한 연구로써 오늘날까지의 저서중에 가장 포괄적인 저서이다.)

H. Bradford Westerfield, The Instruments of America's Foreign Policy (New York: Thomas Y. Crowell Co., 1962). 538 pp.

(정책 자체 보다는 외교 정책의 도구를 강조하는 현존 저서중의 하나이다. 이 책은 특히 군사적 방편 그리고 무역과 원조에 대해서 치중하고 있고 또 선전과 비밀적인 정치활동을 취급하고 있다.)

마. 토의 문제

1. 집단 안전보장 기구가 입각한 근본적인 가정들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이러한 가정들은 타당성이 있는가?

2. 미국도 그 회원의 하나인 집단 안전 기구들의 효과성을 서로 비교하라. 왜 나토(NATO)는 시토(SEATO)보다 그 조직상 공산주의 팽창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는가?

3. 개인 기업을 이용하면서 외국 원조를 하는 데 있어서의 미국의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사고 방식들을 말해 보라. 어떠한 조건 하에서 정부의 원조가 더 효과적인가?

4. 어느 정도까지 미국은 외국 원조를 하는데 있어서 다른 나라들의 국내문제에까지 간섭해야 하는가?

5. 미국이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외국 원조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유고슬라비아, 인도네시아, 인디아 및 터키를 인용하여 설명 하라.

6. 효과적인 외국 정보 (선전) 계획이 어떤면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성공케 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가? 미국이 직면한 실지 정책 문제들을 예로 들라.

7. 평화봉사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목적들은 무엇인가? 또 어떤 목적들을 가장 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되는가?

3. 미국에서의 공산주의 전복 기도

가. 주제 개설

우리들은 1948년 공산주의자들의 체코슬로바키아 접수 또 공산주의의 변절자 또 우리 정부 기관의 방어 행위로부터 공산주의의 목적이 여하한 모든 수단에 의한 권력 장악이라는 것을 알았다. 미국은 공산주의 확장에 있어서 주된 방해물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는 공산주의의 간첩과 전복을 위한 기본 표적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 공산당

은 미국 생활에서 그의 특별한 전망에서 볼 때,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구되어야 하겠다. 모든 지역에서와 같이 미국에서도 공산당은 기만과 선동과 폭력의 하나다. 그리고 위법적 수단에 의한 영향력과 힘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하나다. 즉 미국과 타국에서 존재하는 그런 공산당은 합법적 정치 정당이 아니다. 그 정책과 결정과 방향은 외국의 힘에 의해 지시 되고 장악되는 단체이다. 그러기 때문에 소련과 공산당은 도처에서 자유민의 활동과 적대적인 것이다.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소위 정치 정당의 형성 즉 중국에서의 농지 개혁자, 월남에서의 게릴라, 일본의 폭동자들의 형성을 책임진 트로이의 목마인 것이다(1962년 69-70 제2차 회기 87차 의회의 2559호, 하원의원이며 당시 법무장관인 로버트 F. 케네디의 증언) 국내 역간첩망과 우리 정부기관, 특히 FBI의 역전복 노력이 아주 효과적이었다는 것은 믿을 만한 이유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싸우는데 필요했고 또 바쳤던 노력과 더불어 우리의 안보에 대해 공산주의 운동에 의해 가해진 위험의 성질과 진정한 범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에서의 볼셰비키 혁명의 성공에 힘입어 미국에서의 공산당은 1919년에 조직되었다. 여러 개인들이 이 나라에서 공산주의 운동의 장악을 위해 투쟁함에 따라 외부 압력이 나타났고, 다른 요소들이 소련이 지배하는 코민테른으로부터의 압력하에 1921년까지 통합되지 못했다. 세계 도처의 공산당의 외견상의 형제적 결합인 코민테른은 공산주의 혁명을 모색하고 엄격한 소련의 통제하에 모든 공산당을 이루기 위해 1919년 모스크바에서 조직되었다. 1920년대 일찌기 코민테른 대표가 소련으로부터 미국에 파견되었고, 여러 해 동안 여기에서의 공산주의 활동을 지배하는데 두드러진 역할을 하였다. 코민테른의 명령에 따라 1924년까지 그의 조직 구성 이후 단기간 동안 주로 지하에서 이루어졌던 공산당은 표면화 되었고, 미국 공산주의자는 정기적으로 안내와 소개를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 했다. 소련에의 내부 권력 투쟁은 표면상 단결된 미국 공산당 내부에 극단적 파벌 분쟁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스탈

린이 공헌이 컸던 브룻우더 백작과 윌리암 Z. 포스터를 미국 공산당 운동의 지도자로 임명한 1929년까지 지속되었다. 미국 생활에서의 공산당의 출발은 반항적 호전성에 의해 특성지울 수 있다. 그의 혁명적 목표를 공공연하게 외쳤고, 경제적,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였다. 그의 호전적 전략의 결과로서 공산당은 곧 밀접하게 결합되었고, 엄격하게 훈련되었으며, 단단하게 조직되었다. 그리고 고도로 융통성 있는 단체로 되었으며, 오늘에까지 특성지워 내려 오는 엄격하고 독단적인 형태로 구성되었다. 1935년 소련은 독일과 이태리에서의 파시스트 체제로부터 그들 자신의 안전의 위협에 관해서 모든 공산당은 파시즘에 대항해서 통합 전선을 채택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트로이의 목마적 기술을 사용하면서 미국의 공산당은 그의 혁명적 계획의 공공연한 지지를 계속하지 않는 대신 비공산주의자들에게 공동적인 파시스트에 대항해서 결합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에는 기본적 차이가 있다고 호소하였다. 파시스트의 위협에 합법적으로 역이용하면서 미국의 공산주의는 체면으로 자신을 가장할 수 있었고, 합법적 정치 정당으로 가장 할 수 있었다. 1960년대 말기까지 공산당은 파시즘의 위협에 대응하나 외견상으로 실질적으로는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 공산주의에 의한 지배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수 많은 대항 단체를 형성함으로써 미국의 생활 주류를 성공적으로 침투시켰다. 이 기간 동안 공산당의 선전은 공산주의가 '20세기의 미국주의'였다라는 주장까지 하였다. 그러나 심지어 우리 정부와 협력하는 데까지 공산당은 소련에 대한 그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의 1,500명 당원이 1936년과 1939년 사이의 스페인 내전에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참가하였다.

아마도 이 기간 중 가장 두드러진 공산주의의 성공은 노동 운동에서 이루어졌다. 1930년대 새로 형성된 사업별 노동조합(CIO)에 침투함으로써 공산당은 11개 단체중 약간은 우리의 기간 산업에 대한 그의 궁극적 지배를 위해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단체가 1959년과 70년 사이에 공산주의에 의한 장악으로 인해

CIO에서 축출되었을 때 그들은 대부분이 비 공산주의인 7십만이 넘는 복합 구성원을 유지하였다. 지금에서는 해외와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일하는 미국 노동 기구가 세계 노동 운동에서의 공산주의에 대항한 효과적인 선전을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노동 지도자들은 미국에서 공산주의를 배척하는 데 가장 열렬한 사람들 중의 하나이다.

1939년 소련과 나치 독일에 의한 불가침조약의 비준은 모든 공산당의 전략에서 주요 변화를 일으키었다. 미국에서의 공산당이 한 번 그의 처음의 충격으로부터 회복된 이후, 우리 정부와 외견상으로 협조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소련과 나치 독일이 연합하였기 때문에 공산당 선전은 파시즘의 위협을 무시했다. 세계 2차 대전이 불가침조약의 비준 이후 얼마 안있어 유럽에서 발발 했을 때, 공산당은 미국이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이 연합국을 침략자로 저주하면서 '제국주의'의 전쟁국으로 불렀던 것이다. 공산당은 우리의 방어 준비를 지연시켰고, 우리의 기본산업에서 파업을 선동하거나 지지함으로써 서부 유럽의 민주국가를 도우는 것을 방해했다. 이 기간 동안 주된 선전 슬로간은 '양키는 오지 않는다'였다.

1940년 11월 공산당은 코민테른과의 연맹관계를 이루었고 긴급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그후 공산당은 그의 연맹 탈퇴가 부리스법(Voorhis Act) 때문에 특별히 자극 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부리스법은 정치적 활동에 종사하고 외국의 통제 하에 있는 미국에서의 어떠한 조직체도 법무부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 필요했다.

1941년 6월 소련의 나치 침략은 또 다른 주요 전도된 공산주의 전략의 원인이 되었다. 세계 2차 대전 즉 '제국주의자'의 전쟁은 '바로' 전쟁이 되었고 미국이 진주만 공격 이후 전쟁에 개입 했을 때 공산주의는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나, 소련 본토의 장래를 보장하는 승리의 원인에 대한 모든 생각을 경시하는 외관적으로는 '초애국주의자'가 되었다.

1943년 소련은 군사 원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때, 코민테른은 연합군과의 협조의 전략적 하나의 제스처로써 해체되었다. 그의 해체는 소련과

비공산주의 연합국 간의 만장 일치의 표시를 나타냄과 동시에, 그 당시 공산당 서기장인 브라우더 백작으로 하여금 공산당은 그 자체를 해체하고 대신 정치적 행동 단체를 조직한다는 제안을 분명하게 하였다. 그의 제안은 1944년 채택되었고, 공산주의 정치협회가 형성되어 미국의 국회와 국내 정책에 협조를 약속했다.

1945년 4월 유럽 전쟁이 종말에 이를 것이 분명해 지자, 불란서 공산주의 지도자 작크 듀클로(Jacqucs Duclos)는 미국에서의 공산당 해체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공산당이 그의 행동을 재고할 것을 강조하는 공개장을 냈다.

1945년 7월 공산주의 정치협회는 해체되고 미국에서의 공산당으로써 성립되었다. 브라우더는 그의 '수정주의' 때문에 공산당으로부터 결국 추방되었고, 모스크바의 축복하에 윌리암 Z. 포스터가 미국 공산당 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공산당은 우리 국가가 공산주의의 침략의 위협에 대한 자국과 그의 연합국을 강화시키는 데 필요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모든 수단을 파괴하기를 기도해 왔다. 동시에 공산당은 공산주의 왕국의 확장을 주장했고, 동독과 항가리와 폴란드와 티베트에 거의 반공산주의 봉기의 진압을 정당화 하기를 기도했다. 11명의 공산국가 지도자들은 간단하게 말하면 힘과 폭력에 의한 미국 정부의 전복을 교사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스미스법의 파괴를 모의한 죄로 1949년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들은 9개월 간의 재판 후 죄가 인정되었고, 그들의 유죄 판결은 1951년 대법원에 의해서 내려졌다. 그들의 음모 상태에 대한 실재로 인해 공산당은 1948년 지하 조직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의 조심스런 계획은 거대한 지하작전으로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공산당 지도자들은 그들의 가정과 직업과 가족을 떠나 타지방에 이동했다. 비밀 통신망이 사용되었고, 지하 인쇄 시설이 가동되었고, 엄격한 안전 예방이 강구되었다. 공산당은 다시 한번 공공연히 그의 활동의 주요부분을 지휘하기 시작하였을 때인 1955년 말기까지 확장된

지하 상태를 계속했다. 그때까지 스미스법의 위반으로 투옥되었던 공산주의지도자들이 그들의 형을 마치고 공산당 활동에 복귀되었다.

그 당시 공산당 내부에 만연되었던 낙관주의적 감정은 공산당의 전후 전략과 미래의 계획에 관한 1956년에 야기되었던 분쟁 때문에 미숙함을 나타내었다. 모스크바는 프라우다와 컴뮤니스트 같은 권위 있는 소련 발간물들이 공산당을 정치적 행동 기구로 개혁한 것을 제안한 것을 공격하는 것 같이 분쟁에 있어서 친소파를 강력히 지지했다.

1957년 공산당의 16차 전당대회에서 작크 듀클로로부터 한 편지가 읽혀졌다. 그는 1945년 아주 명확하게 개입했고 듀클로는 어떤 수정주의자적 경향에 대해서 경고했고, 공산당을 해체할려는 제안이 요란하게 비난받을 때 프라우다지는 미국에서의 공산당의 반대세력의 파괴를 부르짖었다.

1959년 12월 후르시쵸프가 미국을 처음 방문 당시 사기가 고조되었고, 공산당 17차 전당대회가 파벌 분쟁을 재조정했고, 공산당을 더욱 공고하게 결합시켰으며, 호전적 기구로 만들었다. (그의 새로운 서기장인 모스크바에서 훈련받은 구스 할(GusHoll)에 의해 지도되어) 한의 열성적인 지도력하에 특히 미국의 젊은 층으로부터 새로운 멤버를 획득하는데 역점을 두고 공산당 출판물의 회람을 증가하고, 공산당의 국내 교육 계획을 확장하고, 우리의 기간 산업과 인종적, 국가적 소수 단체 간에 공산당의 과거 영향력을 재획득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공산당의 모든 활동면에서 재기를 이루었다.

공산당의 젊은 층에 대한 강조는 1961년 10월에 선전부를 조직하게 된 때 부터이다. 1964년 공산당은 새로운 전위 단체 즉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아필할 수 있는 W.E.B. Du Bois 클럽을 조직하였다.

공산당에 대항하는 현재의 법적 행위는 매카란 법령으로 종종 불리우는 1950년의 국내 보안법의 규정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공산당을 불법화하지는 않으나 공산당의 활동에 관해서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런 제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산당은 법무성에 등록해야 하고, 그의 구성

원을 등록해야 하며, 그의 기금의 정기적 결산을 해야하며, 공산당이 발행하는 그의 모든 선전을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간의 심문과 8년간의 법적 소송 절차 이후, 공산당은 1961년 12월 고발되었다. 왜냐하면 등록을 안했기 때문이다. 워싱톤, D.C.에서 1962년 12월에 열린 재판에서 공산당의 죄가 판명되었으나 이의 유죄 판결은 1963년 12월 파기되었으며, 당시는 상소심이 그 자신의 범죄없이 즉, 다시 말해서 타 형법에서와 같이 1950년 국내 보안법의 어떠한 규정하에서도 가능한 고발을 가할 수 없는 한, 등록을 할 사람을 발견할 수 없다는 당의 주장을 시인했을 때였다. 이러한 결정에 재심을 요구했던 정부의 청원은 1964년 6월 기각되었다. 1965년 2월 25일 정부는 새로운 고발을 하였다. 그러므로써 상소심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공산당의 재발이 시작되었다. 공산당은 이러한 결정에 많은 힘을 입었고 새로운 고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입법을 무능화라는 14년간의 성공적 투쟁의 결과를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훈련된 작은 기구로서의 공산당은 광범위한 전위 기구들을 통해 그의 많은 활동을 지도하였다. 공산주의 전위단체는 공산주의에 의해 창조되고 침투되었던 것이고, 공산주의 목적을 조장하기 위해 역이용되고 있는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비공산당원에까지 그들에 의해 공공연하거나 암암리에 지배되거나 통제되고 있는 것이다.

성실성을 문제시 하지 않는 많은 미국인들은 공산주의 전선의 조사나 폭로를 위해 책임 있는 정부 기관의 끊임없는 노력이 아니었다면 공산주의 노력에 불식간에 젖어들 것이다. 예를 들면, 의회 위원회의 청취는 쿠바위원회를 위한 후원이 공산주의 제휴에 의한 사람들에 의해 운용될 뿐만 아니라 카스트로 체제에 의해 재정적 후원을 받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이러한 위원회와 파괴 활동 통제부의 연차보고는 공산주의 전위 활동의 범위를 연구하는 데 유효하고 풍부한 지식을 제공한다.

역간첩망과 역파괴활동은 FBI의 조사 책임이다. 이런 분야에서의 FBI의 보고는 우수하고 그 요원은 그들의 업무를 잘 아는 훈련된 전문가들

이다. 공산주의의 노출이 모든 시민의 의무인 반면에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순수하고 우직함이 미국에서 종종 공산주의의 표적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반면에, 동의하지 않거나 공산주의 목적을 도우는 것과 같은 우리 자유사회의 구조를 파괴하는 의심을 하는 사람의 문제되는 점을 무책임하게 받아들인다는 것도 의심할 바 없다.

공산주의 전복은 미국 공산당과 그들이 많은 전위단체의 유일한 직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산주의의 여러 분파의 수적 증가는 국가의 안보문제를 복잡하게 한다. 1963년 비미국적 활동에 관한 하원 위원회의 연차보고에 의하면 이러한 발단은 혁명적 "공산주의 조직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전통적 공산당이 자본주의에 대해 너무나 약하고 모든 타미국 공산주의 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융통성있다는 것을 주장한다."하원 위원회의 보고는 이러한 호전적이고 순수한 혁명적인 단체의 특이한 성격은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의 정책의 지지와 소련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정책에 대한 반대이다.'(이러한 '분파'들은 '망치와 강철'이라는 단체, 진보적 노동운동, 마르크스·레닌주의 공산당을 위한 임시조직위원회, 그리고 사회주의 노동자 단체와 같은 것이다).

더우기 공산주의자들과 그들의 정보원들은 지방당 기구를 포함시키지 않고 간첩을 지휘하고 정치전과 선전 및 자유세계를 통한 정치 전복을 지휘하였다. 위증으로 인한 올거히스의 재판을 통한 카나다에서의 구젠코(Gouzenko) 사건과 간첩죄로 인한 로젠버그사건 시대부터 미국시민은 미국에서의 공산주의 정보활동의 범위와 다양성의 많은 극적 본보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워너스트롐(Wennerstroem)간첩사건은 스웨덴공군의 퇴역대령이 자기 스스로 1948년부터 1963년 6월까지 소련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폭로하였다.

상원 국가안보 소위원회에 의해 준비된 보고에 의하면, 미국은 그의 희생자들의 하나다. NATO는 또 다른 피해자다. 그의 연례 보고에서 FBI는

유엔과 소련 대사관의 소련 고용인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 활동과 간첩사건을 기술했다. 또한 1963년의 보고는 친카스트로 쿠바인이 유엔에 파견된 많은 쿠바인의 도움으로 1962년 10월의 소련 미사일 위기 이후, 무기와 폭발물과 뉴욕과 그 부근에 있는 산업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가공할만한 발명품의 거대한 창고를 어떻게 알아 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었다. 미국 공산당의 역사적면의 간단한 개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피할 수 없는 결론인 즉 공산당은 소련 정책의 직접적이고 기꺼이 따르는 부속물이라는 것이다. 1919년 그의 조직 이후, 공산당은 그의 정책을 공식화했고, 특별한 소련의 기본적 지시나 혹은 소련의 방위에서 자동적 반사 행위의 결과로써 그의 전략을 변경했다. 미국의 공산당은 소련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래부터 음모 기구였고, 힘과 폭력으로 정부의 전복을 기도했으며, 미국에서의 강력한 국제 공산당 운동의 방해 즉 공산주의 침략의 주방패였기 때문에 공산당은 국가안보에 위협적이고 계속 위협이 될 것이다.

나. 강의 방법

강의는 공산당의 제1차 대전 후의 기원에서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접근 소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이것은 소련 지도자들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영구적 혁명의 물결이 파급될 것을 바랐던 대망의 시기이었다.

전후 노동 불안, 파업 그리고 러시아를 모델로 삼은 회의들 또는 '소비에트' 등의 배경을 그 당시에 놀라운 사회주의 정당의 이익과 아울러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초기의 당파적 분쟁과 아울러 미국 공산당의 코민테른 가입의 중요성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헝거리에서 단명했던 공산 정권 기간 중 벨리쿤과 제휴했던 조셉페퍼와 같은 정보원을 통한 계속적인 간섭을 가져왔다. 소비에트 지배 하에 세계적인 음모, 조직체의 한 회원으로써의 당의 역할을, 모스크바에 있는 핵심기관에 의하여 그 것에 강요된

임무와 전술의 분석과 함께, 강조해야 한다. 동시에 주요한 코민테른 회의가 정한 일반 정책과 작전 노선을 재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에 있어서 여러 해 동안 미국 공산당의 활동과 소련 및 코민테른 노선의 변경 사이의 관계를 또한 언급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레닌의 1920년 동부에로의 전환, 1922년부터 1926년 까지의 연합전선 전술, 1928-1934년까지의 강경 노선 기간, 인민 전선기간(1935-1939) 등등을 또한 언급해야 할 것이다.

1924년 선거에 있어서 고참 라펠레트하의 진보당 운동과 그리고 초기의 농민노동자 운동에 있어서의 연합 전선 전략의 실패를 미국에 있어서 동일당의 최초의 30년 동안에 민족 관계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간섭하려던 일의 실패한 것과 아울러 언급되어야 한다. 여기서 실패한 신 (The God That Failed)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리차드 라이트를 예로 드는 것도 필요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있어서 민족문제 기타 사회 문제에 개입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노력은 계속하였다. J.에드가 후버(Edgar Hoover)는 하원 예산위원회에서의 1964년 증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현재 미국 공산당은 민족 투쟁과 같은 국내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모든 국제적 안보 계획의 철폐와 공산주의를 조사하려는 국회의 여러 위원회들의 철폐를 강조하고 있을 때, 또 그리고 군사 비용을 감소시켜서 그 자금을 사회 복리 사업의 거창한 계획에 돌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공산당은 우리의 현대적 복잡한 사회의 여러 가지 부수되는 문제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와 동시에 이러한 문제들이 공산제도하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의 압도적인 다수와 기타 소수인 단체들이 미국 공산당의 매력적인 노력에 대해서 귀를 막아왔던 것이다.

다음 노동조합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침투를 중립단체들의 자유파와 좌파 사이에 추종자들을 보유하려던 냉전 시도의 기도 아래 당의 실패에 대한 분석과 함께 논의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강사는 결국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이 확실히 고립을 의식하고 있고 또 특히 대학생들로부터 그

추종자를 얻기 위해서 당 지도자들이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려고 해 왔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내부적 정부 전복의 문제와 소련의 간첩 활동에 있어서의 당의 역할을 조심스럽게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균형과 배경을 유지하고 또 대 간첩 및 대 정부 전복 활동의 복잡한 임무에 있어서 FBI에 의하여 마련 되는 그러한 전문적 자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활동과 함께 공산주의의 영향을 막기 위하여 미국 정부가 사용하는 기타의 세 가지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즉 국회 각 위원회에 의한 폭로와 공개 계몽, 통제에 필요한 입법(국내 보안 법령), 그리고 개개 당지도자들과 당 자체의 위법에 대한 공개적인 구형등을 검토해야 한다.

많은 강조점이 미국에서 공산주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전위 단체의 역할에 주어져야 한다. 평화와 안전을 위한 합법적 요구를 역이용할려는 공산주의 시도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직되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련 외교정책의 목적을 지지하는 수 많은 전위 단체를 지적함으로써 각광을 받았다. 전위 단체는 소련에서 많이 훈련된 공산주의 간부가 자유사회에서 조직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교사는 또한 비미국적 활동에 관한 하원 위원회에서의 최근 증언과 미국에서의 공산당 활동에 관한 사법부에 대한 상원의 국가 안보 소위원회의 증언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를 위해 가치있는 이런 두 가지 항목은 위원회에 의해 발행된 J. 에드거 후버에 의해 보도되었다. 첫째는 "공산당 노선"이란 제목으로 1960년 하원 위원회에 의해 발행되었고, 둘째는 1960년 5월 "소련 간첩망의 노출" 이란 책이 상원 소위원회에 의해 발행되었다.

다. 필수독서

J. Edgar Hoover, Masters of Deceit (New York: Pocket Books, Inc., 1958), PP. 75-120.

J. Edgar Hoover, "The U.S. Businessman Faces the Soviet Spy," Harvard Business Review, January-February 1964.

William C. Sullivan, Freedom Is The Execption (Minneapolis: West Publishing Company, for the American Bar Association's Standing Committee on Education Against Communism, 1965), pp 54.

(연방 수사국의 부책임자가 세번의 강연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미국내에 있어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려 하는 자유의 가치를 논의하고 있다.)

Rodger Swearingen, The World of Communism (Boston:Houghton-Miffin Co.,), PP. 197-210.

Richard Wright, "The Initiates," in The God That Failed, ed. R. S.H. Crossman (New York: Bantam Books, 1959), PP. 103-146.

다. 선택독서

Whittaker Chambers, Witness (New York: Random House, 1952). 808pp.

(알거 히스의 증언을 통해서 미국내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간첩활동을 극적으로 또 자서전적으로 폭로한 것.)

David Dallin, Soviet Espionage(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5). 558 pp.

(저명한 러시아 태생 이민이 쓴 고전적인 저서.)

Theodore Draper, American Communism and Soviet Russia (New York: Viking Press, 1960). 558 pp.

(미국에 있어서의 공산당의 형성기간(1919-1929)에 선전 노선에 있어서의 러시아 내부 권력 투쟁 (스탈린 대 트로츠키 투쟁)의 영향, 그리고 미국에 있어서의 당조직 등에 대한 함축적이며 세밀한 연구이다.)

Theodore Draper, The Roots of American Communism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7). 498 pp.

(미국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형성 기간은 그 운동후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취급되고 있다.)

Nathan Glazer, The Social Basis of American Communism (New York: Harcourt, Brace, 1961). 244 pp.

(지도적인 아메리카 공산주의자들의 사회적 배경과 미국 공산당에 있어서의 군소단체들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다.)

Sidney Hook, Heresy, Yes-Conspiracy, No (New York: John Day Co., 1953). 283 pp.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자유의 한계를 규정하려는 효과적인 기도이다)

J. Edgar Hoover, Masters of Deceit(New York: Pocket Books, Inc., 1959). 375 pp.

(FBI의 책임자에 의하여 공산주의를 그 시초부터 권위있게 진술한 것인데 특히 미국내의 그 운동의 배경과 성질과 범위에 치중하고 있다.)

J. Edgar Hoover, Communist Target-Youth; Communist Infiltration and Agitation Tactics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0). 18 pp.

(FBI 책임자가 작성한 보고인데 1960년 5월 12일로부터 14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은 비미국적 활동 청취회 기간에 일어난 폭동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자들의 전략과 전술을 설명한 것이다.)

R. W. Iverson, The Communists and the Schools (New York: Harcount Brace and Co., 1959). 423pp.

(상세한 객관적인 평가인데 Clinton Rossit가 발행한 '미국 생활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총서중의 하나인데 그중의 두권은 Theodore Draper와 D. A. Shannon이 썼다.)

D. A. Shannon, The Decline of American Communism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 1959). 425 pp.

(1945년 이래 미국 공산당의 쇠퇴를 기록한 것인데 해석적이며, 견식을 .

넓혀 준다.)

마 토의 문제

1. 왜 러시아 공산당이 미국 공산당을 포함한 모든 다른 공산당들에 대해서 모범이 되었는가? 제1차 세계 대전이후 미국의 내부 사정이 어떻게 급진적인 운동에 이바지했는가? 미국에 처음으로 수립된 두 개의 서로 경쟁적인 공산당들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떻게 또 통합되었는가?

2. 어떻게 세계 공산주의 운동이 코민테른의 통제하에 들어왔으며 또 이리하여 소비에트 대외정책의 도구가 되었는가? 어떻게 미국 공산당은 모스크바의 지배하에 들어갔는가?

3. 미국 공산당과와 전통적인 정당과를 (1) 이념(정강과 대조시켜서) (2) 조직과 통제 (3) 목표와 방법 등의 관계에서 비교하라.

4. 미국 공산당과 회원 자격과 미국 기타 정당들에 있어서의 회원 자격과를 (1) 실지수효 (2) 당에 대한 충성과 헌신등의 관계에서 비교하라.

5. 공산당의 일선 조직들은 어떤 것인가? 또 그것들은 어떻게 미국 공산당에 의하여 조정되는가? 또 그러한 조직을 어떻게 탐지할 수 있는가?

6. 미국 공산당은 연합전선 전략에 있어서 어느 만큼 성공했는가? 공산당은 노동조합에 침투하여 영향을 주는데 있어서 얼마나 성공했는가? 또 공산당은 기타 어떤 단체들에 대해서 영향을 주려고 하는가? 왜 공산당은 미국 생활의 주류로부터 소외되었는가? 현재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시정하려고 하였는가?

7. 어떤 면에서 미국 공산당 활동이 국가 안전에 대해서 계속적인 위협이 되는가? 대 간첩작전의 책임을 어떤 미국 기관이 지고 있으며, 또 대정부전복 활동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 책임을 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자신들을 서로 분렬시킴이 없이 지적으로 공산당에 대항할 수 있는가?

8. 미국에 있어서의 공산당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러한 대책들은 미국 공산당의 현재의 잠

재적인 힘을 감소시켰는가? 이 것은 당의 회원수와 그 출판물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또 법정의 결정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4. 공업화 국가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의 처지

가. 주제 개설

소위 자본주의의 모순 즉 계급 투쟁, 원료 및 시장을 위한 자본주의 국가들사이의 투쟁 그리고 강대 국가들과 그들의 식민지들간의 이익의 충돌이 반드시 전쟁과 혁명을 초래하여 프롤레타리아가 정권을 잡는다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은 오랫동안 예언해 왔다. 서부 유럽의 공업화된 사회들에 주로 적용된 이 이론적 분석은 역사상 기록으로 볼 때, 그릇 된 것이라는 것이 판명 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의 예언이 어떻게 실패하였는가 또 두 차례의 세계대전 끝에 공업화된 서방의 평화로운 변형과 복구의 결과로써 어떻게 공산주의의 세력이 이러한 국가들에 있어서 쇠퇴하였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칼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이미 충분히 발전한 사회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 승리가 오는 것이다. 공업화된 국가에 있어서만 주기적인 경제위기가 극단화 되어 나중에는 프롤레타리아에게 계급의식을 주입하게 되는 것이다. 미개발국가들에 있어서 또는 어린 자본주의 제도를 가진 국가들에 있어서 유아기에 있는 도시의 프롤레타리아는 아마도 진짜 혁명적인 이해와 정신은 못 가질 것이다.

이러한 이론에 입각하면, 1917년에 그 경제가 공업화의 높은 단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는 러시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혁명은 거의 생각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1905년에 레닌은 마르크스주의 혁명 이론을 수정하여 그것을 후진 국가에 적응하도록 하려고 노력하였다. 러시아에 있어서 사회 혁명은 만일 그것이 서방에서 그와 유사한

혁명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일단 혁명이 성공만 하면 볼셰비키당은 러시아를 기지로 하여 서유럽 전국을 통하여 혁명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1917년에 정권을 잡은 레닌과 그의 지지자들은 혁명이 서유럽에 곧 퍼질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 독일은 공산주의 선동과 승리의 희망이 중심이 되었다. 1919년에 베를린과 뮤헨은 실로 공산 반란의 현장이 되었으나, 그들을 지지할 만한 대중의 지지력이 없었다. 독일에 있어서의 혁명열은 곧 사라졌다. 러시아 밖에서는 헝거리에만 벨라쿤하의 공산주의 정권이 있었는데, 그들은 권력을 잡고 그후 헝거리 소비에트공화국은 5개월도 계속 못하였다. 볼셰비키당들이 예상한 세계 혁명의 파도는 한개의 환상이었다는 것이 증명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에 있어서의 소비에트의 군사적 승리의 영향 하에 또 그들의 고도로 선전된 반나치 항쟁 기록으로 인하여 서부 유럽의 공산당들은 많은 새로운 추종자들을 얻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직후의 불란서와 이태리에서 공산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마샬플랜으로 대응하였는데, 이 계획은 유럽을 경제적으로 복구시키고 따라서 대중의 공산주의 운동을 위한 사회주의 기지를 끊어 버렸다. 그 동안 기타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여 유럽에 대한 공산주의 위험의 존재를 의식시켰다. 베를린 봉쇄, 한국, 동독일 봉기,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공격 그리고 헝거리 등, 모든 것이 오직 순박한 자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양식으로 '평화공존'을 정의하는 데에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의 영향은 유럽의 경제적 부흥과 아울러 공산주의 진영에 깊이 파고 들어 갔다. 제2차 세계대전 말엽에 공산주의자들은 유럽의 비공산 지역에서의 전국 선거에서 합계 1천 6백만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표 중에서 약 4백만표는 회비를 지불하는 당원들에게서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오늘날 전체표의 수치는 1천 3백4십만 표

로 줄어 들었고 또 당원수는 2백 4십만 이하로 추산되고 있다. 이 쇠퇴는 공업화된 국가들에 있어서의 대중의 지지의 상실을 의미하고 있다(비록 불란서 공산당은 상당수의 '항의' 투표를 계속 받았으며, 이태리에 있어서의 친공산표가 '평화공존' 전략의 최근 몇 년 동안에 있어서 증가하긴 했지만), 물론 이태리 공산당의 계속적인 권력은 심각한 관심사가 되며, 또 그것은 일단 자리를 잡기만 하면 공산당의 영속적인 권력을 반영할 것이다.

우주 탐험과 보통 러시아 시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서의 소비에트의 업적은 서방에 있어서의 공산당들의 세력을 증대시키리라는 것은 이미 암시된 바이다. 사실상 영국 공산당은 그 상실한 바를 다시 찾게 되었으나 대륙에서는 공산당의 쇠퇴가 계속되고 있다. 유럽 공동시장을 형성하는 6개국 내에 있어서의 선거민들은 오늘날까지 공산주의를 배척해 왔다. 공산당은 서독에서 불법화되기까지 하였다. 1960년 대의 서방의 공업 '프롤레타리아'는 혁명을 위하여 싸우는 것보다는 자유 시장 경제와 광범위한 사회 복리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는 데에 더 많은 흥미를 보이고 있다.

입헌 민주주의는 자체가 공업화된 사회의 정치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융통성있는 제도라는 것을 과시 하였는데,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점점 더 그 매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것은 공산당 이념주의자들이 설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 가는 요인이며, 따라서 변증법적 유물론의 '과학'으로서의 근본적인 비융통성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를 위한 변명자들은 서부 유럽의 '대중'들이 기만되어 그들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있다고 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르고 있기는 커녕 그들은 전체주의의 현실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국의 중압에서 풀려난 후의 서부 유럽의 부흥과 공산당들의 동시 쇠퇴는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에게 심각한 지적 문제를 제시하였다. 그의 교리는 대서양 공동체에 속하는 번영하는 국가들이 지금 자본주의의 가장 높은 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오래지 않은 재난에 직면하고 있다

고 전제한다. 그러나 그러한 독단론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민주주의와 혼합 경제는 정부 전복을 꾀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어느 때 보다도 더 큰 힘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서부 유럽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내부적인 위협은 아직도 남아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노동 운동들에 있어서는 강력하였고, 그들은 정부 전복을 위한 효과적인 훈련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또 그들의 연합전선 전술은 계속 매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주요한 손실 중의 하나는 많은 유럽 지성인들의 환멸이며, 또 이것은 공산주의 쇠퇴를 표시하는 다른 모든 요인들 보다 더 큰 장기적인 충격이 될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 말에 서구 문명의 가치 체계는 개인의 자유 및 책임에 대한 윤리와 더불어 의문시되었다. 곳곳에서 여러 종류의 전체주의자들은 혼란을 피하려면 국가주의가 개인주의를 눌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 때에 서방의 시민들은 그러한 도전을 받아들이고 또 나중에는 자기들이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것이 유럽의 민주국가들에 있어서의 공산당 세력의 점차적인 침식 작용 뒤에 숨은 의미이다.

나. 강의 방법

이 강의는 공업화된 서구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레닌은 믿게 되었지마는, 마르크스와 1920년 전의 레닌 그리고 트로츠키와 또 많은 그들의 추종자들이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에 있어서의 상황이 붕괴와 혁명을 위하여 무르익고 있다는 개념에 대하여 크게 강조하였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칼·마르크스는 특히 서부 유럽의 공업 프레롤타리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또 그 나라들에 있어서 수립된 당들과 그 추종자들은 공산주의의 대혁명적 승리는 결국 서부유럽에서 올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아 왔다. '공산당 선언'은 특히 유럽 프롤레타리아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1848년에 유럽을 진동시킨 혁명적 투쟁에 있어서는 마르크스 자신

이 활약했다. 그는 이 투쟁들이 곧 공산주의 혁명으로 뒤이어질 부르조아 자유주의 혁명이라고 생각했다. 제2차 인터내쇼날의 대희망은 틀림없이 서부 유럽의 공업 프롤레타리아였다. 러시아 제국과 동 유럽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마르크스는 그들의 직시적 혁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짜르 황제 시대의 러시아는 반동의 보루로서 간주되었고 또 사실 그러했다.

러시아에 대한 레닌의 마르크스주의 적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론의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 임기응변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1917년의 볼셰비키당의 성공은 러시아를 세계 혁명을 위한 기지로서 사용할 하나의 수단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유럽은 곧 혁명에 대해서 얼굴을 돌렸다.

제 2차 세계대전의 종말은 소련으로 하여금 동부 유럽의 대부분 정부들에 대해서 공산주의를 강요할 수 있는 위치에 놓였다. 이것은 지방 공산주의자들이 조직적 전술을 통하여 정부와 사회구조의 주요 기관에 침투하여 그 지배력을 잡을 뿐만 아니라 투표에서 상당한 지지를 끌어 모을 수 있는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1948년)를 제외하고는 주로 붉은 군대의 직접 개입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체코슬로바키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자들의 정권 장악은 특별한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공업국가가 공개적 정복이 아니라 내부적인 정부 전복을 통하여 공산주의화된 하나의 예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유럽 공업국가들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으려 했으나 실패했다.(그러나 강사는 공업화된 국가에 있어서의 공산당들의 크기와 그 영향력은 아직도 모스크바에게 정부 전복을 한 선전과 그리고 소비에트 대외정책에 유리한 잠재적 혁명 무력행사를 위해 강력한 도구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실패를 고백하는 것은 독단설적인 신앙 체계가 받아 들일 수 없는 하나의 이단설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통 공산주의자들은 소련과 계속 악화하는 불경기로 야기될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각성

에 대한 그들의 신념을 굳게 고수한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국가들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경쟁하리라고 예상된다. 다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말을 빌리면, 비공산 열강들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것이다.

공산주의의 정통론에도 불구하고, 국가들 사이에 예상된 모순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수상 후르시쵸프 자신이 마르크스 이론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사건들, 다시 말하면 불란서와 영국에서의 서독 군대 훈련과 같은 사건들에 대해서 말하였다. 이 국가들 자체가 시장을 얻기 위하여 서로 싸우리라고 예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유일한 해답은 최후에는 서방국가들 사이에 '제국주의자' 전쟁들이 폭발하리라는 신념인 것이다. 공업화된 사회들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의 대결은 공산주의 사상의 주요한 수정, 즉 자본주의식의 자극제에 대한 최근의 소비에트의 수락과 같은 것을 강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왔다.

강사는 미국 정보기관에서 격월로 발행하는 "공산주의 문제" (미국 정부 간행물 발간처에서 입수할 수 있다)에 가끔 나타나는 구라파 공산주의에 관한 최근의 논문들을 사용할 수 있다.

국무성은 매년 전 세계 공산당들의 세력에 대한 개관을 발간한다. 이 출판물은 강의 목적을 위하여 유용한 통계를 포함하고 있다. 부흥된 자유기업제도하의 발전이 또한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전에 가졌던 매력을 상실케 한 일본의 상황을 예로 들 수도 있다. 유럽에 있어서와 같이 이와 같은 상실은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목표와 폭력이 보다 공개적으로 공언될 때에는 결국에 가서 공산주의가 더 큰 위협이 못 되어도 동등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얻는데 있어서 보다 교묘한 수단을 사용하게 만들었다. 강사는 서방에 있어서의 자유의 업적을 강조하는 동시에 계속되는 공산주의 위협을 과소 평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는 베를린 장벽에 대한 논의를 가지고 결론을 지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다. 필수독서

Hugh Seton-Watson, From Lenin to Khurushchev : The History of World Communism (New York:Frederick A. Praeser, 1960). PP. 1-21, 50-64, 63-77, 99-110, 218-225, 257-260, 291-304 340-344, 및 385-392.

라. 선택독서

Richard Crossman (ed.), The God That Failed (New York: Bantam Books, 1959). 248 pp.

(6명의 유명한 지성인들이 소비에트 공산주의에 대한 그들의 애착이 나중에는 환멸과 재전환을 가져온 경위를 직접적으로 진술한 것.)

Mario Einaudi(ed.), Commuism in Western Europe (Ithaca, N.Y.: Cornell Uniuersity Press, 1951). 239 pp,

(현대 유럽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에 관한 저서들을 수집한 것, 불란서와 이태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Muriel Grindrod, Rebuilding of Italy: Politics and Economics, 1945-195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5). 269 pp.

(전후의 이태리의 재건에 있어서의 이태리 공산당의 영향이 세밀히 분석되어 있다.)

Daniel L. Horowitz, The Italian Labor Move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356 pp.

(이태리 노동운동의 귀중한 역사인데 그 마지막 부분은 공산주의자들이 전후기간에 있어서 그같이 강력하고 위협적인 역할을 유지했는가 의 이유를 취급하고 있다.)

Charles A. Micaud, Communism and the French Left (New York: Frederick A. Praeser, 1962). 300 pp.

(불란서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의 계속적인 매력에 대한 면밀한 연구이며, 저자는 맨버대학의 교수이다.)

Henry Pelling, The British Communist Party: A Historical Profile

(London: Adam and Charles Black, 1958). 204 pp.

(옥스퍼드의 한 교수가 영국 공산주의의 성쇠를 상세히 연구한 것.)

Angelo Rossi, A Communist Party in Action: An Account of Organisation and Operations in France, Trans. Willmoore Kendal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49). 301 pp.

(공업화된 국가에 있어서의 격동기에 공산당의 전략과 전술에 대한 심각한 검토, 저자는 특히 불란서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사회혁명이 필요하다는 이론을 공박하고 있다.)

Alexander Werth, France, 1940-1955 (London: R. Hale, 1956). 765 pp.

(정치사인데 제2차 세계대전 중과 그후 10년간의 불란서 공산당의 정책 전환과 발전이 상세히 고찰되어 있다.)

Philip Williams, Politics in Post-War France: Parties and the Constitution in the Fourth Republic (London: Longmans, Green, 1954). 500 pp.

(불란서 입헌 민주주의의 정치적 작용과 이 테두리 안에서의 공산당의 역할에 대한 상세한 분석.)

Neal Wood, Communism and British Intellectual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256 pp.

(공산주의의 매력을 느끼고 있으나 그 조직적 방법에 실증난 지성인들이 직면한 난관에 대한 연구.)

마. 토의 문제

1. 어떤 형태의 사회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주의를 기울였는가? 어떤 사회계급과 상황이 사회 혁명을 성취하는 데 절대 필요하다고 마르크스는 생각하였는가?

2. 어떤 요인들이 공산주의자들이 공업화된 국가들에 있어서 예상한 혁명의 성공을 막았는가? 공산주의자들의 침범을 더 이상 대항하기 위하여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가?

3. 공업 사회에 있어서 공산주의의 대두를 막는데 있어서 군사 시설을 포함한 외국 원조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가? 어떤 나라들의 경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원조와 무역의 어느 편이 더 효과적인가?

4. 서부 유럽에 대한 공산주의의 위협이 어느 정도 내부적인가?

5. 공산당들의 역할에 있어서 서 유럽 일본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있고 상위점이 있는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의식은 민족적 또는 문화적 한계를 모른다는 공산주의자들의 가정은 어느 정도 정확한가?

6. 현대의 공업화된 사회에 있어서 공산주의의 경제적 및 심리적 매력은 무엇인가? 서 유럽에 있어서 이러한 매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였는가?

5. 발전 도상 국가에서의 도전

가. 주제 개설

전술한 제목에서 말한 바 있듯이 많은 진보적 국가들 속에서의 공산주의자의 매력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그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개발 지역에서는 아직 무시할 수 없는 형태로 남아 있다. 서방 여러 나라의 더디고 개방적인 인습보다 차라리 '철저한' 공업화의 정책을 그들의 경제적 문제의 해결로 삼으려는 저들 미개발국들에게 공산주의의 매력은 특히 유혹적일 수 있다. 이미 공산주의자의 체험으로 증명된 바 있는 공업화에 대한 막대한 사회적인 간접 희생이 공산주의자의 경험으로 입증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의 규범으로서의 호소력을 가지는 것은 느리고 조용한 변천 속에서는 자신들이 설 땅을 찾을 수 없는 서방 공업국들이 아니라, 중공과 소련이다. 더우기 식민지적이고, 예속적인 상태로 부터의 그들의 최근의 변화 때문에 많은 미개발국가들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들 자신의 매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 서방적인 증오의 잔재물을 아직 가지고 있다. 도전에 대결할 수 있는

건설적인 행동노선을 안출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데 힘을 빌려주고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생 독립국가들에 대한 공산주의 매력의 성질과 정도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후르시초프는 소련 공산당 제22차 당 대회에서의 그의 연설에서, 식민주의 정책에 반대하여 싸우는 아시아·아프리카 인민들의 몸부림을 강렬하게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신생 독립국가들에 대한 소련의 지지를 표시하였고, 철저하게 반서방적인 이들 신생 국가들의 태도가 곧 명백해질 것이라고 그의 청중들에게 보증했다. 본질적으로 본다면, 공산주의는 진보적인 공업국가들의 정면을 공격하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다시 말해서, 모든 신생 독립국들의 정치와 경제적인 재산을 합하여 서방 세계의 시장과 원료의 근원을 박탈하고 더 나아가서 소위 '제국주의 시대의 자본주의의 모순'을 돋보이게 함으로써 서방을 무찌를 것이다. 신생 독립국들 사이에 영향력을 주려는 후르시초프의 노력은 사실상 제2차 국제 공산당대회에서 선언한 1920년의 레닌 노선으로서 사실상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련의 전입 수상은 낙관론을 과시할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래, 공산주의는 전에 식민지였던 곳에서나 혹은 아직 실질적으로는 식민지적인 영향력 밑에 있는 지역들에서 거대한 힘으로 발전하였다. 볼셰비키 혁명이나 중국 공산주의 표본이거나, 그것들은 신생 국가들의 지도자에게 그들의 생존에 대해서 그토록 긴요한 경제적인 개발의 한 모범으로서 인식되었다. 독재정부와 소수에 의한 전제적 지배만이 두 세기간에 걸친 서방의 기술적 진보를 단 한 세대의 짧은 기간에 압축할 수 있다고 공산주의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 이론으로 많은 동조자들을 얻었다. 아시아, 나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지성인들은 흔히 유럽이나 미국의 박사로 통하는 그들 자신의 전문지식이 그들의 사회에 별로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거기에는 물론 지방 관청의 자리나 상업의 기회가 있기는 하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다. 그 결과로 전문적인 분야를 전

공했으나 직장을 가지지 못한 지성인은 그들 자신의 사회조직에 회의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드디어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우리들을 빈곤속에 얽매어 놓은 인습적인 테두리를 파괴해 버리는데 있어서 어떤 종류의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인가?" 그 대답은 흔히 공산주의로 귀착된다.

'공산주의자'가 혁명에 가담한 미개발 국가들에 있어서도 공산당에 가입한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모스크바나 북경이 선전하는 것 처럼 마르크스나 레닌의 교리에 그렇게 뚜렷하게 공감하는 일은 매우 드문 것이다. 그와 반대로, 그들 자신의 사회를 소련이나 중공의 사회적 경제적 푸로그램에 순응시키려고 애쓰는 실질적인 민족적 공산주의자로서의 지방의 당 지도자들에 의하여 오히려 습관적인 기권자들이 만들어졌다. 공산주의 운동의 문화적인 견해가 그토록 이질적인 지역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국제 공산주의 사조속에 현존하는 여러 분파가 더욱 크게 성장할 가능성은 있다. 여하간, 자유세계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북경과 모스크바의 지시를 받는 모든 공산당들의 반서방적인 정책이 완강하다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공산화된 인도나 이집트가 우리의 적들을 더 넓게 다양화하고 약화시킬 것이라는 가정 밑에서 그릇된 안전감에 빠져서는 안된다. 그 보다도 우리는 미개발 국가들에 대한 공산주의의 도전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공산주의의 매력과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과소평가한다면 실상 모스크바가 바라는대로 상대방의 책략에 앞지름 당한 자신을 발견한다.

나. 강의방법

이 강의는 전에 식민지였던 곳이나 미개발 지역에서 공산당의 정장에 도움이 되는 역사적·사회적·경제적 또는 정치적 조건들을 강조해야 한다. 전장의 강의에서 확인한 이런 조건들은 경제적으로 심히 곤란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오늘의 공업화된 국가들 속에서는 매우 보기드문 현상이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선결조건에도 불구하고, 근대국가로 등장하는 데 대

한 매력적인 교리와 계획을 흔히 발견하는 것은 미개발의 사회이다. 자급자족의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더 나아가 개발된 공업적 단계로의 변천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일지라도 적지 않은 정치적 사회적 대격동을 낳게 된다.

이들 경제적 혼란과 급속한 사회적 변천의 조건들은 불만의 온상을 주게 된다. 공산주의자들(중공이나 혹은 소련)은 이 불만을 이용하는 데 민첩해 왔고, 특히 지성인이나 농부들 사이, 새로 도시화된 노동자들 사이의 불만을 찬성치 않는 당이나 당파를 지배하려는 그들의 광범위한 책략을 구사하고, 공산주의 운동이 합법화되었거나 관용 받은 곳에서도 역시 그러한 책동을 감행하였다. 공업화에 따르는 사회적 경제적 분열과 전통적인 부라질 사회의 충돌을 이용하고 후란시스코·쥴리아오가 기성 질서에 대항하는 농민들의 혁명운동을 이끄는 부라질에서 이상과 같은 결과를 엿볼 수 있다. 농업개혁과 공업발전에 대한 쿠바형의 해결이 부라질 국민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휘델·카스트로 주의를 쥴리아오는 이용하였다.

쥴리아오의 추종자들은 성장하고 있고, 카스트로의 도움으로 격려받는 그의 표본은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베네주엘라에서, 주로 카스트로 동정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쩌면 공산당이 조종하는지도 모르는 폭력조직이 과격하게 행동해 왔고, 미국인 소유의 기업들을 고의로 파괴하며, 불모들을 유괴하고 그리고 정적들을 암살하고 있다. 그 폭력 조직은, 1963년 12월의 선거기간 동안 베네주엘라 국민들을 선거로부터 기권하게 하려는 테러전략에 의한 하나의 시도를 저질렀다.

브라질의 예는 개발국가들의 도전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많은 신생국가들에서 처럼 비참한 모든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사회적 불안정을 더욱 심하게 하는 인구의 격증은 모든 브라질의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시켰는 바 그런 것을 지적한다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다. 가장 큰 도전

은, 분명하게 목표로 삼은 국가를 국제적 공산주의 테두리 안으로 이끌어 들이고 또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고민으로부터 긴박감을 높이려는 공산주의자들임에 틀림없다. 이 위협에 대한 해답으로써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반응을 보여왔다. 그들은 현상유지나 하려는 단순한 방어가 충분치 못함을 배웠다. 공산주의 전제정치에 대한 예속보다 자유국가들과의 밀접한 협력으로써 더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점을 민족주의 지도자들에게 입증하려는 하나의 시도로, 미국과 그 연합국들은 정치적 단체를 개발하고, 토지개혁을 권유하고 경제적 협조의방법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만의 안전으로 보더라도 공산주의에 대한 매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신생국가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깨달아야 한다. 이런 대안들 속에는 공업화의 효과에 대한 분렬을 경감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개혁에의 필요성에 관한 응답으로써 현대적이면서 생동하고 또 민주주의적인 창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강사는 공산주의자들이 준동하는 곳, 이른바 내적·외적 보안을 준비하려는 많은 지역에서의 사업의 첫째 목록을 강조해야 한다. 이런점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군사적 협조의 방대한 계획을 요구한다.

반서방의 경향, 공업화에 근거를 줄 필요성, 교육적인 후진성, 1차 상품 생산자들의 상거래의 규범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들,공업화에 따르는 사회적 종교적 분렬, 폭발적인 인구 그리고 민족주의에의 요구 따위의 어려운점들이 서방국가들 특히 미국의 입장을 어렵게 만드는 신생 독립국들의 특별한 도전에 관하여 강사는 유의해야 한다. 틀림없이 그런 모든 문제들은 비록 공산주의자의 위협이 없다해도 개발 국가들을 심각한 경고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가치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강의는 북경과 모스크바에 있어서 지역적인 문제들을 격화시키고, 그들을 자유주의 옹호자에 반대하도록 만들려는 의도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 맺어야 한다.

다. 필수 독서

Bernard S. Morris and Morris Morris Watnick, "Current Communist Strategy in Non-industrialized Countries," and Moris Watnick, The Appeal of Communism to the Underdeveloped Peoples," in Political Change in Uunderdeveloped Countries: Nationalism, ed. John H. Kautsk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1962), pp. 282—292, and 316—334.

라. 선택 독서

Robert J. Alexander, A Primer of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The Macmillan Co., 1962) 218 pp.

(미개발국가들의 문제에 관한 간략한 고찰과 그 문제들에 대한 개론)

Zbigniew K. Brzeziniski (ed.), Africa and the Communist World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3). 272 pp.

(아프리카 국가들에 영향력을 주려는 공산주의 운동에 관한 초기의 논문집)

Malcolm D. Kennedy, A Short Hisotry of Communism in Asia(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57). 556 pp.

(저자는 중국과 일본에 크게 역점을 두었지만 다른 부분들, 특히 4부에서 전후발전에 관해 간과하지는 않았다.)

John H. Kautsky(ed.), Political Change in Underdeveloped Countries: Nationalism and Communism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1962).

(다양한 사회학 학자들이 쓴 이 가치있는 논문의 편집은 보급판으로 사용할만 하고 편집자에 의한 정치발전의 논문들에 관한 해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논문들은 미개발 지역에서의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관계와 성질을 탐색하고, 전체주의와 민주주의로의 가능한 경향을 제

시한다.)

Walter Z. Laqueur, Communism and Nationalism in the Middle East (New York: Frederiok A. Praeger, 1956). 362 pp.

(1919년에 시작한 중동 공산주의의 역사. 저자는 이 지역의 탁월한 문화와 공산주의 역사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논문인 중동에서의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관한 글은 특히 우수했다. 그 책은 매우 완벽한 참고문헌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Kurt London(ed.), New Nations in a Divided World: The Ii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fro- Asian State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3). 336 pp.

(이 논문집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국가들에 관한 공산주의자의 접근, 그 힘과 결점을 조사하였다.)

Edward S. Mason, Foreign Aid and Foreign Policy (New York: Harper and Row, for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64).

(원조와 경제개발에 관한 저명한 권위자의 강연 씨리즈.)

W. W. Rostow, (ed.), The Economics of Take-off Into Sustained Growth (New York: St. Martin's Press, 1963). 481 pp.

(중요한 서류의 연속물과 사학자와 경제학자들의 상용어구의 총체. 이것은 로스토우의 잘 알려진 경제성장의 단계의 개념. 그것은 또한 로스토우가 그의 견해를 재진술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Herbert Spiro, Politics in Afria: Prospects South of the Sahara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62). 183 pp.

(현대 아프리카 정치에 관한 고찰. 아프리카의 신생국가들이 동서양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그들 독자의 조건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조직을 개발할 이론을 저자는 제시하고 있다.)

Frank N. Trager, Marxism in Southeast Aias: A Study of Four Countri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9). 381 pp.

(동남 아시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자의 전술과 전략의 개발을 지적한 가치있는 논문의 모음. 권력을 쥐려고 노력한 그들의 책동에 관하여 지방의 불평을 이용해 온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태도를 암시하고 있다.)

마. 토의 문제

1.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 이론 사이의 차이점을 분류하고 그리고 미개발 국가들간의 차이점의 역사적 경험을 분류하였다. 무슨 논의가 이론과 실제 사이의 상위점을 계산해 보도록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시도할 수 있게할 것인가?

2. 강력한 공산주의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슨 사회 경제학적 조건들이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 조건들이 특수한 어느 지역이나 문화에 대해서 지방화할 수 있는가?

3. 미개발 국가들 속에서의 어느 정도의 공산주의 운동이 그와 유사한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나) 계획으로 지지 받을 수 있는가?

4. 어떤 환경 밑에서 공산주의 정부가 중립적인 정책을 추구하도록 권유할 수 있는가? 그들이 공산주의거나 아니거나 조금도 고려함이 없이 중립주의는 신생국가들의 대외정책의 하나의 속성이냐?

5. 왜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종종 단조로운 문제이고 그들의 지지자들은 왜 혁신정당의 지도력을 사로잡으려고 하는가? 어떤 단체와 그룹들이 이 계속적인 경향을 방해하기 위하여 힘을 기르는 데 있어서 서방으로 하여금 탐색하게 하는가?

6. 미개발 국가에서의 미국의 확정된 대외정책 속에서 해외에 흥미를 가지는 미국 실업가의 영향력은 무엇인가?

7. 개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 속에서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무엇 결정적인 교체의 성질이 될 것인가? 그 교체가 그런 지역에서의 전체주의 정부의 일어남을 억누를 것인가?

6. 교과 과정 토의 : 대결의 전면적 본질에 관한 교육

가. 강의지침

일반적인 해설가들이 제한되고 작은 사건들의 기조위에 있는 냉전을 보편화시키려는 경향 때문에 이 5장에서의 교수는 특히 어렵다. 개개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국제적 긴장을 끝맺는 방편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런 결과, 여론은 세계정치의 설명을 의미하는 상투어와 진부한 경구에 부속하게 된다. 이 5장에서의 목적은 이해에 관한 착오를 멀리하고 미국에의 도전의 복잡성을 인상 깊게 하려는 것이다. 세계적인 규모의 힘을 가지고 국제 무대에 나온 미국의 출현은 고립적인 우리의 역사적 전통이 그것에 따르는 외교적 정책에 관한 단순한 개념이 타당치 않다는 조건과 잘 어울렸다. '힘의 정치'에 대한 미국의 의혹을 문화적인 것으로 이끌어들인다 해도 만일 한 나라가 그 목적 (그것이 아무리 건설적이고 도덕적인 근원을 가진다 해도)을 성취 하려면 힘은 필수적인 것이다. 대외정책이나 국내정책이나 힘은 이해하는 것만큼 증오도 불러 들이게 된다. 그것은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흥미를 유지하고, 그 가치야 어떻든 간에 자유인의 국제적 사회를 위해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은 강대국들의 의무이다. 이 의무는 미국 고립주의의 비운을 뚜렷하게 해 준다.

공산주의에 관한 우리의 대결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중등교육 교과과정의 '핵심'안에 세개의 과정을 뚜렷하게 내 세울 수 있다. 세계사와, 미국 역사와 정부 그리고 지역적 지리학이 그 세개의 과정이다. 흔히 고등학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제의하는 세계사의 과정은 현대 세계의 격동의 형태인 힘의 정체를 학생들이 깨닫는데 필요한 배경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만일 그 학생이 범세계적인 역사에서의 현재의 대결의 위치를 이해 하려 할때 이 배경은 필수적인 것이다.

미국 역사와 정부론의 고급과정은 세계적인 힘으로서의 미국의 발전

을 연구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공하게 된다. 자유세계의 지도적 의무의 변화 특히 세계적 지도자로서의 미국의 출현은 더욱 개발될 수 있다. 세계사에 관한 이전의 과정에서 나온 역사적 예들은 유사한 지도적 역할 안에서 성취해 온 다른 국가들의 태도를 설명하는 데 쓸모있는 것들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 외교정치의 주제에 관한 개론은 국내적 성장의 관련성과 효과적인 외교정책에 관한 자원을 강조해야 한다. 더우기 '시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처럼 대외정책은 정치적인 고립된 현상으로서 설명되어서는 안된다.

지역적 지리학의 과정은 공업화 된 곳이나 미개발의 지역을 다 포함시킬 수 있다.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그에 따르는 깊이가 없는 수준으로 가까와지려는 것을 피하는데 있어서 개성적인 국가들에 대한 개개의 연구 방법은 유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된 개개의 대표적인 것과 특수한 문제들 보다는 일반적인 것을 참작하고 입증하는데 있어서 조심스러워야 한다. 지리학의 연구는 공산주의 세력의 지정학적 토대를 평가하는 실제적인 기초를 주게 될 러시아와 중공을 포함시키는 것은 역시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

요약해서, 전술한 제5장의 제목에서 윤곽을 잡은 것 처럼 동서 대결의 큰 문제들을 교수에 응용할 수 있는 준비된 과정들이 이미 중등교육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그 문제는 방향결정이나 촛점의 하나이나. 자료가 파악되면 중등교육의 선생들은 그것을 사회과학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는 데 별로 어렵지 않다.

나. 토의 문제

1. 흔히 학생들이 다른 국민에 대하여 갖고 있는 견해는 자유세계의 신생국가들의 중요성을 함축성 있게 설명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압도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2. 급속한 경제적 발전에 있어서 전체주의가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는 인상을 소홀하게 함이 없이 많은 미개발국가들 안에서의 명백한 공산주의

인기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 공산주의의 이론과 실제 사이의 큰 차이점을 어떻게 역설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3. 합법적인 정치적 반대와 입헌 민주주의에서의 전복을 식별하려는 학생들에게 무슨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점에서 무슨 모형이 가장 유용할 것인가?

4. 학생들에게 안전보호조약과 외국원조계획의 필요성을 잘 인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냉전의 크기와 절박감을 평범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학생과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 외교정책의 추상적인 문제들이 미치는 영향을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인식시킬 수 있는가?

제 6 장
분쟁과 경쟁 : 그 전략 전술 및 전망

1. 현대 공산주의의 정치전

가. 주제 개설

공산주의의 정치전은 두 개의 주요한 목적을 위하여 전 세계를 통한 모든 국가나 정당세력을 그 도구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즉 비공산국가들을 포섭, 장악하기 위한 것과 또 그것이 실현성이 없을 때는 자유진영의 정책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그것을 중립화 시킴으로써 소련 및 중공의 목적과 정책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 중 처음 목적은 일반적으로 자유진영의 약소국가들에 대한 공산주의의 정치전에 적용되며 두번째 목적은 주로 미국과 구주의 제강국, 호주 및 일본과의 상호 관계에 적용된다.

두 경우 모두 제오열 전술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제오열 전술은 나치즘 하에서 고도로 발달되었으나 공산주의 밑에서는 훨씬 더 완벽하다. 더우기 정치전은 공산주의의 목적이나 그 수단에 있어 근본적인 것이다. 그것은 공산주의의 이념이나 그 조직형태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다. 결국 그 이념은 자본주의(실제로 모든 공산주의 이전의) 사회의 궁극적 파괴와 모든 계급 간의 끊임없는 전쟁의 도발을 요구한다. 소련 정략가들이 증오가 지배적인 이념을 확장시켜 모든 그룹(계급)간의 전쟁을 조장시키는 것은 쉬운 단계였다. 더욱이 이 이념은 초민족적이며 따라서 그 추종자들을 편의에 따라서는 교묘히 그들 자신의 국가에 대해서도 반역을 하도록 요구한다.

정치전을 수행하기 위한 공산주의 조직은 방대하다. 첫째로 현대와

같은 다원적인 시대에도 공산주의 이념에만 충성하고, 이른바 '제국주의' 진영은 적대시하는 전례에 없는 훈련을 받은 당으로 구성된 전 세계적인 조직망이 있어, 가능하면 어디서든지 의회정치체제를 자칭하는 공개당도 있고, 불법 타도 행위를 지휘하는 비밀 당조직도 있다. 빈번히 라틴 아메리카에서와 같이 양자택일의 전술을 쫓으므로서 그들의 전술을 방어하는 두개의 합법 정당이 있다. 그리하여 쿠바에서는 빠티스타밑에서 빨타스로카와 칼로스 라파엘 로드리게가 지도하는 합법 정당이 라울 카스트로와 어네스토 셔 구에바라가 영도하는 비밀조직과 병존했다. 공개당이건 비밀당이건 모두 소련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거의 항상 공산주의의 정략과 전술의 원천인 소련에서 부터는 물론 국제 공산당 기관(초기의 국제공산당이며 제 2 차 세계대전후 1956년까지의 공산당 정보부)으로 부터 동등한 지령을 받어왔다. 제 2 차적 조직 수단은 비밀경찰(KGB로서 이는 그 해외공작으로 정보 수집뿐만이 아니라 훈련을 강화하며, 외국 정부의 요인들을 타도하고 목표 국가의 정치부에 공산주의 기관을 설치하려 한다. 예를 들면, 과거에 알렉산더 에스 파니우쉬킨(1942~52년주 워싱턴 소련대사)을 포함한 우리나라에 주재했던 소련 공관 대표들은 이곳에서 그들의 외교 재직 기간에 정보망을 지휘했다. 워싱턴 외교관 재직 전에도 또 그후에도 파니우쉬킨은 소련의 보안국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이다. 상호간에 비밀로 된, 병존하면서 독립된 정보망들도 있었다. 제 3 조직 형태는 전위단체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들은 무수한 숫자에 달하며 그 양상도 또한 포괄적이다. 거개가 세계 노동조합 연맹과 같은 모스크바에서 조종하는 국제적 전위단체의 지부들이다.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나라의 공산당 지도자들은 모스크바 혹은 다른 공산국 수도에서 강력한 정치전 훈련을 받은 후 지방 기관의 요직을 맡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임은 전적으로 토착 지도자들에게만 두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나 동부 유럽에서 온 고도로 전문화된 선전원들이나 또는 선동자들

로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동등한 역할을 한다. 파블로지메네(소련 장교의 익명)는 수년동안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 직무를 수행해 왔다. 결국 소련 당과 정부(또 기타 공산주의 국가도 물론)의 자유 진영의 비슷한 조직 기관보다 그 자력과 지류가 10내지 20배나 더 거대한 고도로 중앙집권화되고 풍부한 재정 뒷바침한 선전기계가 공산주의의 세계적 정치전에 쓰도록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 정치전의 주요한 목적으로 부터——국가의 장악과 타국의 정책 중립화 및 지도——선전, 전복, 기만적 외교, 파업, 폭력 및 협박으로 조정된 계획으로 수행되는 수많은 목표가 파생된다. 이들 목표에는 두 가지 기교가 사용된다. 즉 조직세력을 장악하는 것과 사상을 전적으로 뒤바꿔 놓는 것이다. 대대로 이 두 가지가 차례적인 단계로 때로는 동시에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한 목표 중에 정치적 사회적 단체(교육단체, 교회, 무역단체 기타 여론을 주도하는 직업 등이 중요한 과녁이다)에의 침투, 매스콤과 문화 및 오락매개물 침투 및 조종, 단체내의 분쟁, 예를 들면 노동쟁의 등의 촉진, 또는 목표 국가의 위신, 단합력 내지 국력을 저하시키기 위한 사회적 이간과 불화 등이 있다. 궁극적으로 모든 목표는 한 국가의 권위의 세 가지 근본, 즉 공공기관의 구성력, 국민들의 이념상의 동질성과 일치, 지도자들의 의지 등을 파괴하려는 노력으로 일괄한다. 비공산국가의 공산당은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서라기 보다는 민주주의적 정치 과정을 방해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특히 공산주의자들은 다수의 당이 존재하는 국가나 신생국에서 다대한 소수당 투표권을 조정하여 사회당이나 때로는 더 보수적인 정당으로 하여금 효과적인 반대를 조성 또는 구성하는데 협조하도록 유인할 수가 있게 된다. 이 전술이 즉각적인 국력의 장악에 이르지 못할 때 그것은 적어도 그 국가의 정책을 지배하거나 혼돈시키거나 무용지물로 만드는 데 이바지되는 예가 흔히 있다.

소련정책에 입각하는 사고방식의 개조는 가능한 경우엔 통신로의 독점에 의해서 뿐만아니라 전 세계적 호응을 받은 마르크스주의의 표상과 슬로간

을 교묘하고도 사악하게 이용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었다. 평화니 무장해제니 평화적 공존이니 하는 술어들은 오늘 날도 그러 하듯이 레닌의 생존시에도 효과적인 표어가 되었다. 러시아인들은 희랍 로마의 유산으로 부터 서방이 발달시킨 모든 문명국의 상징을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소위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사실상 당의 과두정치의 독재 권력이 되었다. 이러한 권력의 오용이 교육을 받은 서방국 국민들은 속일 수 없지만 법치하의 자치나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결코 알지 못하는 후진국 국민들은 쉽사리 속일 수가 있는 것이다. 때때로 공산주의 정치전의 두 가지 근본적·목적이 서로 모순된다. 그리하여 스타린은 나치 독일과의 관계에서 그러했듯이 종종 해외의 공산당 당력을 소련 혁명 전략을 지지하는데 바친적이 있다. 또 더욱 번번히 소련연맹이 한 국가와의 정상 국교상의 우호관계를 자칭하는 동안에도 그 국가안에다 공산당을 설치하거나 침투시키려는 공작은 모스크바나 기타의 공산주의자들의 선택된 수도로 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어왔다. 전후 러시아 세력이 증강됨에 따라 소련정책을 보강 시키기 위한 정치전의 이용은 더욱 활발해 졌으며, 토착 정치전을 밑기 위한 소련의 강압력의 이용도 또한 더욱 원활해졌다.

소련정책을 조장 시키기 위한 음모조직 이용방법은 서방인들에게 그 인수방법보다는 훨씬 덜 알려져 있다. 한국 전쟁 동안에는 그 음모조직은 미국의 핵무기력을 저지하려는 책략으로 '폭격금지'라는 조잡한 탈을 쓰고 전 세계적인 선전을 폈다. 최근에 러시아는 더욱 궤변적으로 해외의 집단여론을 잘 이용했던 것으로 핵 유도탄 제도란 것을 조직하므로서 여기서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되었었지만 실은 그것은 오히려 핵 전쟁의 위험을 더욱 뚜렷하게 했을 뿐이다. 핵 전쟁의 위험이 전 세계의 구석 구석에 야기시킨 깊은 공포심을 이용하여 러시아인들과 중공은 이 논술을 서방인들과 그 지도자들의 반응을 시험키 위하여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회유정책과 강력한 공세 정책을 번갈아 이용하되 효과적인 미국의 반공태세가 갖추어진 곳에서는 효과가 없을듯 하면 곧 그 전략을 바꾸면서 그들

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해왔다. 이리하여 1954년 초엽 중공은 비간섭과 타 사회제도 존중이라는 명목하에 인도에 대해서 '평화공존'이라는 최후 수단적인 선전을 감행했다. 그러나 1962년 중공은 도전도 없이 인도를 침략했다. 또한 후르시쵸프의 1959년의 회유적 미국방문 직후에 베르린을 격리시키려는 운동이 뒤따랐다. 또 소련의 과학에 대한 권위를 더욱 향상 시키기위하여 스프트니크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후르시쵸프가 1960년 유엔에 철저한 비무장을 호소한 직후에 일찍이 있었던 가장 대규모의 열핵 폭발력을 동반한 1961년의 핵 실험 재개와 1962년의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는 모험이 뒤따랐다. 그러한 기교로 일반적인 긴장과 결핍의 공포가 쉽사리 우롱당할 수 있음을 지각하여 민주주의 국가들은 모든 평화의 미명으로 내 세워진 희망을 잘 검토하는 것이 그 의무임은 명백하다.

나. 강의 방법

공산주의 세력의 음모와 활약은 대부분이 빙산과 같이 국제 정책의 전통적 표피 밑에 전개 된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서 강의를 시작할 수 있다.

개화된 국제사회의 파멸을 막기위한 방파제로서 오랫동안 준수해 온 국가대 국가의 행동 원칙과 법을 고수하려는 서방측의 의도를 잘 아는 공산주의자들은 주로 그러한 제약을 이용하기 위하여 정부 대 정부 관계법에 일치한다. 이리하여 그들은 일반 대중과 지도자들을 교란시켜 그들의 음모 공작을 폭로하거나 대항하기 위한 조처를 방해하려고 애쓴다.

강사는 공산세력 45여년 동안에 공산주의 정치전은 끊임 없이 계속되어 왔고, 외교정책상의 변덕도 아랑곳 없이 그 강도를 늦출 적이 거의 없다. 이것이 바로 제이·에드가·후버씨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 국가의 양심적인 시민은 목하의 국제 공산주의의 '당로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첨단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함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가 하는 이유이다.

공산주의 정치 전쟁은 그 목적이나 수단이 매우 복잡하다. 학생들의 주

의를 그 조직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강사는 그 정치전을 수행키 위하여 이용하는 조직과 기구는 물론 그 근본 목적(제 1 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을 강조해야 된다.

그 다음, 강사는 공산주의 정치전의 전술은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붕괴를 돕기 위한 마르크스주의의 구조에 그 전제를 두고 있지만 일개 주의적 접근으로 부터 그 형태를 바꾸어 타 세력을 장악하며 반대파를 중립화 시키기 위하여 여하한 또는 온갖 편리한 수단을 이용함에 이르렀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상기시켜도 좋을 것이다. 공산주의 정치전의 무정부주의적인 포괄성이야 말로 그 정치전의 누진적 역량과 때때로 그 정치전의 힘인 것으로 간주되는 신비스런 전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랜동안 소련정책과 정략을 연구해 온 죠지 케난씨는 전체주의적인 외교방법을 개요하라는 요청을 받고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압력의 방법에 대해서 내가 처음으로 놀란 것은 전체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각각 그 방법을 상당히 달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전체주의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전쟁을 제외한 방법들을 지적하기 위하여 더 충분한 보고서를 준비하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전체주의 정부의 행동 양식을 숙고하기 시작했을 때 전체주의 국가가 하는 일들을 일일이 나열해야 한다는 것은 어딘지 우스꽝스럽고 점잖치 못한 것 같았다. 우선 여하한 정상적인 집권자라도 이용하기 마련인 계교를 자세하게 캐 보려는 것은 매우 경솔한 사람이나 할 일일 것이다. 전체주의 정부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기만술책은 거의 인간의 독창력 만큼이나 무한하고 또 거의 그만큼 불쾌한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들도 아시다 싶이 그중 어느 것의 포착도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경기엔 규칙이 없다. 그들은 그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생각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당신들이 만일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의 어떤 실례를 원한다면 나는 나 자신의 체험으로 부터 얻은 바 그러한 방법들이란 권유 협박·기만·매수·침투·타도 기마훈련·허세·심리적 압박·경제적 압박·유인·공갈·절도·사기·강탈·결전·살인 및 변사등을 포함한다는 것만은 말할 수 있다.

전체주의 국가에는 타 정부들을 그 전체로 혹은 그 정부요인들 혹은 그 국민들을 몰래 조종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당신들도 아시다 싶이 이들 방법의 선택 및 그 적용에 있어서 그들은 어떠한 도덕상의 금지나 이렇다 할 어떤 국내의 여론이나 그 일관성이나 지적 위신에 대한 심각한 고려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그들의 선택은 단 한가지 제한을 받으며, 그것이 곧 주어진 방법의 채택이란 그들 나름대로의 중요한 가치 판단이다.

강의자는 공산당 군대세력의 존재는 외교압력을 위한 강압적 지원을 해주며 게릴라전쟁(다음 과에서 논하는)도 정치전의 도구임을 지적하는 한편 이 공산주의 정치전을 분리시키는 그 독특한 특징을 강조해야 된다. 그것은 사회를 침투하여 붕괴시키는 조직적 기교와 소련의 침략공작에 대한 반공행위를 마비시키기 위한 여론조정 등이다.

다. 필수 독서

Norman D. Palmer and Howard C. Perkins, International Relations (Boston:Houghton Mifflin Co., 1957), 2nd ed., pp. 125~149.

Robert Strause-Hupe, et al. Protracted Conflict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9) pp29—41.

라. 선택 독서

Frederick C. Barghoorn, The Soviet Cultural Offensive(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353 pp.

(소련의 정치전의 도구로서의 문화 매개 이용에 관한 철저한 분석 및 서술.)

Cyril Black and Thomas P. Thornton, (ed.), Communism and Revolution: The Strategic Uses of Political Viol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467 pp.

(공산주의 정치전의 활동 및 이론에 관한 다수의 지식층의 저자들이

쓴 중요한 논문집.)

Paul W. Blackstock, "Indirect Aggression" in Soviet Total War, U. 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UN-American Activities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6), pp. 27—38.

(소련 정치전의 그 심리학적, 사회 학적 양상 및 그 전투 양상의 제 관계에 관한 예리한 분석.)

Serge Chakhotin, The Rape of the Masses (Chicago: Alliance Books, 1940). 310 pp.

(전 스탈린 선전 선동 대원이 쓴 최근의 서적은 아니지만 대중을 상대로 하는 선전의 전체 주의적 사용에 관한 매우 중요한 서술.)

David Dallin, Soviet Espionag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5). 558 pp.

(저명한 러시아 태생 망명 당원의 고전적 논법.)

Willam E. Daugherty and Morris Janowitz, A Psychological Warfare Casebook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58). Ch. 10, "Soviet Psychological Warfare," pp. 779—858.

(신경 전술 분야에 있어서의, 소련의 개념, 조직 및 그 작전에 관한 열 개의 기사와 개인 역사 기록.)

Allen W. Dulles, The Craft of Intelligence (New York: Harper and Row, 1963). 277 pp.

(전 중앙 정보부 부장이 국가 안전을 위한 첩보의 중요한 기능을 설명하는 도중에, 소련 정치전의 여러가지 기교를 검토 및 설명 한다. 이 저서는 냉전의 실제 경험에서 얻은 여러가지 상세한 실례를 강조하고 있다.)

Anne M. Jonas, "Changes in Soviet Conflict Doctrine," in American Strategy in the Nuclear Age, Walter F. Hahn and John C. Neff,

(eds.) (New York: Doubleday and Co., 1960,), pp. 152—168.

(후르시쵸프의 정치전에 관한 수정의 유용한 요약.)

William R. Kintner, The Front is Everywhere (Norman, Okla: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50.). 274 pp.

(다소 오래된 것이기는 하나 소련 정치전의 포괄적인 분류에 대한 사진 설명으로 현재에도 가장 유용함.)

Jeane J. Kirkpatrick, (ed.), The Strategy of Deception (New York: Farrar, Straus and Company 1963,). 444 pp.

(세계의 여러가지 환경하에서의 소련 정치전을 예증하는 일류급 분석의 광범위한 선집.)

Theodore E. Kruglak, The Two Faces of Tas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62). 263 pp.

(소련 대중 정책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관영 뉴스 기관인 타스통신의 역할.)

Dan Kurzman, Subversion of the Innocents: Patterns of Communist Penetration in Africa, The Middle East, and Asia(New York: Random House, 1963). 570 pp.

(여러 지방적 관계에 응용한 소련과 중공의 전술에 관한 포괄적이며, 충분한 실증을 갖춘 균형 잡힌 보도식 서술.)

Stefan T. Possony, (ed). A Century of Conflict (Chicago: Henry Regnery Co., 1963). 439 pp.

(특히 스탈린 시기에 촛점을 두고 역사적 수법으로 쓴 소련 공산주의 전략과 전술에 관한 철저한 분석 및 폭로.)

Edward P. Whitlemore, The Press in Japan Today A…Case Study (Columbia, S.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61). 91 pp.

(아이젠하워의 일본 방문을 앞질렀던 1960년 6월의 일본인 폭동에 관한

기술, 정치전의 한 기교로서의 폭동 조직에 대한 실례로서 유용함.)

John B. Whitton, (ed.), Propaganda and the Cold War(Washington: Public Affairs Press, 1963). 199 pp.

(냉전에서 미국 보도진들이 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바아쿤(F. C. Barghoorn)씨가 쓴 기사들.)

마. 토의 문제

1. 뽈스비크스나 나치스 같은 조직된 호전적 소수 단체 혹은 당들은 그 국가내에서 세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어떻게 정치전 수법을 이용해 왔는가? 그러한 수법들은 항상 성공적이었는가? 불란서와 알제리아에서 비밀 군대 조직(OAS)이 얻은바 체험은 무엇인가?

2. 침투 또는 침식이란 무엇을 뜻 함인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것은 막을 수 있는가? 공산주의 작전의 실례를 들어 설명하라?

3. 전복이란 무엇을 뜻 하나? 왜 이 말은 일반적으로 정치전 전략의 전체적인 분광과 같은 의미로 쓰이나? 공산의 전복 전략의 주요한 목표 단체는 무엇이냐? 예를 들어 설명 하라.

4. 당신들은 공산당들이 불법이란 선언을 받을 때에도 거의 언제나 잔존하여 후기에 재현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합니까?

5. 비 공산주의 당이나 기타 조직의 어떤 특성이 그들로 하여금 공산당 포섭 작전의 침해를 받게 하는가? 그러한 포섭을 막는 데는 어떤 방법이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나?

6. 공산주의 정치전이 특별히 악용하는 사회 분쟁 또는 쟁의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7. 지적 책임이 있는 비찬동자들은 어떻게 공산주의 정치전이 그들의 견해를 악용하는 것을 가장 잘 방해할 수 있나?

8. 공산주의자들의 침투 또는 선전에 관한 증거는 어느 한 정치 기관의 계획으로 찾아낼 수 있는가 또는 첨가적 증거가 필요한가? 필요 하다면 어떤 종류 인가?

9.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저 개발 국가들의 어떤 조건이 공산주의 정치전을 용이하게 하는가?

10. 핵 시대에 있어서의 위험을 증가는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공산주의자들은 심리적 목적을 위하여 위기를 이용하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2. 현대 게릴라전과 그 대응책

가. 주제개설

게릴라전은 전후 초기 이래 동서간의 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전면 또는 제한 전쟁의 군사적 선택권을 거부하는데 점차적인 성공을 거두어 옴에 따라 게릴라전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새로운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동시에 최근 공산주의 게릴라의 승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모스코바와 북경은 그러한 수단으로 서방의 집단 방어 질서의 성벽을 무너 뜨리고, 가상되는 세계적인 정치와 군대 세력의 균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이 게릴라전을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게 되었다. 공산주의 게릴라 전략은 전 과에서 논의된 정치전 전법의 전체 분광의 일부이거나 적어도 관련이 있다는 것은 처음 부터 알았어야 할 일이다.

역사적으로 게릴라전은 그것을 발생시킨 환경은 물론 그 형태도 다양한 것이다. 예를들면 1808~14년간의 반도 전쟁에서 스페인이 그러했듯이 약소 국가들은 침략을 받았을 때 흔히 게릴라전에 의존해 왔다. 서방에서 과거에 게릴라전은 빈번히 다만 정규 군대 작전의 일개 부속물로만 생각해 왔다. 대조적으로 현재 우리들의 관심은 주로 어떤 확립된 정부, 비록 그 정부가 확실히 식민지 통치에 이용당하고 있거나 또는 그것과 제휴를 맺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부에 대한 게릴라전에 두고 있다.

최근 공산주의자들은 게릴라전을 이용함에 있어 두가지 책략에 종사해 왔다. 즉 하나는 진짜의 토착 게릴라 활동(알제리아나 콩고에서와 같이)의 통제력을 장악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처음부터(베트남에서와 같이)토착 게릴라를 조직하는 것이다. 이 두 종류의 게릴라전은 양편이 모두 공산주의자들에게 자유세계의 반공 활동을 피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자유세계의 역 개입을 정당화 시키는 확실한 법적 판례를 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게릴라전은 적어도 그것을 패배시키는 일이 대단히 어렵게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 동력이 증가 될 때까지 반공 행위를 지연 시킬 수 있게 한다. 토착 게릴라 활동이건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는 게릴라 활동이건 그 전략 및 전술 원리는 양편 다 모택동이 유명하게 만들었고 또 그 일부는 직접 그가 계획한 개념으로 부터 파생 한다. 서방이 직면한 똑 같은 과제는 이러한 원리를 알고 적절한 역 반동 대책을 발전시켜 실천하는 것이다.

게릴라 전투는 전통적인 군사 수단으로는 정부의 군사력을 격퇴시키기에 근본적으로 너무 약한 집단들이 이용하는 전투 수단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게릴라 유형의 전투의 특유한 이점들을 포착해야 한다. 그러한 것 중에는 철저한, 사전 조직 엄격한 훈련, 탁월한 개인 훈련, 싸우거나 도망갈 광대한 공간과 그들의 기지를 숨기고 방어할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등이있다.

게릴라 전략은 그 뛰어난 도피술과 당 정부에 널리 존재하는 무질서와 불신임을 촉매시키려는 노력을 병합시킴으로써 심리적 승리를 초래하고자 애쓴다. 게릴라 활동은 처음에는 몰래 발전되어 다음에는 그 전투력을 다음과 같은 목적에 이바지 하려 한다. 즉 (1) 그 규모와 전투력에 대한 과장된 공포를 자아내는 것. (2) 그들이 포섭할 수 있는 일부 주민들을 그들의 행동에 복종시키거나 적극적으로 지지토록 강압 하는 것. (3) 적국측에 전쟁 종식에 대한 절망과 그들을 격퇴시키기 위한 방안 토의의 혼란, 대중들(그들을 이간시키려는 희망으로)에 대한 강압적 반동을 야기

시키는 것이다. 게릴라 병력의 목표는 항상 심리적이며,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결코 싸우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적은 패배도 용인할 수 없다.

게릴라 공작의 성공을 위하여는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대중적인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현대의 게릴라전은 불평을 가진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소수 정예 음모자들이 용의주도하게 조직하는 것이다. 그러나 게릴라 공작은 대중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게릴라는 흔히 순수한 지방민들의 불평을 토착민들을 상대로 일으키는 공작계획에 이용 하지만 공산주의 계획은 지방민들의 불만을 오직 전략상의 이유로만 이용한다. 게릴라들은 그들에게 식량과 물자를 공급하며 은신처를 제공하는 시민들의 관용과 지원이 없이는 활약할 수 없다. 따라서 게릴라 대원들은 시민들을 잘 대우하도록 교육 받는다. 실로 그러한 친절한 접촉이 그들의 선전의 매개체가 된다. 그러나 시민들은 흥미가 없거나 반대하거나 또는 게릴라와 정부군의 압력 틈바귀에 사로 잡혀서 게릴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게릴라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거나 패배를 맛보게 될 때마다 서슴치 않고 시민들을 위협하여 그들을 돕고 정부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들은 강력한 반대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항상 폭력을 선택한다. 그들은 또한 시민들에 대한 정부측의 폭력을 선동하려 한다. 그들의 심리적 목적을 패배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어떤 종류의 게릴라적 폭력을 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토론의 여지가 있는 문제점이다. 게릴라들의 가장 어려운 과제는 최종적 승리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숙련된 기습 공격 단위 규모의 증대, 인근 도시와 정치세력의 중심지로의 침략, 전쟁의 지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부 주민들의 인심을 게릴라편으로 옮기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 동시에 그것은 정부측의 잘못이나 부패로 더욱 용이해 지는 것이다. 쿠바에서 빠티스타군이 그러했듯이 정부군의 정부에 대한 충성심

이 저하되지 않는 한, 게릴라들은 종국에는 정규군을 형성하여 전승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전쟁을 일으키켜야만 한다. 이런 경우엔 흔히 호지명의 공작이 디엔푸에서 중공으로 부터 받었던 것과 같은 그리고 호지명이 월남에서 베트콩에게 그리고 라오스에서는 파테트 라오에게 제공했던 원조와 대등한 외부의 지원이 절대로 요구된다. 반면에 게릴라군은 그들 수의 10배 내지는 20배 이상이나 되는 정규군을 얽매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소국가에서의 그들의 위협은 협상의 해결책을 불가피 하게 만든다. 그와 같은 국부적인 승리도 게릴라 지도자들에게 정치적 세력을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들은 그 세력을 토대로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더욱 성장할 수도 있다. 더우기 도착 게릴라군의 활약이 약화될 때는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든지 필요한 게릴라 지식과 지원을 가지고 접근하여 그들의 활약에 대한 영향력 내지는 통제력을 얻는 데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다.

어떻게 게릴라 전투를 효과적으로 역습할 수 있나, 그것은 말레지아에서의 공산당 게릴라와 케냐에서의 마우 마우에 대항한 영국인들과 후끄빨라압 운동을 조종한 필립핀 정부가 실지로 시사한 바 있다. 미국이 최근에 채택한 이 영국과 필립핀의 그리고 그와 비슷한 기교란 소위 역 반동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중에는 몇몇 기본적인 지침이 있는데 그것은 설명하기는 쉬우나 우리가 돕고자 하는 정부의 지도층이 항상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게릴라와 평민들 사이의 밀접한 유대를 절단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신임을 복구시키기 위하여 보다 역연한 불평거리를 만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역 반동력으로 게릴라와 그들을 지원하는 시민들간의 연락을 단절시켜야 한다. 이러한 일은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특수 훈련을 받은 단위대원들이 게릴라 전술을 벌어 기지에 있는 게릴라들을 공격하는 동시에 그들이 만연해 있는 각 지역을 점차적으로 격리시킴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다. 게릴라들이 패배를 당하여 그들 기지의 통제력을 잃기 시작하면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특사나 정당한 대우를 한다는 공약을 통하여 그들의 사기와 단합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에

대한 난폭한 대우는 피하고 그들을 호위하거나 무장시킴으로서 또는 다시 정주시킴으로서 그들 각 개인의 안전을 도모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민들에게 승전에 대한 그리고 그 지구의 개량 실천에 대한 정부측의 의지와 능력을 예증과 언질로서 확신시키기 위하여 철두철미한 심리적 전투 계획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회의 대다수 층의 적극적 협조를 얻는것이 성공적 역 반동의 제일 우선적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그와 함께 게릴라 공작의 단단한 핵심을 격리 구축 및 파괴시키는 데 필요한 전술적 투쟁방법에 대한 지식이 병행되어야 한다.

나. 강의방법

우선 소련의 평화공존정책에 대해서는 물론 중공의 현 무력혁명정책에 대한 게릴라 전투의 그 독특한 적합성을 밝혀야 한다. 또 그것이 미개발 지역에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주는 이점을 설명해야 한다. 예를들면 정부의 민간인들과의 접촉 및 그 통제력이 제한되어 있고, 통신이 발달되지 못했고, 지세가 접근하기 어려운 점 등이다.

그 다음 토착 게릴라 공작을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조건과 책략을 알제리아나 쿠바 또는 중공등의 여러 실례를 참조 언급함으로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알제리아는 불란서 국민들의 정치적 각성을 위한 '인민' 게릴라 전쟁의 표본이며, 불란서 식민권에 대한 내분 때문에 불란서 군대의 노련한 솜씨도 아랑곳 없이 대 반란 세력은 약화되었다. 쿠바의 경우는 그 정부가 독단적이고, 부패했었고, 또한 어리석게도 반 폭행 방안으로 게릴라 책동에 대항하려 하였기 때문에 재래식 군사력을 동원할 필요가 결코 없었던 게릴라 전쟁의 좋은 예이다. 중공은 게릴라들이 재래식 전쟁 국면으로 진전해야 되고 또한 진전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 여건을 파악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상의 모든 사실로 게릴라 전쟁은 시간을 요하는 대신 인내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답해 준다는 것을 상기시킬 수 있다.

다음 공산주의자들은 게릴라전을 위한 훈련을 시키거나 조직적 기술을 제공하거나 또는 물질적 지원을 해 주는 데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남북 베트남에서 또는 라오스에서의 그들의 공작상황을 실례로 들어 강조할 수 있다.

끝으로 전형적이고 효과적인 대 반란책(가 항에서 논의된 바와 같은)을 아래에 열거한 루이시안 파에가 쓴 저서를 충분히 다룬 바 있는 영국이 말레지아에서 겪은 경험을 빌어 잘 설명할 수 있다.

요약하면 본 강의는 게릴라전이나 또는 대 반란책에 있어서의 정치적, 심리적, 군사적 제 요소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강조해야 된다. 군사적 요소를 경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대 반란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간된 사회층의 충성과 적극적 지원을 다시 찾아야 된다.

다. 필수 독서

Samuel Huntington, "Guerilla Warfare in Theory and Policy," in Modern Guerrilla Warfare, ed. Franklin Osanka (New York: Glencoe Free Press, 1961), pp. xv-xxii.

P. Parnet and J. W. Shy, "Guerillar War and U. S. Military Policy: A Study," Marine Corps Gazette, January 1962, Vol. 46, pp. 24—33.

라. 선택 독서

James E. Cross, Conflict in the Shadows: The Nature and Politics of Guerrilla War, (Garden City, N. Y.: Doubleday and Co., 1963). 180 pp.

(게릴라 전략을 가장 명확하고 예리한 수법으로 잘 분석한 서적중의 하나.)

B. Fall, Street Without Joy: Indochina at War, 1964—1954 (Harrisburg, Pa.: Stackpole Company, 1961). 322 pp.

(불란서의 공문서류를 취급한 적이 있고 그 지역 현황을 몸소 목격한 바 있는 젊은 정치 과학자의 저서로 불란서가 인도지나 전쟁에서 어떻게 싸웠고 또 패배했던가를 소설 형식으로 재미있게 썼음.)

S. B. Griffith, Mao Tse-tung on Guerrilla Warefare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1). 144 pp.

(모택동이 쓴 게릴라전에 관한 전통적 서적의 번역판으로 미 해병대 예비역 준장이 쌈뮤엘 삐 그리피드의 비평적 서언을 첨가 했음.)

Ernesto Guevara, Che Guevara on Guerrilla Warfare, with on Introduction by Major Harries-Clichy Peterson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1). 85 pp.

(카스트로 게릴라 활동을, 그 분야의 주요한 이론가가 분석한 책. 모택동의 착상을 밀접히 본뜬 저서로서 별다른 새로운 관념은 주지 못하나 게릴라전의 주요 원칙에 관한 짧은 개요로서 유용함.)

John J. Johnson (ed.), The Role of the Military in Underdeveloped Countr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427 pp.

(한 국가의 건립 도상에서 군대가 맡아 할 수 있는 중요한 건설적 역활을 시사하며 정치, 경제면에서의 군대의 참여에 관하여 전통적 불신을 계승해 왔던 일부 미국인들 측의 재고를 야기시킬 수 있는 어떤 견해점을 제시하는 소론들을 도전적으로 집대성한 서적.)

F. M Osanka(ed.), Modern Guerrilla Warfare (New York. Glenoe Free press, 1961). 519 pp.

(1940—1946년에 걸친, 싸우는 공산주의의 게릴라 활동이라는 부제를 붙인 이 저서에는 동 제목에 관하여 레닌과 쉐 구에바라가 쓴 기본적 기록과 또 성공적인 반 게릴라 작전에 관한 특출한 기사를 포함하여 설흔 일곱개의 기고물이 실려있다.)

Peter Paret and J. W. Shy, Guerrillas in the 1960's (New York: Frederiick A. Praeger, 1962). 90 pp.

(게릴라전의 이용에 따르는 군사적 정치적 제 문제에 관한 분석은 물론이고 게릴라전의 원리 원칙에 관한 간결하고도 포괄적인 고찰.)

Lucian W. Pye, Guerrilla Communism Malay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6). 369pp.

(말레지아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중공의 사수를 받은 모사의 결과를 결정

지은 정치적 심리적 군사적 제 요소에 관한 한정적 연구.)

G.K. Tanham, Communist Revolutionary Warfare, The Vietminh in Indochina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0). 176 pp.

(인도지나에서의 월맹의 공작을 역사적으로 분석적으로 정밀히 서술한 책으로 인도지나 반도를 휩싸려는 월맹의 판떡진 장기 목표에 대하여 강조함.)

Colonel Napoleon D. Valeriano and Lieutenant Colonel Charles T. R. Bohannan, Counterguerrilla Operations: The Philippine Experience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275 pp.

(게릴라 작전과 반 게릴라 작전에 관한 분석으로서 그 세기의 전환기의 경험과 최근의 경험에 관하여 서술함.)

마. 토의 문제

1. 공산주의자들이 이끄는 게릴라전은 미국의 반격 금지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나?

2. 이렇다 할 공산주의 영향이 별로 개입되지 않은 어떤 민족주의 게릴라 폭동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그것을 진압하기 위하여 그 정부에 원조를 하지 않아야 하나? 그러한 경우에 대 반란세력 보강에 도움이 되는 요소는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게릴라는 토착단체를 이용하여 혁명적으로 세력을 장악함에 있어 또는 타국 개입의 도구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가? 각 경우의 실례를 들어라. 민족주의는 게릴라 동기화와 어떤 관련을 갖고 있나?

4. 게릴라 공작의 성공을 위한 군사적 지리적, 인구학적, 정치적 필수 조건은 무엇 무엇인가? 역사상의 혹은 현대의 실예를 들어 설명하라.

5. 게릴라 공작을 성공시키는 데 기초가 되는 활동원칙은 무엇 무엇인가? 최근의 공산주의자들의 실지 체험을 들어 설명하라.

6. 성공적인 대항책의 필수 과제 또는 2단계는 무엇인가? 최근의 서방의 경험의 실례를 들어 설명하라.

3. 교육, 과학 및 대외 정책

가. 주제 개설

미국은 과학자들을 산출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 앞에 전개되는 우주시대에 있어서 공산주의 세력과 성공적으로 대결하는 데 필요한 인력의 광범한 기반을 세우기 위한 그 교육계획에 있어 인적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현 세대가 이 질문에 여하히 답변하는가 하는 것으로 미국의 세계 공산주의와의 대결의 결과를 측정할 수도 있다.

한 국가의 잔존은 부여받은 인적 자원 및 능력을 발전 시키고 이용할 수 있는 그 국가의 능력 여하에 달려 있다. 우리들의 개방된 사회가 광범하고 전진적인 인류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해서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오늘날의 우주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잔존 여부가 궁극적으로 달려 있는 소련과의 권력 투쟁에서 성공적 대결을 하는 데 필요한 인적 기술의 그 유형과 양을 발전시키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한 국가의 교육적 성과 우주시대에 있어서의 그 세력상 위치와의 관계는 애석하나마 1957년의 두 개의 스푸트니크를 비롯한 소련의 유도탄 및 우주 과학에 있어서의 극적 위업이 있은 이래 명확해졌다. 서방측 지도자들은 소련이 지난 40여년간에 과학과 기술학에 맡겨 온 중요한 임무를 더욱 면밀히 검토 하기 시작했다. 볼세빅당이 권력을 장악했을 당시에 레닌과 그의 동료 공산당 지도자들은 교육에 대하여 확고한 약속을 했고 그후 소련 사람들은 그 약속을 끊임없이 존중해 왔다. 소비에트 사람들은 교육을 세계적 투쟁에서의 기본적 무기로 생각해 온 동시에 과학과 기술학에 대하여 그네들이 그 분야에서 훨씬 계속 앞장서고 있음을 시사하는 방향으로 그 공약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국립과학재단의 후원으로 니콜라스 데윗트가 쓴 소련의 '교육과 전문적 고용'이라는 제명의 연구논문이 1961년에(미국 정부 출판사 856 pp.)발표

되었다. 이 논문은 소비에트 교육공약 전 범위를 다루고 있어 온건한 논문이다. 데윗트씨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소련 의지도자들은 자본주의 민주국가와 공산주의 세계간의 경쟁 승부는 과학과 기술학 분야에서 판가름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확신은 그들이 전문 훈련 계획 과정상 공학과 과학들에 중점을 두는 데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소련의 이와 같은 국제 세력 정책상의 위협을 우리가 꼭 그래야 하듯이 심각히 받아들인다면, 미국측의 공학과 과학교육의 적절성(질적 의미로는 물론 이려니와 양적 의미로도 여부의 문제는 중추적 중요성을 갖게된다. 소련의 과학적 및 기술적 인력강화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그것이야말로 인류학문의 다른 분야 인문학, 사회학 기타 고등 보통 교육의 제 영역에 있어서 소련 국민들에게 교육의 기회 균등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세력의 주요한 원천이 되어 왔다(455페이지).

소련의 대 교육 위입에 관한 최근의 몇몇 조사서는 물론 데윗트 교수의 논문은 생생한 사실을 고려 대상 문제로 제시한다. 소련 지도자들은 국민총생산고 중, 미국이 소모하는 비용의 두배나 되는 액수를 교육에 소모하고 있으며, 더구나 그들의 훈련을 받은 우수한 전문가들 중에서 미국이 부임시키는 숫자의 두 배나 되는 전문가들을 교직에 복귀 부임시키고 있다. 약 90만에 달하는 소련 중등학교 교사의 37%가 자연과학과 수학 부문의 자격이 부여된 전문가들이다. 미국에서 고등학교 교사의 자격을 받은 1959명의 대학 졸업자 중 약 6%가 수학 교사의 자격을, 9%가 자연과학 교사의 자격을 얻는다. 소련에서는 국민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100명중 겨우 30명만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얻을 수 있지만 소련의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모두 물리를 4년간, 화학도 4년, 생리학은 6년 또 천문학을 1년간 배워 온 것이다. 소련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들의 교육제도의 경쟁적 본질을 곧 깨닫게 되고 또 이것이 사실상 교육 성과를 장려한다. 소련의 대학 등록은 비교적 동결된 편으로 대학 졸업자들을 위한 적절한 취직 자리가 없고, 또 그 교육상의 제도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초

전문화 되어있다.

공산주의 교육제도가 문학, 어학, 기타 인문학을 전적으로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의 어떤 조사서에 의하면 소련에 학교 제도상 그 교과서는 학생들에게"미국의 학교가 미국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 보다 더 넓고 많은 문학,어학,역사 및지리에 관한 지식"을 제공함이 지적되어 있다. 소련의 4학년생의 독서 어휘력은 미국 4년생의 2천미만의 평균 어휘수에 비해, 약 1만 단어의 평균에 달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교육제도는 역시 여러 가지 점에서 볼 때,뜻 깊은 인격 도야에는 이바지하지 못한다. 데윗씨가 다음에 지적한 바와 같이 :

> 소련의 고등교육은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인간의 정신을 고도의 능력 한계까지 발전시키는 데는 성공하지만, 사회적 가치의 활동분야에 있어서, 자주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를 발휘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을 박탈한다. 소련의 사회적 목적과 정치적 목표는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현재에도 계속 소련 통치자들이 설정하는데 그 통치자들이란 우선적으로는 공산주의 전략가인 동시에 다음으로는 공예 전문가인 자들이다. 그들이 교육 목적을 사회와 사회의 제 가치관을 비판할 수 있는 독창적 지성의 발전에 두었다면 소련 고등교육은 실패 그 자체임이 분명하다. 만일 응용 전문기술을 발전시켜, 일 개인으로 하여금 전문적 기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면,소련 고등교육은 의심할 바 없는 성공으로서 일시적 도전 태세는 물론이고,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간의 장기 투쟁에 있어서 강경한 협박 태세를 취한다.(548 P.)

소련의 교육상의 도전의 심각성은, 소련이 훈련된 공학자들 및 과학자들을 배출함에 있어 점점 더 앞장서고 있는 사실에서도 들어난다. 양적면에서만이 아니고 질적면에서도 그렇다. 보통 미국의 공과 학생은 4년 내지 4년반의 코스에 따라 25과목에 대해 3천7백내지 4천 시간의 강의를 받는다. 대조적으로, 소련 공과계 학교는 5년 반 학제로서, 졸업생들은 35 내지 40 개의 개별 학과목에 5천2백내지 5천5백 시간의 강의를 받어 온

셈이다. 미국의 대학에서는 매년 약 9만명의 기사들과 과학 전문가들을 배출하지만 소련의 배출수는 이것의 두배 이상이나 된다. 따라서 소련의 교육면에서의 도전을 신중히 다루어야 함은 명확한 일이다.

미국은 자유로운 사회의 단체를 통하여 소련의 이 무시할 수 없는 교육상의 도전에 대항해야 했으며, 이는 우연히도 다른 공산국가에서의 방식과 같다. 러시아가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앙집권적 계획과 직접적인 강압에 의존하는 방식과는 반대로 미국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여지껏 경시했으나 퍽 중요한 학문의 분야로 적당히 진출하도록 고무하는 동기를 마련해야만 했다. 널리 인정되는 바, 과학과 기술학에 대한 교육면에서 러시아와 대등하거나 또는 그 보다 앞서려는 노력을 하는 동안 우리는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소홀히 할런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음은 물론이다.

지나간 몇년 동안에 과학적 및 기술학적의 진보는 산업과 전쟁에 일대 변혁을 일으켰고, 외계의 탐험 및 이용에 대한 놀라운 가능성을 드러냈다 우주공학은 아직 미숙하긴 하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의 혁명적 약진은 이미 미국의 국력과 위신을 진작 시켜왔다. 정부가 점점 확대된 범위로 진행시키는 대규모의 연구는, 모든 연구가 정부의 제재를 받는 소련에서도, 그리고 또한 정부의 편연이 그 방면의 교육을 촉구하는 계획적 필수조건을 더욱 더 증가시키는 미국에서도 중요한 역활을 해 왔다.

레닌이 '교육은 무기다' 라고 언명한 그 태도의 이면에는 아직도 언급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공산주의 국가의 훈련 교육은 대저개반국가 조직이나 그 국가들을 위한 유능한 지도자들의 양성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다. 예를들면, 소련의 혁명대원 훈련은 초기 중국 공산당의 지도권 확립에 중요한 역활을 했다. 재론하거니와, 소련 교육제도에 관한 많은 연구 논문에서 지적했듯이 소련 교육제도의 우선적 목표는 공산주의 이론과 공산주의 제도에 대한 신념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공산국가의 교육기관에서 배운 학생들은 우리 나라 정부 체제를 잘 분석하고 파

악(얼마나 외곡 되었건 간에)하도록 훈련되어 왔다.

나. 강의 방법

본 강의는 인적 자원의 중요성에 관한 분석과 그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에의 의존에 비롯하여 시작함이 유리한 수 있다.

그 다음, 미국의 대외 관계상 더욱 뛰어난 우리의 지도력과 보다 유식한 우리 민중을 배양키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밝혀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외국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는 미국이 소련보다 숫자적으로는 비교적 유리함에 유의해야겠다. 그런데 이 비교에 있어서, 소련 연맹자들은 공산주의의 간부들을 해외 공산당들의 전 세계에 걸친 조직망의 부원들로 제공해 왔고, 이 조직망은 이리하여 자유진영에서 그 대조물을 찾어 볼 수 없는, 소련 외교 정책상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조직 무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을 주목함도 중요한 일이다. 더우기 미국에서 유학하는 외국 학생의 상당한 퍼센트가 국제사항과 다만 부수적 관계만 갖고 있는 분야의 학술을 한다.

자연과학과 공학 교육면에서의 미국과 소련의 비교 및 대조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소련의 교육과 전문가의 고용'이라는 국립 과학 재단 논문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에 대한 보충으로, 프레드엠 헤싱게르씨의 "크고 붉은 학교"라든지, "쟈니는 모르는 것을 이반이 알고 있는 것과 디크와 제인이 없을 때의 독서"라는 아뒤르 에스투레이스씨의 논문 조사서 등을 근거로한, 소련과 미국의 교육과정의 비교를 첨가할 수 있다. 러시아의 사회과학 내용이 미국의 그것보다 저열함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투쟁 전략의 도전은 미국의 사회과학 교육이 직면해야 되는 결정적 난제를 제시한다. 그 외에도 미개발지역의 문제를 처리하는 미국의 통솔 체제에도 중요한 진전과 변화가 요구된다. 소련의 사회과학이 해답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사회과학 분야에서 우리가 비교적 우세하다고 자만할 이유는 못된다.

한 국가의 세력과 정책의 기반으로서 필요 불가결한 과학및 기술학의 점진적 중요성을 강조해야 됨은 물론이다. 이에 미국이 최근 몇 년간 '연구와 발전의' 분야에 대해 어마어마한 공약을 했었음은 강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 예를 들면 1966년 미국 예산안은 '연구와 발전' 기금으로 150억불을 예산하고 있다. 그러한 막대한 비용은 미국의 교육제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강사는 미국의 교육 및 과학계가 서부유럽에 범람하는 훈련과 재능을 따를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서부 유럽과 일본과의 밀접한 우리의 국교관계로서 과학 지식의 교환을 통하여 지적 자유와 협동적 국제활동을 증진시키는 미국의 외교정책 목적의 가치를 강조할 수 있다.

본 강의의 경우엔 종결을 지을 때 처음에 지적했던 몇몇 사항을 재 강조함이 이상적이다. 즉 냉전에 있어서의 교육의 절대적 역할, 고등학교에서의 사회과학 교사의 중요한 위치, 자유가 공산주의자들의 전체주의와 무서운 투쟁을 할 때, 자유의 가치와 원리를 알아야 할 필요성 등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청년들에게 마르크스주의적 레닌주의를 주입시키려는 계획에 있어서의 그들의 실패를 자인했고, 그들 자신들의 지식인들이 정직한 지성의 적시를 버티어낼 수 없는 이론에 대해 더욱 더 많은 질문을 던져왔지만 미국의 교육은 우리의 청년들에게 민주주의 원리와 임무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보급시켜 왔다고 누가 주장할 수 있는가?

다. 필수 독서

Fred M. Hechinger, The Big Red Schoolhouse, revu. ed. (New York: Doubleday & Co., 1962), Chapter 9, PP. 158—190.

U. 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eates Foreign Policy: Possible Non-military Scientific Develelopments and Their Potential Impact on Foreign Policy Problems of the U.S., 86 th Cong. 1st Sess.,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9), Chapters I, 4 and 6.

라. 선택 독서

Harrison S. Brown, et al, The Next Hundred Years: Man's Natural and Technological Resources (New York: Viking Press, 1957). 193 PP.

(세계의 물질적 자원, 동력자원 및 식량자원에 대한 그리고 또 그 미래의 수요량의 공급에 있어서 어찌하여 두뇌력이 그 성공의 궁극적 척도가 되는가에 대한 사고를 일깨워 주는 분석.)

Nicholas Dewitt, Soviet Professional Manpower (Washington: National Science Fouadation 1955). Also Education and Professional Employment iu the USSR (Washington: National Science Foundation, 1961). 400 PP. and 856 PP.

(소련의 인적 자원의 훈련과 미국과 소련이 전념을 기울이는 과학적 및 기술학적 분야에서의 투쟁의 미래에 그것이 끼치는 반향을 분석하는 두 개의 표준적 학술 저서.)

Caryl P. Haskins, The Scientific Revolufion and World Politics (New York: Harper &Row, for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64). 115 PP.

(저명한 생물학자이며 일반 분야에서도 권위자인 미국인이 쓴 강의록으로서 현대 사회에 대하여 과학이 끼치는 영향을 개관 한다.)

Rockefeller Brothers Fund, Panel Report of the Special Studies Project, The Pursuit of Excellence: Education and The Future of America (New York: Doubleday and Co, 1958). 48 PP.

(이 분석적 보고서에서는 우리 자유 사회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성, 도전의 본질, 현 교육제도 및 인간 능력의 이용과 오용 등을 검토한다.)

Strengthening American Science, A Report of the President's Sci-

ence Advisory Committee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8). 36 PP.

(이 필수적인 영역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가에 대한 공식 조사 보고서.)

Arthur S. Trace, Jv., What Ivan Knous That Johnuy Doesn't (New York: Random House, 1961). 213 PP.

(미국과 소련의 교과 과정과 독서용 문학, 외국어, 역사 및 지리를 포함하는 교과서에 대한 각성적 비교로써 소련에서는 아동들을 내일의 세계 지도권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 시키고 있는 가를 도표로 설명한다.

U.S. Congress, House of Representatives Select Committee on Astronautics and Space Exploration, Next Ten Years in Space, 1959—1969: Staff Report, 86th Cong., Ist Sess.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9). 211 PP.

(미국의 우주계획에 관여하는 일류 과학자, 기사, 산업가 및 군대와 정부 관리들의 사유에 관한 요약서.)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Education in the U S S R, Bulletin No. 14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0). 226 pp.

(시대에 뒤떨어진 감은 있으나 공산주의의 교육 공약의 전 범위와 그 공약의 미래에 대한 암시를 밝히는 데 있어 아직도 지대한 가치가 있는 주의 깊은 연구서. 이 저서가 스프트니크 발사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무시되어 오다가 그 후 이 저서의 수요는 여러 차례의 재판을 요하게끔 된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도표, 챠트 및 역사적 자료가 실려 있고, 짜임새가 훌륭하여 읽기 쉬운 저서이다.)

마. 토의 문제

1. 현대의 세계에서 미국이 그 지도세력의 위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인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인적 자원의

이용에 있어 자유사회의 주요한 이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2. 국가 안전에 대한 공헌이라는 면에서 당신들은 미국 교육제도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떤 점에서 소련의 교육이 미국 교육보다 우세한가? 현대 사조 경향을 연 어떤 기획 때문에 미국은 저절로 과학적 및 기술학적 면에서 소련에 비해 '이류세력'이 되는 것인가? 미국의 교육은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발전을 희생시키지 않고 과학 및 기술학 분야에서의 소련의 도전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나? 장차 우리는 국민학교 때부터의 물리, 수학 또는 보다 더 어렵고 다방면에 걸친 교과과정 시행에 중점을 두어야 하나?

3.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중 어느 분야의 연구가 가장 긴급히 요구되나?

4. 공공사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는 미국 학생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기술을 획득해야만 되나?

5. 순수 과학과 그 연구에 대한 정부의 주요한 책임은 무엇인가? 국가의 과학적 및 기술학적 기술을 증진키 위해 정부와 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부가 후원하는 연구는 자유로운 과학 연구의 원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당신들은 과학 정보의 비밀 제도를 통제하는 규칙의 근원이 되는 건전한 원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6. 스프트니크 1호 발사의 성공과 그 후의 몇몇 성과로서 소련은 대부분의 자연과학, 공학 및 군사부문에서 마치 그들이 미국을 앞지르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자아냈다. 우리는 자유세계에서의 국가 위신과 지도세력 면에서 그러한 위업이 끼치는 영향을 온당히 평가했던가? 최근의 미국의 위업의 성과는 이전의 미국 지도권의 인상을 복귀시켰나? 이제 우리는 우주개발을 충분할 정도까지 강조하고 있는가?

7. 한 국가의 외교정책과 국력 위치에 대하여 과학과 기술학은 근본적으로 무슨 관련을 갖고 있는가? 미국 외교상 과학자는 일개 역할 부분을 갖는가? 미국의 대외 원조 계획에 자연과학 기사들이나 공학 전문가들이

공헌하는 바는 무엇인가?

4. 공산 진영과 자유 세계간의 대결의 전망

가. 주제 개설

실제적인 의미에서 앞서 검토한 모든 내용은 이 마지막 1과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 마지막 과도 어떤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의 보람을 지워줄 뿐이다. 미래에 대한 전망은 기껏해야 추론에 불과하며 또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한다. 미래의 공산주의자들의 행동 양태를 점쳐보는 데는 중공과 소련과 같은 중요한 공산국가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행동 과정과 이념 또는 현세적인 종교로서의 공산주의가 갖는 미래의 전망을 구별함이 좋을 것 같다. 전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즉 이들 공산국가는 더 강화될 것인가 아니면 약화될 것인가? 중공과 소련간에 점점 더해가는 상위점은 중·소간의 관계뿐 아니라 자유세계와 한 때는 일원화 되어 있던 공산진영과의 사이의 전체적인 세력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동구 및 아세아에서의 민족주의와 국가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추세는 소련의 정치적 능력과 군사적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와같은 추세는 새로운 지도력에 의하여 반전될 수 있는가?

학생들은 세계 공산주의의 강점과 의도뿐만 아니라 그 취약점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독재는 무자비하고 비밀을 좋아한다. 그러나 비능률적일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너무 쓸데 없이 버둥거리고 또 국가목표 결정에 너무 장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정책에 대한 공공 비판과 반대 의견으로 부터 정책과 그 우선 순위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수정되기도 한다. 당 체제하에서는 '내부의' 과오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용감한 언론인이나 반대당의 지도자 같은 건 있을 수 없다. 독재자의 어리석음과 편견은(힛틀러, 모택동, 스탈린, 뭇소리니 등) 그 독재자가 죽기 이전에는 고치기가 힘들고 또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공산주의는 냉전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약점이 있으며, 자유세계는 이 약점을 이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① 중공과 소련과 쿠바는 자기의 인민을 먹일 수 있는 성공적인 농업 정책을 추진할 능력이 없다. 이들 국가는 모두 빈약하기 짝이 없는 국영 농장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② 소련 지도자들 자신에 의한 스탈린과 후르시초프에대한 '폭로행위'로 인해 모스크바의 무류성(無謬性)에 대한 전세계 공산주의자들의 신뢰심이 해이해져 가고 있다.

③ 대 러시아 계획이 소련내의 비 러시아 인민과의(우크라이나, 조지아 및 발틱) 계속적인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같이 소련의 '내국식민지화'로 인한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④ 낮은 생산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방으로 부터 기계, 화학공장, 식료품 및 공업기술을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 공산주의의 경제적인 열세를 입증할 수가 있다.

⑤ 모택동의 '대 약진 운동'과 후루시쵸프의 '처녀지 개간 계획'과 같은 대규모적인 정부계획의 공인된 실패.

⑥ 인민들이 불만을 품고 배반할지도 모른다는 당내의 불안.

⑦ 전 지배계층에 걸친 숙청에 대한 공포.

⑧ 서방측에 많은 피난민을 가져왔고 또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철조망과 감시탑과 베르린 장벽으로 자체 제도의 나쁜점을 입증하게 만든 많은 탈락자들.

⑨ 과도한 중앙집권화와 북경과 모스크바와 같이 먼거리에 있는 관료가 내리는 결정으로 인한 비 능률.

⑩ 이념에 의해서만 교육받은 젊은 세대들이 공약과 실천간의 부조화를 보게될 때 생기는 시니시즘.

그러나 어떤 작자가 지적하듯이 '공산주의 진영의 취약점이 반드시 공격 취약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약점이 공격 취약점으로 되는 경우는 적이

이를 활용할 능력과 의사가 있을 때이다. 우리와 공산주의자와의 결투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신속한 활동으로 적의 방어선을 넘어서서 수비를 포기시키고 전략을 변화시켜 쓸데 없이 정력을 소비하게 하는 것이다.

이념으로서의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즉 지난 세대 동안 공산주의가 분명한 쇠퇴를 하고 있는 산업화된 국가에서 공산주의 호소력이 다시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전망이 있는가? 또 이태리에서는 계속 증가하는 유권자와 이 쇠퇴 현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후진국에서의 전망은 어떤가? 아시아, 동남아 및 인도에서의 중공의 제국주의적인 팽창과 서반구에서의 공산주의 활동기지의 확립은 이와 같은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도전의 중요성을 미국과 기타의 민주국가들이 알게 되었을 때 활용 가능한 그 풍부하고 다양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어설 것인가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나. 강의 방법

주제에 대한 개요는 주제 소개에 설명된대로 요약한다. 다음 공산주의 국가 특히 소련과 중공의 현재의 힘을 앞의 강의에서의 자료를 이용하여 현실적으로 평가한다. 소련이나 중공이(현재의 경제적인 난관에도 불구하고) 멀지않아 근본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는 희망은 그렇게 밝지가 않다. 공산정부는 생활 수준을 서방측의 불경기시의 생활 수준 정도로 유지하면서 국민총생산의 대부분을 자본재 생산에 투하하고, 이렇게 하여 경제적인 고도성장을 유지하면서 군비 증강과 군사력 확충에 전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독재적인 정부의 통제는 기본교육, 과학 및 기술의 강제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발전은 모두 군사적인 목적에 따라 그 우선 순위가 결정된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찰국가의 통제 완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대중의 압력이 이와 같은 발전을 지연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도 정도의 문제다.

열핵무기와 그 운반체의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나 막대하므로 소련과 미국간에 군비통제협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록으로 보아 소련이 미국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사찰 조항을 포함하는 협정은 이를 받아드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중공과의 이와 같은 협정은 더욱 요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들은 앞으로 무제한으로 그들의 군사력을 증강시킬 것이라고 내다봄이 옳을 것 같다.

다음, 현재와 같은 조건속에서는 공산국가 내의 현존 정권이 전복되더라도 지금까지의 전망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소련에서와 같이 새로운 집단이 중공에서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기본적인 모형을 그대로 계속할 뿐이다. 왜냐면 공산주의 이념과 이 이념이 결합하는 제도는 고정되어 있고, 포괄적이며, 배타적이고 또 미래의 지도자들도 똑같은 일반적 테두리 안에서 행동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국가 내부에서의 진화론적인 변화의 가능성도 약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동 유럽에서의 소련의 지배체제는 점차 유동적인 형태로 되어가고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혁명적인 정열이 식어들기 시작 했는가? 또는 앞으로의 열핵 우주시대에는 '핵위협'의 유혹이 더 위험하며,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인가?

소련은 이제는 '포만된 국가' 즉 공산주의의 이념적인 대의를 위해서는 그 어떤 심각한 위험이라도 불사하던 이전의 혁명적인 정열과 봉사정신을 이제는 그 지도자들이 잃어버렸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중공대변인이 최근 소련 지도층에 대해 이와 같은 비난을 한 바 있으며, 소련은 대신 중공을 사회주의 진영에서 위험한 '초 혁명집단' 이라 응수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소련의 혁명적인 정열은 계속되고 있다고 인정하나 공산진영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그 팽창주의적인 모험이 가까운 미래에는 지연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비록 그와 같은 변화가

생긴다 할지라도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전략의 선택문제는 용이한 것이 아니다. 왜냐면 소련은 그 자체의 힘만으로도 미국의 이익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미국은 물론이며) 정책 입안자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특성의 하나는 열핵무기시대의 양 강국 사이의 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위험과 그 격렬성이다. 예를들어 1962년 11월 쿠바의 유도탄 위기는 분명 양편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하였다. 이 위기에서 소련은 현실적인 관점에 따라 조심스럽게 군사적인 대결을 피하고 물러섰으며, 중공의 열광적이고 무책임한 분자들은 이를 비난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쿠바에 위험을 무릅쓰고 유도탄을 설치하여 세력균형을 파괴하려고 기도했던 소련 지도자들의 처음의 의도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구나 한선 볼드윈 말과 같이 '군사적인 기술혁명에는 끝이 없으며' 제임스 알 킬리맨 박사는 과학과 공학의 경쟁에서의 자기 만족에 경고를 하고 있다. 공산주의 전략은 항상 기습과 기만을 애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무기에서 '돌파구'를 찾는 소련의 노력을 과소평가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소련의 조심스런 행동은 만성적인 베르린 위기에서 '최후 통첩기한'을 계속 연기하는 사실에서나 국내의 성장문제에 다시 몰두하는 사실 등에서도 볼 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소련 생활이 산업화, 도시화, 표준화 및 현대 생활에 따른 특성 등으로 인해 점차 부드러워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소련 사회생활에서의 그러한 변화는 특히 당 관료가 소련 정치기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한 외교정책에는 거의 영향을 미칠 수가 없을 것이다. 경영 및 기술집단에 대한 보상과 국내 생활면에서의 비록 작으나 눈에 보이는 발전은 국내의 지지를 받는 더 혁신적인 공산주의 운동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소련 외교정책을 더 공격적으로 만들것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비록 소련인의 가치관과 야욕이 변혁하고, 대외정책에서 보수주의가 증

가하며 생활수준의 변화가 국가 내부의 변화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이 변화가 반드시 공산 지도층의 비타협적인 이념적 적대 의식을 감소시킬지는 의문이다.

일면 전 수상 후르시초프는 미국과 그 우방을 이간시키고 자유세계의 균형을 파괴하기 위한 정치적인 곡예로서 주기적인 모험행위를 하면서도 전쟁 후기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스탈린 시대 이후부터 줄곳 미·소간의 긴장도를 감소시켰다. 그러나 후르시초프는 때때로 스탈린과 같은 교활한 행동을 하면서 저개발국가에 정책적인 압력을 지속하였으며, 이는 스탈린 때보다도 더 대처하기가 어려운 문제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세계는 최근의 소련의 행동변화를 보고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점점 더 성숙하게 되고 또 핵균형을 이루게 되자 공산주의자들 간에는 그들의 생활방법이 진실한 '미래의 물결'이며, 모든 역사적인 힘은 그들을 후원하고 있다는 자신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세계 공산주의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 어떤 역사적인 계기가 형성될 적당한 순간까지 계속 기다린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요약해서 유명한 미국 역사가인 윌리암 알의 랭거의 평가에 따르면 "소련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소련의 긴장 완화의 목표가 그 무엇이든, 공존의 의미가 어떤 것이든 간에 앞으로 소련과 공산세력들은 경제적인 원조 정치적인 반란행위 및 군사적인 격파등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영향력과 지배를 확대하기 위한 그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의 교육자의 과제는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미국의 모든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우리가 받고 있는 위협의 전모를 아무리 그것이 복잡하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해하게 하는 것이며, 정치가의 과제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대중의 지지하에서 공산주의 위협에 대처하고 법에 따라 자유가 지배하는 세계를 지향하는 가운데서 국가 이익을 보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국가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명감 있고, 계발된 시민들 만이 이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제공할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인 위협에서 살아남아야 할 것이라면, 학생이나 선생이나 다같이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점과 동기 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처음 시작한 데서 강의를 끝 맺도록 한다.

다. 필수 독서

President' s Commission on National Goals, Goals for Americans, William L. Langer, "The U. S. Role in the World" (New York: Prentice-Hall, Inc, 1960), PP. 299—330.

Robert Strausz-Hape, et al, A Forward Stsategy for America, Chapter V, "Building the Free World" (New York: Harper & Brothers, 1961), PP. 45—62.

라. 선택 독서

Frank R. Barnett, William C. Mott and John C. Neff (eds.), Peace and War in the Modern Age:Premises, Myehs, and Realities (Garden City, N. Y.: Anchor Books, Doubleday & CO., Inc., 1965), 421 PP.

(냉전의 현상에 관한 논문이며, 자유세계에 대한 미래의 전망과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Zbigniew Brzezinski and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Power : USA/USSR (New York: Viking Press, 1964). 461 PP.

(전략과 정치학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지도적인 두 학자가 그들의 특이한 재능을 서로 합해 그들의 목적에 따라서 또 수단과 목적의 일치를 기대하면서 양 제도의 기능을 비교 검토한 것이다. 수단과 목적의 일치의 불가능함을 알게 된다.)

Jay H. Cerf and Walter Pozen (eds.), Strategy for the 60' 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0). 155 PP.

(세계 중요지역의 외교정책에 대한 상원의 13가지 보고서를 요약한 책이다. 분단 토의에는 불필요한 전제가 많이 있다.)

James Daniel and John G. Hubbel, Strike in the West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63). 180 PP.
(정책수립자들이 가정한 적의 반응에 따라 정보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Eleanor Lansing Dulles and Robert Dickson Garne (eds.), Dent-ente : Cold War Strategies in Transition (New York:Frederick A. Praeger, 1965) .307 PP.
(미국과 소련과의 현재의 관계를 군사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에서 다룬 재미있는 논문들로 되어있다.)

Thomas K. Finletter, Foreign policy' the Next phase : The 1950'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0). 235 PP.
(외교관이며 전 공군장관인 필자가 보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다. 처음에는 1958년에 쓰여 졌으며, 필자는 특히 아세아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요구에 대한 적응을 제안하고 있다.)

President's Commission on National Goals, Goals for Americans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Inc, 1960), 372 PP.
(국민생활의 중요한 분야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계획을 전개시킨 초 당위원회의 보고서를 포함하고 있다. 경제학, 정부, 외교정책, 교육, 과학 및 다른 중요한 분야의 해당 전문가들에 의한 이 중요한 소고는 미국 지성인들 사이에 논쟁과 토론의 기초를 제공해 준다.)

Andrew Shonfield, The Attack on World Poverty (New York: Random House, 1960). 269 PP.
(이 책은 빈곤문제와 그것이 갖는 평화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미국의 경제원조계획을 살펴보고 부적당하다고 주장한다. 원조는 외교정책과 관계가 있어야 하며, 미국에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곳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Robert Strausz-Hupé, James E. Dougherty, and William R. Kintner, Building the Atlantic World (New York: Harper and Row, 1963) 400 PP.

(공산주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앞으로의 통일과 힘의 기초로서 대서양 공동사회를 검토하고 있다.)

마. 토의문제

1.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의 요인은 ⓐ 소련에서는 무엇이며 ⓑ 중공에서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요인이 세계의 세력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미래의 세력균형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약점은 ⓐ 소련에서는 무엇이며 ⓑ 중공에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의 강점과 약점의 결과는 어떤식으로 자유세계의 활동에 의존하는가?

3. 동구 위성국에서의 민족주의와 국가공산주의의 추세는 소련의 정치적 군사적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4. 중·소분쟁이 공산주의 국제세력의 통일에 주는 의미는? 항구적인 중소의 분렬은 어떤 방식으로 서방측의 전략에 이득을 주며, 또 서방측의 전략을 위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가?

5. 구주공동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서 유럽의 통일은 미국과 소련간의 권력의 양극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와 같은 추세는 서방측의 안전에 유리한가 아니면 방해가 되는가?

6. 산업화된 국가에서의 공산주의 이념의 전망은 어떠한가? 또 후진 지역에서는 중·소 이념분쟁이 공산주의 세계관의 '무류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7. 소련 지도자들이 그들의 외교정책 문제를 재래의 국가이익(서방측의 의미로) 면에서 다룰 가능성은 없는가? 미국과 소련의 국가이익이 공통으로 합치하는 분야는 없는가? 예를 들어 열핵전쟁의 위험으로 인한 것이라던지 또는 중공의 도전으로 인한 것과 같은 또 이와 같은 것들이 미·소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8. 소련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자의 역활은 무엇인가? 어떤 방법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크기를 이해시키고 이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자신을 길러줄 수가 있는가?

참고문헌

다음은 본 교수 지침의 필수독서 선택독서에서 나오는 모든 서적과 정기 간행물및 논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표는 충분한 것이 못되지만 중요한 서적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 자유 및 공산주의와 변천하는 세계에 있어서의 그들의 대결에 관한 문제들을 취급한 최근의 모든 중요한 논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1. Abshire, David M. and Richard V. Allen eds., National Security: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Strategies in the Decade Ahead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3). 1939 pp.
2. Acheson, Dean G., Power and Diploma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8). 137 pp.
3. Acton, H.B., The Illusion of the Epoch: Marxism-Leninism as a Philoso phical Creed (Boston: Beacon Press, 1957). 278pp.
4. Alexander, Robert J., A Primer of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Macmillan Co., 1962). 218 pp.
5. Almond, Gabriel A., The Appeals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4). 415 pp.
6. American Bar Association, Peaceful Coexistence: A Communist Blueprint for Victory, A Study by Richard V. Allen for the Standing Committee on Education Against Communism (American Bar Association, July 1964). 123 pp.
7. Andrews, William G., "Basic Program of the Social Democratic Party of Germany", European Political Institutions (New York: Van Nostrand Political Science Series, 1962).
8. Arendt, Hannah,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 1951). 477 pp.

9. Armstrong, John A., Ideology, Politics and Government in the Soviet Union: An Introduction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160 pp.
10. Armstrong, John A., The Politics of Totalitarianism: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From 1934 to the Present (New York: Random House, 1961). 458 pp.
11. Aron, Raymond, The Opium of the Intellectuals (London: Secker & Warburg, 1957). 324 pp.
12. Atwater, Elton, et al, World Affairs: Problems and Prospects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Inc., 1958). 621 pp.
13. Baldwin, Hanson W., The Great Arms Race: A Comparison of the U.S. and Soviet Power Toda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8). 116 pp.
14. Barghoorn, Frederick C., The Soviet Cultural Offensiv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353 pp.
15. Barghoorn, Frederick C., Soviet Russian Nationalism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330 pp.
16. Barker, Ernest, Reflections on Government (London: Oxford Univeristy Press, 1942). 424 pp.
17. Barnett, A. Doak, Communist China and Asia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60). 575 pp.
18. Barnett, Frank R., et al, Peace and War in the Modern Age: Premises, Myths and Realities (New York: Doubleday & Co., Inc., 1965). 421 pp.
19. Becker, Carl L., Modern Democr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42). 100 pp.
20. Beer, M., The General History of Socialism and Social Struggle, 2 Vols. (New York: Russel and Russell, 1957). 442 pp.
21. Bernier, Georges and Rosamond (eds.), An Illustrated History of Russia (New York: Reynal & Co., Inc., 1960). 306 pp.
22. Bernstein, Eduard, Revolutionary Socialism: A Criticism and Affirmation (New York: Schocken Books, 1961). 224 pp.

23. Black, Cyril, and Thomas P. Thornton, (eds.), Communism and Revolution: The Strategic Uses of Political Viol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267 pp.
24. Blackstock, Paul W., Translator, "We Never Make Mistakes"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63). 100 pp.
25. Blackstock, Paul W., and Bert F. Hoselitz, (eds.), The Russian Menace to Europe (Glencoe, Ill.: Free Press, 1952). 228 pp.
26. Bober, M., Karl Marx's Interpretation of History, rev.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48). 445 pp.
27. Bochenski, Joseph M., and Gerhart Niemeyer, (eds.), Handbook on Communism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686 pp.
28. Boyd, R.G., Communist China's Foreign Polic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147 pp.
29. Brogan, D.W., and Douglas V. Verney, Political Patterns in Today's World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 1963). 274 pp.
30. Brown, Harrison S., et al, The Next Hundred Years: Man's Natural and Technological Resources (New York: Viking Press, 1957). 193 pp.
31. Brumberg, Abraham (ed.), Russia Under Khrushchev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3). 660 pp.
32. Brzezinski, Zbigniew K. (ed.), Africa and the Communist World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3). 272 pp.
33. Brzezinski, Zbigniew K., The Permanent Purge: Politics in Soviet Totalitarian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256 pp.
34. Brzezinski, Zbigniew K., and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Power: USA/USSR (New York: Viking Press, 1964). 461 pp.
35. Brzezinski, Zbigniew K., The Soviet Bloc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467 pp.
36. Brzezinski, Zbigniew K., "Threat and Opportunity in the Communist Schism," Foreign Affairs (April, 1963). 513—525 pp.
37. Buber, Martin, Paths in Utopia (New York: Macmillan Co.,

1949). 152 pp.

38. Burnham, James, Containment or Liberation: The Struggle for the World (New York: John Day Co., 1953). 256 pp.

39. Byrnes, James F., Speaking Frankly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47). 324 pp.

40. Carleton, W.G., The Revolution in American Foreign Polocy, rev. ed. (New York: Random House, 1957). 155 pp.

41. Cerf, Jay H., and Walter Pozen (eds.), Strategy for the 60'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0). 155 pp.

42. Chakhotin, Serge, The Rape of the Masses (Chicago: Alliance Books, 1940). 310 pp.

43. Challenge to Americans: The Struggle We Face and How to Help Win It; with "Forewords" by former President Kennedy and former President Eisenhower (New York: The Advertising Council, 1962). 27 pp.

44. Chambers, Whittaker, Witness (New York: Random House, 1952). 808 pp.

45. Chandrasekhar, S., Communist China Today (London: Asia Pubishing House, 1961). 199 pp.

46. Chou, Eric, A Man Must Choose: The Dilemma of a Chinese Patriot (New York: Alfred A. Knopf, 1963). 302 pp.

47. Chow, Ching-wen, Ten Years of Storm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0). 323 pp.

48. Chu, Valentin, Ta Ta, Tan Tan (Fight, fight, Talk talk): The Inside Story of Communist China (New York: W.W. Norton 1963). 320 pp.

49. Churchill, Winston S., Triumph and Tragedy (New York: Bantam Books, 1953). 800 pp.

50. Cohen, Carl (ed.), Communism, Fascism, and Democracy: The Theoretical Foundations (New York: Random House, 1962). 704 pp.

51. Cole, G.D.H., A History of Socialist Thought, Vol. I: The Forerunners, 1789—1850 (New York: St. Martin's Press, 1953).

346 pp.

52. Cole, G. D.H., A History of Socialist Thought, Vol. II: Marxism and Anarchism, 1850—1890 (New York: St. Martin's Press, 1954). 481 pp.

53. Cole, G.D.H., A History of Socialist Thought, Vol. III: The Second International 1889—1914, Parts 1 and II (New York: St. Martin's Press, 1956). 517 and 526 pp.

54. "Communist Ideology and Soviet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October, 1962).

55. Conquest, Robert, Common Sense About Russia (New York: Macmillan Co., 1960). 175pp.

56. Conquest, Robert, Power and Policy in the USSR: The Study of Soviet Dynastic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61). 485pp.

57. Conquest, Robert, "Liberalization: A Balance Sheet," Problems of Communism, Vol. XI, No. 6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2), pp. 1—8.

58. Crankshaw, Edward, Khrushchev's Russia (Baltimore: Penguin Books, 1959). 174 pp.

59. Crankshaw, Edward, The New Cold War: Moscow vs. Peking (Baltimore Penguin Books, 1963). 167 pp.

60. Cretzianu, Alexandre (ed), Captive Rumania: A Decade of Soviet Rule, 1945—1955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6). 424 pp.

61. Cross, James E., Conflict in the Shadows: The Nature and Politics of Guerrilla War (New York: Doubleday and Co. 1963). 180 pp.

62. Crossman, Richard (ed.), The God That Failed (New York: Bantam Books, 1959.) 248 pp

63. Dallin, Alexander (ed.), Diversity in International Communism: A Documentary Record, 1961—1963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3). 867 pp.

64. Dallin, Alexander (ed.), Soviet Conduct in World Affair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0). 318 pp.

65. Dallin, David J., From Purge to Coexistence: Essays on Stalin's and Khrushchev's Russia (Chicago: Henry Regnery and Co., 1964). 289 pp.

66. Dallin, David J., Soviet Espionag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5). 558 pp.

67. Dallin, David J., Soviet Russia and the Far Eas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48). 398 pp.

68. Dallin, David J., and Boris I. Nicolaevsky, Forced Labor in Soviet Rus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47). 337 pp.

69. Daniel, Hawthorne, Ordeal of the Captive Nations (New York: Doubleday and Co., 1958). 316 pp.

70. Daniel, James, and John G. Hubbell, Strike in the West: The Complete Story of the Cuban Crisi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3). 180 pp.

71. Daniels, Robert V., The Nature of Communsm (New York: Random House, 1962). 398 pp.

72. Deutscher, Issac, Stalin: A Political Biograph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9). 600 pp.

73. DeWitt, Nicholas, Soviet Professional Manpower (Washington: National Science Foundation, 1955). Also Education and Professional Employment in the USSR(Washington: National Science Foundation, 1961). 400 pp. and 856 pp.

74. Dinerstein, Herberrt S., Two Studies in Soveit Controls: Communism and the Russian Peasant and Moscow in Crisis (Glencoe, Ill.: Free Press, 1955). 254 pp.

75. Dinerstein, Herbert S., War and the Soviet Union: Nuclear Weapons and the Revolution in Soviet Military and Political Thinking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9). 268 pp.

76. Djilas, Milovan, The New Clas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7). 214 pp.

77. Dodd, Thomas J., Freedom and Foreign Policy (Linden, N.J.:

The Bookmailer, 1962). 321 pp.
78. Dougherty, William E., and Morris Janowitz, A Psychological Warfare Casebook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58). 880 pp.
79. Draper, Theodore, Amercan Communism and Soviet Russia (New York: Viking Press, 1960). 558 pp.
80. Draper, Theodore, The Roots of American Communism (New York: Viking Press, 1957). 498 pp.
81. Dulles, Allen W., The Craft of Intelligence (New York: Harper and Row, 1963). 277 pp.
82. Dulles, Eleanor Lansing, and Robert Dickson Crane (eds.), Detente: Cold War Strategies in Transition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5). 307 pp.
83. Dux, Dieter ed.), Ideology in Conflict (New York: Van Nostrand Co., Inc., 1963). 200 pp.
84. Eastman, Max, Marxism: Is It Science? (New York: W.W. Norton, 1940). 394 pp.
85. Eastman, Max, Reflections on the Failure of Socialism (New York: Devin-Adair, 1955). 127 pp.
86. Ebenstein, William, Today's Isms: Communism, Fascism, Capitlaism, and Socialism, 3rd ed. (New York: Prentice-Hall, 1961). 243 pp.
87. Ebenstein, William, Totalitarianism: New Perspective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2). 80 pp.
88. Ebon, Martin, World Communism Today (New York: McGraw-Hill, 1984). 506 pp.
89. Egbert, Donald Drew, and Stow Persons (eds.), Socialism and American Life, 2 vol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 2). 1351 pp.
90. Einaudi, Mario (ed.), Communism in Western Europ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51). 239 pp.
91. Fainsod, Merle, How Russia is Ruled., rev.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684 pp.

92. Fainsod, Merle, Smolensk Under Soviet Rul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8). 484 pp.

93. Fall, Bernard, Street Without Joy, Indochia At War; 1946—1954 (Harrisburg, Pa.: Stackpole Co., 1961). 322 pp.

94. Feis, Herbert, Between War and Pea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367 pp.

95. Feis, Herbert, Churchill-Roosevelt-Stalin; The War They Waged and the Peace They Sough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672 pp.

96. Feuer, Lewis (ed.), Marx and Engels: Basic Writings on Politics and Philosophy (New York: Doubleday-Anchor, 1959). 497pp.

97. Finletter, Thomas K., Foreign Policy, The Next Phase, The 1960'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0). 235 pp.

98. Fischer, Louis, The Life of Lenin (New York: Harper and Row, 1964). 703 pp.

99. Fisher, Harold H., The Communist Revolution: An Outline of Strategy and Tactic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5). 89 pp.

100. Fisher, Ralph J., Pattern for Soviet Youth: A Study of the Congresses of the Komsomol, 1918—1954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452 pp.

101. Fittkau, Gerhard A., My Thirty-Third Year (New York: Farrar, Straus and Cudahy, 1958, 5th Printing, 1960). 263 pp.

102. Foster, William Z., Toward Soviet Ameica: The Book the Commurnists tried to destroy;Balboa Island, Calif.: Elgin Publications, 1961). 343 pp.

103. Friedrich, Carl J. (ed.), Totalitarian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386 pp.

104. Friederick, Carl J., and Zbigniew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1). 346 pp.

105. Fundamentals of (Marxism-Leninism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61). 890 pp.

106. Garthoff, Raymond L., Soviet Strategy in the Nuclear Age, rev. ed.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301 pp.

107. Gay, Peter, The Dilemma of Democratic Socialism: Eduard Bernstein's Challenge to Marx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2). 334 pp.

108. Gelber, Lionel, America in Britain's Place: The Leadership of the West and Anglo-American Unit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1). 356 pp.

109. Glazer, Nathan, The Social Basis of American Communsim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 1961). 244 pp.

110. Goldwin, Robert A., Readings in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709 pp.

111. Granick, David, The Red Executive: A Study of the Organization Man in Russian Industry (New York: Doubleday and Co., 1960). 334 pp.

112. Gray, Alexander, The Socialist Tradition: Moses to Lenin (London and New York: Longmans, Green, 1946). 523 pp.

113. Griffith, S. B., Mao Tse-tung on Guerrilla Warfare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1). 144 pp.

114. Griffith, William E., Albania and the Sino-Soviet Rift (Cambridge: M.I.T. Press, 1963). 423 pp.

115. Griffith, William E. (ed.), Communism in Europe: Continuity, Change, and the Sino-Soviet Dispute, Vol. I (Cambridge: M.I.T. Press, 1964). 406 pp.

116. Goodman, Elliot R., The Soviet Design for a World Stat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0). 488 pp.

117. Grindrod, Muriel, Rebuilding of Italy: Politics and Economics, 1945—195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5). 269 pp.

118. Grzybowski, Kazimierz, Soviet Legal Institutions: Doctrines and Social Function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2). 285 pp.

119. Guevara, Ernesto, Che Guevara on Guerrilla Walfare, with an Introduction by Major Harries-Clichy Peterson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1). 85 pp.
120. Gurian, Waldemar, Bolshevism: An Introduction to Soviet Communism (South Bend, Ind.: University of Nortre Dame Press, 1952). 189 pp.
121. Gurian, Waldemar (ed.), The Soviet Union: Background, Ideology, Reality (South Bend, In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51). 216 pp.
122. Hahn, Walter F., and John C. Neff (eds.), American Strategy for the Nuclear Age (New York: Doubleday and Co., 1960). 455 pp.
123. Halecki, Oscar (ed.), Poland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7). 601 pp.
124. Hamilton, Alexander, James Madison, and John Jay, The Federalist: A Commentary on the Constitution (New York: The Modern Library, 1941). 618 pp.
125. Hamm, Hlarry, Albania-Chinas Beachhead. in Europe (New York: Fredlerick A. Praeger, 1963). 176 pp.
126. Harcave, Sidney, Russia: A History, 4th ed. (New York: J. B. Lippincott Co., 1959). 701 pp.
127. Hartmann, Frederick H. (ed), World in Crisis, 2nd ed. (New York: Macmillan Co., 1962). 398 pp.
128. Haskins, Caryl p., The Scientific Revolution and World Politics (New York: Harper and Row, for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64). 115 pp.
129. Hayek, F. A., The Constitution of Liverty (Chi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570 pp.
130. Hayek, F. A.,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272 pp.
131. Hagard, John N., The Soviet System of Government, rev.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262pp.
132. Hechinger, Fred M., The Big Red Schoolhouse, rev. ed.

(New York: Donbleday and Co., 1962).
133. Helmreich, Ernst C. (ed.), Hungar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7). 466 pp.
134. History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Moscow: Foreign Languages Puhlishing House, 1960). 765 pp.
135. Hoffer, Eric, The True Believer: Thoughts on the Nature of Mass Movements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57). 176 pp.
136. Hoffman, Ross J. S., and Paul Lovack (eds), Burke's Politics: Selected Writings and Speeches of Edmund Burke (New York: Alfred A. Knopf, 1949). 536 dp.
137. Hook, Sidney, From Hegel to Marx: Studies in the Intelllectual Development of Karl Marx (New York: Humanities Press, 1958). 335pp.
138. Hook, Sidney, Heresy, Yes-Conspiracy, No (New York: John Day Co., 1953). 283 pp.
139. Hook, Sidney, Marx and Marxists (Princeton: Von Nostrand, 1955). 254 pp.
140. Hook, Sidney, Political Power and Personal Freedom (New York: Criterion Books, 1959). 462 pp.
141. Hook, Sidney, Reason, Social Myths and Dialectic (New York: Humanities Press, 1940). 302 pp.
142. Hoover, J. Edgar, "The U.S. Businessman Faces the Soviet Spy," Harvard Business Review (January-February, 1964).
143. Hoover, J. Edgar, Masters of Deceit (New York: Pocket Books, Inc., 1959). 375 pp.
144. Hoover, J. Edgar, A Study of Communism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2). 212 pp.
145. Horowitz, Daniel L., The Italian Lavor Move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356 pp.
146. Hsieh, Alice Langley, Communist Chinas Strategy in the Nuclear Era (Englewood Chffs, N J.: Prentice-Hall, 1962). 204 pp.
147. Hu, Chang-tu, China: Its People, Its Society, Its Culture (New

Haven: HRAF Press, 1960). 611 pp.

148. Hudson, G. F., et al., The Sino-Soviet Dispute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1). 227 pp.

149. Hunt, R. N. Carew, A Guide to Communist Jargon (New York: Macmillan Co., 1957). 169 pp.

150. Hunt, R. N. Carew, Marxism, Past and Present (New York: Macmillan Co., 1954). 180 pp.

151. Hunt, R. N. Carew,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sm (Baltimore: Penguin Books, 1963). 315 pp.

152. Inkeles, Alex, Public Opinion in Soviet Russi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379 pp.

153. Inkeles, Alex, and Raymond A. Bauer, The Souiet Citizen: Daily Life in a Totalitarian Socie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9). 533 pp.

154. Irish, Marian D. (ed.), World Pressures on American Foreign Polic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64), 171 pp.

155. Iveɪson, R. W., The Communists and the Schools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 1959). 423 pp.

156. Jasny, Naum, Soviet Industrialization, 1928—195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467 pp.

157. Johnson, Chalmers A., Peasant Nationalism and Communist Pow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2). 255 pp.

158. Johnson, John J. (ed.), The Role of the Military in Underdeveloped Countr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427 pp.

159. Jordan, Amos A., Foreign Aid and the Defense of Southeast Asia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272 pp.

160. Kaplan, Morton A. (ed.), The Revolution in World Politcs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62). 477 pp.

161. Kaulsky, John H. (ed.), Political Change in Underdeveloped Countries: Nationalism and Communism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62). 347 pp

162. Kelsen, Hans, The Political Theory of Bolshevism: A Critical Analysi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48). 60 pp.
163. Kennan, George F., American Diplomacy, 1900—1950 (New York New Ameriean Library, 1952). 144 pp.
164. Kennan, George F., Russia and the West Under Lenin and Stalin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61). 411 pp.
165. Kennedy, Malcolm D., A Short History of Communism in Asia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57). 556 pp.
166. Khrushchev, N. S., The Crimes of the Stalin Era (annotated luy Boris I. Nicolevsky) (New York: The New Leader 1956). 67 pp.
167. Khruschev, N. S., Report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PSU to the 22nd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Vol I of Documents of the 22nd Congress of the Communist of the CPSU (New York: Cross-Currents Press, 1961). 244 pp.
168. Kissinger, Henry A., The Necessity For Choice: Prospects of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Doublday and Co., 1962). 387 pp.
169. Kissinger, Henry A., Nuclear Weapon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57). 455 pp.
170. Kintner, William R., The Front is Everywhere (Norman, Okla.: Universitty of Oklahoma Press, 1950). 274 pp.
171. Kirkpatrick, Jeane J. (ed.), The Strategy of Deception (New York: Farrar, Straus and Co., 1963). 444 pp.
172. Kohler, Phyllis Penn (ed. and translator), Journey For Our Time: The Russian Journals of Marguis de Custine (Chicago: Henry Regnery Co., 1951). 373 pp.
173. Korbel, Josef, Communist Subversion in Czechoslovakia, 1938-1948: The Failure of Coexist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9). 258 pp.
174. Korbel, Josef, Poland Between East and West: Soviet and German Diplomacy Toward Poland, 1919-1933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321 pp.

175. Kravchenko, Victor A., I Choose Freedom (New York: C. Scribners Sons, 1946). 496 pp.

176. Kruglak, Theodore E., The Two Faces of Tas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62). 263 pp.

177. Kulski, W. W., The Soviet Regime: Communism in Practice (Syracuse: Syracuse University Press, 1963), 4th ed. 444 pp.

178. Kurzman, Dan, Subversion of the Innocents: Patterns of Communist Penetration in Africa, The Middle East, and Asia (New York: Random House, 1963). 570 pp.

179. Labedz, Leopold (ed.), Revisionism: Essays on the History of Marxist Idea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404 pp.

180. Laqueur, Walter Z., Communism and Nationalism in the Middle East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6). 362 pp.

181. Lagueur, Walter Z., and Leopold Labedz (eds.), The Future of Communist Societ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202 pp.

182. Laqueur, Walter Z., and Leopold Labedz, Polycentrism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259 pp.

183. Leff, Gordon, The Tyranny of Concepts: A Critigue of Marxism (London: Merlin Press, 1961). 203 pp.

184. Leites, Nathan C., A Study of Bolshevism (Glencoe, Ill.: Free Press, 1953). 639 pp.

185. Leonhard, Wolfgang, Child of the Revolution (Chicago: Henry Regnery Co., 1958). 447 pp.

186. Leonhard, Wolfgang, The Kremlin Since Stalin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403 pp.

187. Lerner, Modern China's Foreign Polic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53). 399 pp.

188. Lewis. John Wilson, Leadership in Communist Chin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3). 305 pp.

189. Librach, Jan, The Rise of the Soviet Empire: A Study of

Soviet Foreign Polic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4). 382 pp.

190, Lichtheim, George, Marxism- An Historical and Critical Stud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1). 412 pp.

191. Lindsay, A. D., The Modern Democratic State, Vol I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5). 286 pp.

192. Lipper, Eleanor, My Eleven Years in a. Slave Labor Camp (Chicago: Henry Regnery Co., 1951). 310 pp.

193. Lippmann, Walter, The Cold War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47). 62 pp.

194. Lippmann, Walter, The Public Philosophy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55). 189 pp.

195. Lippmann, Walter, U.S. Foreign Policy: Shield of the Republic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43). 177 pp.

196. Loh, Robert, Escape From Red China (New York: Coward-McCann, 1962). 378 pp.

197. London, Kurt (ed.), New Nations in a Divided World: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fro-Asian State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3). 336 pp.

198. London, Kurt L. (ed.), Unity and Contradiction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464 pp.

199. Lowenthal, Richard, World Communism: The Disintegration of a Secular Fai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296 pp.

200. McLellan, David J., et al,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Relatio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0). 542 pp.

201. Maclver, Robert Morrison, The Web of Government (New York: Macmillan Co., 1947). 498 pp.

202. Mackintosh, J. M., Strategy and Tactics of Soviet Foreign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332 pp.

203. Mao Tse-tung, Selected Works, 5 vols. (London: Lawrence &

Wishart, Ltd., 1955 and 1961).
204. Marcuse, Herbert, Reason and Revolution: Hegel and the Rise of Social Theory (New York: Humanities Press, 1955). 439 pp.
205. Marshall, Charles Burton, The Limits of Foreign Policy (New York: Henry Holt, 1954). 128 pp.
206. Mason, Edward S., Foreign Aid and Foreign Policy (New York: Harper and Row, for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 1964).
207. Mayo, Henry B., An Introduction to Democratic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0). 316 pp.
208. Mayo, Henry B., Introduction to Marxist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0).
209. Mazour, Anatole G., Russia, Tzarist and Communist (New York and London: D. Van Nostrand, 1962). 995 pp.
210. Mehnert, Klaus, Peking and Moscow (New York: G. P. Putnams Sons, 1963). 522 pp.
211. Mehnert, Klaus, Soviet Man and His World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212. Meyer Alfred G., Communism, 2nd ed., rev. and enlarged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218 pp.
213. Meyer, Alfred G., Leninism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324 pp.
214. Meyer, Alfred G., Marxism: The Unity of Theory and Prac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181 pp.
215. Meyer, Frank S., The Moulding of Communists: The Training of the Communist Cadre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 1961). 214 pp.
216. Micaud, Charlex A., Communism and the French Left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300 pp.
217. Miller, Raymond W., Can Capitalism Compete? A Campaign for American Free Enterprise (New York: Ronald Press Co., 1959). 264 pp.
218. Miller, Raymond W., A Conservative Looks at Cooperatives

(Athens, Ohio: Ohio University Press, 1964). 245 pp.

219. Montgomery, John D., The Politics of Foreign Aid: American Experience in Southeast Asia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336 pp.

220. Moore, Barrington, Soviet Politics-The Dilemma of Power: The Role of Ideas in Social Chan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503 pp.

221. Morgenthau, Hans J., In Defense of the National Interest: A Critical Examination of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Alfred A. Knopf, 1951). 283 pp.

222.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3rd rev. ed. (New York: Alfred A. Knopf, 1962). 630 pp.

223. Mu, Fu-sheng (pseud.), The Wilting of the Hundred Flowers: The Chinese Intelligentsia Under Mao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3). 324 pp.

224. Murphy, Robert, Diplomat Among Warriors (New York: Doubleday & Co., Inc., 1964). 470 pp.

225. Nollau, Gunther, International Communism and World Revolution: History and Methods (London: Hollis and Carter, 1961). 357 pp.

226. Nove, Alec, The Soviet Economy: An Introduction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328 pp.

227. Nutter, G. Warren, The Growth of Industrial Production in the Soviet Un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706 pp.

228. O'Ballance, Edgar, The Red Army:A Short Histor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4). 237 pp.

229. Osanka, F.M. (ed.), Modern Guerrilla Warfare (New York: Glencoe Free Press 1961). 519 pp.

230. Overstreet, Harry and Bonaro, The Iron Curtain: Where Freedom's Offensive Begins (New York: W.W. Norton, 1963).

229pp.

231. Padover, Saul K., The Genius of America: Men Whose Ideas Shaped Our Civilization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60). 369 pp.
232. Palmer, Norman D., and Howard C. Perkins, International Relations,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57). 870 pp.
233. Paret, P., and Shy, J. W., Guerrillas in the 1960'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90 pp.
234. Paret, P., and Shy, J. W., "Guerrilla War and U.S. Military Policy: A Study, Marine Corps Gazette, Vol. 46 (January, 1962, pp. 24—33
235. Passin, Herbert, China's Cultural Diplomac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3). 133 pp.
236. Pelling, Henry, The British Communist Party: A Historical Profile (London: Adam and Charles Black, 1958). 204 pp.
237. Pentony, DeVere E. (ed.), The Underdeveloped Lands: A Dilemma of the International Economy (San Francisco: Howard Chandler, 1960). 196 pp.
238. Pentony, DeVere E. (ed.), United States Fareign Aid: Readings in the Problem Area of Wealth (San Francisco: Howard Chandler, 1960). 148 pp.
239. Plamenatz, John, German marxism and Russian Communism (London and New York: Longmans, Green, 1954). 356 pp.
240. Popper, Karl R., The Open Saciety and Its Enemies, 3rd ed., 2 vols. (London: Routledge and Kegon Paul, 1957). 322 and 391 pp.
241. Possony, Stefan T., A Century of Conflict: Communist Techniques of World Revolution (Chicago: Henry Regnery, 1953). 439 pp.
242. Possony, Stefan T., Lenin: The Compulsive Revolutionary (Chicago: Henry Regnery, 1964). 418 pp.
243. President's Commission on National Goals, Goals for America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0). 372 pp.

244. Pye, Lucian W., Guerrilla Communism in Malay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6). 369 pp.

245. Rauch, Geoyg von, A History of Soviet Russia, translated by Peter and Annette Jacobsohn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7).

246. Reshetar, John S., Jr., A Concise History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0). 331 pp.

247. Rieber, Alfred J., and Robert C. Nelson, A Study of the USSR and Communism: An Historical Approach (Chicago, Scottt, Foresman and Co., 1962). 272 pp.

248. Ripka, Herbert, Eastern Europe in the Pastwar World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1). 256 pp.

249. Ritvo, Herbert (ed.), The New Soviet Society: Final Text of the Program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The Now Leader, 1962). 251 pp.

250. Roberts, Henry L., Rumania: Political Problems of an Agrarian Stat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1). 414 pp.

251. Rockefeller Panel, Prospect for America (New York: Doubleday and Co., 1961). 486 pp.

252. Rockefeller Brothers Fund, Panel Report of the Special Studies Project, The Pursuit of Excellence: Education and the Future of America (New York: Doubleday and Co., 1958). 48 pp.

253. Rossi, Angelo, A Communist Party in Action: An Account of Organizations and Operations in France, trans. Willmoore Kendal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49). 301 pp.

254. Rostow, W. W. (ed.), The Economics of Take-off Into Sustained Growth (New York: St. Martin's Press, 1963). 481 pp.

255. Rostow, W. W., The United States in the World Arena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60). 568 pp.

256. Scalapino, Robert A., "Moscow, Peking and the Communist Parties of Asia," Foreign Affairs (January, 1963). pp. 323—343.

257. Schapiro, Leonard,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Random House, 1960). 631 pp.

258. Schapiro, Leonard (ed.), The U. S. S. R. and the Future: An Analysis of the New Program of the CPSU (No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3).

259. Schumpeter, Joseph A.,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3rd ed. (New York: Harper Torch Books, 1962). 431 pp.

260. Schwartz, Harry, Russia's Soviet Economy, 2nd ed.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54). 682 pp.

261. Schwartz, Harry, Tsars, Mandarins and Commissars (Philadelphia: J. B. Lippincott, 1964). 252 pp.

262. Selznick, Philip, The Organizational Weapon (Glencoe, Ill.: Free Press, 1960). 350 pp.

263. Seton-Watson, Hugh, The East European Revolution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6). 422 pp.

264. Seton-Watson, Hugh, From Lenin to Khrushchev: The History of World Communism, 2nd ed.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0). 523 pp.

265. Shannon, D. A., The Decline of American Communism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 1959). 425 pp.

266. Shonfield, Andrew, The Attack on World Poverty (New York: Random House, 1960). 269 pp.

267. Shub, David, Lenin (New York: Doubleday & Co., 1948). 438 pp.

268. Sokolovsky, Marshal V. D. (ed.), Military Strategy: Soviet Doctrine and Concept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3). 396 pp.

269. Sokolovsky, Marshal V. D. (ed.), Soviet Military Strateg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63). 544 pp.

270. Spanier, John, 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World War II, rev. ed.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275 pp.

271. Spiro, Herbert J., Politics in Africa: Prospects South of the

Sahara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2). 183 pp.
272. Staar, Richard F., Poland 1944-1962: The Sovietization of a Captive People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62). 200 pp.
273. Stillman, Edmund O., and William Pfaff, The New Politics: America and the End of the Postwar Worrd (New York: Coward-McCann, 1961), 191 pp.
274. Strausz-Hupe, Robert, et al, Building the Atlantic World (New York: Harper and Row, 1963). 400 pp.
275. Strausz-Hupe, Robert, et al, A Forward Strategy for America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59). 203 pp.
277. Strengthening American Science, A report of the President's Science Advisory Committee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8). 36 pp.
278. Sullivan, William C., Freedom Is the Exception (Minneapolis: West Publishing Company, 1965). 54 pp.
279. Swearingen, Rodger, The World of Communism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62). 278 pp.
280. Talmon, J.L., The Rise of Totalitarian Democrac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0). 366 pp.
281. Tang, Peter S.H., Communist China Today, 2nd ed., Vol. I (Washington: Research Institute on the Sino-Soviet Bloc, 1961). 745 pp.
282. Tanham, G.K., Communist Revolutionary Warfare, The Vietminh in Indochina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0). 176 pp.
283. Thompson, Kenneth W., American Diplomacy and Emergent Pattern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63). 273 pp,
284. de Tocqueville, Alexis,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Alfred a. Knopf, 1956), 2 vols. 401 pp.
285. Trace, Arthur S., Jr., What Ivan Knows That Johnny Doesn't (New York: Random House, 1961.) 213 pp.

286. Trager, Frank N., Marxism in Southeast Asia, A Study of Four Countri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9). 381 pp.

287. Treadgold, Donald W., Lenin and His Rivals: The Struggle for Russia's Future, 1898-1906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5). 291 pp.

288. Trotsky, Leon, Stalin: An Appraisal of the Man and His Influence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46). 516 pp.

289. Truman, Harry S., Memoirs: Year of Decisions, Vol. I (New York: Doubleday & Co,, 1955). 576 pp.

290. Truman, Harry S., Memoirs: Years of Trial and Hope, Vol. II (New York: Doubleday & Co., 1956). 594 pp.

291 Tsou, Tang, America's Failure in China, 1941—195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614 pp.

292. Tucker, Robert C., Philosophy and Myth in Karl Marx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1). 263 pp.

293. Ulam, Adam B., The New Face of Soviet Totalitarian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es, 1963). 233 pp.

294.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Special Committee on the Problem of Hungary,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1957.

295. United States Congres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UN-American Activities, Facts on Communism, Vol. I: The Communist Ideology, 86th Cong., 2nd Sess.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9). 139 pp.

296. United States Congress, House of Representatives Select Committee on Astronautics and Space Exploration, Next Ten Years in Space, 1959-1969: Staff Report, 86th Cong. 1st Sess.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9). 211 pp.

297. United States Congres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Un-American Activities, "Indirect Aggression," by Paul W. Blackstock, in Soviet Total War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6), pp. 27—38

298. United State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Possible Non-military Scientific Developments and Their Potential Impact on Foreign Policy Problems of the U. S., 86th Cong., 1st Sess.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9), Chapters 1, 4 and 6.

299.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Army, Handbook on the Soviet Army, Pamphlet No. 30-50-1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9). 126 pp.

300.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Education in the USSR, Bulletin No. 14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0). 226 pp.

301.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Soviet World Outlook: A Handbook of Communist Statement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9). 247 pp.

302. Valeriano, Napoleon D., and Charles T. R. Bohannon, Counterguerrilla Operations: The Philippine Experience (New York: Frederick A. Prager, 1962). 275 pp.

303. Venturi, Franco, Roots of Revolution: A History of the Populist and Socialist Movements in Nineteenth Century Russia, trans. by Francis Haskell (New York: Alfred A. Knopf, 1960). 850 pp.

304. Walker, Richard L., China Under Communism: The First Five Year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5). 403 pp.

305. Walker, Richard L., The Continuing Struggle: Communist China and the Free World (New York: The Bookmailer, 1962). 155 pp.

306. Walsh, Warren B. (ed.), Readings in Russian History, 3rd ed. Syracuse: Syracuse University Press, 1959). 702 pp.

307. Walsh, Warren B., Russia and the Soviet Union, A Modern Histor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8). 640 pp.

308. Werth, Alexander, France, 1940-1955 (London: R. Hale, 1956). 765 pp.

309. Westerfield, H. Bradford, The Instruments of America's Foreign Policy (New York: Thomas Y. Crowell Co., 1962). 538 pp.

310. Wetter, Gustav A., Dialectical Materialism: A Historical and Systematical Survey of Philosophy in the Soviet Union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8). 609 pp.

311. Whiting, Kenneth R., The Soviet Union Today: a Concise Handbook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405 pp.

312. Whittemore, Edward P., The Press in Japan Today...A Case Study (Columbia, S.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61). 91 pp.

313. Whitton, John B. (ed.), Propaganda and the Cold War Washington: Public Affairs Press, 1963). 119 pp.

314. Williams, Philip, Politics in Post-War France: Parties and the Constitution in the Fourth Republic (London:Longmans, Green, 1954). 500 pp.

315. Wint, Guy, Communist China's Crusade: Mao's Road to Power and the new Campaign for World Revolution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5). 136 pp.

316. Wittfogel, Karl, Oriental Despotism: A Comparative Study of Total Power, 3rd 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9). 556 pp.

317. Wolfe, Bertram D., Communist Totalitarianism: Keys to the Soviet System (Boston: Beacon Press, 1961). 328 pp.

318. Wolfe, Bertram D., "Communist Ideology and Soviet Foreign Policy," Foreign Afffairs (October, 1962).

319. Wolfe, Bertram D., Khrushchev and Stalin's Ghost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7). 322 pp.

320. Wolfe, Bertram D., Three Who Made a Revolution (Boston: Beacon Press, 1948). 661 pp.

321. Wolfe, Thomas W., Soviet Strategy at the Crossroad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4). 342 pp.

322. Wolff, R., The Balkans in Our Tim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618 pp.

323. Wood, Neal, Communism and British Intellectual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6). 256 pp.

324. Woytinsky, W. S., Stormy Passage (New York: Vanguard Press, 1961). 550 pp.

325. Mr. X.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Foreign Affairs (July, 1947)

326. Zagoria, Donald S., The Sino-Soviet Conflict, 1965-1961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484 pp.

327. Zaivodny, J. K., Death in the Forest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62). 235 pp.

328. Zinner, Paul E., Communist Strategy and Tactics in Czechoslovakia, 1918-1948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3). 264 pp.

부 록 (1)

밴더빌트 대학의 강습회

1962년 이래 여름마다 밴더빌트대학교는 그 연구소에서 공산주의의 성질에 관한 특수 강좌를 열었는데, 그것은 위윙·피·샤한 교수의 지도하에 "공산주의와 입헌민주주의"라는 제목이었다. 이 강좌의 범위와 내용은 장학금 제도와 입학에 관한 설명과 함께 이 부록의 처음에 요약되어 있다.

그 부록의 다른 부분들은 (1) 노틀담대학과의 협력하에 이 강습소가 작성한 공산주의의 성질에 관한 56시간 반 동안 계속하는 영화에 의한 강의 목록과 각 강사에 관한 간단한 이력 (2) 영화 시리즈 제3강의, 즉 게르하르트·니마이어 교수에 의한 "마르크스와 인간의 변모" (3) 이 시리즈의 제28강의 즉 샤한교수에 의한 "소비에트 경제의 배경" 및 (4) 윌리암·옌들·엘리어트 교수의 "입헌적 민주주의의 선결 조건으로서의 자유로운 윤리적 책임"등이다. 본래 1963년 6월에는 이 강습소에 두 개의 강좌뿐이있으나 1965년 4월부터는 엘리어트 교수에 의하여 하나로 재편성되었다. 그것은 이 책과는 별도의 것으로, 모든 출판권을 저자가 보유하고 있다.

공산주의와 입헌 민주주의 강습회

<1965년 7월 14일 월요일로부터 7월 30일 금요일까지>

릴리 엔도유먼트 회사의 협의를 얻어 밴더빌트 대학교는 1965년에 다시 네째번으로 공산주의에 관한 특수하고 알찬 교과과정을 제공할 것이다. 이 과정은 미국의 제도들과 견해들을 대조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한 간단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강습회는 공산주의와 또 미국의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도전에 관해서 학생들에게 자신있는 해답을 주어야 할 중등학교

교사들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한학기 동안에 6학점을 얻을 수도 있다.

이 강습회는 원래 학교의 교수계획과 학교제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교사들로 하여금 그들의 과목을 더 잘 가르칠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직장내 훈련을 지도해 나갈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교에서 특정의 목적을 위해 이 강습회에 참석하도록 선발된 참가자들이 특히 환영 받는다.

지명의 절차는 학교에서 강습회장 앞으로 편지를 냄으로서 이루어진다. 그 하는 일이 공산주의와 직접 관계가 되는 사회과목에 노련한 교사들이나 학교 사무관들이 지명될 수 있다. 지명을 받은 사람들은 학사 자격을 가졌거나 최근의 학교 공부에서 B학점 그리고 그 정도의 학점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들의 성적은 역사, 경제 및 정치학 과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공부의 내용은 공산주의 이념 공산당의 조직과 방법, 공산주의 국가 제도, 공산주의와 서방의 정치, 경제 및 윤리사상 등을 망라하고 있다. 매일 매일의 교수는 한 시간 강의가 두개, 한 시간 동안의 집단 토의 시간, 그리고 각 참가자에게 마련된 풍부한 서재 속에서의 책임량 독서 등을 포함한다. 각 강의를 녹음한 것은 복사료금만 지불하면 참가자들에게 배부해 준다. 특수한 연구제목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념, 레닌의 이론과 정책, 레닌 후 공산주의 사상과 현재 까지의 논쟁, 소련과 기타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 있어서의 공산당 조직과 목적과 방법, 국제 공산당 운동, 공산주의 하의 소련의 정치, 경제 및 사회제도, 중국, 동구라파, 및 라틴 아메리카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와 입헌 민주주의의 이론과 공산주의와의 대조, 자유 경제 제도의 이론, 공산주의와 대조한 서방의 윤리적 및 종교적 원칙 등을 포함한다.

전임 교수 및 간부는 게르하르트 니마이어 (노트르담 대학 정치학 교수)와 이윌·피·샤한(밴다빌트 대학 경제 및 사업관리 교수)이다. 고문

들은 자료문제 및 방법에 관하여 조언을 준다, 탁월하고 권위 있는 내빈 연사들은 특수한 문제들에 대해서 강의한다. 이 강습회의 고문들은 윌리암・와이・엘리오트와 레로이 비・윌리암즈 등인데 이들은 각기 하바드대학 역사 및 정치학 명예교수 그리고 아메리칸 대학교수 들이다.

고등학교 교사들외에 대학 교수들과 사무직원들, 신문, 라디오 및 텔리비죤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사회 지도자들로서 공산주의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 하는 사업이 공산주의를 더 이해함으로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강습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지명된 사람은 누구나 밴더빌트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하여 지원서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서식의 작성을 완료하면 거기다가 대학 재학 중의 또는 졸업 후의 연구를 기재한 사본과 지망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의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1965년 강습회는 그 지원서를 1965년 2월 15일까지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였다. 개개인의 지원은 1965년 3월 1일까지 받아졌다.

입회비와 장학금은 '지망자의 자격, 그의 교수 계획 또는 사무적 위치에 대한 강습회의 적합성 그리고 그의 학교 기관의 요구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40개의 풀・스칼라・쉽은 각기 수업료, 책, 구내의 기숙 및 125불의 현금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기관이 관습적으로 내쉬빌 왕복의 차비를 지출하는 것이다. 그들 자신의 학교 또는 지방사회 단체의 도움을 받는 지원자들이 환영을 받는다. 1965년에 수업료, 책, 구내에서의 기숙 (현금 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등에 대한 한사람 비용은 560불이 였다.

문의나 편지는 Professor Ewing P. Shahan, Director, Institute on Communism and Constitutional Democracy, Box 1502, Station B, Vanderbilt University, Nashville, Tennessee 37203 으로 하시요. 이와 비슷한 강습회가 1966년에 또 있을 것이다.

밴더빌트 대학의 입헌적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공산주의의 성질 : 교과 내용에 관한 텔레비죤 및 영화

교과번호	제 목	연 사
	1. 개설	
1.	교과에 관한 개설	
	2. 공산주의 기본 이론	
	가. 마르크스와 엥겔스	
2.	칼 마르크스 : 그의 업적과 배경	니마이어
3.	마르크스와 인간의 변모	니마이어
4.	마르크스와 역사의 법칙	니마이어
5.	마르크스와 프롤레타리아 혁명	니마이어
6.	마르크스와 프롤레타리아 혁명 (계속)	니마이어
7.	마르크스의 자본론	샤 한
8.	마르크스의 자본론(계속)	샤 한
9.	마르크스의 자본론(결론)	샤 한
	나. 레닌 주의	
10.	마르크스로부터 레닌까지	드래코비치
11.	레닌의 당 개념	니마이어
12.	권력을 잡기 위한 전략	니마이어
13.	미래의 공산 정부	니마이어
14.	세계 정치	니마이오
15.	전술 운영	니마이어
	다. 레닌 후의 이론	
16.	스탈린의 이념상의 기여	니마이어
17.	후루시쵸프와 스탈린 격하운동	드래코비치

18. 새로운 당 계획 니마이어
19. 새로운 당 계획(계속) 니마이어
20. 모택동의 이념상의 기여 위트포겔

라. 공산주의 조리에 대한 반향

21.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이념의 역할 니마이어

3. 공산주의 정부

가. 러시아의 당사

22. 1917년 이전의 러시아 혁명 엘리슨
23. 1917년 이전의 당사 엘리슨
24. 1917년 러시아 혁명 엘리슨
25. 혁명후의 당 통치(1917—1932) 엘리슨
26. 러시아의 당 통치(1932—1961) 엘리슨

나. 소련에 있어서의 권력, 경제 및 사회

27. 소련에 있어서의 국가권력구조 쿨스키
28. 소련경제의 배경 샤한
29. 소련의 경제 구조 샤한
30. 농업과 농민 위트포겔
31. 소련경제 실적 샤한
32. 소련의 법률, 범죄 및 징계 스탐프
33. 소련의 문화 쿨스키
34. 소련의 종교 샤한

다. 소련 외의 공산주의

35. 공산주의의 강점형식 드라코비치
36. 공산주의의 강점형식(계속) 드라코비치
37. 중국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위트포겔
38. 중국에 있어서의 공산주의(계속) 위트포겔

39. 동구라파 위성국가들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드라코비치
40. 유고슬라비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드라코비치
41. 소련의 대외 정책 포 소 니
42. 소련의 대외 정책(계속) 포 소 니

4. 공산당

43. 세계 공산주의 드라코비치
44. 공산주의자 양성방식 마 이 어
45. 당 내부훈련 관리 마 이 어
46. 외부 분쟁 관리 마 이 어
47. 공산주의 자들의 설득력 마 이 어
48. 라틴 아메리카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스토우크스
49. 미국의 공산당 로 트 너 (샤한과의 회견기)
50. 미국의 공산당(계속) 로 트 너 (샤한과의 회견기)

5. 공산주의 비판

51. 공산주의와 과학적 방법 샤 한
52. 경제 질서 샤 한
53. 공산주의와 종교 샤 한
54. 정치 질서 니마이어
55. 공산주의의 일반적인 전제 니마이어
56. 미국에 대한 공산주의 도전 엘리오트 (니마이어와의 회견기)

현재의 정세를 포함한 이 이외의 선택과목은 "오늘날의 소련의 위협" "세계 공산주의""중소 분쟁" 및 "라틴 아메리카에 있어서의 미국 정책"등을 포함한다.

강사 소개

Milorad Drachkovitch, Ph. D. (Univ. of Geneva, Switzerland) Senior

Staff Member, Hoover Institution on War, Revolution, and Peace, Stanford University.

William Y. Elliott, Ph. D. (Balliol College, Oxford Univ.) Williams Professor of History and Government Emeritus, Harvard University Professor, American University. Herbert J. Ellison, Ph. D. (Univ. of London)

Herdert J. Ellison, ph. D. Univ. of Lonolon

Associate Professor of History and Chairman, Slavic and Soviet Area Studies Committee, University of Kansas

W. W. Kulski, L. L. D. (Paris School of Law)

James B. Duke Professor of Russian Affairs, Duke University

John Lautner.

Lecturer, Writer, Former Consultant to Department of Justice, Former member, Communist Party of the Unites States

Frank S. Meyer, M. A. (Oxon.)

Lecturer, Writer, Editor, Former Member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United States

Gerhart Niemeyer, L. L. B., J. U. D. (Univ. of Kiel)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Notre Dame

Stefan T. Possony, Ph. D. (Univ. of Vienna)

Director of International Studies Program, Hoover Institution on War, Revolution, and Peace, Stanford University.

Ewing P. Shahan, Ph. D. (Columbia Univ.)

Professor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and Director, Institute on Communism and Constitutional Democracy, Vanderbilt University.

William S. Stokes, Ph. D. (Univ. of Calif. at Los Angeles)
Senior Professor of Comparative Political, Institutions Claremont Men's College

Samuel E. Stumpf, Ph. D. (University of Chicago)
Professor of Philosophy and Chairman of the Department, Vanderbilt University.

Karl Wittfogel, Ph. D. (Univ. of Frankfort)
Professor of Chinese History and Director of Chinese History Project,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Professor of Chinese History, Col umbia University.

마르크스와 인간의 변형 : 니마이어

<프로그람 3>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르크스가 무엇을 원했는지를 알고 있다. 그는 사회주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혁명을 원했다. 일반적으로 믿어지고 있기는 마르크스가 비참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시대의 구라파에 있어서의 노동계급의 비참과 자기 자신의 빈곤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 주의는 불붙는 분격에서 탄생하였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겠는가? 마르크스는 진정 빈민굴을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 가서 불타는 정의감에서 그의 붓을 들었는가? 마르크스가 창설한 바 공산주의 이념의 핵심속에는 실상 어떤 의도가 숨어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으로서는 우리는 마르크스의 초기의 저작들 즉 그 속에서 그가 그의 세계관을 형성케한 저서들을 볼 필요가 있다.

초기의 저작들이란 말은 공산당 선언이 발표된 해인 1848년 이전에 씌여진 마르크스의 저작들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헤겔

의 헤겔 철학 비판"(1843)(Criticisms of Hcgels' philasophv of Right), "경제 및 철학원고"(1844), "성스러운 가족"(1845), "독일의 관념론"(1846), 그리고 "철학의 빈곤"(1847)등이다. 이 모두가 제때에 발간되지는 않았지마는 그 모두가 각기 "공산당 선언"(1848)에서 처음으로 이론 정연하게 제시된 마르크스의 사상들을 충분히 추고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이 저작들 중에서 "독일 관념론"(1846)은 새로운 출발점을 이룩했다. 그러므로 이 강의에서는 우리는 1846까지의 사상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한다. 마르크스의 강력한 정신에서 나온 이 처음 저작들에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 즉 마르크스의 마음을 진실로 움직인 것은 무엇이 었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고저 하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 문제가 순전히 학적인 취미에만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대 공산주의의 성질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저작들로 부터 우리가 첫째 주의하여야 되는 것은 여기서 마르크스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가졌나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성질이 어떻다든가 자연과 우주에 대하여 인간이 어떤 관계를 가졌다든가에 관하여 쓰면서 인간사회에 대한 판단에 도달하는 것이다. 얼마동안 우리는 이런 사상에 따라 그를 연구하려 한다.

첫째로, 우리는 마르크스가 종교를 배척할 것을 주장하는 것을 볼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미 1841년 그의 논문에서 그는 희랍 시인이 프로메튜스의 입을 통하여 말한"나는 신들의 무리를 미워한다"를 인용하면서 시인하고 있다. "헤겔의 철학비판"(1843)에서 그는 말하기를 종교에 대한 비판은 모든 비판의 근본이다. 비종교적인 비판의 기저는 인간이 종교를 만드는 것이며 종교가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종교는 "타락된 세계 의식"이며 "괴상한 인간 본질의 발견"이라 하였다. 래세, 신신학, 종교적 인생관 등에 대한 투쟁이 마르크스가 처음 부터 전제한 출발점이다. 이 투쟁이 그 자체로서는 충분치 않다고 마르크스는 느꼈다. 종교는 단순히 "타락된 의식"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

배후에는 종교가 가리워 주는 "타락된 세계"가 있다. "인간의 착각된 행동으로서의 종교의 폐지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필요하다. 그 상태에 대한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즉 착각을 필요로하는 상태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1843). 이리하여 종교에 대한 투쟁은 타락되고, 그릇되고, 옳지 않고, 비인간적인 실세계에 대한 투쟁이 되는 것이다. 이 세계의 타락된 성격에 대하여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계는 파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초기 저작들의 전반을 흐르고 있는 대 사상이다. 마르크스는 어떻게 이런 사상을 생각하게 되었는가? 이 세계를 타락된 세계라고 불렀으니 그는 어떤 세계를 표준으로 하여 현실 세계를 측정했는가? 이것의 해답은 1844년의 "경제 및 철학원고"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의 저작 속에서 마르크스는 그의 인간 개념을 정의했다. 그가 생각하는 인간은 어떤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을 때에 그는 인간이 참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 질서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또한 설명했다. 이 사상은 약간 추상적이지만 그 실제 결과는 굉장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마르크스는 무엇보다도 인간은 노동이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모든 살아 있는 생물들 중에서 인간은 자기의 노동을 통하여 필요한 수단을 생산함으로써 자신의 생활을 창조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과는 달라서 인간은 그의 먹을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다. 주택, 의류 기타 모든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다. 인간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만든다. 인간은 자기가 만드는 물건 속에 또 그것을 통하여 생존한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질을 이런 물질들과 동일시 하는데까지 나아 갔다.

이것은 물론 노동을 인간 생활의 활동으로 삼고있는 것이다. 노동은 천연자원을 유용한 물건으로 변하게 한다. 노동은 인간과 자연과의 본질적 관계이며 인간 생존의 기본이 된다. 노동 속에서 또 노동을 통하여 인간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생활과 그의 존재의 조건을 창조한다고 마르크스

는 말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만든다.

아제 여기서 혹자는 말하기를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마르크스가 노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였든 누가 그것을 상관하겠는가? 그런 추상적인 말은 우리의 관계할 바가 아니다"라고 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이야 맞는 말이 아닌가? 인간은 자기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마르크스가 한 말이 옳으냐 그르냐이며 또 옳다면 그 말이 중요한가 아닌가일 것이다. 그러면 잠시 마르크스가 인간에 대해 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만이 아니라, 그가 말하지 아니한 것, 또는 인간이 뭐가 아니라고 그가 말하는데 대해서 생각해 보자, 희랍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보다도 이성이 인간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을 구별해 주는 성질은 사상의 힘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성질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다. 그는 말하자면 자기 자신 밖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행동을 볼 수 있다. 그는 남을 판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사상의 힘은 그로 하여금 자기의 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즉 자기의 목적지를 생각해 낼수 있게 해 준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만일 이성이 인간이라면, 중대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즉 인간은 자기의 이성의 소리에 따라 살지 않을 때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행복 될 수 있는 생활은 곧 도덕적인 생활이다.

왜냐하면, 도덕이란 각자의 판단에 입각하여 행동하려는 경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합리적인 행동을 하기 위하여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제휴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풍족한 인간 생활을 위해서는 법과 정의와 또 그 법률을 결정할 정치적 권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국가가 필요하게 된다.

이제 인간에 대한 마르크스의 가정(Assumptions)의 기본에 대하여 위와 마찬가지로 전후 관계를 세워 보자.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질을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의 행동을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에서 본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변화시키고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속에서 발견하였다. 인간의 이성이나 의식은 마르크스의 견해에서는 제 2 차적인 것이다. 인간은 노동하는 동물이다. 동시에 그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러면 인간은 자연과 자기와의 관계를 터득하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노동과정을 터득하지 않고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또 인간의 노동 과정 습득은 집단적으로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만 얻을 수 있다는 이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마르크스 이론에 의하면 인간 생활의 적절한 질서는 집단적 노동 훈련(이런 조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함께 인간 생활의 목적을 위하여 자연을 변하게 한다)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법률, 정의 또는 도덕도 필요 없을 것이다. 이것은 개인재산만 철폐하면 된다. 이 모든 것이 마르크스의 인간개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인간 개념은 마르크스의 사상만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선택이요 하나의 결정이다. 마르크스는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인간을 보기로 결심 했다. 그는 사상의 독립적인 힘과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과 또 인간의 행동들을 무시하려고 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정신과 사상과 원칙들은 생활을 물질적 조건을 위한 모든 조처에 의식적으로 예속 시키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선택이 암시되어 있다. 즉 인간이 창조주에 의존되어 있다는 사상을 져버리는 일이다. 그 선택이 얼마나 의식적인가는 "경제 및 철학원고"를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다. 마르크스는 "존재란 그가 자기 자신의 발 위에서 있을때 만이 자신의 독립을 의식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그가 그의 존재를 자신에게 힘 입을때 만이 자신의 발 위에 서 있게 된다"이제 그는 이 사상,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신에게만 자기의 존재를 힘 입고 있다는 사상이 "실지 생활에 있어서 구체적인 모든 것과는 모순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나와 자연을 누가 창조 하였는가"라

질문은 인간이 항상 묻게 되는 근본적 문제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러한 질문을 금한다. 그는 대답을 거부 할 뿐만아니라, 그런 질문의 자체를 거부한다. "사회주의를 하는 사람에게는 세계역사 전체가 인간의 노동을 통한 인간의 탄생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을 초월한 그러한 존재에 관한 질문은 실지에 있어서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마르크스의 인간 개념은 신과 종교와 철학의 부정뿐만 아니라, 법과 정의에 입각한 정치 질서의 부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지나온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우리는 마르크스가 왜 그의 사상과 같은 그런 사상에 도달하였는가를 발견 하려고 하였다.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동정 및 분격이었는지 아닌지를 발견 하려고 했다. 그의 초기 저작 들에 있어서 우리는 처음 종교의 배척을 발견 했을 뿐만아니라, 그가 "타락된 의식"이라고 부른 종교 배후에 "타락된 세계"의 현실이 있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또한 발견하였다. 그리고 인간은 노동이라는 그의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필요물이며, 창조의 일부이라기 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활을 창조하는 존재라는 말이 될 것이다. 그러면 또한 노동과정의 안배가 충실한 인간 생활을 가능케 한다는 말이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법률, 국가, 정의에 대한 관심 및 철학을 폐기하였다. 인간은 직접적인 노동에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 이집단 노동만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지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은 모두 추상적인 말이다. 그가 이 땅에 비참한 사람들과 마주쳤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게다가 마르크스는 "타락된 세계"에대한 그의 개념을 비참에서 도출한 것이 아니라, 노동의 분업에서 도출하였다. 그가 거짓이요, 비인간적이요, 또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 이 세계에 대한 그의 분석을 좀 더 들여다 보자. 여기에 있어서 그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소외라는 개념이다. 이것은 "소원하게 하다"는 말에서 온 것인데 이 말은 사전에 의할 것 같으면 소유권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뜻과 또

소원하게 한다는 두가지 뜻이있다. 마르크스는 이 두가지 뜻을 다 결합시켰다.

마르크스가 인간을 본 바와같이, 충실한 생활이란 인간이 자연과 자신과의 관계를 터득하는 생활을 말한다. 무엇보다 그는 노동과정과 그가 만드는 생산품을 완전히 통솔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만일 노동이 사람들 사이에 나누어지고 따라서 한 사람이 한 물건을 생산할때에 다른 사람은 다른 물건을 생산하게 된다면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분업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생산품을 소외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생산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하나의 제도로서의 사유재산이 대두하게 된다. 그리고 사유재산은 인간이 자기자신의 노동과정 뿐만 아니라 그 생산품에 대한 통솔권을 상실하는것을 의미한다. 그는 다른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의 노동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제 그는 자기로서는 어쩔수 없는 세력에 예속된다. 이러한 세력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외적인 힘이요, 그가 피할 수 없는 힘으로 보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여러사람 사이에서 노동을 나누고 또 그들의 관계를 통솔하는 수단으로서의 소유권을 확립시키는데서 온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그의 매일 매일의 필요를 위하여 만드는 물건들 속에서 또 그 물건들을 통하여 존재한다고 말하였다는것을 기억하자 만일 이제 그가 그의 노동에 생산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한다면 그는 마르크스가 말하는 그의 자신의 본질로 부터 분리되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만일 그의 노동과정이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이바지하게 된다면 그때는 인간 자신이 예속물이 될 것이다. 그는 자유가 없고 따라서 그는 인간이 아니다. 그는 자기 자신으로 부터 소외되어 있다. 그는 또한 그의 노동과 그 생산품으로 부터 소외된다. 그는 또 그가 지금 개인 재산이라는 강제하에서만 부딛히게 될 다른 사람들로 부터 소외된다. 마지막으로 그는 종족으로 부터 소외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개인들과 그들의 요구

만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조건하에서는 인간이 노동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정하면서 인간생활은 실현될 길이 없을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와같은 사회의 조건 전체를 '소외"라고 명명한다. '소외된 사회…' '소외된 생산…' '소외속에 사는 인간…' 이러한 용어들이 그가 사용한 용어들이다. 우리는 이제 '다락한 세계"라는 말로 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 수 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상하고 비인간적인 사물이 된다"고 마르크스는 주장한다. 주위의 세계가 그에게는 소외된 현실이 된다. 이 세계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나 옳지 못하고 비인간적이다. 그속에서 발견되는 모든 사상은 왜곡되어 있고 모든 제도들은 생활에 부적당하고, 거기에 사는사람들은 인간 이하이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생활과정에 대하여 주인이 못되고 그 종이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인간은 동물적인 존재라고 말 한다.

우리는 이세계를 볼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정당한 세계가 그 대신 들어설 것이라는 가정 없이 이 세계가 완전히 그릇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부정한다는 논리에서 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노동하는 존재로서의 그 인간 개념을 굳게 믿고 있었다. 이러한 근거 위에서 그는 역사적 세계전체를 타락하고 비인간적인 것이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믿었다. 그러므로 그는 진실로 인간적인 세계가 그 대신 들어서야 한다는 것을 역시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부터 마르크스는 현실 세계에 대한 단순히 지적인 비판으로 부터 그가 말하는 비판의 실천으로 옮겨 갔다. 실지적 비판이란'혁명"을 말한다. 혁명의 임무는 그의 말에 의할것 같으면 "이 세계의 진리를 확립하는"일이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세계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것은 장래에 혁명의 결과로써만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마음속에 있는 혁명은 어떤 종류의 혁명도 아니었다. 더 확실히 말하면 그는 물질적인 힘을 가지고 정부를 타도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자기의 이론이 파괴적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그는 그것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음과 동시에 물질적인 힘

이 되리라고 자신하였다. 대중은 힘을 제공하고 그의 이론은 지도를 제공한다. 이와같이 하여 마르크스가 그린 특수한 종류의 혁명 즉 '급진적인' 혁명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것은 정렬과 열성을 가지고 하는 혁명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들린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또 다른 요구를 가지고 있었다. '급진적인 혁명"은 '부분적인 혁명'과는 구분된다. 단순히 정치적인 혁명은 마르크스에 의하면 부분적인 혁명이요, 별로 쓸모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집의 기둥들을 아직도 서 있는채로"둔다. 반면 급진적인 혁명은 집전체를 무너뜨린다. 오직 이런 종류의 혁명만이 '인류를 해방'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혁명을 위하여 물질적 힘을 제공할 대중은 어디 있는가? 마르크스는 그 대중이 무엇과 비슷하다는 것을 일반적인 말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다. 그들은 "사슬에 매인 계급이요, 또 시민사회의 계급이 아닌 시민사회의 한 계급이며… 그 보편적인 성격을 띄게되며 또 어떤 특정의 부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정이 그것에 대하여 감행되기 때문에 아무런 특정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계급이며 또 한마디로하면 완전한 인간상실이며 따라서 인간의 완전한 재획득을 통해서만 그 자신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급"이다. "헤겔의 철학 비판"속에 있는 이 귀절은 대단히 흥미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우리가 살고있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세계를 원하였다. 이 세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는 급진적인 혁명 다시 말하면 바로 '집의 기둥들'을 포함한 현재의 세계를 파괴할 것을 원하였다. 이것을 그는 '인간의 해방'이라고 불렀다. 그리하여 이제 그는 그와 같은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사회의 힘이 필요한가를 설명한다. 그는 이것을 일반적인 말로 설명한다. 그는 "중요하지 않으나 중요해야 할" 계급을 필요로 한다. 이 계급은 일반적으로 오류, 고통을 대표하여야 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압박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계급과 대결해야 한다. 이와 같이 윤곽을 그려 놓은 다음은 그 인간적 무존재라 하는 신비한 계급의 혁명 운동이 인간의 보편적인 해방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전적으로 마르크스의 머리속에서 만들어진 한 상황인 것은 알기가 어렵지 않다. 이것이 그가 새로운 종류의 세계가 탄생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이유이다. 이 말들은 과학자의 말이 아니라 한 몽상가의 말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용어가 나온다. 환상에 사로잡혀 또 반란으로서 모든 부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인간의 힘을 신비롭게 그려놓고 그는 갑자기 현실 세계에 돌아와 실지 존재하는 것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한 특정의 재산으로서의 사회의 이와 같은 와해가 프롤레타리아트라"고 그는 외친다. 여기서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말이 처음으로 마르크스 사상속에 나타난다.

마르크스는 자기가 찾던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혁명을 할 수 있는 대중의 하부구조를 찾았는데, 그가 말하는 혁명이란 혁명이라기 보다는 현재의 세계를 완전히 종식 시키고 그것을 새로운 진리의 세계로 변형시키는 그러한 혁명인 것이다. 마르크스의 눈에는 프롤레타리아는 철학의 "물질적인 무기"인 것이다. 타락된 세계로서 이 사회를 그가 배척한 사실은 물질적인 힘을 획득하는 바가 되었다. 프롤레타리아는 말하자면 마르크스의 군대이다. 마르크스의 마음이 프롤레타리아로 행한것은 빈자에 대한 동정에서가 아니라 계시적인 어떤 환상에 현실성을 부여하려는 의사에서 온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던진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문제란 즉, 마르크스를 움직인 것은 정의감, 분격, 또는 비참한 자를 도우려는 욕망이 었는가? 우리는 인간에 대한 그의 특수하고 단편적인 개념이 그로 하여금 존재하지도 않고 어디서나 존재한 적도 없는 사회질서에 대한 개념을 형성케 하였다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또 그로 하여금 이 세계를 타락된 것으로 부르게 하였고, 따라서 다른 새로운 세계를 원하게 한 것이다. 그 새로운 세계를 누가 실현하느냐고 스스로 물었을 때, 그는 한 사회계급을 발견하여 그 계급에다가 이 세계 해방의 사명을 맡겼던 것이다. 프롤레타리아는 현실을 변경시키려는 마르크스의 무기인 것이다.

소련 경제의 배경 : 이원 · 피 · 샤한

<프로그램 28번>

이것은 소련의 경제조직과 경제문제에 대한 네가지 계획중의 첫째 것이다. 오늘 우리는 소련경제의 배경을 취급하고 다음은 그 구조 또 그 다음은 농업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취급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소련 경제의 실제를 검토할 것이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소련은 지금 타국에 의한 경제적 경쟁의 모범으로 (완전히 공개된 모범은 아닐지라도)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련이 가지는 매력은 공업국가들 보다는 세계의 미개발국가들에게 호소력이 강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는 붉은 군대에 짓밟힌 몇몇 동구라파 위성국가들을 제외하고서는, 공업화된 국가로서 공산주의를 지금까지 채택한 나라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미개발 국가들에 있어서는 공산주의는 사회적 및 경제적 혁명을 성취하는 수단으로서 그 성격이 어떻다는 것을 그것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잘 이해가 되고 있지 않으며, 더욱이 그것이 또 경제성장의 빠른 속도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이해가 되고 있지 않다.

세계의 미개발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타국을 따라 가려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수준과 안정이 우리의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소련은 공산주의 경제제도가 조직 및 성장면에 있어 기적을 성취한다는 인상을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전세계에 퍼지게 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가를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알아야 하고, 또 세계 전체가 알아야 한다. 이 교과과정에서 소련 경제문제를 소개함에 있어서 나는 세가지 문제 즉 소련 경제의 역사적, 이념적 및 지리적 배경을 취급하려고 한다. 우리가 타국에 대한 모범으로서의 그 성격과 그 적절성을 판단하려면 이 모든 것

에 관하여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나는 한편으로, 러시아가 1913년 바로 직전에 어느정도 공업화되어 있어서 여하한 경제제도 밑에서도 급속한 경제발전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고 다른 한편으로, 이 특정한 경제 단계에 있어서 러시아는 또한 전면적인 경제 및 사회혁명을 할 단계에 들어와 있는 유일한 국가였다는 사실에 특히 주의를 환기코자 한다. 이와같이 마르크스주의는 그곳에 적용될 수 있었고 또 이 나라는 그 이상의 급속한 공업화를 시작할 수 있는 나라였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러시아가 혁명이전에 꼭 필요로 한다고 마르크스가 주장한 프롤레타리아를 못가지고 있었으나 마르크스주의는 마침내 러시아를 지배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러시아가 전면적인 혁명을 하는데에 무르익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두가지 조건이 두개의 본래의 서로 맞지 않는 요소들을 결합시킬 수 있었으며, 이 결합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소련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제 나는 혁명 이전에 특히 19세기와 20세기에 있어서의 러시아 경제사의 몇가지 면을 말함으로써 이 문제를 전개코자 한다.

우리는 첫째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에 존재한 경제조직을 이해해야 한다. 이와 같이 늦게 발전한 나라는 구라파 어디서도 볼 수 없다.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시아사회라고 부르는 그것을 대표한다. 우리의 목적에서 볼 때, 이것은 법률, 국가 그리고 경제, 정치, 군사, 종교의 모든 권력과 모든 조직이 글자 그대로의 중심세력이 되는 짜황제 즉 국가원수에게 모든 것이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경제 통계를 제시하기로 한다. 1861년에 일어난 러시아에 있어서의 농노해방의 전야까지 황제는 러시아 전토지의 67.6%를 소유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것이 주로 농민에게 의존된 농업사회라는 것을 기억 할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경제력의 집중인가를 이해 할 수 있다. 그 나머지 토지 중에서 귀족이 30.6% 그리고 기타단체들이 1.8%를 소유하고 있었다. 귀족들은 황제와 제휴되어 완전히 황제에게 예속되어 있었다.

러시아는 두가지 계급으로 구성된 사회로서 한편에 황제와 귀족들이 인구의 1%밖에 안되지만 그 토지의 98%를 소유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농민이 인구의 90% 훨씬 이상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기타 있을 수 있는 계급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군대가 짜르 정부의 일부로써 경제적 지지를 위해 의존되어 있었고, 교회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이었정다. 교회의 토지들은 1764년에 황제에 의하여 접수되어 버리고 따라서 교회는 경제적으로 특권계급이 못되었다. 사실상 교회는 정부의 일부로써 정부 당국에 의해서 조직되었다. 1860년 부르조아지는 상인들로 구성되었고, 그 중의 몇 몇은 큰 것도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었다. 상업 계급의 대부분은 조그만 상인들과 장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수세기 동안 러시아에 존재하고, 또 지금 세계까지 계속되어 온 짜르 황제의 이 놀라운 권력 및 지도권의 집중은 오늘날 러시아 국민이 왜 전체주의적 공산주의를 받아 들였는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인 것이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짜르 황제가 지배하는 이 사회는 경제적으로 볼 때 중대한 긴장상태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따라서 정부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기술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19세기 중엽 러시아에 있어서의 농노제도는 그 때까지 원시적인 제도였다. 지주는 농노의 신체까지 마음대로 처리하며, 아무런 보수 없이 그들의 노동을 착취할 수 있었다. 농노는 아무런 보수 없이 그의 시간에 거의 반을 지주의 땅에서 일해야 했고, 아니면 그 대신에 면역지대(免役地代)를 지불해야 하였다. 집단적인 토지소유 또는 분업적인 농업 때문에 농업에 있어서 기술적인 발전은 있을 수 없었다. 농노들은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없었지만, 예외적으로 어떤 농노들은 새로운 형태의 농업을 발전시키며, 다른 농노들의 소유주가 되었는데 이것은 후에 스탈린에게 크게 고통을 준 소농의 전신이다. 이 제도의 어려움은 간단한 통계로서 증명될 수 있다. 즉 19세기 중엽의 해방 전야의 구라파 러시아에 있는 모든 귀족들이 소유한 토지의 40%와 또

개인소유의 남자 농노들의 70%가 황제의 신용제도에 저당되었었다.

동시에 18세기말에는 짜르황제의 지도하에 러시아는 그 시대의 어느나라 보다도 못지않게 공업화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제 및 사회제도는 19세기의 서구와 미국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공업발전에는 적응될 수 없었다. 따라서 19세기에는 특히 1861년 농노해방에 중심을 둔 붕괴와 개혁들이 있었다. 1861년 이전의 공업은 특히 자유로운 노동의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지장을 받았으나 그래도 농노제도를 공업에까지 확장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었다. 많은 황실 소유의 농노들이 공장노동에 할당되었고, 또 개인 공장주들은 이 목적을 위하여 농노들을 살수가 있었다. 1861년 러시아에는 약 5십만명의 공장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이때 미국에는 약 2백만명의 공장 노동자들이 있었다. 아마 이중의 반은 공장에 할당된 농노들이라기 보다 자유롭게 고용된 노동자들이었으나 그중의 거의 전부가 그들의 임금으로부터 면역지대를 지불한 농민들이었다.

농노해방은 귀족들을 약화시키고, 부르조아지를 강화하고 또 공업 및 상업계급으로 하여금 러시아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게 한 장기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농노해방은 귀족으로부터 그들 땅의 약 3분의 1과 그리고 그들의 농노노동의 전부를 빼앗았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느 정도는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귀족들은 그들의 토지에 대하여 얻은 정부의 공채를 팔아야 하였고 또 이 공채매매의 압력으로, 이 공채들은 가끔 시장 평가의 30%밖에 가치가 없었다. 이와같이 하여 귀족들은 그들의 토지를 또한 팔지 않을 수 없었다. 1877년에 이르러서 그들은 1861년에 그들이 소유했던 토지의 13%를 팔아버렸고 또 1916년에 이르러서는 59%에 이르렀다. 이 토지와 공채들을 산 사람들은 대부분 부르조아 농민층을 포함한 신흥 부르조아지였다. 어느 정도는 농노해방으로부터 결과한 증대된 노동공급으로 인하여 공업과 상업이 상당히 성장되었다. 부르조아지는 또한 새로운 사회신분을 획득하였다. 공업화는 70년대와 80년대에 급진적으로 발전되었다가 90년대와 20세기 초의 불안한

기간에 저조했는데, 다시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농촌에서는 토지정리 및 사유지화 운동이 드디어 농민들 사이에 발전되었다. 정부에 농업개혁에 따라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1913년에는 러시아 농민들의 약 4분의 1이 그들의 소유지를 통합정리하고 또 그 이상의 통합정리에 대한 많은 지원이 계류중에 있었다. 이와같이 하여 혁명 전야에는 어느 정도의 통합된 토지를 소유한 부유한 농민층이 생겼지만, 물론 땅 없이 고용되어 일하는 농민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

러시아의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나로드니키 또는 집산주의자들 및 그들의 후계자들간의 논쟁이 그 절정에 달한 것은 1890년대였다. 레닌의 최초의 대저 즉 "러시아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발전"(이 책은 1890년대 후기에 나왔다)은 이 문제를 다룬 것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와 프롤레타리아가 러시아에서 현저하게 발전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하여 마르크스주의 입장은 이 나라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에서 발간되었다.

간단히 요약하면, 1913년에 러시아는 건전한 화폐를 가지고 있었고 훌륭한 은행제도를 발전시켰으며 또 상당한 철도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철도망의 거리는 약 4만7천 마일로써 그당시 영국의 2만5천마일과 비슷하되지만, 미국의 2십4만마일과는 비교가 되지않았다. 러시아는 아직도 농업국가로서 그 노동력의 약 80%가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때에 미국에서는 약 3분의 1이 농장에서 일했던 것이다. 러시아는 약 2백5십만 공장 노동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1913년 미국에는 약 8백만 공장 노동자가 있었다. 러시아의 인구는 1차대전 직전에 1억4천2백5십만이었는데 미국은 약 9천2백만이었다. 러시아는 세계의 대공업국가 중의 하나로써 대체로 7위 또는 8위에 위치해 있었다. 러시아는 면직물에 있어서는 세계에 4위였고 석유에 있어서는 2위였다.

이러한 숫자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다른 유럽 국가들이 훨씬 전에 발전시켰고 또 케렌스키 정부가 볼셰비키당에 정권을 빼앗기기 전에 시작된 것 같은 그러한 입헌적 군주국을 러시아가 쉽게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러시아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적절한 토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 토대는 러시아를 하나의 모범으로써 간주하려고 하는 오늘날에 많은 미개발국가들의 경우에 있어서보다 더 적절한 토대이었다. 이와 같이 보편적인 표현이 합당할는지는 모르겠으나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러시아는 여하한 경제 조직하에서도 급속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제2의 중요한 제목 즉 오늘날의 소비에트 경제의 이념적 배경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아마도 우리가 항상 의식하고 있지 않는 가장 주목할 만한 요인은 마르크스, 엥겔스 및 레닌이 발전시킨 공산주의의 이념은 경제조직에 대한 아무런 적극적인 이론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앞서 강의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마르크스의 "자본론" 또는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같은 공산주의의 이념에 대한 중요한 경제학 저서들은 주로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적 논의인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 적용된 것과 같은 역사의 법칙들을 발전시키는데 흥미가 있었다. 레닌은 이 저술을 더 확창시키면서 혁명을 일으키는 수단을 가지려고 애썼다.

공산주의자들이 러시아의 정권을 장악했을 때, 그들은 충분한 경제계획이나 기타의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공산주의가 일단 정권을 잡기만 하면 공산주의 정부에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네가지 이념적 목표가 있었던 것이다.

레닌의 이론이 요구하는 것은 첫째로, 당장 필요한 것은 프레타리아 독재권력의 구축인 것이다. 공산주의 정부로서는 그 사회속에 정부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아무런 권력도 없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두려워할 권력은 아마도 경제적 힘일 것이다. 그들은 어떠한 재벌도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게 한다. 왜냐하면 그와같은 재산은 그들에게 대항하는 야당을 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에서 공산주의 정부는 중요한 모든 자원을 접

수하고 처리하여 가능한 한 빨리 완전한 사회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정부가 그 권력을 구축한 후에 추구하는 둘째 목표는 그 사회의 생산능력을 확창하는 일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이론은 그것이 부르조아 없이 또 입헌적 민주주의와 같은 제도없이 자본주의가 주는 그 혜택을 그 사회에 주려는 것이다. 가능한 한 생산을 증대하려는 것이 모든 공산주의 정부의 원래의 목표이다. 내가 위에서 말한 바 첫째 목표가 요구하는 완전한 사회주의가 오게되면 그때에는 이와같은 것이 중앙정부의 계획과 조직으로써만 달성될 것이다.

셋째 목표는 사회의 부르조아 이전의 분자들 또는 부르조아 분자들을 소탕하여 인민들을 이념적으로 재교육하는 일이며, 또 넷째 즉 최후의 목표는 마르크스의 철학에 입각하여 인간을 다시 창조하는 일이다. 이 마지막 두 가지는 (비록 셋째번 것이 공산당에 대한 반대당의 세력을 분쇄하는데에 당장 필요한 것이겠지만) 장기적인 정책이 된다.

공산주의 정부의 경제정책을 돕는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이념상의 요인들이 있다. 물론 생산수단을 국유화 하는 표면상의 이유중의 하나는 이것이 자본주의자들로부터 생산시설을 빼앗고, 이리하여 마르크스주의의 의미에 있어서의 착취나 소외를 제거하리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철학적 및 경제적 입장이오, 따라서 실체적인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못된다. 왜냐하면 모든 공산주의 정부들은 당장 그들의 노동력의 가장 집중적인 착취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정부들이 생산시설을 접수하는 것은 대중의 수입을 균등하게 하려거나 생활수준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내가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항상 그들의 근본적인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얼마동안 생활수준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을 표시해 왔다. 우리는 모두 쿠바의 경우나 중공의 경우에서 그들이 겪은 곤난과 낮은 생활수준에 대해서 알고 있다. 1930년대 스탈린 시대의 러시아의 경우를 보면, 국민의 생활수준은 제일차 세계대전 직전의 그것의 반도 이르지 못했으며, 일반 러시아 국민들은 1953년경까지의 짜르황제시대의 생활

수준을 능가할 수 없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봉사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받는다"는 사상에서 표현된 유토피아적인 배급이론을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이 지향하는 먼 공산주의 사회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의 프롤레타리아 사회에서는 그 이론은 각자의 생산 결과에 따라 각자는 보수를 받는다는 것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은 공산주의 경제정책 특히 노동가치설과 지대론을 많이 취급하여 왔다. 이러한 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서 검토할 것이다.

이제 나는 나의 세째번 중요한 제목 즉 소비에트 경제제도의 지리적 배경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 소비에트 경제의 자원적 기초는 우수하여 미국의 그것과도 비교할만하다. 더욱이, 농업분야에서 그러하다. 소련은 광대한 나라로서 8백5십만 평방마일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대륙은 알라스카를 제외하고 3백만 평방마일을 차지하고 있다. 북아메리카 전부가 소련과 같은 크기가 될 것이다.

지리적으로 말하여 소련을 이해하려면 그것을 동으로 부터 서로 또 북으로 부터 남으로 세가지 지대로 나누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동쪽의 제 1 지대는 광대한 주로 미개발지대이며 동시베리아 높은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다. 이지역은 사람이 거의 살고 있지 않다. 다음은 동쪽 중앙 시베리아 고원지대이다. 서쪽으로 나가면서 이지대의 끝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는 시베리아 횡단거리의 반 내지 3분의 2 사이에 있게 된다. 구라파 러시아 전체 및 서부시베리아를 포함하여 나머지 러시아는 우랄산맥에 의해서만 가로 막혀지는 광대한 평야이다. 이 우랄산맥은 낮은 산악지대이며 2천 내지 3천피트로 많은 고개들이 있다. 이것은 북부 및 서부 유럽에 까지 이르러 나중에는 프랑스와 스페인간의 피레네산맥에 의하여 끝나는 평원이다. 소련국민의 거의 전부가 이곳에 살고 있다. 그것은 자연적인 방위 위치를 결하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왜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각 방면에서의 침략을 받아 왔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며,

또 15세기에 아이반 대제가 근대 러시아의 기초를 닦은 이래, 러시아 국민이 지녀 왔던 그런 극히 중앙집권화된 군사적 정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북으로부터 남으로 나가면서 세가지 구분에 대해서 말하면, 첫째 것이 쑨드라, 즉 러시아의 영원히 동결된 부분이요, 다음은 광대한 주로 침엽수림 지대이며 이것은 레닌 그라드로부터 태평양에까지 뻗으며 또 남쪽에는 스텝이 있는데 이것은 삼림보다는 풀밑에서 발전한 것이다. 남쪽으로 향하면서 땅은 점점 말라가서 이 스탭의 남부는 미국의 남서부의 일부 부분처럼 주로 사막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중요한 자원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한다. 러시아의 지하자원은 아마도 미국보다 더 다양성이 있겠지만 대체로 그 정도는 높지 못할 것이다(비록 러시아가 미국처럼 완전히 개발되어 있지는 않지만)러시아의 목재자원은 내가 지금 말한 광대한 삼림에 집중되어 있고, 또한 무진장이지만 활엽수는 부족하다. 러시아의 수력자원은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그 대부분이 먼 시베리아 고원지대의 큰 강들에 집중되어 있다. 러시아의 석탄과 석유자원은 아마도 미국만큼 많지 않으나 그러나 풍부하다. 누구나 우리는 러시아가 따뜻한 기후의 항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과 또 나라가 크기 때문에 자연 자원을 이용하는 데에 비교적 고도의 수송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비록 과거 러시아가 이문제에 있어서 경험한 곤란은 그 거리로 인한 것 보다도 오히려 공업 시설의 졸렬한 배치에 의한 것이었지마는) 이제 농업에 대해서 말할 것같으면, 그 자원의 기조에 관한 한, 농업이 소비에트 경제에 가장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 한다. 러시아의 대부분은 유용한 농업을 위해서는 너무 춥고 산이 너무 많고 너무 건조하다. 여기서 우리는 동부 산악지대, 시베리아 고원, 전 쑨드라 지대 그리고 남쪽으로 사막지대는 제거하고 생각할 수 있다. 농업은 구라파 평원과 서부 시베리아에서 개간된 남부 삼림 지대 그리고 매우 건조치 않은 북부 초원지대에서 경작 될 수 있다. 지리학자들은 러시아에 농업 삼각형을 그려 가지고 그 저변은

레닌 그라드로부터 서쪽에서는 오뎃사로 뻗어나가게 하고 그 정점은 중앙 시베리아의 바이칼호의 서쪽산들에 두고 있다. 이 삼각형은 대서양으로부터의 습기 많은 지대로 형성되는데 이것은 구라파 러시아의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시베리아 스텝을 통하여 점점 가늘어 지면서 비옥한 땅 줄기를 형성하는데 이 땅줄기를 통하여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놓여 있다. 이 농업 삼각형은 그 크기에 있어서 약 1백만 평방마일이며 그속에 소비에트의 모든 농장들과 그 인구의 90%가 살고 있다. 또 중요한 석탄, 철, 석유자원까지도 구라파의 이 삼각형 안과 우랄산맥 주위에 있다. 아직까지 명백히 성공하지 못한 후르시쵸프의 처녀지 계획은 이 삼각형을 뚫고 시베리아 지대의 북쪽과 남쪽으로 향하려는 기도인데 여기의 지역들은 사실상 계속적인 농업을 위해서는 너무 건조한 땅들이다.

소련에 사실상 사람이 살 수 있는 부분을 이루고 있는 이 삼각형 지형내에서 그 토질과 그 경작조건이 미국보다는 훨씬 빈약한 것이다. 러시아에는 미국의 중서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자연적으로 비옥한 땅은 없는 것이다. 이 삼각형의 대부분의 땅에 있어서 미국의 수준으로서는 너무 말랐거나 너무 추운 지역에서 농업을 하고 있다. 서쪽 부분에서는 러시아 사람들은 12인치의 우량을 가지고 정식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20인치 이하의 우량을 가지고는 정식으로 농업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믿을 수 없는 다른 농업 때문에, 보통 소비에트 "빵 바구니"라고 불리는 남부 우크라이나는 역사상 가장 큰 기근을 맛 본 것이다. 부적당한 우량 때문에 처녀지 계획은 장래를 알 수 없는 계획이 되어 버렸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짧은 성장 기간(대양의 완화적인 영향을 받지 못하는)북쪽 나라이다. 우리는 레닌 그라드가 남부 알라스카와 같은 위도 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스크바는 한스슨 만의 남쪽 끝의 북쪽에 있고 또 소련에 있어서 멀리 남쪽에 있는 흑해는 북쪽과 남쪽에 있어서 대략 추론 호수와 같은 위치에 있다. 러시아에 있어서 아프카니스탄의 북쪽에 있는 시베리아 사막의 가장 남쪽에 있는 부분은 대략 북 캐롤라이나와 테네

시의 반대편에 있다. 이와같이 러시아의 농업은 기껏해야 미국보다는 남부 카나다에 있어서의 농업과 같은 조건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우량과 토질은 대체로 못하다. 이러한 지리적 고찰은 농업으로 하여금 요원한 장래를 통하여 소비에트 경제의 가장 약점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다음과에 있어서는 우리는 우리가 오늘 논한 역사적, 이념적, 그리고 지리적 배경에서 결과한 소비에트경제의 구조에 대해서 논 할 것이다.

입헌 민주주의의 선결 조건으로써의 자유로운 윤리적 책임 : 윌리엄 와이 · 엘리어트

무력 체제 보다도 더 입헌 민주주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정신적 투쟁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적을 알아야 한다. 그보다 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난 여름 이 강습회에서 교사들이 공산주의를 공부했다. 이제 당신들은 다시 돌아와서 입헌민주주의 특히 미국의 입헌 민주주의를 공부하게 되었다. 나는 당신들이 밴더빌트에 돌아와서 더 통찰력을 얻고자 하며 또 비교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입헌 민주주의를 진실로 이해하지 못하면 공산주의의 성질과 또 입헌 민주주의에 대한 공산주의의 도전을 우리가 적절히 가르칠 수 없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면 민주주의의 강점과 약점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문제의 근본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의 성질과 또 미국의 제도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헌법이 입각해 있는 그 원칙들의 성질과 또 그런 원칙들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 시대의 최대의 약점은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신념 즉 이 세상에는 좋은 것과 나쁜것이 있고, 올바른 것과 그릇된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과 더러운 것이 있다는 신념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사기가 저하되었다는 사실이다. 명확한 윤리적인 의견 일치의 결여와 현재 유행되는 상대주의 및 실증주의의 파도 사이에는 깊은 상호관계가 있

는데 이 후자는 인간 정신속에 진리(이것에 의하여 사람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하며 또 이것에 의하여 인간의 위엄이 자라게 되는)를 받아 들이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물론 만일 인간이 성장에 대한 책임, 진리 추구에 대한 헌신, 진리와 의무감에 입각한 행동에의 헌신 또 우리의 가장 위대한 아메리카의 지도자 링컨이 "신이 우리에게 정당한 것을 알 수 있는 힘을 준 그 정당한 것에 입각하여 우리가 맡은 일을 완수하도록 힘쓰자"라고 말했을 때에 의미한 그 내재적인 뜻에 의하여 지도를 받는 태도 등등을 우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기만 하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옛 신념들은 지금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의 국민 생활을 시험하는데 있어서 "정화 상징"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의 어느 때 보다도 더 심각하게 또 더 솔직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그 가장 넓은 의미에 있어서 그것은 이 정의에 입각한 신념에 의하여 법률을 지도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국민의 전체 생활양식과 그 관습과 또 그 근본적인 법에 입각하여 있다. 이것은 키케로가 그의 저서 "공화국"에 있어서 공동체의 윤리적 요소(정당한 법률에 대한 근본적인 동의를 가져오는 정당감)라고 말한 그것이다. 대의제도, 선거, 판사들과 배심원들, 군대 및 세금, 분립과 균형, 권력의 제한 등등과 같은 문화적 발전과 제도적 조처는 이런 "가치"의 기본적인 공유를 반영하고 있다. 정당성에 대한 갈망은 인간의 가장 뚜렷한 정치적 특색인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법령과 또 모든 대화속에 스며들어 있다. 이것이 개인의 성격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양심, 가치에 대한 개개인의 의식적인 반영은 이와같은 상호 전달에 의해서 형성되고 또 형성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에의 열쇠이다. 즉 인간의 윤리적 책임성이 자유에의 열쇠이다. 그는 책임있는 의지에 대한 최후의 윤리적 단위로서 선택하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또한 그는 언제나 "유기적 조직"을 초월하는

가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단어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과거에 있어서 "강제적"이며 또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는 "필요한" 그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또한 궁극적으로 정신적 가치에 맞도록 우리의 생활조건들을 조정한다. 그 정신적 가치란 즉 현재 있는 것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가치 즉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목표를 말하는 것이다. 한 동물이 존재한다. 그는 그의 환경에 적응한다. 그는 놀라운 특질들을 가지고 있다. 벌도 그렇고 개미도 그렇다. 그러나 개미나 벌은 이미 너무나 완전히 조절되어 있어서 그들의 진화는 정지되어 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는 그들은 완전한 사회를 이루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진화를 완전히 마쳤다. 그들은 완전하고 아름다운 형태를 반복하며 이것은 또한 신의 섭리에 대한 큰 공헌이지만 그것은 이미 끝난 계획이다.

이것은 우리는 흔히 입헌 민주주의라고 하고, 키케로와 칸트는 공화국이라고 불렀으며,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바, 이에 대하여 우리는 가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법률의 통솔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다수와 또 소수에 대한 제한의 통솔을 의미하게 되는 바 그런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인간의 진정한 성질이다. 동물로써 간주된 인간은 또한 계획하는 동물이며,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역사를 변경하려고 하는 목적에 가득찬 동물인 것이다. 그는 공동적인 계획을 실현하려고 기도하는 동물이다. 그는 '공동적 유기적' (Co-organic)"이며 다시 말하면 그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공동(co)"의 의미이다. 이 단어는 우리가 '협동체' 또는 '공동체' 또는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함께 같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기타의 모든 것을 말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이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행동한다는 것은 (희랍어에서는 Koinonia단체) 인간 조직체의 근본 법칙이다. 그리고 기술적, 경제적 정당성, 질서 및 방위 등은 제2의 법칙인데 이것은 영속할 수 있는 공동체의 유기적인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자유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유롭

게 강제할 수는 없다. 그들은 그들이 책임을 지는 것을 배우며 자기 수양을 하며, 상호의 정의를 주장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를 보호하는 것을 배움에 따라 자유를 쟁취할 수 있고, 보유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에 대한 우리의 통솔력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단지 "생산 도구에 대한 집단 통제를" 함으로써 성취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마술적인 방법이 마르크스 주의자들의 가정중에 가장 어리석은 점이다. 이것이 공산주의 제도에서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 있다. 그들은 집단화만 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며, 인간의 모든 악이 근절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입헌주의의 기본으로서의 인간성과 제도에 관한 이 서문에 대부분을 나는 나의 저서 '서방의 정치적 유산'에서 취급하였다. 그 내용은 인간의 책임감의 발전과 그 책임감을 강화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것은 권위주의적 또 최후에 가서는 전체주의적 방식이 우리의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던지는 진짜 도전인 것이다. 그것은 냉전이건 열전이건 그 중간이건 간에 모든 전쟁 수단을 다하여 우리의 자유와 책임감을 빼앗을 수 있는가?

자유로운 협력은 대단히 어려운 길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흥미, 편견, 지나간 역사, 전통과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호(이와 같은 것들은 그 과실을 그 성격에 있어서나 행복에 있어서 파괴함이 없이는 그 가치를 떨어 뜨릴 수 없다) 등등 때문에 의견의 일치를 보기 힘든 그러한 정책이나 계획들에 있어서까지도 사람들에게 동의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동시에 낮추며 올릴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약한자들을 보호하고 방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스스로를 강화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그들 자신의 윤리적 힘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그들을 올리려고 힘써야 한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원하는 기사도의 본질이다. 영국의 서사시에 나오는 원탁의 아드리안(Arthurian Round Table)이 전하는 그 말은 사람들

을 높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되는 가능성을 가지게 하고 또 그들의 자유를 막는 모든 것을 제거하도록 하는 일이다. 이것이 영국의 대이상주의자 티·애취·그린(T. H. Green)이 말한 바 있는 "선량한 생활을 가로 막는 장해물을 제거하는"일이다. 이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제퍼슨이 말한 '자연적인 귀족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헌법적인 사회에로 가는 진정한 길은 절대 아닌 것이다. 또 룻소와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를 위해 강제하는 것"이 발전하는 헌법주의도 아닌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도우려고 하였든 자유의 힘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자기의 모든 선한 노력과 자기 자신을 이 자유공동체를 위하여 바쳐야 한다는 그 관념까지 파괴하고 만다. 이 사실에 대한 가장 적당한 증거는 선한 가족의 성질의 예이다. 우리는 인간의 성질과 정치의 근원에 대한 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관찰을 가지고 시작해 보자. 왜냐하면 인간성은("서방의 정치적 유산"이 취급하고 있는) 또한 자연 전체, 다시 말하면 우주의 성질에 관계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신이라고 부른다. 신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상징하는 것은 무익한 일도 아니라 정당한 일일 것이다. 나로서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으며, 우리의 개척시대 조상들의 대부분이 또한 이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인간의 성질은 우리가 이 최대의 자연개념에서 발견하는 두 가지 과정, 즉 과학적 및 초월적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결론적인, 유기적인 생물학적인 창조가 있다. 이것은 인간에 있어서는 동물이며 또 그 배경에 있어서는 물리적이다. 그러나 한편, 말하는 생물, 즉 이성을 가진 인간 다시 말하면, 그로 하여금 이 유기적인 영역으로부터 진정한 우주의 본성의 실현에로 올려 주는 창조주의 신성한 성질의 반영이 있다. 신의 신성한 요소는 그의 창조의 비밀이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신의 창조물로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없는 어떤 계획에 따라서 항상 진화해 나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고 있다. 우리는 한정된 창조물이요. 가장 넘어지기 쉬운 존재

이다. 그러나 여기 있어서 우리의 근원은 우리의 힘이다.

이 자연의 시험된 진리의 몇부분은 과학을 통하여 즉 사물의 발견과 조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다. 그러나 진정한 과학자는 교만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궁극적인 실제의 옷자락 즉 프라토가 말하는 궁극적인 존재의 옷자락을 올려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과학자라면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는 자연의 행위에 관하여 근본적인 것을 배우고 있다. 그 근본적인 것들은 선량한 사람들 마음속에 존경과 경이를 일으켜 준다. 자연의 계획표, 이러한 질서를 음악속에 반영하는 전물, 음향진동에서 오는 에네르기 (이것은 우리가 유리를 깨뜨려 보면 증명될 수 있다) 등등이 모두 그런 종류의 것들이다. 이것이 모두 진리의 가치 있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그들이 진리를 전부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어렴프시 그것을 이해 한다. 즉 "우리는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자연을 지배하는 일은 항상 인간에게 오만심을 일으킨다. 즉 희랍 사람이 말하는 바 신들에 대한 오만심을 일으킨다. 이것은 프로메튜스로부터 내려온 것인데 그는 신화속에서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의 인간적인 불손속에서 그는 인간에게 불을 갖다 주었기 때문이다. 행동에 대해서 입심좋게 또 복잡한 횡설 수설로 말하는 행동주의자들은 행동의 근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아더의 원탁, 일리어드 및 오딧세이, 이니드, 고대 노르웨이 사람들, 인도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문화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인간 역사의 최대의 힘이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놀라운 재료를 끄집어 내야 할 것이다. 나이제리아에서 텔레비죤을 관장하는 나이제리아의 통신장관 오군스케씨는(그는 하바드에 와서 7년동안 있었다) 이것을 알고 있다. 그는 위대한 인간이며, 서방의 학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하였다. 그가 말하는 것 중 놀라운 것은 그가 올바른 노선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돌아가 나의 종족의 연상자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그들이 옛 전통 속에서 알고 있는 당당한 예의범절이다. 나는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없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사상을 적절히 표현할 수 없다. 나는 이 보다 높은 진리를 텔레비존에서 표현 할 수 없다. (나는 이 때에 그에게 텔레비존에 나가라고 졸랐다) 나는 엔크루마가 가나에서 하듯이 신화를 만들어 보여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진정한 근원을 내 자신의 민족 속에서 발견해야 하겠다"

그의 말은 옳다. 거기서 고상하고 위대하며, 진정한 위엄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최상의 최고의, 최선의 이해속에 뿌리 박고 있어야 한다. 때때로 그것은 희미한 때가 있었다. 왜나하면 그릇된 문화와 노예성과 기타의 모든 것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의 근원으로 되돌아가야 하겠다. 우리는 사람들을 올려주는 방법으로써 그들에게 자유를 강요만 하거나 또는 이상한 방법을 그들에게 강요하지도 않는 그러한 방법을 발견해야 한다.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너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무슨 물건을 선물로서도 강제적으로 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하여 이것은 대 미덕이다.

이제 나는 인류학과 문화사와 윤리 및 종교까지 파고 들어 갈 작정이다. 왜냐 하면 우리가 만일 입헌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와의 관련 또는 그 수정으로써 연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전망과 그 위험이 어떻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말한 바와 같은 것이 입헌주의라면)

입헌주의란 자유민이 그들의 필요한 윤리적 질서와 인간에 있어서의 창조적 질서와를 결합하려는 노력이다. 전체주의 사회에는 질서를 유지하도록 조건을 확정한다. 그러나 창조력은 악마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아테네에 있어서나 에리자베스 여왕시대의 영국에 있어서와 같다.

그것은 알려는 욕망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독립적으로 행동을 하려는 욕망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인간 정신의 영원한 긴장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예술가로서의 미켈란젤로가 그러하였듯이 비천사적인 인간을 포함한다. 그래도 그는 이러한 신의 계시를 시스틴 성당에다 그릴 수가 있었다. 즉 "창조에 있어서의 신의 손가락" 기타 이와 비슷한 제목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렸던 것이다. 이러한 그림들은 그가 신의 지도에 대해서 나중에는 마음을 개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위에 말한 바와 같은 악마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라파엘보다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이것은 구약 성서에서 나오는 다윗에 대한 미켈란젤로의 조각이 우리의 동정을 끄는가를 설명해 주며 또 다윗 자신도 죄인으로서 신에게로 나아간 사람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옛날 아담과 뱀과 같은 이러한 악마적인 근원은 초월하도록하여야 한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이 어디에 있고, 또 단지 욕망을 충족하는 이상 무엇이 있는가를 배우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아마도 완전한 세계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은 만일 그가 그것을 받아들일려고만 하면, 그의 성장이 아무리 야생적이었다 하더라도 그의 식량과 생존의 기본적인 욕망은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조직적이고 또 협력하기를 바라고 또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의 그들의 짐을 스스로 지고 남에게 전가하려고 아니 한다면(첫째 미합중국에다가)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이 최후에 약속하는 바와 같은 세계를 조직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특히 권력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그것을 억제하는 법률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짐을 지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그렇게 할 수 없고, 둘째로는 더욱이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짐을 지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외국원조의 본질은 원조를 받는 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돕고 스스로 교육을 하게 만드는 일이다. 교육이라 해도 꼭 글자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들에게 가장 결여되어 있는 점이라던가

또 국내에서 배울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 질서를 통한 안정, 또 다음은 중간 기술 등 그들 자신의 전통과 문화 고유의 것을 배우는데 힘쓰게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들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성장의 일부분이다. 성장과 발전은 내가 입헌주의에 관해서 여기에 함께 묶어 놓으려는 모든 것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의 선결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책임감일 것이다. 우선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정치적 단위를 가져야 한다. 이 단위는 선택을 하는 가운데 성장해야 한다. 그것은 윤리적인 책임감을 가지는데 선결 조건이 되는 의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이 자아의식이다. 다시 말하면 양심이 받아 들이고 격려하는 곳에서 책임감과 의무감과 복종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관습을 조종하는 일은 모든 힘이 자라는 시초가 된다. 이것은 어린 아이를 키울 때 로버트 처럼 키우는 것이 아니라도 좋은 습관을 길러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 생활의 대부분은 '습관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아이들은 이러한 확고한 습관에 따라 길어야 한다. 모든 위대한 문화는 어떠한 전통적인 윤리로 충만되어 있다. 우리가 매일 매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우리의 머리는 돌아버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헨리·아담스가 그의 "교육"에서 말한바 그것이다. 우리가 존·스튜아트·밀의 "자유와 대표"를 잘 읽어 보면 그가 합리적이고 명석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우리가 유토피아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떤 "기상"을 발견할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유를 위해서 엄격한 조건들을 제시했는데 제2차 세계 대전 후 전식민지로부터 해방 된 신생 국가들은 세계도처에서 민주주의를 획득하기 위하여 우리가 공헌한 것을 생각치 않았다.

우리는 진실한 남여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 못될 때 우리 민족을 이끌 수 없고, 여력과 관대성과 우리의 장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필요한 '위대한 정신' 등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신이

우리 자신만으로서는 이룩될 수 없다. 아일런드의 속담에 우리 자신만으로(Sinn Fein)란 용어 보다는 "하느님 밑의 한 나라"란 말이 더 적절하다.

이러한 올바른 정신은 스파르타 식으로 운동만 해가지고는(이것도 중요하지만) 성취될 수 없는 것이다. 운동 경기장만 가지고서는(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힘을 길러낼 수 없다. 럭비와 같은 경기에서 서로 자연스럽게 또 융통성 있게 협력하는 것을 볼때 운동경기 팀의 훈련은 놀라워 보인다.

우리의 입헌적 자유 제도에 있어서 우리의 힘은 우리가 공통된 신념을 가지고 질서 있는 사회속에서 우리 자신의 자기의존 정신을 결합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에 대한 특권을 오해하고 의무가 권리의 선결 조건이라는 것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책임감과 희생에 대한 각오가 진정한 진리에 입각한 엄격한 정의를 요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단순히 상식적 거울과 더불어 하는 일만 가지고서는 안되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의 영향에 가장 중대한 현실에 대하여 엄격한 정의를 요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굳건히 서서 침략을 벌하려는 자존심 있고 모험을 무릅쓰는 단호한 결정은 평화로운 분위기에 소란을 일으킬른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적어도 우리의 적에게 위협을 주고 우리의 친구를 위로하며 또 우리 자신에게는 자존심과 적극적인 용기를 되찾게 해줄 것이다.

이제 나는 입헌주의가 본래 이 나라에서 배태된 것은 그런 뜻에서 였다고 생각한다.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헌주의는 (이것을 우리는 모든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유지해야 할것인데) 통수자로서의 대통령과 미국의회를 포함한 이 나라의 모든 법적 권위 그리고 그 위치를 지키는 대법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내생각으로는 대법원이 최근에 좀 우리의 엄격하고 균형된 제도에 대한 판단자로서의 그 역할을 남용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전역사를 통하여 오랜 동안 대법원은 단결의 상징이 되어 왔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있어서 복잡한 분쟁과 균형의 제도를 지켜 가치있고

필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또 각 주간의 분쟁과 집행 기관간의 대립 등 삼권분립의 모든 문제를 (국민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도 맡아 왔던 것이다.

법률가가 아니면 우리의 헌법을 이해 할 수 없다면, 과거에는 가끔 필라델피아 법률가가 아니면 그것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대법원이 뭐라고 말하겠는지를 알아 마치려면 가끔 우리는 법률가가 되기 보다 점쟁이가 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 노선이 정치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서 대법원의 새로운 정치적 중앙집권적인 역할은 그 결정을 예측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아주 최근에는 대법원이 점점 더 독립되어 가는 징조들이 보였다. 우리의 입헌적 윤리는 독립적인 그리고 원시적인 법원을 요구하는 합의부를 필요로 하고 있다. 무엇이 "정당한" 법률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는 모든 입헌주의의 밑바닥을 흐르고 있고, 또 대법원은 그 자연적인 후견자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후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여타의 부처 또는 주 또는 국민들에 대한 최고 권력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제9차 및 10차 수정이 철회된 일이 없다.

우리가 처음에 키케로가 사용했다고 하면서 인용한 말 합의(Conseusus)는 근본적인 동의, 다수에 의해서 동의될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헌법을 비준할 때에 얻은 것과 같은 동의(각주와 연방 전체 인구의 절대 다수표를 얻은), 즉 양원의 3분의 2와 주의 4분의 3의 투표에 의하여 얻은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헌법의 수정은(그 헌법이 진정한 동의를 대표하려면 절대적 다수표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1935년 이래, 나는 어떤 헌법의 수정을 위한 우리의 필요성을 체계화하기 위해 새로운 헌법 회의를 주창해 왔지만 아무도 이 문제에 있어서 나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 들이는 것 같지 않았다. "헌법 개혁의 필요성"은 1935년에 발표되었다. 그것은 멀리 뉴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견해였다. 그것은 대법원을 격하시킬 것을 제의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심판 역할을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그 당시 대법원은 거부권 행사로 소극적인 입법활

동을 하면서 정책의 검열관 노릇을 했다. 오늘날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입법하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의 기본동의를 수정하고 있으며, 마치 다른 부서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그들 자신이 그와 같은 변화를 승인은 않지만).

만일 우리가 연방으로서 적절한 입헌적 절차(주의 3분의 2에 의하여 제의된 수정 또는 대회)에 의하여 헌법의 변경을 비준할 것을 제의하기로 결정했다면 내 견해로는 헌법이 변경을 필요로 하는 몇가지 매우 기본적인 방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의 대개가 대법원의 전통적 영역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다. 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원은 4년간의 임기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헌법개정에서 나와야 할 몇가지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외교정책의 조직과 통제에 관한 처음 우드로 일슨연구팀의 보고에서 지지를 받아 반복되었다. 이 팀에 있어서 나의 동조자는 Harry Gideonse, George Kennen, Mec George Bundy, Don K, Price 그리고 Arthur Schlesinger, Jr. 였다.

그러나 지난 10년전까지 여러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연방제도를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의 성질과 제한에 관한 여러가지 아이디어와 역량을 보여준 헌법해석의 근거 제시는 "한 사람에 표 하나라는 것이다. 원자론적 단위에 대립되는 공동체들의 대표는 어데 있을 것인가?

오늘날 우리 나라의 중대한 문제는 기본적인 것에 대한 동의를 얻는 일이 아닌가? 나라를 지속시키게 하고 민족 관계의 놀라운 기록(제1차 대전 이전에 내쉬빌에 있어서의 원탁회의에 도움을 받아)이 20년대 초기로 부터 이 사회에 준 영향과 같은 그런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고결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 (옛 내쉬빌 원탁회의에 의하여 대표되는)이 전의 어느 때 보다도 오늘날 이 나라 어느 공동체에서나 필

요로 하는 것이다. 그들은 상징으로 하여 (무대의 배우 처럼) 이 나라 초창일부터 그리고 입헌국민대회 시대 부터 일찌기 이행된 일이 없는 통일의 역할을 이행하는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국을 통하여 남북전쟁 이전에 이런 종류의 통일적인 지도자들을 배출하지 못한 것이 결국 그러한 분쟁을 초래케 한 것이다. 그 분쟁은 "불가피한" 분쟁 또는 "막을 수 없는" 분쟁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린컨이 그의 두번째 대통령 취임식 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여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이루도록 운명지어져 있는 그런 분쟁인 것이다.

이제 오늘날 우리는 대내 또 대외적으로 분렬된 사회와 그리고 조직적인 압력에 부더치고 있다. 우리는 회유나 할 것이 아니라 또 공포나 애호없이 정의로써 될 수 있는 한 우리 마음 속에 기독교적 사랑을 가지고 이 합법성를 교정해야 할 것이다. 린컨이 말한 바와 같이 아무에게나 악의를 품음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가지고 이 일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 우리는 그의 말대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정의를 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처럼 정의에 확고히 입각해서 우리에게 부닥친 일을 완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일이 당장 뒤따라 왔으며, 또 그것이 그의 주춧돌이 되었다는 것은 잊어서는 안된다. 다음에, 국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일을 하고 전투에 주력하는 사람과 과부와 고아들을 위로하면서 린컨은 말하기를 "우리들 자신들 사이와 세계 만국에 대하여 정당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성취하고 보존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입헌적 사화의 기초가 되어야할 진정한 정신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정신이다. 이것이 린컨이 말하는 의무에의 헌신이며, 또 나는 남부 사람으로서 아무런 가차 없이 이와 같이 여러분께 말 할 수 있다. 나의 조부 (어머니편으로)도 이와 같이 말하였는데 그는 남북전쟁 때 린컨을 지지하느라고 자기의 생명을 바친 사람이다. 만일 우리가 진정한 합법성를 유지하려면 그것은 단지 실천될

법률이 아니라 정의의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뜻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JUS란 단어를 주의해 보면 그것은 나전어에서 나왔거나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애매한 말이며 "정의"와 "법"을 둘다 의미하는 단어이다. 불란서어로는 DROIT이며 독일어를서는 RECHT이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헌법의 기본요소가 되려면 국민일반의 영속적인 승인을 받아 그 정당성과 정의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것은 강제로 과해진 법률이 되어도 안되며 체계적인 강제가 되어서도 안된다. 경찰관이 볼 때만 법을 지키는 것은 올바른 준법이 못된다. 헌법적 윤리란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으로서 마음속으로 부터 동의되고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음으로서 법이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찬성하는 바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정정당당한 행위를 말한다. 그것은 로마의 뜻에서 정의의 기초로서의 공정을 말한다. 그것은 정의위에 확고히 서있음을 뜻한다. 그것은 미국 헌법의 전문이 강조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 키케로는 더 첨가해 말하기를 공리 사회라 하였다. (서로 억매어 있다는데 대해서 말할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한 것이다). 공리 사회란 말로 그는 "편의"와 "필요성"을 다 같이 의미한 것이다.

필요성은 미국헌법이 강조한 바이며 또 우리가 사실상 확보해야 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왜냐 하면 힘을 가지려면 보다 완전한 결합이 필요하겠기 때문이다. 우리는 통수자를 세워 놓음으로서 우리의 보다 완전한 결합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으며 또 다음에는 각주뿐만 아니라 각 개인들에게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국회)을 얻어야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헌법에 의하여 연방을 수립하였는데 많은 양보도 있었지만 진정한 힘을 보유한 것이다. 또 크게 필요한 것은 미국 시민에게 작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힘을 가지는 일이다. 나는 생각하기를 남북전쟁이 이것을 완전히 해결했다고 생각한다. 버지니아 또는 기타 몇개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되는 점이 있지만, 즉 미국 시민이 첫째로 중요한 것이다. 물론 리(Lee)장군이 남북의 영웅이 된것은 그가 그 전쟁 초기에

있어서 "나는 무엇보다 첫째로 버지니아 시민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날 인간의 전환경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개미나 벌처럼 전문화되어 가며 비인간적이 되어가게 하는 기술적인 혁명으로 둘러 쌓여있기 때문에 더 어렵게 된 시대를 살아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전문가들을 이해하면서도 사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인간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학이 다루게 될 여하한 수준보다도 훨씬 더 하위(이러한 보다 깊은 정치철학을 진정한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다루기 위해서 브랜스콤총장이 내가 수립하기를 바라고 있는 바로 그것, 즉 전국적인 비정치적 공화국 원탁회의)인 것이다. 우리의 전체인간 지혜의 최상의 지혜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땐가는 러시아인에게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중국인에게도 호소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왜냐 하면 그들도 전인류를 포함할만큼 넓고 또 마르크스주의가 도달할 수 없을 만큼 깊은 문제들을 취급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겠기 때문이다. 국가를 구하는 일은 훨씬 더 깊으며 또 세계의 모든 악을 치료할 수 있는 무기로써 마르크스주의가 생각하고 있는 "생산수단의 집단화"와 같은 방법으로써는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매스콤에 의하여 조정되지 않고 또 콤퓨터의 노예가 되지 않고 또 인간 사회에 있어서 제지와 균형을 사용하는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만일 우리가 레닌이 묘사한 또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 그리고 그가 할휘딩이후 이른 바 "금융 자본주의"가 불가피하게 온다고 예언한 그런 종류의 독점제도를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생산 수단을 집단화로 지배하려는 마르크스식 방법을 따르는 것보다 더 훌륭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세계의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그 독재주의는 실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완전한 독점을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에서 유일한 진짜 제국주의 (비록 세심하게 "이중 신념"으로 변장되어 있지만)는 남북 베트남에 있어서와 같이 테러 행위로써 농민을 노예화하고 있는 소비에트 및 중공제국주의이다. 카스트로는 확실히 이와 동일한

정책을 그의 나라에서 쓰려고 하고있다. 침략하며 약한 사람들을 테러단들의 안전을 위해서 인질로 삼으며 또 고문하는 것보다 더 지독한 침략이 어디 있겠는가?

공포의 전염으로서 퍼지는 이러한 종류의 세계적인 테러 행위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행위로서 소망과 신념을 얻을 필요가 있다. 헌법을 형성함에 있어서 기적적으로 동의 통과하게 한 필라델피아 1787년 입헌국민대회의 마지막에서 워싱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현명한 자와 정직한 자가 모일 수 있는 깃발을 올리자. 그 결과는 신의 수중에 있다". 순전히 신앙과 용기로 인하여 그들의 혁명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중에서 그 영속성에 있어서 유일한 연방을 창조한 사람들이 전쟁 또는 평화시를 막론하고 워싱톤의 뒤를 따른 것이다.

그 "보다 완전한 결합"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헌법은 정치적 행동을 통하여 안정된 공동체를 만들고 정치행동에 이용될 수 있게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이다. 그 규칙들은 ① 사람들이 자유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시민적 또는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우선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미국 헌법 전문은 그 유기적인 부분의 일부인 "국내의 안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후세를 위해서 정의를 확립하며 또 확보하는데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같이 말하는 것이다. 그 규칙은 또한 이 헌법속에서 ② 이 서문과 또 기본적인 "공동 방위" 및 "일반의 복지"에 대한 그 관심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 선거, 권력을 제한하며, 분리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조건들을 확정 해 놓았다. (제1조는 대통령에 관한 것이며 제2조는 국회에 관한 것이며 제3조는 사법부에 관한 것이며 제4조는 최고법과 몇가지 필요한 법에 관한 것이며 제5조는 매우 중요한 수정 과정에 관한 것이다.

이제 권력의 조직에 관한 그 모든 내용은 하나가 정부의 임무는 통치하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유기성을 가진 본질적인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폭발 할 수 있다. 집중에 우리 자신이 져야 하거나 또는 적어도 남에게 떠 맡길 수 없는 짐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영국의 위대한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그의 저서 "Leviathan"을 쓸 때에 말한 바이다. 즉 모든 정치 사회에 있어서 우리는 질서를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정부 상태와 불안정이 새로운 질서가 과해질 때까지 내란이나 폭동을 일으킨다. 이것은 때로 매우 무자비한 것이다.

입헌 주의의 본질은 이 근본적인 법에 대해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지지 하는 것을 요구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은 다수를 제한한다. 그것은 그 자체가 절대 다수에 의하여서만 변경 될 수 있는데 이 절대다수는 합의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 다수라야 한다. 다수의 원칙이 제한이 없다는 학설은 모두가 입헌 주의의 근본에 위배 되는 학설적인 것이다. 제한 없는 다수의 지배는 그것이 적용 되는 어디서나 그 자체를 파괴하고만다. 첫째로 다수는 절대 다수가 될 수 있고, 또 그 자체를 영구화하여 모든 규칙을 변경하고 또 독재주의를 수립할 수 있는 소재를 이룰 수 있다. (나폴레옹이나 힛틀러를 보라)

우리는 새로운 소수파들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해야 하며 또 그 소수파들이 앞으로는 설복에 의하여 미래의 다수파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는 조직하는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러한 권리들이 마치 특별한 엄청난 특권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 권리를 오용하게 허락해 두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시민의 행동이 행하여 지게 하는 그러한 조건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비록 가끔 이러한 것들이 전혀 다른 형태로 꾸미는 때가 있지만) 폭력은 증오를 일으킴으로써 저질러 질 수 있다. 그리고 말로써 저질러 지지 않는 공격에 관한 일반법의 행동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고 목전의 위험"은 삼림 속의 북과 같이 한 민족의 모든 역사적 죄와 실패를 다른 민족의 머리와 어깨와 넘어진 몸위에 쏟아 놓게

입헌 주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중용을 요구하고 있다. 중용은 상호 존경을 가져온다.

부 록 (2)

센트루이스 대학의 강습회

3년간의 토의 끝에 센트루이스 대학은 1961년 4월 "자유와 공산주의에 관한 연구회"를 조직하고 그해 여름 그 최초의 강습회를 가졌다. 교사들을 위한 본 강습회는 그후 매 여름 마다 열렸다. 이 강습회는 모두 민주시민을 위한 센트 루이스 교육위원회와 미 해군 연합회, 센트 루이스 위원회의 공동 후원으로 열렸다. 교육위원회는 연구와 토의를 위하여 센트 루이스시와 센트루이스군의 각 공립 학교, 카도릭 교구 부속 학교, 두개의 루터 교회 부속 학교, 사립 중등학교, 센트루이스대학 및 와싱톤대학 등의 대표자들을 한곳에 모았다.

이 부록은 1964년 본 강습회의 하기 강좌를 발표한 소책자의 내용과 또 그 당시의 주지사 훼리스·브리안트(Farris Bryant)씨를 회장으로 하여 열린 프롤리다 헬파에서의 "냉전 교육에 관한 1963년 회의"에서 기독교사회의 R. J 헨레(R. J. Henle) 신부가 행한 연설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부 헨레(Henle)는 "자유와 공산주의에 관한 연구회"를 조직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그 후도 이 일에 대해서 계속 활약하고 있다. 1963년 6월 13일 그가 행한 연설은 공산주의와 아메리카니즘에 관한 것과 교사나 학생이 다 같이 배울 수 있는 여러가지 가치관에 관한 것등이다. 그의 연설의 제목은 "아메리카니즘과 공산주의에 관하여 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센트 루이스대학의 계획"이라는 제목이다.

아메리카니즘과 공산주의에 관하여 교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센트 루이스 대학의 계획

아 • 제이 • 헨레(CHenle)

나는 미국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와 아메리카니즘에 관한 교사 훈련 문제에 대하여 특히 지난 여러 해 동안 센트루이스 대학교와 그리고 센트 루이스 지역으로 부터 우리가 행한 바에 입각해서 연설해 주도록 요청을 받았다.

다른 연사들이 이미 말한 바를 다시 되풀이 하는 것 보다 나는 센트 루이스대학에서 세운 바 있는 계획에 따라 개괄적으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하는 바이다.

우리의 근본 전제는 이것이다. 즉 오늘날 미국의 모든 시민은 현대 세계에 있어서의 자유와 전체주의와의 대결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자유제도와 공산주의 제도와의 대결에 있어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한 어떤 건전한 지식과 근본적인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시민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먼저 우리는 우리 국민이 교육을 받기를 원하며 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운동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 왜냐 하면 한편으로 자유 제도와 자유 사회의 발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의 발전이 서방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및 철학적 사실 등의 두 가지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가 이러한 운동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면 오늘날 세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는, 교육 받은 시민아 할 일로서 토론과 결정에 이해를 가지고 참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민일지라도 이와 같은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시민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미국이 국제적 위기에 처한 때마다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며, 또 어떤 장기적 심리전 내지 정치전 전개 계획을 택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각기 전문

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민은 그와 같은 토론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해 나갈 수 있어야 하며, 또 근본 문제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제 2차 세계 대전 얼마 후에 "노예에게는 지도자가 필요치 않다"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다. 우리는 이것을 "자유민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정치적, 군사적 및 과학적 방면에서 훈련되고 경험이 많은 지도자들과 또 고도의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을 배출시켜야 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자유 사회 내에서는 총명한 실천가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노예들은 총명한 실천가가 될 필요는 없고, 자유민 만이 그러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보통 시민이 모두 총명한 실천가가 될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째로 시민은 누구나 현재의 이 냉전에 있어서 전투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런 지식을 가져야 한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전투원인 동시에 투사이며 또 "이해관계"의 일부인 것이다. 냉전은 전쟁의 전리품이다. 왜냐 하면 이 냉전에 있어서는 투쟁의 목표가 개개 시민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냉전에 있어서 자신 있는 투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이 감행되는 노선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적의 기본적인 전략과 자원과 힘을 이해하는 동시에 자기 편의 전략과 자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적의 포획으로 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위치에 대하여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 그것을 확고하게 수호해야 한다. 우리는 적의 선전이 아무리 교묘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항할 뿐 아니라 그들의 기만과 아첨과 힘에 대항하기 위해서 적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스스로 지탱하며 자신에게 근거를 둔 인격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이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역사적인 대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문제들이 아니다. 결국 그 문제들은 인간의 가치와 결정의 근본에 관한 것들이다. 결국 공산주의가 호소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몸을 어떤 이상에 대하여 전적으

로 바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유와 인간 존엄성의 이상도 최후에는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와 확신 속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인간의 가치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이 되려면 각자는 그가 선택하는 가치와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의식적으로 감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는 그 자신의 사회적 및 정치제도 뿐 아니라, 자신의 생활 자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개인이 진실로 현대 세계의 근본적 투쟁에 참가하며 또 선과 악과의 영원한 투쟁에 있어서 자기의 입장을 확고히 취함으로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은 오직 공산주의와 아메리카니즘에 관한 지식이 개인의 의식적이고 사려 깊은 인간적 제약과 인간의 윤리적인 선택에 뿌리박고 있을 때 뿐인 것이다.

우리 센트 루이스 계획의 제2의 전제로서 해야 할 일이 주로 교육적인 일이며, 그 일의 대부분이 이 나라의 공통적인 학교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것과, 그 다음의 노력은 고등학교에다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국민학교에서도 할 일이 좀 있겠지만 국민학교 아동들은 아직까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지성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에는 충분히 성숙해 있지도 않고 지적으로 발달되어 있지도 않다. 반면에 우리 학생들의 충분할 정도의 수효가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지도 않다. 대학으로 진학하는 사람들은 가치관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인격의 근본적인 노선을 설정한다. 학교가 이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이점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미국 시민들의 임하는 길은 학교제도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장했다.

이러한 전제들 즉 (1) 모든 미국 시민은 공산주의와 아메리카니즘에 대하여 근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가져야 하고 (2) 이 지식의 대부분은 학교제도안에서 가르쳐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는 미국의 정세를 검토

한 다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실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우리 시민들은 대체로 공산주의와 그 원칙 및 실제와 또 그 역사 및 의미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전혀 못 가지고 있었다. 대학으로 들어오거나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는데, 그 혼동은 물론 한국 전쟁 때에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힌 많은 포로들의 역사로써 눈에 띄게 강조되었다. 그러나 공민과 미국역사 시간들이 시간표에 들어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더 불행한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자유 사회의 제도와 우리 자유 문화의 전통에 대해서 아무런 심각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일부의 교육자들과 일반 대중이 이에 대해서 흥미를 못 가진데 기인한 것 같았으나 사실은 보통 선생들이 이 특수한 과목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는 사신에 기인한 것 같다. 정치학과 역사에 대하여 학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이 일을 성공케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훈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선생들 자신이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자기들이 그러한 것을 가르칠 자격이 없고 따라서 불안을 느꼈다고 하였다. 공산주의와 자유에 대한 문제들이 논쟁적인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좀 자신이 없는 선생이 우리나라 전체를 통하여, 학교 제도에 끼치는 우익으로 부터의 압력과 그리고 좌익으로 부터의 압력을 감안할 때, 그러한 문제로 부터 후퇴하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게다가 종교적인 토론을 제외하고서는 이와 같이 선전적인 냄새를 풍기는 글을 내놓은 영역은 그리 흔치도 않다. 따라서 준비도 없는 선생이 학생들을 지도할 만한 책을 선정해 줄 수도 없다.

그런고로, 우리는 첫째로 중요한 것이 선생들에 대한 훈련이 있어야 하겠다고 결론 내렸다. 얼견하기에, 이 문제는 합리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문제인 것처럼 보였다. 미국에는 약 24,000개의 공립 고등학교와 4,000개를 넘는 사립학교들이 있다. 또 약 14,300여개의 장학 지역들이 있다. 카톨릭 학교 제도는 교구에 따라서 조직되는데 그 교구의 수

가 147개이다. 게다가 28개의 루터 학교구가 있다. 기타의 종교 및 사립재단들은 전국을 통하여 상당 수의 학교들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학교들과 학교구들 그리고 교구들 등등을 위하여 교사들을 모아 재훈련을 단 시간에 실시한다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다행히도 이 일은 필요하지도 않거니와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사 지도자 또는 교사 전문가라는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미국내에 있는 각 중요한 학교 체제 또는 유력한 학교구, 공립학교, 큰 종교 부속 교구를 위하여 그중 지도자 한명씩을 훈련 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전 학교 체제와 모든 주에 퍼질 수 있는 영향력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첫째로 생각한 점은, 학교들을 위해서 인간적 자원을 준비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일이었다. 나는 좋은 교수 지침과 교과서와 도서 목록 등등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할 의도는 없다. 이 모든 것이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첫째로 필요한 것은 사람을 훈련하는 일이라고 느꼈다. 훌륭한 교수 지침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격 없는 사람의 손에 들어 갈때는 무용한 것이 된다. 그들은 어느 정도 훈련된 사람까지도 잘못 지도하기 쉬우나 그와 반면에 훌륭한 교사는 부적당한 재료를 가지고도 많은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여하간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의 전부를 그와 같은 교사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 바치려고 결정하였다. 우리가 염두에 둔 것은 이미 경험을 가지고 또 그 경험을 통하여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한 교사들 그리고 이미 사회 과학의 훈련을 받은 교사들 또 적어도 정치, 역사, 경제학과 기타 그와 같은 종류의 학문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교사들이었다. 아울러 우리는 그들 자신의 큰 학교 또는 그들의 도시 또는 그들의 학교구 또는 그들 자신의 주에서 실지로 지도자의 역할을 하였거나 또는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가진 교사들을 구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학교 장학관 또는 종교 부속 학교 이사들, 또는 큰 학교의 교장들에게 그런 교사들을 지명해 주기

를 요청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방법이 건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였다고 믿는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싶다. 우리의 하기강습회를 이수한 개개 교사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바란 바, 바로 그것을 성취한 것이다. 즉 그들은 그들 자신의 학교내에서 영향력의 중심이 된 것이다. 그들은 다른 교사들을 훈련시켰다. 그들은 교수 지침과 강좌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들은 그들 학교구의 장학관들과 교장들에게 조언을 했으며 또 교과 과정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학교간에 서로 사용하는 텔레비죤 계획을 작성하여 이것을 또한 일반 대중에게도 사용하였던 것이다.

여하간 이것이 그 처음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센트 루이스에서의 우리의 계획을 운영하는 데 있어 우리가 목표한 수준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6주일 간의 강좌를 개설하여 졸업에 필요한 교과 과정을 이수시켰다. 우리는 여기에서 필요한 지식과 이해가 피상적인 것이 될수 없다고 느꼈다. 그 제목은 복잡하고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들 학교에 대한 인간적 자원이 될수 있는 교사 지도자들을 양성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건전한 학문적인 지식과 절대로 정확한 태도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더 첨가하여 중등학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는 문제를 단순히 우리 고등학교에 한 강좌나 과목을 도입함으로써 해결하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우리는 이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도 확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고등학교 교과 과정은 이미 설정되어 있고 따라서 이 문제를 위하여 별개의 특별한 과목을 설정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사실상 여기에 관계되는 문제들은 전 교과 과정을 통하여 여러가지 모양으로, 또 가끔 놀라울 정도로 재현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자들의 문학 평론을 하려들고 있다. 확실히 우리는 근본적인 인간 가치와 결정, 그리고 포부에 대한 토론에 참가함이 없이 문학을 할 수는

없다. 현대사 또는 정치 제도 또는 정부와 같은 문제가 취급될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이와 동일한 문제에 부닫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 한 명을 훈련하거나 또는 공산주의 과목을 몇 과목만 가르치는 교사를 몇 명 훈련하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사 전부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서 교사 교육이 중등교육에도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서 목표는 그들을 전문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떠한 근본적인 방향과 문제에 대한 어떠한 근본적인 이해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문학을 총명하게 다룰 수 있게 하고, 또 문제가 그들 자신의 문제속에서 나타날 때에는 그 문제를 다룰 수 있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제2의 수준의 강의들, 기타 등등이 센트 루이스에서 우리의 책임하에 센트 루이스대학교에 의하여 마련되었다. 이 위원회는 와싱톤대학교, 센트 루이스 대학교, 남일리노이스대학교, 센트 루이스시 및 주립학교, 카톨릭학교, 루터파학교, 미국 변호사 협회, 백악관 교육위원회의 지방 위원회등의 대표들에 의하여 조직된 비영리적인 법인단체인데, 포드재단 및 기타 지방 단체들에 의해서 많이 도움을 받아 왔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센트 루이스에 있어서 공산주의와 아메리카니즘에 관한 교육의 전영역에 있어서 모든 노력을 규합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중등교육은 교사 교육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인 전략의 일부이다.

센트 루이스대학교에서는 또한 대학 재학생들을 위해서 공산주의의 근본 문제를 취급하는 과목들(물론 선택 과목이지만)을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철학부는 특히 일반적인 내용의 강좌를 마련하는 데 역할이 컸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이와 같은 강좌를 전국에 보급하여 대학 수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성숙한 토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위에서 대략 설명한 교사 훈련은 치료적인 성질

을 띤 것이다. 근본적인 방향 설정과 근본적인 지식은 계획 내에 있어서 필수 강좌로 하거나 아니면 필수의 일부로서 정식교사 훈련 계획에 편입 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분야에서 어떤 전문 지식을 원하는 교사들은 그들의 석사 과정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획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은 다시 높은 단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사들을 훈련할 것을 의미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센트 루이스대학에서 우리는 대학원 학생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연구, 러시아연구, 아메리카 연구 등등의 전문분야의 과목을 배우도록 하는 계획을 준비해 왔다. 센트 루이스대학에 있어서의 우리 자신의 교사 훈련 계획은 교사들에게 마련된 여러 가지 석사 과정 계획 내에서 선택 과목으로 우리의 강좌 전체를 승인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일은 고액의 장학금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해당 부서 내에서 "자유와 공산주의에 관한 연구회"(이것은 대학 내에 있는 우리의 연구를 위한 조직인데)를 통한 계속적인 연구 계획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이런 연구 계획들이 교육의 전체 체제 특히 교사 훈련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내가 오늘날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며, 말을 바꾸면 내가 처음에 개설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인이 가져야 하는 공산주의와 아메리카니즘을 우리의 교육 제도를 통하여 미국 시민들에게 주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개설하였던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미국인의 교육을 왜 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통하여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이 벌써 이 회의 도중에 나왔다. 이런 교육은 교회나 사설 기관이나 성인 교육으로 가장 효과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제의도 있었다. 그러나 이해란 철학, 역사, 정치학, 경제학 등등에 걸쳐 학교에서 하는 지적 훈련과 심각한 연구로 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식과 이해, 사실과 원리 및 학문에 걸쳐 지극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짧은 텔레비죤을 통한 강의나, 부인들의 모임에서 하는 오후의 몇 시간, 또는 교회에서의 몇 번의 설교, 또 계속적인 연구 단체 등을 통해서는 진짜로 해결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아무리 중요하고 유용하다 해도 이런 것이 독립적으로나 또는 그것들이 모두 합해 가지고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전한 훈련을 성취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 단순하게 말할것 같으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이해하고 파악한다는 것은 철저한 기본적 교육의 문제이며 또 철저하고 기본적인 교육은 정식 교육 구조 내에서만 실로 가능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방금 말한 것은 좀 수정을 요하는데, 이 수정에 대해서 말하려면 우리가 이미 이 회의에서 들은 바 있는 하나의 설명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겠다. 즉 우리의 연사들 중의 어떤 분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종교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어떤 분들은 만일 종교만 강력하고 진실되고 체험적인 것이 되면, 그 때는 우리가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였다. 우리는 냉전에 이길 것이다. 우리 시민들은 공산주의로 부터 방위될 것이다. 공산주의는 패배하고 말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교육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이 일을 도맡아 할 수는 없으며 또 우리 사회에 강력한 종교 생활이 존재 하지 않을 때 교육이 이 일을 절대 이행해 내지 못한다. 반면에 종교도 교육이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심각하다 할지라도, 만일 그가 이런 문제들을 이해 못한다고 하면, 또 만일 그가 자유 제도를 이해 못하거나 이 투쟁에 관련된 철학적 및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는 그가 가진 헌신적인 확신으로 인하여 오히려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왜냐 하면, 확신 또는 헌신 또는 강력한 언질이 지식과 이해를 떠날 때는 위험한 세력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요인을 다 가져야 한다. 종교도 있어야 하고 교육도 있어야 한다. 나는 미국 제도에 헌신하면서도 종교를

배척하는 미국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개인적으로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나는 만일 그들의 견해가 미국 사회에 만연된다고 하면 우리가 공산주의 및 전체주의와의 국제적인 투쟁에서 패배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유제도 자체가 나중에는 무력해지고 멸망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종교만이 자유제도를 지지한다거나, 미국 내의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자유 제도가 신학적 체계에서만이 그 유례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자유 사회는 종교적 국민의 사회적 표현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내가 종교적 정부나 종교적 국가라고 말하지 않고 종교적 국민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의해 주기 바란다.

그러나 나는 지금 명확한 분기점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나로서 당장 거부한다. 우리는 종교적 확신과 동기와 인간 가치 등을 한쪽에 놓고 또 일종의 개념적 이해 또는 추상적인 학문은 다른 쪽에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중의 처음 것은 교회에 맡기고 둘째 것은 학교에 맡기는 등의 그런 방식으로 공산주의에 임할 수는 없다. 이것은 절대로 안된다. 여기에 관련된 지식과 이해는 추상적인 것도 아니며 개념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라야 한다. 그것은 확실히 학술적이고 사실적이며 지적으로 건전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그것은 개개인의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일부로 만들 수 있는 지식이어야 한다. 이 영역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판단은 가치 판단이며 따라서 윤리적 기반 위에 입각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지식이 공립 학교에서 교수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떠돌았다. 왜냐 하면 그것은 윤리적 가치의 사상 주입이 되며 또 학교의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 교육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는 자유로운 진리 탐구와 저촉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물론 힛틀러가 나치 독일의 젊은이들에게 사용하고 러시아가 오늘날 러시아의 젊은 국민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사상 주입 기술을 통해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도 있다. 이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이 만들 수 있으며 결국에 가서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는 자립과 침착을 가져 올 수 없고 따라서 그것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것이다. 또 민주적 이상을 가지고 단순히 미국의 젊은이들을 세뇌하는 것도 정당한 일이 아니며 또 효과적인 일도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것도 아니다. 왜냐 하면 젊은이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젊은 이들의 마음에 건전한 가치관념을 넣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단순한 세뇌나 사상주입이 아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의 경험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고 또 사실과 역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진리를 발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문제의 진리를 선택하며 건전한 이상을 선택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자기 자신의 정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다. 물론 이 것은 종교를 가르치는데 있어서의 모든 효과적인 방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힛틀러가 나치즘을 가르쳤듯이 종교를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와 같은 종교는 각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특히 인생을 오래 경험함에 따라 쇠퇴하고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를 가르침에 있어서 그 종교가 개인의 일부가 되고 또 그의 자유롭고 개인적인 선택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 것이 어렵다는 이유 중의 마지막 이유는 우리의 학교들의 중립성에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은 그것이 서로 근본적으로 다른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을 단 한개의 정치적 통일 속에 결합시키는 데 있다. 우리 사회는 루터파 전통 속에서 확고한 확신을 가진 크리스챤인 루터파 사람들과 카톨릭 교회의 근본적인 믿음을 확고하게 고집하는 카톨릭 신자들과 기독

교를 믿는 과학자들과 유태인들과 침례교도들과 공리주의자들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극히 종교적인 입장과 윤리적 가치를 보유하며 개인적인 약속을 주고 있는 사람들의 어느 누구에게 있어서나 인생의 정신적인 의미에 집착하는 것은 항상 종교적 확신 위에 입각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개인적인 결정과 개인적인 약속을 떠나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실로 개념적이며 비효과적인 교수 방법이며 방향 설정에 지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공산주의와 아메리카니즘에 대한 이해를 개개 학생들의 근본적인 신념에 관련시키려고 하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사이비 종교와 아메리카니즘 숭배 사상을 창조하여 학교에서 이것을 가르칠 수는 없다. 이것은 실로 우리 사회의 자유와 그 근본적인 다양성을 깨뜨리는 것이 될 것이며 따라서 내부적인 분쟁을 일으켜 스스로 패배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완전하고 또 완전히 만족스러운 해결을 제시 할 수 없다. 왜냐 하면 나는 우리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관계 있고 또 그것을 반영하는 교육 체제를 확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해답을 발견했다고는 생각치 않기 때문이다. 그 것은 어떻든 간에 나는 현존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로 고립시킬 수 있고 또 모든 미국인들이 대체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제2차적인 원칙들이 있다고 나는 생각 한다. 예를 들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다. 또 개인의 권리를 적절히 존중하는 원칙 또는 언론의 적절한 과정과 자유와 같은 입헌적인 원칙이다. 일반 원칙으로서는 이 것은 미국인들에게 널리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비록 우리가 복잡한 경우를 당할 때에는 의견의 차이가 불가피하게 나타 나겠지만) 그러나 이 것은 우리가 이 원칙과 이 원칙속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윤리적 가치를 받아 들이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원칙들을 우리가 제2차적인 원칙으로써 제시 하는 한, 이러한 원칙들은 공립

학교에서 우리가 직접 다룰 수 있다고 나는 생각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립학교 교사들이 카톨릭교나 신교나 또는 유태교를 가르쳐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는 사회내에 이와 같은 종교적 신앙이 존재하며 따라서 교실내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제2차적인 원칙들을 취급할 때에 교사는 이러한 원칙들이 학생들의 근본적인 종교적 신앙과 관련시켜 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교사는 모든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 유태 전통 내의 하나의 사실로서 이러한 제2차적인 원칙들을 지지하며 보증하는 그런 원칙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카도릭교나 루터교파나 기타의 종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입장도 스스로 취함이 없이 또 종교적인 논쟁을 끌어 들일 것 없이, 교사는 사회 내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과 또 이와 같은 개인의 확고한 종교적 신념이(그러므로 학생들의 그것도 마찬가지로)공산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아메리카니즘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와 관련시켜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단순하게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왜 공립학교 교사들이 그들의 학교 기관의 내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의 종교적 성질을 인정하지 못하며 또 자유와 공산주의에 관한 최후의 확신이 입각해 있는 그 근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를 지나치게 간소화하는 것을 보이기를 원치 않으며 또 나는 이것이 사려 깊은 고려와 발전을 필요로 하게 될 하나의 제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립학교 교육에 있어서 개인적인 언질과 가치관의 문제를 피하지 않게 하고 또 공립 학교에서 미국적인 어떤 사이비 종교를 가르치지 않고 그러면서도 다양성 있는 우리 사회와 '종교적인 국민'의 적극적인 자원과 윤리적인 언질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센트 루이스대학 자유 및 공산주의문제 연구소

공산주의와 아메리카니즘 하기 강습회
(1964년 6월 23일—7월 31일)

후 원: 민주시민을 위한 센트 루이스 교육 위원회
미 해군 연합 센트 루이스 위원회

목 차

Page

Ⅰ. 배경 ……………………………………………………………1
Ⅱ. 1964년 프로그람 …………………………………………………1
Ⅲ. 프로그람의 목표
A. 자유 ……………………………………………………………1
B. 공산주의 ………………………………………………………2
Ⅳ. 과목 ……………………………………………………………2
Ⅴ. 자격 ……………………………………………………………3
Ⅵ. 특별 활동과 도서관 시설 ……………………………………3
Ⅶ. 교수진 …………………………………………………………4
Ⅷ. 등록 ……………………………………………………………4
Ⅸ. 수업료 …………………………………………………………4
Ⅹ. 주택료 …………………………………………………………4
Ⅺ. 지원 ……………………………………………………………5

※ 면수는 소책자 본래의 면수에 준한다.

1. 배경

이 강습회가 의도하는 확신은 교사들의(동시에 시민들의)근본적인 요

구는 진정한 지식의획득이며 성실되고 지적인 참여라는 것이다. 사용되는 방법은 균형이 잡히고 객관적이며 또 비판적이다.

1961년 4월에 센트 루이스대학에 설립된 자유 및 공산주의 연구소는 그 해 여름 "공산주의의 이론과 적용"에 관한 워샵을 가졌었다. 1962년 워샵 때도 다시 거듭되었고 새로 "미국의 자유 이론과 역사 및 제도"를 더 첨가하였다. 이 워샵은 그 객관성과 진지성으로 참가자들의 칭찬을 받았으며 전국적인 주의를 끌었다. 1963년 여름에는 1961년과 1962년의 워샵에서 발전시켜 진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과목이 마련되었다. 1963년 워샵에는 이 방면의 특별 연구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본적인 과목을 마련하는 동시에 보다 차원 높은 과목을 마련하였다.

2. 1964년의 프로그람

1963년의 성공적인 프로그람의 본을 따라 이 프로그람은 다시 새로 들어온 학생들을 위해서 공산주의와 아메리카니즘의 기본에 관한 두가지 서술적인 과정을 마련 할 것이다. 이미 이 프로그람에 참가해 본 일이 있는 사람들과 그 기본을 이미 배운 사람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제목을 취급하는 보다 발전적인 과정을 마련하였다.

3. 교과과정의 목표

가. 자유

1. 참가자들에게 자유의 철학적 이론과 그와 같은 이론의 역사적 발전에 대하여 인식 시킨다.
2. 미국적 경험에 특별히 치중하여 자유를 구현하는 과거 및 현재의 제도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3.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들에게 강습회 참가자들이 자유와 그 제도들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자신 있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하고 또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자유를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누릴 수 있게 한다.

나. 공산주의

1. 참가자들에게 공산주의에 관한 학적이고 근본적인 지식을 주고 또 그것에 대한 주요한 비판들을 하게 한다.
2. 성숙한 학생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에 관한 연구를 지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하게 하고 또 그와 같은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의 기술을 습득케 한다.
3. 참가자들로 하여금 고등학교에서 또는 대학에서 공산주의를 지적으로 자신있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한다.

4. 과 목

Hs 271X 이념의 변천 : 공산주의의 철학 및 정치이론(3학점)
1절 : 8 : 00—9 : 25 AM.
(판초(Punzo)박사, 피지울(Pyziur)박사, 산체스(Sanchez)박사.)

Hs 271X 이념의 변천 : 역사를 통한 자유의 철학적, 문학적, 및 정치적 개념(3학점)
2절 : 11 : 10A. M. —12 : 35 P. M.
(웬델(Wendell)박사, 차일드래스(Childress), 냅프(Knapp)신부.)

Hs 166C 아시아 역사 : 극동(중국, 일본, 및 서방) (3학점)
8 : 00—9 : 25A. M.
(밀러(Miller))

Pl 286 현대 철학 : 미국 철학에 있어서의 개인과 민주국가(3학점)
9 : 35—11 : 00A. M
(판초(Punzo)박사)

Pol 250 비교 정부론 : 소련의 문제—교회, 국가, 농업, 및 국적(3학점)

11 : 00 A. M. —12 : 35 P. M.
(피지울(Pyziur)박사)

Pol 280 정치 사상사 연구 : 공산주의 철학과 정치 학설(3학점)
8 : 00—9 : 25A. M.
(판초(Punzo)박사, 피지울(Pyziur)박사, 산체스(Sanchez)박사.)

Sc 289 라틴 아메리카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역사와 전술(3학점)
8 : 00—9 : 25A. M.
(간부)

프로그람의 코스는 다음과 같이 프로그람 정도에 따라 받아 들여질 수 있다.

교육과 전공——과목 전부
역사과 전공——Pol 280, Hs 166C, Hs 271X(두절 공통)
정치과 전공——Sc 289 및 Hs 166를 제외한 과목 전부.
사회학과 및 인류학과전공——Sc 289
라틴 아메리카 연구 전공——Sc 289

5. 자 격

지원자는 학사 학위를 가져야 하며 또 사회 과학 과목을 대학에서 어느 정도 이수한 자라야 한다. 경험을 가진 교사라든지 또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우선권이 주어질 것이다. 종교 학도나 라틴아메리카로부터 온 노동 지도자들을 환영할 것이다.

6. 특별 활동과 도서관 시설

정식 과목들 이외에 특별 토론, 강의, 기타의 프로그램이 모든 참가자들을 위하여 마련될 것이다.

피우 12세 기념 도서관은 아메리카니즘과 공산주의를 취급한 많은 출판물을 제공해 줄 것이다. 교사들에게 특별히 관계되는 재료를 위하여 특별

부문이 마련될 것이다. 이 도서관은 완전한 에어콘디션 장치가 되어 있고 충분한 서적과 연구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별 토의에 포함된 것으로 중등학교 수준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가르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7. 교수진

이사 :

Vincent C. Punzo, Ph. D.

(철학 조교수)

George D. Wendel, Ph. D.

(정치과 학부 교수)

Richard J. Childress, B. S. LL. B.

(법률학 교수)

Reverend Joseph G. Knapp, S. J., Ph. D.

(미국 교과 과정, 영어과 및 역사담당

William J. Mill, A. M.

(강사)

(역사과)

Eugene Pyziur, Ph. D.

(정치학 조교수)

Jose M. Sanchez, Ph. D.

(역사학 조교수)

이 진영외에 다른 저명한 내빈 학자들로 보충될 것이다.

8. 등 록

학생들은 6월 19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오후 1시부터 4시반까지 또는 6월 22일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등록해야 한다. 먼저 The Office of the Director, Room 228, De Smet

Hall, 3467 West Boulevard에 보고 하라.

9. 수업료

한 이수 단위 시간에 대하여 수업료는 30.00불이다.

센트 루이스대학에서 학위취득 지원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10.00불의 지원료를 지불해야 한다.

10. 주택료

교정내의 거주(하루 세끼)를 남자나 여자나 할 수 있다. 방 두개에 대해서는 1주에 25.00불이며 방 하나에 대해서는 1주에 30.00불이다.

전 기간을 통한 전체 비용 (주택료와 수업료)은 등록시에 지불한다. 강습회에 참석하고저하는 학생들은 방을 예약하기 위해서 쎄인트 루이스대학의 여학생 기숙사 사감 또는 남학생 기숙사 사감에 직접 접촉 할 것이다.

답신할 곳 : Dean of the Graduate School Saint Louis University 221 North Grand Boulevard Saint Louis 3, Missouri

부 록 (3)

남카로라이나 대학

1961년 여름 국제 정치 대학원(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과 교육대학원 그리고 정치 경제학부 (Department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와 협력하여 이 대학에 처음 있는 특별 '공산주의에 대한 강습회'를 실시하였다. 그 교과과정은 공산주의 전략 선전 연구소의 이사인 로저 스웨리겐(Rodger swearingen) 교수가 관리하였다. 이 공산주의 강습회는 다시 1964년 여름에 실시되었다.

공산당 전략 선전 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n Communist Strategy and Propaganda)가 작성하여 특별 하기 강습회에서 사용한 두 가지 재료는 이 부록 안에 소개되어있다. 교사들과 기타 이 교수세목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 성질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증대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재료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부록은 몇 개 부분으로 나누어 지는데 그 첫째는 격월간지 "공산주의 사정" (Communist Affairs)의 목적과 범위와 부수에 관한 논평에다가 이 간행물에 나타난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전기적인 연구와 중요한 배경논문들의 일람표가 붙어 있는 것이다. 이 부록의 제 2부는 TV 영화 연속물 Communist: Myth vs Reality에 관한 배경 진술과 그 연속물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프로그램 마다의 묘사로 구성되어 있다.

격월간지—공산주의 사정

"공산주의 사정"(Communist Affairs)은 공산당 전략선전연구소에서 두 달에 한번씩 5천부 발행한다. 이 책은 보통 32페이지로 되어 있다. 이월간는 특별히 학생, 교사, 그리고 일반 전문가가 아닌 독자들의 필요에 응

기 위해서 발간된다.

각 호 (일년에 한번씩 색인이 붙는다)마다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1) 배경 (1~2논문) (2) '발전과 추세' ('철의 장막 또는 죽의장막" 내부 또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두달 동안의 보다 중요한 공산주의 및 반공산주의 활동에 관한 논문). (3)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또는 그들에게 관한 '인용할 수 있는 인용문들', (4) 공산주의자들의 전기(1~2) 그리고, (5) 중·소 블럭과 그 국제적인 활동에 관한 한 권 또는 그 이상의 가장 중요한 저서들에 대한 평론 등으로 되어 있다.

논문들은 권위있고 읽을만하게 쓰여져 있고 또 미국 및 해외에서 이 분야의 지도적인 전문가들 또는 강습회 교수들이 집필한다.

이 잡지를 구독 예약하는 개인이나 단체(일년에 5불 학생들은 2불)들 중에는 국제관계의 저명한 학자들과 미국 내의 저명한 대학들의 수백개의 도서관들이다· 또 "공산주의 사정" (Communist Affairs)을 열심히 구독하는 기관 중에는 약 50개의 미국 정부 부처와 기관들 그리고 많은 해외의 대사관과 정부가 들어 있는 것이다. 해군 대학, 국방대학 및 무역전문학교 기타 많은 단체들과 개인들이 또한 이 잡지를 구독하고 있다.

배경 논문(1962—1965)

중·소관계의 전망.
장벽 구축 일년 후의 독일.
유엔에 있어서의 소련의 업적.
후르시초프 소련 경제를 재 편성하다.
소련 종교에 대한 후르시초프 성명.
스탈린과 그의 테러 행위 없는 10년 동안.
공산주의 일선 활동과 아프리카.
공산주의에 관한 TV 기록영화 시리즈

공산주의 평화 전선.

소련 전용물 : 정치전

중•소분쟁에 있어서의 당 구성.

케네디 암살——공산주의자들의 설.

공산주의자들의 동남 아시아 진출.

노센코 (Nosenko)변절에 관한 전망.

소련경제 재평가.

후르시초프의 "모든 인민 국가"

저개발국가들에 있어서의 소련의 전략.

한국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자 전략

모택동의 중간지대론.

OAS와 공산주의 도전.

후르시초프 실각과 미래.

일본 공산당 중공진영으로 들어 가다.

공산주의자들의 최근의 역사 수정.

오스트랄리아의 평화전선.

인 명 록 (1962—1965)

니키타후르시초프(Nikita Khrushchev)와 코즐로프(Frol Kozlov)

울부리히트(Ulbricht): 독일의 후르시초프

모택동(Mao Tse-tung): 중공 지배자.

미코얀(Mikoyan): 크렘린의 조정자.

휘델 카스토(Fidel Casto): 원조를 구하는 메시아.

수슬로프(Suslov): 실제적인 이념가.

노사카(Nosaka): 일본의 '사랑스런' 공산주의자.

토레즈(Thorez): 인민전선의 전문가,

토그리아티(Togliatti): 책략의 명수.

브레즈네프(Brezhnev): 후루시초프의 유망한 후계자.

북한의 신비로운 김일성.

루이지 롱거(Luigi Longo:) 토그리아티(Togliatti)의 계승자.

윌리 스토프(Willi Stoph): 울부리히트(Ulbricht)의 유망한 후계자.

코쉬긴(Kosysin): 탄력 있는 관료주의자(1)

코쉬긴(Kosygin): 탄력있는 관료주의자(2)

코쉬긴(Kosygin): 탄력있는 관료주의자(3)

서 평

Milovan Djilas:"스탈린과의 대화" (Conversations with Stalin)

Theodore Draper: "카스토로의 혁명" (Castro's Revolwtion)

J. Edgar Hoover: "공산주의 연구" (A Study of Communism)

Warren Nutter: "소련의 공업 생산력 성장" (The Growth of Industrial Production in the Soviet Union.)

Theodore E. Kruglak: 타스의 표리(The Two Faces of Tass)

Richard F. Staar: Poland 1944—1962 "피압박민족의 소련화" (Sovietization ofa Captive People)

Merle Fainsod, "러시아의 정치제도" (How Russia is Ruled,)

Arnold C. Brackman, 인도네시아 공산주의사 (Indonesian Communism: A History,

Klaus Mehnert, "북경과 모스크바" (Peking and Moscow)

P. J. Honey: 월맹 공산주의 (Communism in North Vietnam)

Frederick C. Barghoorn:"소련의 대외선전"(Soviet Foreign Propaganda)

Walter Kolarz, "공산주의에 관한서적" (Books on Communism)

John C. Clews, 공산주의선전기술(Communist Propaganda Techniques)

Anthony Buzek, "공산주의의 언론" (How the Communist Press Works)
William E. Griffith, ed., "유럽의 공산주의"(Communism in Europe)

텔레비젼 영화 시리즈—공산주의 : 신화 대 현실

공산주의에 대한 내용이 풍부하고 권위 있고 시각적으로 흥미 있는 분석이 남카로라이나 대학에서 공산주의 전략선전 연구소에 의하여 제작된 38개의 한시간 반 텔레비젼 영화 시리즈——공산주의 : 신화 대 현실——이 마련되었다.

헐리우드의 KNXT-CBS와 공동으로 제작된 이 시리즈는 기록 영화와 적절한 배경 시나리오를 통하여 이 문제의 중요한 국면들을 검토했다. 각 프로그램 마다 특정 문제를 깊게 분석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와의 회견을 제시하고 있다. 기록 영화를 선택함에 있어서 강습회는 시각적 매력보다 사실에 대하여 더욱 치중하였다. 공산권내의 로케이숀 (과거 50년 동안의 사건을 촬영한 뉴우스 영화), 제2차 대전에 관한 노획된 나치 및 일본의 영화, 미국 정부 또는 개인이 촬영한 영화등을 포함한 22개 이상의 출처가 이용되었다. 공산권에 관한 영화는 드물고 얻기 어렵기 때문에 시각적 및 기술적으로 완성된 것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촬영 기술은 졸렬하다 해도 중요한 사실을 적은 영화를 강습회가 발견했을 때는 그것은 반드시 이용되었다. 이 시리즈를 만들어 낸, 조심스럽게 편집한 1만 5천피트 16밀리 영화를 통하여 관중은 친근성과 현실성과 솔직한 통찰력을 얻게 된다.

심각한 공산주의 연구에 그들의 직업적인 생애를 바쳐 온 수는 적지만 존경을 받는 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전문가들이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교수들, 연구자들, 정부의 전문가들과 외국 통신원들——그들의 동료 사이에는 잘 알려져 있으며 가끔 국내 및 국제 정책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며 또 과학 및 학자 사회에 잘 정통되어 있다. 그러나 문외한은 그가 공산주의에 관한 연구를 면밀히 연구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관

찰과 의견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이 영화 연속물의 대단히 중요한 일면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견해와 해설을 보여주는 일이며 이것은 관중이 편리할 때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이다. 가끔 대중의 관심을 사로 잡는 토론 문제들은 개인의 화제를 끄집어 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공산주의 : 신화 대 현실"이란 영화는 CBS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모든 스테이숀에서 처음으로 상영된 후 세가지 영화상을 받았다. 이 영화상들은 오하이오 주립 라디오·테레비 교육 연구소, 라디오·테레비존개선 국립협회 및 캘리포니어 여성동맹으로부터 받았다. 이 연속물은 지금까지 약 80개의 스테이숀에서 상영되었는데 그 중에는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운영하는 스테이숀들이 있다. 또 여러군데의 교육적인 스테이숀에서 이 연속물을 상연했다. 이 프로그램중의 많은 것이 오리곤 대학, 애리조우나 주립 대학 및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공산주의에 관한 지도적인 교사들의 강습회에서 사용되어 왔다. 남부 캘리포니아주는 전주를 통하여 공립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한 세트를 샀다. 많은 필림들이 팔리거나 또는 주립의교연구소 미국방대학원 공군대학 뉴저지 및 루이지니어주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클래스에서 상연되었다. 오늘날까지 1천백만 이상의 관중이 필림들을 보았다.

공산주의 전략 선전 연구소의 소장인 로저스웨리겐 박사는 이 시리즈를 시작하여 개개 프로에 관한 권위자들을 초청하는 일을 하고 있다.

스웨리겐 박사는"공산주의세계는얼마나 괴상한가"의 저자이며 "세계 공산주의의 초점"의 편집자이며 "일본을 덮은 붉은 깃발"의 공저자이다. 그는 남 카로라이나 대학에서 국제 정치 대학원의 대리 책임자이며 또한 국무성, 법무성, 포드 재단 및 랜드 사단법인의 고문으로 있다. 그는 극동과 소련과 유럽을 널리 여행하였다.

이 강습회 전속 제작자는 미국 정보기관의 고참이며 랜드 사단법인의 전간부 직원이며 이 시리즈에서 사용되는 많은 속편들을 촬영한 공산국가들 내에서는 가끔 사건들의 현장연구자가 된 제임스 에이 쿠크이다.

쿠크시는 대본의 연구와 기초, 기록영화의 수집, 각 프로의 말이 붙은 전단을 만들어 내는 등의 책임을 졌다. KNXT의 제작자는 헐리우드의 CBS-KNXT의 제작책임자인 조셉샌드스(Joseph Sands)인데 그는 이 시리즈의 기술면을 책임지었다.

이 시리즈를 사거나 빌리는데 관해서는 남 카로라이나 대학, Los Angeles, California, 90007에 문의하면 된다.

개개의 30분간 프로의 제목과 각기의 내용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개개 내빈, 권위자 등등에 관해서는 다음의 개관을 보면 알 수 있다.

1. 전 망

이 시리즈에서 검토될 분야들과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은 이 소개적인 필림에서 엄밀히 조사되는데 이 필림은 또한 공산주의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이런 제목들이 가지는 중요성을 비판하고 있다.

연구에 접근하는 한 방법이 남 칼로라이나 대학 총장 노만•타핑(Norman Topping)박사에 의하여 제시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학교 감독관인 로버트젠킨스(Robert Jenkins)는 책임 있는 연구가 학교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논하고 있다.

2. 러시아 혁명

명확하고 신빙성 있는 영화가 1917년 혁명 이전의 러시아의 환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농민의 신분, 지성인들이 당하는 소외, 러시아 내의 불안을 수정하고 수습하려는 정치적 기도, 제1차 세계 대전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역할, 임시정부의 위치, 및 공산주의자들의 점차적인 접수 등등을 잘 알수 있다.

극동 및 러시아 연구소, 워싱톤대학의 역사가이며 "20세기 러시아"의 저자인 도날드•트래드 골드 박사는 왜 캐랜스키(Kerensky)의 정부가 무력하여 자체를 방위 못했는가, 왜 내란 때에 백계러시아인들이 볼세비키당을 전복하지 못했는가, 혁명에 있어서의 '소비에트'들의 역할, 볼셰비키

에 대한 일반 러시아인들의 태도, 그리고 볼셰비키 통치에 대치될 수 있는 방책 등등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3. 마르크스주의

사진, 그림 및 복사등이 칼마르크스가 탄생한 라인랜드, 그의 가정 생활, 흐레드리히 엥겔스와의 그의 친교, 1800년대 중엽의 구라파에 있어서 공산주의 연맹의 활동 그리고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의 저자등을 묘사하고 있다.

노틀담 대학의 정치학 교수이며 "강제성없는 법률" "소비에트 지성에의 질문"의 저자이며 그리고 "공산주의 편람"의 공저자인 게르하르트·니마이어(Gerhart Niemeyer)박사는 마르크스주의의 철학과 이론과 목표 그리고 과거 및 현재 사상과의 투쟁을 상세히 논하고 있다.

4. 레닌주의—스탈린주의—후르시초프주의

기록 사진과 활동사진은 레닌, 스탈린 및 후르시초프 등을 형성한 생활 영향들을 그리고 있으며 또 그 각자가 공산주의 발전에 대하여 내린 해석들을 시청자에게 소개해 준다.
"소비에트 신문의 현행 시사개요의 편집자이며 ,현행 소비에트정책' Ⅲ, 21차회의 회의록의" 저자인 레오 그루리오 코롬비아 (Leo GruliowColumbia) 는 레닌의 마르크스 주의에 대한 비난 '영원한' 그리고 '계속적인 혁명에 대한 레닌의 이론", 스탈린의 '한 나라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스탈린하의 농민에 대한 처우" '공산주의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길이 있다'는 후루시초프의 주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

모택동 주의와 티토주의

운남성에 있어서의 모택동의 농민으로써의 시초에 대하여 찍은 사진이 이 영화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의 군대복무, 중국 공산당 창설, 당을

북쪽으로 옮긴 과정, 대일 전쟁 이용, 그리고 그의 철학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농민 기지등을 묘사하고 있다. 콜롬비아대학에서 '현대 중국의 인구와 정책" 연구의 책임자이며 "모스코—북경주축"의 공저자인 하워드 부만(Howard Boorman)박사는 '모택동 주의에 있어서의 개혁과 강조", '신민주주의"에 대한 모택동 해석,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모택동 주의의 타당성, 아세아 및 미개발지역 등을 개괄하고 있다.

영화의 제2부분은 티토의 일생에 대한 사진, 크로아티아에서의 초기 생활, 볼셰비키주의에로의 전환, 제2차 세계 대전 중의 그의 역할 그리고 소련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의 위치의 변화 등을 보여주고 있다.

남칼로라이나대학의 국제 정치대학원의 교수인 놀만 훼르티그(Norman Fertig) 는 경제적 발전과 지도력과 대외 정책에 있어서의 티토의 이론실천을 논하고 있다. 소비에트 블럭에 있어서의 원심력에 대한 티토의 조력과 그리고 소련과 유고슬라비아 사이의 친선의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

6. 세계적 운동

제3 인터내쇼날의 코민테른 조직, 가입 조건, 세계 규모로 사용되는 기술, 그리고 정책 방향의 6단계 등이 영화에서 논의된다.

스텐퍼드대학의 후버연구소의 전 책임자이며 "러시아에 대한 미국인의 연구"의 저자이며 "볼세비키 혁명"의 공저자인 휘셔(H. H. Fisher) 박사는 영원한 세계적 조직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공산주의 자들의 실패, 공산당주의에 끼치는 러시아의 영향, 공산주의적 수단을 사용하기 위한 선의의 목표의 이용, 그리고 이념에 있어서보다 조직상 및 운영상의 경험에 있어서의 운동의 강점 등을 논하고 있다.

7. 공산주의 전선

현장의 장면, 장려 재료의 예, 과거의 활동에 대한 역사적인 영화 등은 소련을 위하여 정치전을 걸며, 서방의 행동을 비난하며 또 비공산국가들 사이의 분열적인 문제를 이용하는 광범위하게 선택한 전선 조직들을

그리고 있다. 민주청년 세계동맹의 역사적 발전이 무역연합 세계동맹, 언론인 국제협의회, 세계 여성 민주동맹, 세계평화 위원회 그리고 민주법률가국제협회등과 함께 상세히 그려져 있다. 이에 대한 자유 세계의 대립적인 조직들이 또한 상술되어 있으며 또 인간의 욕망을 인간의 이익에 대립시켜 조직함이 없이 추구하는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 공산당의 전회원인 올리버 • 칼슨(Oliver Carlson)은 아메리카에 있어서 일선 조직들에 의하여 역사적으로 사용된 기술을 묘사하고 있다. "공산주의의 어린이"의 항가리 태생 저자인 에드 파이퍼(Ede Pfeiffer)는 소년들 사이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조직의 방법과 결과를 묘사하고 있다.

8. 일당 정부

중앙정부의 부서로 부터 지방부서에 이르기까지 소련의 정부조직이 그라프로 그려져 있다. 공산당 통솔권이 최고 회의 간부회로 부터 세포 훈련에 이르기까지 사진으로 묘사되어 있다. 로스앤젤로스의 캘리포니아대학의 정치학 부교수이며 후랭크린 디 •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의 전행정책임자인 하워드 스웨리어(Howard Swearer) 박사와 남카로라이나 대학에서 정치학 교수이며 "정치학 개론"의 공저자인 칼톤 • 로디(Calton Rodee)박사는 전체주의 제도의 특색을 논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소비에트 정부와 공산당과의 관계, 소련에 있어서의 선거의 역할, 군대와 경찰의 위치 그리고 정권의 교체 등을 묘사하고 있다.

9. 계획 경제

역사 영화는 1917년 혁명이 끝날 때의 러시아의 경제, 신 경제 정책에로의 후퇴, 20년대와 30년대 동안의 5개년 계획의 목표와 부담, 공업 계획, 노동자에 대한 통솔과 자극제, 주택과 교통기관에 있어서의 건축, 균형이 맞지 않는 다양화의 예, '투자에 대한 세금' 근원, 그리고 불리한 공익산업 등을 그리고 있다. 국회 도서관 소속 러시아 경제발전 전문가이며 연방의회 입법자료실의 고급 간부의 한사람인 레온 헤르만 (Leon He·

rman)은 소련 경제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분석의 사실들과 숫자들을 열거하고 있다. 헤르만(Herman) 씨는 계획 경제의 세 가지 특색을 들며 또 정치적 독재주의의 반려로써의 명령 경제, 미국과 비교된 노동력의 전개, 생산 경주의 표식 그리고 노동생산성의 저하 등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10. 소련의 농업

영화의 처음 부분은 농업에 대한 소련의 지리적 위치, 기후, 토지의 특색과 도로망의 부적당성이 끼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집산제도, 집단농장의 관리, 공공사업의 관리, 노동의 조직, 자극제, 보수, 개인 농장의 조성,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의 부적당한 결과 등에 주는 이념과 정치의 악영향을 사진으로 검토하고 있다. 런던 경제대학의 교수이며 캔사스대학의 초청 교수이며 영국 외무성 및 영국 대장성의 고문이며 "소비에트 경제정책"의 저자이며"공산 제국과의 무역"의 공저자인 알랙·노브(Alec Nove)는 이 시각적 효과에 대해서 농업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후르시쵸프의 직접적 관련, 개인 농업의 가능성 결여, 집단농장과 국가 농장간의 차이 그리고 농업 정책과 대외정책 사이의 관계에 관한 지식을 보충하고 있다.

11. 소련 과학 및 기술

러시아 과학에 대한 영화로 찍은 개관은 피이터 대제의 출현, 국립 과학원의 설립, 1917년 혁명 후의 초기의 자유 그리고 주로 공산당 변증법을 구체화할 것을 목적으로 한 그 후의 이론 추구 등을 그리고 있다. 신빙성 있는 영화들이 파브로브(Pavlov) 와 그의 추종자들을 보여 주며 리센코(Lysenko)와 우생학, 오늘날 아카데미의 조직, 과학을 추진하는 불확실한 대책들 간의 알력 등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에트 과학은 유리한 개인적 위치에 오르는 하나의 통호로써 제시되어 있으며 또 계획된 기술에 헌신한 능력들에 대한 정부의 치중 그리고 공산세계와 서방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현재의 경쟁과 그들이 각기 조성할 수 있는 영향 등이 묘사 되어

있다.

프린스톤 대학의 화학 교수이며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의 전 과학 수행원이며 국립과학재단의 '소비에트 과학에 관한 보고'의 조정자인 존·터키비치(John Turkevich) 박사는 과학으로 하여금 인간 요구에 이바지 시키는데 있어서 동서간의 불균형, 과학 분야에 집중된 러시아인들의 능력 그리고 과학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의 서방의 다양성에서 오는 도전 등을 논하고 있다.

12. 군　대

광범위한 다양성 있는 영화가 혁명적인 붉은 호위병의 창설, 1920년대 동안의 기계화된 군대에로의 전환, 인민위원의 숙청과 강화, 제2차 세계대전의 슬로간으로서 '공산주의 방위'를 '국토의 방위'로 대치한 것, 전쟁 기술로써의 적과의 근거리 접촉, 독립적인 국방성의 창설, 징병 수속과 인사정책, 계급과 원자전쟁 연습을 기초로 분류한 군인들의 경향 등에 대한 통찰력을 주고 있다. 지상군, 로케트군, 해군, 잠수함 군대, 공군, 와르샤와 조약 내에서의 의무 그리고 파멸의 모험이 없는 영향의 증대 등을 포함하여 모든 군대 복무가 사진으로써 검토되고 있다.

랜드 재단의 고참 분석가이며 국방대학의 강사이며 전 예일대학 교수이며 "미사일시대에 있어서의 전략"과 "해군 전략지침"의 저자인 베르나드 브로디(Bernard Brodie)박사는 마르크스주의 철학과의 관련에 있어서의 소비에트의 무기, 소비에트 군대의 집중과약점, 보수적인 군대 이론, 공격 정책보다 수비정책에의 헌신의 평가, 정치에 끼치는 군대의 영향 그리고 능력과 힘에 있어서의 비교적 위치등의 논의에 그의 경험을 이용하고 있다.

13. 소련에 있어서의 생활

보통 러시아인이 경험하는 바 생활의 인간적 면이 미장원에서의 매력의

추구, 남녀의 관계, 군대 복무에서의 제대, 주택과 농촌 및 농촌의 생활의 활동, 도시 생활과 유흥에 대한 추구, 수송 수단의 선택 제한 그리고 식량 매입을 위한 정열 등에 대한 영화로서 솔직히 묘사되어 있다.

콜게이트대학 러시아학과의 과장이며 "러시아의 로케트와 미사일"의 저자인 알버트·파리(Albert Parry) 박사는 여러 가지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의 곤란, 여성들의 요구 충족의 결핍, 일과 및 매입의 절차, 월부 매입, 주택 문제로 일어나는 긴장 그리고 대중과 특권 계급 사이의 차이 등에 대하여 해설을 더 첨가하고 있다.

14. 소련의 교육

활동 사진 필림은 간호학교, 국민학교 제도, 독서 교육, 문맹율, 교실 부족과 교실 중복 사용, 수학 교과 과정, 언어 장벽과 필요 사항, 그리고 과학 연구 등을 조사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숙사 학교의 최근의 발전, 기술강습소와 대학 개설의 결정자로써의 중앙의 계획, 교과 과목들, 직업, 직업적인 과목에로의 전환, 미국의 인문학의 다양스럽고 각 지방의 유지되어 있는 제도들과의 비교 등등이 그려져 있다.

소련 교육, 교육 정책 위원회, 국민 교육협회 등의 계획관이며 전문가이고 또 "소비에트 교육평론"의 저자인 리차드·랜휠드(Richard Renfield)는 소비에트 교육의 주기 및 기술, 교육에 미치는 전체주의의 실제적 영향, '새로운 소비에트'인에 있어서의 태도와 반응, 노동 교육 계획, 시험 난관, 소비에트 교육의 추세 그리고 미국인에 있어서의 소비에트 교육의 중요성 등에 대하여 또한 해설을 붙이고 있다,

15. 소련의 종교

오늘날의 러시아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기독교의 도태, 수도원과 교회의 활동, 이슬람과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현재 상황, 불교에 대한 비판, 러시아에 있어서의 유태인 역사, 반유태인 운동과 현재의 예배 제도, 신교 신앙 집회, 러시아 정교, 반종교적인 교육, 국가

통솔, 정교 예배 그리고 종교의 강점과 약점 등을 일괄적으로 촬영해 보여 주고 있다.

국립 기독교 위원회 국제문제분과의 부장이며 러시아 정교 교회의 교회관계 대표자이며 "현대 러시아에 있어서의 인민과 교회와 국가"의 저자인 파울·비·앤드슨(Paul B. Anderson) 박사는 왜 소련에서 종교가 허락 되는가, 소비에트 공산주의와 정교 신앙과의 융합반, 종교적인 단체들의 활동, 로마 카톨릭에 대한 태도 그리고 소련에 있어서의 교회 활동의 조직과 재정 등등을 논하고 있다.

16. 소련의 민족과 국적

급속도의 사진 개관이 에스토니아인, 라트비아인, 베로시아인, 우르카이니아임, 몰다비아인, 리투에이니아인, 폴란드인, 조지아인, 미국인, 아제르바이잔인, 터키인, 우즈벡인, 몽고인, 유태인 과 위대한 러시아인 등을 그리고 있다. 1552년부터 오늘날의 통일된 식민 제국까지의 러시아의 팽창이 지도로써 그려져 있으며 또 민속 예술 형식으로써의 통솔된 소수인 문화, 러시아 의장 및 장식 예술등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리고 또 정치적 적응에 대한 통솔에 대하여 경제적 능률성의 평등이 논의 되고 있다.

하바드 대학에서 러시아 연구쎈타의 역사 교수이며 부부장이고 "소비에트 연방의 형성"의 저자이며 또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과 미래" (편집은 네오날드 샤피도(Leonard Shapiro)에서 "민족주의와 국적"의 저자인 리차드 피페스(Richard Pipes)박사 소비에트 형식 ("내용은 사회주의자이며 형식은 민족주의인"), 각 국적의 러시아화, 각 국적민들의 포부, 소련에 있어서 러시아인 거주민과 비러시아인 거주민 사이의 심각한 차이 그리고 소비에트인이 '자기 결정'이라고 하는 말의 해석 등등을 논하고 있다.

17. 소련의 문학 예술

회화적인 영화로 국가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의 사용을

그리고 있다. 사진과 진술이 극장, 선발된 음악가들, 회화, 1917년 혁명 직후의 고대 초상화와 현대의 추상화, 1800년대 중엽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기원, 낡아가는 혁명의 회화적인 이상화, 현대의 문학적 메뉴, 청년들의 고착 관념적인 진리탐구 그리고 예브제니 예브투셴코 (Yevgeny Yevtushenko) 에 의한 영화로 된 비판 등을 그리고 있다. 서방으로 도망하기 전에 모스크바 대학의 문학도이며 하바드 대학 러시아 연구소의 재류학자인 데비드 버그(David Burg)는 러시아 문학에 있어서의 '해빙기'를 논하며, 스탈린의 사 후 달라진 요인들을 열거하며, 소비에트작가들의 '자유화"의 네 가지 해석을 조목화하고 그리고 반정부 자유주의 작가들을 논하고 있다.

18. 공산주의가 어떻게 중국으로 왔는가

사진으로 된 선명한,역사가 손약산 박사의 1911년 민족주의 혁명,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영향, 장 개석의 등장, 러시아 고문들의 초기의 역할과 중국 공산당의 창설, 북방에로의 '장정", 연안으로부터의 작전, 일본에 대한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과의 '연합전선', 전쟁 직후의 문제들, 미국 원조의 난관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중국 본토의 접수 등을 그리고 있다.

미국 수도인 와싱톤의 트리니티 대학의 역사 교수이며 미국 정부의 고문이며 또 "중국과 일본에 대한 주요토픽""교사편람"의 공저자인 해롤드 씨·힌톤(Harold C. Hinton)박사는 교육 있는 중국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감수성을 설명하며 왜 코민테른이 중국에 대하여 1920년에 있어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 왜 그들이 국민당을 잡을 수 없었는가를 논하며 남으로 부터 북쪽까지 공산주의 기지에 있어서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며 모(Mao) 작전의 중요점을 조목으로 들고 또 중·일전쟁 당시에 공산주의 지역의 급속한 팽창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19. 중공의 최초의 10년

회화적인 영화가 1949년 10월 1일의 선포로부터 지도권을 잡을 때까지

그리고 토지 개혁 운동, 산업 발전, 소비에트 개입의 시대, 반 미국운동, 양자강 건설 사업, 단명 했던 '백화' 운동, 뒷뜰의 용광로와 같은'대약진 운동"의 증거들, 티베트의 진압 그리고 소비에트 기술자들의 철수 등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

남 카로라이나 대학의 국제학 연구소의 소장이며 "공산주의하의 중국", "최초의 5년"의 저자인 리차드 • 워카(Richard Walker) 박사는 중국에 관한 우리의 정보 출처의 신뢰성, 앞으로의 수년간 공산주의자들이 직면할 문제들, '대 약진 운동'과 같은 거대한 도박에로의 경향, 국민의 동원과 통솔 그리고 독단적인 방법의 수정으로서의 전통적인 중국의 가치관 등을 논하고 있다.

20. 중공 정권

간단한 영화가 시작하면서 중국 본토의 지도권, 그들의 유산과 상대적인 정치적 안정 그리고 통솔과 힘에 대한 존경 등을 그리고 있다. 남 카로라이나대학의 아시아인 및 슬라브족연구부의 부장이며 소비에트 아시아 연구의 책임자이며 복주에 있는 휴케인 크리스챤 대학의 전총장이며 "중국 정부와 정책"과 "사상의 개혁과 중국의 지식인"의 저자인 첸(Theodore H. E. Chen) 박사는 중공 정부의 구조를 논하고 있다. 그의 논평은 오늘날 중국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 당과 정부와의 관계 또 정책 작용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을 혼동하는가, 국민들의 사고에 끼치는 정부의 영향, 중국에 있어서 현재의 사회적 신분의 근거 그리고 정부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21. 중공의 공업 경제

영화는 만주의 공장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흡수, 러시아의 사회주의 제도 및 정책의 채택, 농업의 부흥, 운수 및 무역 통로의 재확립, 철도 건설, 계획 실천, 노동력의 동원, 소규모 공업 그리고 뒤뜰의 용광로들을 보여 주고 있다. 미쉬칸대학의 경제학 교수이며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국

두성의 전 관리이며 '중공 및 모스코바와 북경의 추축에 관한 전망'의 공저자인 아랙산더 액스타인(Alexander Eckstein) 박사는 공업 시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액스타인(Eckstein) 박사는 어떤 종류의 공업 시설을 공산주의자들이 인계받았는가, 중공의 경제적 및 공업적 목표가 어떠한 것이였는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그들이 이러한 목표들을 수행해 왔는가, 그들의 공업적 능력과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그것과의 관계, 중국 군사 능력에 대한 공업의 공헌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 장래의 평가 등을 묘사하고 있다.

22. 중공의 농업

고도로 세목화된 영화가 개간지, 토지 소유율, 농업과 공업과의 경쟁, 대대적인 토지 개혁의 6개 계획 또 그에 따른 상호 부조반들, 다음 생산자 협동 조합, 그리고 집산화, '인민 공사'(People Communes)에로의 전환 그리고 개인 채소밭의 복귀와 마을 자유 시장의 복귀 등등을 보여 주고 있다. 영화는 또한 중국의 특유한 농작물, 농업에 입각한 공업, 물 저장 문제, 토지의 집중적인 사용 그리고 기계화를 위한 노력 등등을 보여 주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중국연구소의 소장이며 중공의 경제발전과 중공의 통계제도 "최초5년의 평가"의 저자인 초밍리(Choh-Min Li)는 농업위기의 심각성을 묘사하며, 인민 공사에 관하여 설명하며, 중국 공산당에의한 농업 실패의 인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농업의 실패를 공업화 문제에 관련시키며 그리고 농업과 소비에트 귀열과의 연류성을 파 들어가고 있다.

23. 공산주의하의 동 유럽

영화와 진술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소련의 의도, 공동노력으로 할 수 있는 요소들의 확립, 경제적 용도, 서방에의 부정 그리고 불가피성에 대한 마르크스 주의자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일 등을 묘사하고 있다. 솔직한 사람들이 폴란드의 직시 각성, 동독일,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

니아,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등등을 보여 주고 있다.

캄펠(John C. Campbell)은 동구라파에 대해서 논평하고 있다. 캄펠(Campbell)씨는 이 심의회에서 대외 관계에 대한 고찰 연구원이며 동구라파에 대한 미국 정책에 관한 이 심의회의 연구 계획의 책임자이며 국무성의 동부 유럽성의 전 부책임자이며 "중동 방위"저자이다.

그의 말은 어떻게 동구라파가 민주적인 투표 없이 공산주의 하에 들어왔는가, 그 정체들이 꼭두각시 또는 독립의 선전 효과에 불과한가, 유고슬라비아의 자세, 동구라파와 서구라파와의 경제 조건의 비교, 동구라파 대 우리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미국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동구라파의 추세와 전망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

24. 사례 연구 : 폴란드

완전한 활동 사진 필림이 폴란드의 역사,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재조정, 지하자원의 사용, 공업화, Zeran 자동차 생산, 노동력. 농장의 집산 주의 흥망, 서방의 무역과 원조, 당 활동, 고물카와 지도권, 폴란드의 군대, 불안속의 청년들 그리고 카톨릭 교회의 위치 등을 소개하고 있다. 에모리 대학 교수이며, 폴란드 "1944—1962:포로들의 소비에트화"의 저자인 스타르(Richard F. Staar) 박사는 폴란드 공산제도와 소련의 그것과의 현저한 차이, 폴란드의 소비에트화 과정에 있어서의 장해, 포츠난(Poznan) 폭동과 항가리 혁명과의 비교, 폴란드의 두개의 예하 정당들의 역할, 유엔에 있어서의 소비에트 자세에 대한 폴란드의 반응, 폴란드와 코메콘(COMECON)과의 관계 그리고 폴란드 군대의 능력 등등을 표사하고 있다.

25. 분렬된 베를린

영화는 동부로부터 베를린 장벽을 넘어 실제로 도망가는 극적인 현장 촬영으로 시작한다. 다른 영화는 베를린의 각 구역, 동서 독일의 경제, 동독일에 있어서의 지도권, 1948년의 봉쇄, 공수, 베를린의 무장, 양군대들

의 정면 대결, 1953년의 폭동, 1960년의 정상 회담의 붕괴 피난민 안식처, 베를린 장벽 건립, 그리고 현재의 정세 등을 그리고 있다.

독일에 있어서의 미국 정책에 관한 전문가이며 란드재단 연구회의 회장인 한스 스페이에르(Hans Speier)는 베를린에 관한 공산주의 자들과의 분쟁에 있어서의 근본적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스페이에르(Speier) 박사는 공산주의 정책의 목표를 논하며 공산주의 자들의 네 가지 장기적인 목표를 조목화하며 왜 문제가 단순히 국부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는가를 시사해 주며 무엇이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서방을 더욱 압박하지 못하게 했는가에 대해서 논평하며 왜 동독일은 베를린 장벽을 건립했는가에 관한 세 가지 이유를 들며 그리고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요망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26. 티토의 유고슬라비아

사진과 영화는 유고슬라비아의 지리적 위치, 티토의 독재시대, 공업들에 대한 노동자 회의의 소유권, 공업의 균형을 결한 발전, 독립적인 농업, 지방 시민 회의들의 모임, 일당 지배, 외국 문학에 대한 비교적 쉬운 접근, 1961년 벨그레이드 중립주의자들의 회의, 대외 무역,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의 장래에 대한 압력 등을 묘사하고 있다.

후버(Hoouer)재단 설립의 고참 간부 위원이며 스탠퍼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미로라드·드라치코비치(Milorad Drachcovitch)는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의 특색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는 전후의 유고슬라비아의 방향을 묘사하며, 티토 대 스탈린 분쟁을 해석하며 티토파의 스탈린 격하 운동에 대하여 논평하며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정체와 기타 위성 국가들 간의 중요한 차이점,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미국 원조의 효과 및 동서 간의 냉전에 관한 유고슬라비아인의 감정들에 분석을 하고 있다.

27. 소련 대외정책

소비에트 대외 정책의 사진으로 된 역사는 공산주의 인터내쇼날, 1922

년 라팔로 회의, 5개년 계획들 간의 사회주의 공업 국가로써의 러시아의 방위 건설, 1934년 불란서와의 동맹, 1938년 뮤니히 난국, 1939년 나치 독일과 러시아의 불가침 조약, 폴란드와 발틱해의 군사 행동, 1941년 소련에 대한 나치의 공격, 전쟁 종식 회의들, 동구라파 및 중앙구라파에 있어서의 군대의 이용, 냉전 동맹들 그리고 후루시쵸프의 10년간 등등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

코롬비아대학 러시아연구소 책임자이며 "러시아에 있어서의 독일의 관습"1941-1945, "유엔에 있어서의 소련연방"의 저자이며 "국제 문제에 있어서의 소비에트의 행동"및 국제 공산주의의 다양성"의 편집자인 알렉산더 달린(Alexander Dallin) 박사는 소비에트 대외 정책과 비 공산국가들의 그것과의 차이를 논하고 있다. 그는 짜아 황제 시대 정책의 연장으로써의 소비에트 정책을 파고 들어 가며 만일 강력한 서방 공동체가 있다면 소비에트 정책은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추론하며, 그리고 소비에트 정책이 현실적이며 합리적인가, 스탈린 사후 뚜렷한 변화가 있었는가 그리고 '공존'이라는 말로 소비에트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간첩과 정보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전망 등을 분석하고 있다.

28. 미국과 소련과의 관계

미국과 소련과의 관계에 대한 선명하고 회화적이며 빠른 속도의 사진으로된 역사는 1918년 러시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간섭, 쿨릿지(Coolidge)대통령의 불승인 강조, 미국 불경기와 Maxim Lituinov사절단의 영향, 모스크바에 있어서의 불리트(Bullitt)대사의 미국 대사관 개설, 러시아와 나치독일 과의 합작에 대한 미국의 반응, 제1차 세계대전 중의 미국원조, 전시중의 회의들, 냉전의 발전 봉쇄에 이르는 여러가지 사건들, 회랍에 대한 미국의 원조, 공수, 나토(NATO)창설, 한국전쟁 '해답', 교환, U-2기 사건, 그리고 분쟁의 미개발 지역에로의 전환 등등으로 시작한다.

하버드대학의 러시아 연구소의 준 연구 회원이며, 후렛처(Fletcher) 의

국제 정치 교수이며 국무장관의 전 보좌관이며, "재평가된 스타린 대회정책"의 저자이며, 공산주의 의미의 고문 편집자인 마샬·슐만(Marshall Shulman) 박사는 냉전의 근본적 원인을 캐고 있다. 슐만(Shullman) 박사는 정치적 경제적 및 군사적 분야에 있어서의 강조의 중요성과 균형을 논하며, 문화 교류의 필요성, 소련과 중공 간의 긴장에 있어서의 미국의 역할, 소련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미국 국내 문제의 무게, 소비에트 대외 정책에 끼치는 소비에트 사회의 영향, 군축에 관한 교섭의 가치 그리고 미국의 장기 목표에 대한 의견 등을 규명하고 있다.

29. 공산주의자들과의 교섭

실제 교섭 회의를 찍은 영화가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이익을 찾아내는 문제, 훈령의 식별, 주안점을 확보하기 위한 압력, 차이점의 해소, 동의를 위한 대중의 압력, 정부의 비준에 있어서의 의견 차이 '원칙상의 동의'의 어려움, 훈령 위반에 대한 반항, 사소한 전환과 변화에 대한 분석, 러시아 단어의 의미에 있어서의 소비에트 변화에 대한 번역 곤란, 물질적 이익관계로 볼 때의 위치 그리고 힘으로써 하는 교섭의 필요성 등등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콜롬비아 대학의 유럽연구소 소장이며 국제관계 연구회에서의 연구에 대한 전 책임자이며 "크레므린과 세계정치"를 포함한 많은 서적들과 논문들의 저자인 모슬리(Philip E. Mosely) 박사는 러시아인들과의 500회 이상의 교섭을 통한 그의 경험, 선택한 단자들의 사용, 러시아인들과의 교섭이 서방 국가들과의 교섭과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계속적인 교섭의 가치 등등을 묘사하고 있다.

30. 공산주의자들 : 평화와 군비축소

그 영화의 첫머리에는 브레스트—리토브스키(Brest-Litovski: 소련의 남부에 있는 지방도시로서 전에는 폴랜드령)에서 레닌식의 '평화'를 '완전한 전쟁도 아니며 완전한 평화도 아닌 상태'라고 설명하는 트로키의 모습, 례노아 회의에 나타난 치테린, 리트비노프와 그가 국제연맹에 제출한

14개 항목의 의제, 및 소련이 유엔에 대하여 제기한 군비축소안 따위가 묘사되고 있다. 그 영화는 또한 평화적 개념에 관해 대중의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작업, 스톡홀름에서의 평화에 대한 호소, 만국평화회의, 모스코의 행진, 제네바 회담, 및 평화 회의를 이용한 선전 공세 따위를 다루고 있었다.

한 때 외국특파원을 지낸 적이 있었고 유럽에 있어서 미국의 소리 방송의 러시아어과의 주임을 역임하고, 레온·트로츠키가 저술한 스탈린의 전기를 번역했고 현재는 남캘리포니아대학의 공산주의 전략 선전 연구소 의 조사위원인 촬드 말라무드씨는 공산주의자들의 평화에 대한 개념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었다. 그는 레닌의 평화에 관한 정의를 분석했고, 평화와 관련된 스탈린의 행동, 평화공존에 대한 후르시쵸프의 태도, 군비축소에 관해서 소련이 취한 태도의 성실성 여부, 평화에 관한 소련의 선전 공세의 의의 따위에 관해서 연구를 거듭했다.

31. 중립주의자와 공산주의자

그 영화에는 소련 관리들이 구식민지 지역을 순방하는 모습,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소련의 지원, 가나와 기니아에 대한 소련의 원조, 아랍국가들에 대한 소련의 친선 공세, 기술 개발 원조, 인도네시아에 있어서의 외교활동, 그 밖에 서구의 영향권을 소련의 영향권으로 대치하고, 서구의 무역권으로 그들이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영화는 또한 1955년에 아아국가들의 반둥회의를 묘사하고, 아세아와 아프리카의 유대를 공고히 하려는 회담, 중국의 경쟁, 인도를 방문한 주은래의 모습, 평화 공존을 위한 원칙, 민족주의를 공산주의로 전환시키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술책 따위가 묘사되고 있다.

뉴·델리에 있는 국제 문제 연구소의 극동의 역사제도과의 주임이며, "극동의 문서"(1947—50), "중국의 대외 정책"(1958—62)을 저술하고"모순에 대한 동일의" 공저자의 한 사람인, 비디아 프라카슈·더트씨는 중립

주의에 대한 인도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그는 중립주의에 대해서 인도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그 밖의 다른 나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의 차이점을 밝히고 중공이 인도의 국경 지대를 공격했던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조성했던 분위기속에서 살아왔다'고 네루수상이 언급한데 대해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그는 또한 비동맹에 대한 생각을 재고케 했던 사태, 미국과의 관계, 및 비동맹정책의 장래에 대하여 연구를 전개했다.

32. 모스크바와 북경의 관계

영화는 또한 1930년대에 있어서 모택동이 소련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노선을 취하려했던일, 중국에 있어서 공산당이 승리했던 일, 1950년에 모가 소련을 방문했던 일, 한국동란에 대한 지원도, 1950년대 초기에 있어서의 소련의 경제 원조, 대만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 제20차 전당 대회, 주은래의 폴란드 방문, 1957년의 모택동의 모스코바 방문, 북경의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후르시쵸프의 모습, 경제관계의 악화, 석유가 상호관계의 지표가 되었던 일, 알바니아의 저항, 및 비개입지역에 대한 문제 따위를 묘사함으로써 여러가지 사물의 상호관계를 밝히려 했다.

스탠드포드 대학에 설치된 '국제적 분쟁과 통합문제 연구소' 소장이며, "소련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 "소련과 극동"(1920-26), "중국에 대한 M.N. 로이의 사명"을 저술했던 로버트 C. 노오드 박사는 중공과 소련의 관계가 악화된 원인의 이면을 캐내고 있다. 그는 양국의 대립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모택동식의 혁명 이론을 논술하고, 소련과 중국간에 혁명의 전략 전술이 서로 다른 점을 밝히고 중국인에 대한 서구인의 우위성과 그 영향을 보여주면서 평화적인 공존의 태도를 면밀히 검토했다.

33. 중국 공산당의 대외 정책

중국이 전통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오던 지역 즉 대만, 한국, 외 몽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버마, 및 인도 등에 관한 그들의 관

심을 들어나게 하는데는 지도, 사진, 영화 등이 이용되었다. 영화는 그밖에도 파키스탄과 캐쉬미르의 분쟁을 해결하는 모습과 1955년의 반둥회의에 대처한 중국의 전략, 외교관계를 인접국가가 아닌 지역으로도 확대시키려는 노력, 유엔의 회원국이 되는데 대한 중공의 태도, 폴란드의 와르샤와를 통한 서방측과의 접촉 등을 묘사하는데 이용되었다.

콜럼비아 대학의 극동 연구소에서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자 국제정세 연구소의 중국 문제를 담당하는 기고가인 동시에 "공산주의 경제 전략 : 중국 본토의 흥망" 및 "적색 중국과 아시아"라는 책의 저자인 A. 도우크 바아넷 박사는 공산 중국의 대외 정책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예의 검토하고 있다.

34. 공산주의 자들의 경제 공세

영화와 지도에서 묘사한 것을 살펴보면, 전체의 외국 원조 중에서 공산주의 국가의 원조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7개 국가의 경우와, 소련 블럭의 원조를 받고 있는 28개국의 실태를 조사한 것과,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계획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에짚트의 아스완 댐은 후진국의 열망을 충족시키는 모범적인 케이스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밖에 장기 차관의 전략도 묘사되고 있으며, 또 다른 영화에는 국영 농장, 석유 개발, 위성국가들의 작용등과 같은 것을 사회주의적 제도의 이점으로 들추어내고, 랜군의 호텔을 전시효과를 노린 원조의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 또 소련의 상표가 붙은 물품, 아프카니스탄 개발계획, 적색기술자들의 동태, 박물관의 이용, 지방당과의 관계, 항공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자는 협정 따위가 묘사되고 있다.

랜드 재단의 경제 전문 분석가이며, 소련의 대외 경제 전략 연구가인 한스·헤이맨 2세는 한 때는 미국의 대외 원조를 비난하던 소련이 어찌하여 대외 원조 계획을 세우게 되었을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또한 소련 원조의 산만성과 집중성을 비교하고 비정치성을 띤 원조의 화장, 원조의

의의와 필요성, 원조에 관한 소련과 그밖의 공산주의 국가간의 대립, 공산권에 있어서 장기 원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제 세력들, 공산주의 국가들의 원조의 성취도와 그러한 공산주의 국가의 원조가 서방측과의 접촉을 어느 정도로 막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또한 원조의 결과 전적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 버린 예는 거의 없으며, 원조를 통해서 공산권에 묶어두려는 전략은 별다른 큰 성과를 걷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35. 공산주의의 선전 기구

그 영화를 통한 연구는 대중의 지지를 동원하려는 선전, 여론에 대한 권력의 영향, 세계 최초의 대규모의 국제 선전 기구, 지식층의 필요성, 전달 매체, 신문, 청년단체, 벽보, 라디오 및 텔레비죤에 의한 침투, 영화 산업에 있어서의 당의 과업 따위를 검토했다.

예일 대학의 정치학 교수이며, 한 때 모스코 주재 미대사관원이었고, "소련이 생각하는 미국" 및 "소련의 문화공세"의 저자인 프레드릭 바아구호른 박사는 미국 정보당국과 비교한 공산주의 선전의 상대적 효과, 공산주의 선전의 약점, 공산주의 선전의 주제,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선전 방법과 기교의 변천, 스탈린 사후에 있어서의 변화, 후르시쵸프 치하의 선전 정책의 상대적 효율성, 미래의 도전 따위를 예의 검토하고 있다.

36. 동남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영화의 처음은 1940년대 및 1950년대에 있어서 말레이의 반공 운동의 활동과 그 결과를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버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의 정세, 및 게릴라전화 해가는 베트남의 모습, 1945년에 있어서의 불란서의 패배, 공산권의 무기, 해안 지방의 접근가능성, 미국의 원조, 촌락의 방위, 정신상태에 대한 전쟁의 심리적인 문제 따위가 다루어지고 있다.

시카고 데일리 뉴스의 극동 지역 특파원이며 한국 전쟁을 다룬 그의 르

뽀르따쥬로 퓰릿처 상을 받은 케이스·비취는 미국이 동남아에 개입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행동과 반동에 관한 우리들의 문제, 동남아 지역에 있어서의 소련과 중공의 분쟁으로 인한 영향, 동남아지역의 대공산주의 관계에 있어서 씨토(SEATO)의 역할, 동남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도, 월남에 있어서의 미군의 투입, 국민에게 신망이 두텁지 못한 정권을 돌보아야 한다는 역설, 인도네시아의 사태에 대하여 취해야 할 태도 등을 그는 예의 검토하고 있다.

37.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공산주의

사진과 지도를 통하여 베네주엘라, 콜럼비아,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브라질, 혼·듀라스, 멕시코 및 큐바에 있어서의 40여년 간에 걸쳐 때로는 세력을 떨치고 때로는미미해지고는 했던 공산당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필림을 통하여, 그러한 영향을 국민적 열망, 반미 감정, 파나마운하 지역의 소요, 원조 세례, 소련과 중공의 개입, 청년층과 노동자에 대한 침투,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사회 구조의 경직성, 지방 군벌의 역할, 사회경제의 변천에 따르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공산당의 영향이 검토되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라틴·아메리카 역사학 교수이며, 한 때 국무성에서 공산주의 및 라틴 아메리카에 있어서의 소련 불력의 작전에 관한 전문가로서 활약했고, "라틴 아메리카의 공산주의"라는 책을 저술한 바 있는 롤리포피노씨는 큐바 이전의 공산삼주의 정부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있어 불사조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공산주의, 소련과 중공의 상대적인 영향, 당의 영도력에 관한 배경, 라틴 아메리카 민족에 대한 공산주의 호소, 남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전략, 표면화해 가는 경향, 및 공산주의가 쇠퇴하리라는 가능성에 관한 전망 따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38. 미국의 공산주의

미국에 있어서 공산주의 역사를 다양하고 생생하며 향수 어리게 담은 영

화는 제1차 세계 대전 후의 미국과 세계의 국제 노동자 회의, 스트라이크의 영향, 마르크스주의에의 영광, 소련을 맹종하려는 데 대한 국내당의 분열, 불경기의 영향, '군대보다 노동자가 더 강력하다'라는 슬로간, 뉴딜 정책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거부—찬성—축출 등의 일관성 없고 변절무쌍한 태도, '국민의 자결권"과 '붉은 가마귀'로 미국의 흑인들에게 접근하려는 시도, 공산 동맹 운동, 모스코재판에 대한 환멸, 인민 전선, 스탈린이 나치와 야합한 데 대한 환멸, 체코슬로바키아의 함락, 월리스 운동의 붕괴 따를 상기시킨다. 국내 정세를 담당하고 있는 연방 조사국의 차장이며, "공산주의와 지성인", "흑인과 공산주의", "우리 학교에서도 공산주의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등 수많은 강의로 명성을 떨친 바 있는 윌리엄 C. 썰리반씨는 미국 공산당이 그 당원의 숫자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획책하고 있는 일들, 미국의 성직자와 공산주의, 공산당의 청년층에 대한 침투, 공산주의와 대결하며 학원의 자유를 조절하는 일,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일 등등을 논의하였다.

부 록(4)

공산주의에 관한 교육상의 주의사항

스탠포드대학 : 전쟁 · 혁명 · 평화에 관한
후버연구소
스태판 · 티 · 파솔오니 (Stefan T. Passony)교수

소련을 논의함에 있어 강의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미국과의 비교의 방향으로 이끌릴 것이다. 그리고 좋거나 그르거나 간에 학생들은 이 분석을 선입견에 의한 유색인종으로의 개념으로 고려할지 모른다. 강사 자신이 만든 역선전이거나 미국 정치조직으로부터 나온 역선전이거나 간에 공산주의 선전에 대항하려고 소련을 연구한다는것은 목적이 될 수 없다. 그주제는 자유세계의 미래에 압도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되어야 하지만, 공산주의에 관해 가르치고 있는 목적은 아직 하나의 교육으로 머물러 있다. 그 교육이라는 것은 마음을 넓혀주고 지식을 증진하고 또 합리적인 기술의 진보를 가져온다. 더 나아가서 능란한 강사의 손으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것은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학문적 연구가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개개의 연구에 깊이 있는 분석이 되게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시초에는 의욕적이다. 그러나 반복된 이후에는 강의하는 사람은 공산주의 면모를 가르치는것이 쉽지 않음을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이중 어려운 점들은 아래와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즉, 공산주의자들 지역에서의 대량 선전, 그들의 적대지역에서의 역선전에 대한 혼해빠진 혼잡한 노력, 문화의 차이점에서의 전망과 가치체제, 그리고 그런 언어의 장벽의 문제, 제반 문헌의 부족과 공산주의 영역에의 접근의 어려움, 그리고 서방 기록과 분석에서의 간격의 문제들을 탐구하는 것 등이다. 그런 환경 아래서는 연구의 결과가 가끔 확고하지 못하고 만일 학생이 의

문을 품는다면, 그 학생이 발견한 사실을 꽉 받아 들여야 할 필요는 없고, 차라리 자신에 대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용기를 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무난할지 모른다.

논의해야 할 방법과 연구문제들 중의 첫째는 참고문헌의 사용과 정치적인 편견으로서의 자료의 평가 그리고 기록의 완벽성이다.

학생들의 주의력은 의미론, 숙어나 단어의 무의식적 오용, 시간이나 장소에 따른 의미의 변화와 감정적인 한계의 이용의 관련성 그리고 논리의 실수에서 유래하는 잘못된 분석 따위의 어려움에 휩쓸릴지 모른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은 해설상의 어떤 훈련에는 열심일지 모른다. 규칙에 관한 논의에서 언행의 불일치는 무시되지 않아야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기록적인 것과 정치적 논조속에서 훈련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전형적인 청중들은 소련의 정책 결정자들의 연설의 변화를 공산당 구성요원의 변화로 해석하는 것 따위가 포함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분석을 통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토론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자들의 공개된 목적은 산업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의 향상에 두어왔다. 강사는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전에 어떻게 목적을 완성하는 가를 보여줄 수 있다. 그것이 일단 이해되면 강사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다른 몇 개의 방법들을 통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인 표준 교과서로 부터의 이론적인 표본과 다른 나라들이 이 과업을 어떻게 감당해 나갔는가에 대한 개개의 실제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해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변화무쌍한 공산주의자들의 각색과 조정과, 성취된 결과들에 의한 해결을 논의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강의자는 방법을 교체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성취한 공산주의자들의 성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인 문제들이 이해된 다음에는 강사는 정치적인 자유, 자유의 선택, 빈번한 폭동, 폭력의 댓가 정치적인 개혁이나 변화의 어려움과 쉬움 같은 것들 안에서의 잃고 얻는 것에 관한 인간적인 가치와 혜택을 지적해야 한다. 이런 모든 점으로 봐서 그 과업은 서방

민주주의 체제의 결점을 좋게 표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해답의 유용성이나 유용성의 결핍을 평가하기 전에 학생들을 설복하려는 것이다.

소련의 정치적인 구조를 논의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소련과 미국의 선거제도(무기명 투표까지)를 비교하는 것은 흥미 있을지 모른다. 러시아 말을 이해 할 수 있다면 선거권에 대한 푸라우다의 십일분의 신문을 받아 들고 반대당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논의 해 볼만할 것이다. 미국 일차 선거의 사실들을 모은 미국 신문과 소련 연방의 각료의 임명을 알리는 소련 신문을 이용하여 계몽적인 비교가 이뤄질 수 있을지, 혹은 이뤄질 수 없을지는 알 수 없지만 만일 연설할 수 있는 자유의 문제가 등장 한다면 어떤 소련 신문이나 미국 신문을 되는대로 비교해도 그것은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같은 날자의 세계적 사건을 다룬 미국 신문과 소련 신문을 비교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두 경제체제의 성과를 비교함에 있어서 미국의 통계학상의 추산과, 유사한 소련의 발표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모른다. 소련의 통계학적인 안내서들이 많은 사람에게 유용하지 않을 때 그것들은 오히려 많은 미국의 도서관에서 발견될 수 없다. 강의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소련의 자료에 관한 정보를 논의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내부에는 소련에서 보다 더 광범위하게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려 주는데 있어서 그리 많은 기본적인 통계학이 필요 하지는 않다. (그런 점에서 상원의 청문회는 유용한 교수재료가 된다. 두 나라 사이의 상세한 통계학적 비교를 가진 바 있다). 이런 종류의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은 발췌와 분석과 자료의 평가에 대한 적당한 비평의 기준에 민감해질 수 있을 것이다.

흔히 강의하는 사람은 미국과 소련의 대외정책의 품위 있는 위치에 관해 논의 하는데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모든 미국의 정책에 동의하거나 소련의 정책을 거절하거나 간에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확실하고 기본적인 문제의 탐구를 알기전에 학생들에게 평가에 대한 질문

을 한다는 것은 항상 효과적인 것도 아니다. 예를 들자면, 정치적 결정에 관한 미국의 정연하게 공포된 광범위한 기록들은 우리의 국무성과 해외 외교관들 사이에 협의된 연례의 서적들이 포함된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수 많은 상원의 청문회록들이 있다. 즉, 발행 된 서적들의 특별한 기록과 국무성 서류 보존함과 국립 공문보존실에 비치된 수 많은 학자들이 쓴 책이다. 이에 대하여 소련은 극히 소수의 기록들이나 발표하고 그것도 그들의 초기의 역사에 관한 것들 뿐이다. 이용할만한 소련 대외정책의 모든 문헌은 소련 대변인의 연설 외에는 특이할만한 것이 없다.

학생은 각 개인의 사생활의 친교를 비교하는 것이 편리하다. 생활의 장소와 방의 넓이, 텔레비죤을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휴가기일의 장단, 그리고 얼마나 자주 여행하는가 등의 문제들 외에 이용할 수 있는 많은 통계학적 자료가 있다. 그런 자료에 관한 생생한 정보는 전기물이나 학급안으로 초청 받아 보고할지도 모르는 철의 장막 내부 국가로부터의 망명객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 예술에 흥미있는 자들에게는 예술적인 가치 때문뿐 아니라, 그 속성 때문에 소련 문학의 토론이나 미술과 음악의 토론은 역시 계몽적일 수 있다. 두 교육체제와 미국과 소련의 교수법의 차이점에 관해 논의 할 때, 주제의 선택이나 학생들의 취급, 그리고 상과 벌도 간과 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강의하는 사람은 러시아 국민이나 소련연방이나 중공의 특성으로부터 나오는 공산주의 체제의 특성을 뚜렷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런 완전한 분석 후에 대부분의 미국사람들이 어떤 특수한 양상에 대하여 옳게 인식하게 되고, 소련의 모든 체제가 극히 강압적이고 전체적으로 보아 비 생산적이며, 시대에 뒤떨어졌음을 동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체제가 만일 강압적이고, 소련 연방이나 중공이나 동부유럽의 국민들이 그 강압적인 체제로부터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모스크바가 국가적 이익을 보호한다고 (소련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거나 그르거나 간에) 소련 국민이 정부에 반대하고 비

애국적이고 모반을 일삼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국인과 러시아인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과 코카서스인 및 중앙 아시아의 국민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진보하려 하고 그들의 미래에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것은 또한 소련연방에서의 많은 발전은 개성적인 러시아 국민의 용기나 이상에 힘 입었고 소련 안에서 거주하는 많은 다른 국민들의 창조력에 기인했음을 의미한다. 소련 정부는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위대한 예술을 압박하려고 최악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파스테르나크(그의 걸작이 아직 소련에서 출판되지 않았지만)는 그가 무엇을 보고 공산주의의 수치를 어떻게 보았는가를 진실하게 말했으므로 러시아 문화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소련에는 최근에 러시아 국민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다른 시인들과 작가들이 있고 우리 미국인 만큼, 자유를 존중하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에 있음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소련 국민은 오랫동안 독재적인 체제 밑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유를 그리워할 것이고 자유의 결점만을 보아 온 우리가 습관적으로 젖어 온 것 보다 더 심각하게 자유를 희구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신념을 새롭게 하는 그런 분석 밑에 민주주의의 진보를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관점 위에 공산주의 체제를 연구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비매품>

정간위 제26—5—169 심의필

1970년 12월 25일 인쇄
1970년 12월 30일 발행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발행처 : 국 토 통 일 원

인 쇄 : 서울인쇄주식회사